흉측한 것들로 뭉쳐진 뱀들은 지고한 왕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물어뜯고자 독니를 치켜세웠다. 그림자보다 짙은 색의 옷은 닿는 것만으로도 피부를 녹일 강한 독에 젖어들고, 살 위로 피를 원하는 날카로운 것들이 우악스레 파고들었다. 그럼에도 왕은 고요히 서 있었다.

"..."

그의 눈은 어둠이 부스러져내려 찌꺼기 따위로 침잠한 듯 깊게 가라앉아 완전히 죽어있었다.

"..."

손짓 한 번이면 되었다. 그 모든 것의 생을 종결시킬 능력이, 그 작은 움직임에도 충분히 담길 수 있었다. 그러나 왕은 반응하지 않고 조용히 침묵했다. 그저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다.

먹빛 구름이 뿌리를 내린 하늘. 제 낯빛 만큼이나 어둡고, 고요한.

'왕이시여…부디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이번만큼은, 쉐이파디아께서 응답해주실 것입니다.'

늙은 집사가 기도와 같은 간절함을 담고 중얼거리던 소리를 떠올렸다. 왕은 그 앞에서 내뱉고 싶었던 한숨마저 삼켜 제 어깨에 짊어졌다.

무거운 발을 옮겨 내딛는다. 쿵 쿵 바닥을 저미는 소리가 크다.

"끼이익,"

뱀의 발버둥에 기어코 붉은 원들이 왕의 발치를 따라 바닥에 새겨졌다. 잠잠하던 그의 그림자가 출렁거렸다. 주인의 선연한 핏내를 맡고 이지를 잃은 짐승은 눈 깜짝할 새 튀어나와 꾸물거리는 덩어리들을 죄 물어죽였다.

"..."

감흥 없이 그 광경을 바라보던 왕은 뺨에 튄 피를 닦아낼 생각도 하지 않고 문을 열었다.

열 여섯 왕. 쉐이파디아에 의해 태초에 만들어진 존재. 그러나 그들은 모두 똑같은 존재가 아니었으며, 시초 때부터 구분되었다. 신이 세상을 만들고 직접 빚어 만든 존재가 넷. 그들은 타인에 의해 '최초의 왕'이라 칭함 받았고, 16년 이후 신이 음성으로 만든 존재가 열 둘. 그들은 '두 번째 왕'이라 불리게 되었다.

'두 번째 왕'들은 대개 열등감을 가졌다. 쉐이파디아가 '최초의 왕'에게는 다른 피조물보다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하고 주었기 때문이지만, 최초와 두 번째라는 순서 자체가 그들에겐 뛰어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진 것이다. 그 결코 좁혀질 수 없는 벽에 집중할수록 두 번째 왕들은 탐욕스러워졌다. 비열해지고, 천박해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일단 자신들 내에서 서열을 세우고, 종래에는 최초의 왕에게까지 그 잣대를 들이밀다가 한 명, 단 한 명이나마 자신들의 아래로 끌어내리는 데 성공했다.

"또 모습을 드러내다니."

"저 핏자국은 뭐람? 비천한 것들을 다스리는 왕이라 그 꼴 또한 비천하기 그지없어."

빛이 닿는 순간 꺼멓게 먹어버리는 검은 기둥 위. 핏빛도 태양빛도 아닌, 생포도즙으로 적신 듯한 긴 머리카락. 그 정돈되지 않아 덥수룩한 것 아래로 빛을 잃은 은색의 눈동자가 공허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위카이사의 왕, '침묵하는 자'.

신의 손으로 빚어져, 신에게 선택의 의지를 허락 받은 '최초의 왕'.

"..."

그는 으레 그러하듯 자신이 등장하자 쏟아지는 조롱에도 침묵하였다. 코를 부여잡거나, 낄낄거리며 억누르고 짓밟는 쾌감에 사로잡힌 더러운 이들의 희롱에도 그는 고요하게 서 있었다.

뺨에 검붉은 액체가 말라붙은 것은 몹시 기이한 느낌을 주었으며, 그 날렵한 체구를 감싼 검은 옷은 기둥과 같이 장식이 없어 몹시 단조로웠다.

최초의 왕 답지 않은 자야.

최초의 왕 중 오직 그만이, 열 여섯 왕 전체를 통틀어도 오직 그만이, 멸시받고 있었다.

두 번째 왕들이 그를 비천히 여기는 이유는 억지였다. 신에게 다스릴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배 받은 그는, '버림 받은 것'과 '사라진 것'을 택했다. 두 번째 왕들은 그것을 쓰레기라 칭했고, 열등감에 얼룩져 '쓰레기의 왕'이라 매도하였다.

"…온 세상에서 버려진 것들을 주워 키우니, 그 악취가 나지 않겠나."

조금의 감정도 없이 텅 빈 동공은 무생물의 것에 가깝다.

"어찌 저런 자를 최초의 왕이라 할까."

오늘의 의식이 가장 신성한 수인 16번째가 아니었더라면. '침묵하는 자'는 아무도 들을 수 없는 한숨을 잠자코 내쉬었다. 희망은 항상 부질 없고 덧없었다.

"..."

그럼에도 저버리지 못하는 자신이 우습기 그지 없지만. 이번만큼은 쉐이파디아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그를 제외한 모든 최초의 왕들이 신의 선택을 받았다. 그것은 두 번째 왕들이 그를 아래로 끌어내리는 데 합리적 근거가 되기도 했다. 신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신에게도 버림받은 최초의 왕.

온 힘을 다해 인내하는 그에게 목소리들이 속삭이길,

"이번에야말로 선택 받으리라 생각했나."

"과연 그러할까? 모두가 경멸하는 자인데."

"신도 그를 버리셨지."

"악취의 왕."

"쓰레기들 위에 성을 세워봤자…"

깔깔깔.

가장 고결해야 할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천박했다. '침묵하는 자'는 무료한 눈동자를 들어 곧 입을 벌리게 될 바닥을 바라보았다. 그 애타는 속내는 깊숙이 묻혀져 그 누구도 볼 수 없다. 오직 그림자만이 거칠게 울렁거리며 폭발할 듯 그르렁거릴 뿐이었다.

환한 빛 속에서 웅크려있던 리자는 부드러운 손길을 잡고 잠에서 깨어났다. 다시 태어난 것만 같이 낯선 세계는 그녀를 무지하게 만들어 한없이 거대해보였지만, 중년 여인의 모습을 덧댄 신은 덧없이 상냥했다.

"안녕, 리자."

수면 아래 묻혀있던 이름은 신이 지명하자 선명해졌다. 환한 웃음으로 답하며 리자는 그 때부터 모든 것을 신과 함께 했다.

터무니없이 다정한 신.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셰이파더'라 알려주며, '셰이'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주었다. 따뜻하고, 부드러워 한없이 그 옆에만 머무르고 싶은 안정감.

어디든지 셰이가 가는 발걸음을 쫓았다. 흰 꽃이 잔뜩 핀 초원, 밑바닥까지 투명하게 드러낸 호수, 굳이 그런 아름다운 장소가 아니더라도 황폐하여 속살까지 뿌옇게 비틀린 대지, 피가 낭자하고 시체가 널브러진 전쟁터 따위라도 셰이가 가는 곳이면 따라갔다.

그녀의 모든 일을 보고, 모든 말을 들으며, 그녀가 알려주는 것이면 무엇이든 배웠다.

"선물을 줄게."

어느 날 새벽녘 달빛을 받으며 개화하는 꽃을 같이 바라보던 그 순간에, 찬란한 웃음과 함께 셰이는 약속했다. 리자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하여 답할 말 또한 알지 못했지만. 마치 어린아이처럼 들뜬 미소를 짓는 셰이는 처음이었으므로 마주 웃었다.

적당한 때가 이르자, 셰이는 리자를 자신의 자녀들 중 한 명에게 선물로 보낼 것이라고 말하였다. 리자는 놀람이나 당황함 없이 받아들였다. 셰이가 자신에게 불행한 결과를 허락치 않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 때문이었다. 셰이는 그런 그녀를 보며 빙긋이 웃곤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겠노라 꿈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

리자는 현명하다. 신은 그것을 알고, 리자는 망설임 없이 바로 답했다.

“현명한 판단을 할 기회를 주세요.”

그것이 그녀의 진실한 소원이었다. 신이 진실조차 꿰뚫지 못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 젊은 여인의 모습으로 태를 바꾼 신은 웃음을 터뜨렸다. 만족함 또는 기쁨으로 그득했다.

“리자는 정말 지혜롭구나.”

“감사합니다.”

“좋아. 그렇다면 왕들의 본성을 보게 해줄까?”

“네?”

그 말은 자신의 소원만큼이나 모호했기에 리자는 눈을 굴리며 고민했다.

“음…?”

“말이 어렵니?”

“약간요. 쉽게 말하면, 제가 영혼을 만난다는 건가요?”

“비슷해.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 음, 그래. ‘내’ 앞에서의 모든 존재들은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지. 나는 잠깐이나마 네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거란다.”

얼추 이해한 리자는 잠깐 고민했다.

“어떻게 할래?”

“보게 해주세요.”

신은 환한 웃음과 함께 권능을 행하였다. 빛이 눈부시게 퍼졌다.

눈을 떴을 때, 리자는 거대한 황금 궁전을 앞에 두고 있었다. 눈이 부실 정도로 태양처럼 빛나는 광채.

“어마어마한 곳이구나.”

그렇지만 아름다워 보이진 않았다. 리자는 걸음을 옮겨 안으로 들어갔다. 눈 닿는 모든 곳이 장식 되어 있었다. 강박적인 정도의 화려함이었다. 그녀는 보물 더미 위에 앉아있는, 조금 더 곱게 포장하자면 여러 보석으로 점철된 보좌에 앉은 이를 발견했다. 왕은 여러 보석으로 점철된 보좌에 앉아 고기를 뜯어먹고 있었다.

보석이 주렁주렁 달린 망토, 머리 위 반짝이는 황금왕관과 목에 걸린 황금 목걸이. 그 외에도 맨 살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왕은 허황된 치장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겉모습으로 판단할 순 없지. 그녀는 인사를 하고자 가까이 다가갔다.

리자를 발견하자 왕은 고기를 허겁지겁 먹던 자세 그대로 오만한 웃음을 지었다.

“안녕하…”

“뭐냐, 당장 예를 차리지 않고!”

리자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고개를 높이 쳐들고 깔아보는 시선.

“내 발에 입 맞추고, 경의를 표하라.”

“…네?”

단 한 번 되물었을 뿐인데, 순식간에 얼굴을 일그러뜨린 왕은 손에 들려있던 고기를 그녀에게로 던졌다. 갑작스런 행동에 리자는 깜짝 놀랐다.

“건방진 년! 짐이 말을 반복하게 만들다니!”

세상에 저런 사람이 존재할 수가 있나?

황당해하는 리자에게 왕은 핏대가 바짝 선 상태로 네 년의 목을 따겠다는 둥의 대사를 내뱉었다. 귀를 아프게 만들고 불쾌한 기분을 느끼게 만드는 거친 목소리.

그를 뒤로 하고 공간을 빠져 나왔다.

두 번째로 도착한 곳은, 눈을 채 뜨기도 전에 끔찍한 냄새가 났다. 공기 한 가득 피비린내. 깊은 혐오감이 해일처럼 덮쳐드는 기분이었다. 들어온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자극적인 냄새는 머리까지 올라와 어지럼증을 유발했다. 리자는 머리를 부여잡으며 눈을 간신히 떴다.

“…”

검은 먹구름이 집어삼킨 하늘과 뿌옇게 일어난 붉은 안개. 마치 지옥을 연상시켰지만, 그보다 훨씬 더 괴랄한 제 앞의 광경에 그대로 굳었다.

잔인하게 훼손된 시체가 산을 이루고 있다. 절단되었으면서 여전히 꿈틀거리며 몸부림치는 누군가도 있었다. 전쟁터를 가보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그 때는 셰이와 함께였다. 오직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는 지금으로선 마음 속 깊숙하게 공포감이 다가왔다.

부들 떨리는 몸을 두 손으로 껴안고 시선을 돌렸다. 왕일 한 남자는 저 꼭대기에 있다. 시체들을 밟고 정점에 선 채 칼을 휘두르며 또 다른 시체를 만든다.

아무렇지도 않게 생명을 내동댕이치는 왕. 바닥에 점철된 살점들과 고통 어린 신음.

“우욱…!”

구역질이 올라와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저 왕의 눈은 마주치고 싶지도 않았다. 이렇게 쉬이 생명을 강탈하는 살인자라니... 인기척을 느낀 왕이 뒤돌아보려할 때, 리자는 재빠르게 도망쳤다. 온 몸이 떨리었다.

모든 왕들이 이런 미치광이들뿐 인가. 셰이와는 놀랍도록 정반대인 두 왕을 마주치니 이제 다음왕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두렵기까지 했다. 그녀는 주춤주춤 발걸음을 옮겼다. 세 번째 왕, 당신은 날 어디로 인도할 것인가. 내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려는가.

눈을 떠야 함을 알았지만 어떤 광경을 볼 것인지 두려워 잔뜩 긴장했다. 몸을 움츠린 채 이곳이 어디일지 예상하려던 그녀는 셰이의 손길만큼이나 부드러운 바람이 저를 훑자 천천히 눈을 떴다. 청량한 냄새. 저를 잠에서 깨웠던 이의 목소리만큼이나 포근한 공기.

"여긴?"

청명한 하늘, 발을 딛기도 전에 숲의 특유한 향이 대답 대신 리자를 반겼다. 리자는 두리번거렸다. 아, 이곳은 셰이가 그려낸 곳이구나. 어딜 보더라도 아름다웠다. 투명한 햇살이 나뭇잎 새로 만든 청량한 조명. 바스락, 바스락, 나뭇잎이나 풀잎 따위의 녹빛과 옷깃이 스칠 때마다 시원한 음으로 귀가 젖어들었다. 리자는 한 발짝 한 발짝 내딛었다.

"..."

기묘한 기대감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설렘이 한 구석에서 피어난다. 나무 사이로 정갈한 오두막집이 있었다. 작지만 예쁜 꽃밭, 여러 종류의 채소가 나란히 심겨진 텃밭. 집 앞 허름한 나무 벤치에는 조그마한 아기 사슴이나 토끼가 귀를 쫑긋이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고, 지붕 위로는 새들이 모여 저마다의 목소리로 재잘거리고 있었다.

"누가…"

살고 있나? 동그란 눈동자에 호기심이 비쳤다. 그녀가 몇 발자국 더 다가갔을 때,

"…!"

끼익 나무문이 열렸다. 멈칫한 리자는 재빠르게 나무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자신도 모르게 나온 행동이라, 자신이 무엇을 했는가 깨닫곤 얼굴이 새빨개졌다. 그러나 누군가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오자, 그녀는 멈칫하곤 조심스럽게 얼굴을 내밀었다.

"…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정갈하게 묶인 길다란 머리카락이었다. 그 색은 붉음도 검음도 아닌 것이, 오래 숙성시킨 포도를 짜내야 나올 법한…음, 당최 설명하기 힘든 종류의 것이었다.

'남자'가 뒤돌았다.

"…"

그 얼굴에 한 가득 담긴, 아이처럼 순수한 웃음. 나무를 디딘 손에 꾸욱 힘이 들어갔다. 다 큰 남자가 저렇게까지 맑게 웃을 수 있나? 바람결을 타고 남자가 작게 웃는 소리가 그녀의 귀를 간지럽혔다. 아, 아기 동물들이 왜 귀를 쫑긋거렸는지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았다. 깊고 풍부하여 묵직한 악기가 연주하는 것처럼, 듣기 좋은 목소리.

아기사슴의 머리를 쓰다듬는 손길이 다정했다. 연약하고 어린 것을 향한 눈동자는 은빛으로 영롱하게 빛날 뿐더러, 셰이를 닮은 부드러운 온기가 묻어있어서 마음 한 구석이 묘하게 일렁거렸다.

꾸욱, 이상한 느낌을 주는 가슴을 누르곤 고개를 돌려 나무 기둥에 온전히 몸을 기댔다. 왕일까? 왕이겠지? 비로소 정상적인 왕을 보았기에, 그래서 이런 느낌이 드는 걸까? 아냐, 그렇다고 치기엔...

빨개진 볼을 꾹 누르고 고개를 도리도리 저었다. 깊게 생각하진 말자. 그녀는 이 왕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다.

"누가…"

급작스레 마주친 눈동자는 동시에 커졌다.

"…아, 음,"

얼마나 놀랐는지 머릿속이 하얗다.

"…어,"

입을 벙긋거리만 하는 그녀처럼, 아니 오히려 남자는 그 이상으로 당황스러워 보였다. 화르륵, 마치 불이 붙는 것처럼. 얼굴 전체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귀 끝부터 목까지 붉은 것이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그 현상이 얼마나 기이했던지, 갑작스러운 만남에 당황했던 그녀가 잠깐 제 감정을 잊을 정도였다.

"…그, 어...아,"

심지어 그녀보다 더 심하게 말을 더듬었다.

"...미…미안하다."

덩치가 그녀보다 훨씬 큰 남자가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결국 순박하게 사과한다. 대체 무엇에 사과하는지 그녀는 알 수 없었지만.

"풋,"

그것은 정말이지, 낯설음이나 놀람을 넘는 귀여움이라서 그녀는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눈이 휘둥그레진 남자가 뻣뻣하게 몸을 굳혔다. 남자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정확히는 못했다는 표현이 맞았다. 우물쭈물거리며 입을 열려 했지만, 결국 소리를 내지 못하고 닫아버렸으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답답해했겠지만, 리자는 개의치 않았다.

"..."

쏴아아

숲내음을 아스라히 담은 바람이 불었다. 침묵이 꽤 길어졌지만 리자는 전혀 어색함을 느끼지 않았다. 남자에게서, 이 왕에게서 기묘한 안정감이 느껴졌으니까. 마치 처음부터 아는 사이였던 것처럼, 그것도 아주 친밀했던 것처럼 조금의 불편함도 느껴지지 않았다.

"..."

자꾸만 남자에게로 흘러가는 생각을 돌렸다. 셰이. 이 왕은…,

"이름이 뭔가요?"

입이 저도 모르게 움직여 자연스럽게 나온 물음이었다.

"…!"

몸을 크게 움찔거린 남자는 휙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소처럼 순한 눈동자. 은색의 영롱한 눈동자는 새벽별처럼 빛났다. 자신도 모르게 흐르듯 유려한 미소를 짓자, 그가 재빠르게 다른 방향으로 얼굴을 돌렸다.

"..."

남자는 쉽사리 답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끈기 있게 기다렸다.

"...아고."

몇 번이고 마른 세수를 하고, 입을 달싹거리던 남자가 한참 후에야 답해준 말이었다.

"아고,"

그녀는 바로 그 목소리를 따라 이름을 불렀다. 입 안에 굴려지는 울림. 꽤 부드럽다. 남자, 그러니까 아고는 그녀의 부름에 목까지 빨개졌다. 그 모양새를 곁눈질하다가, 그와의 키 차이 때문에 느껴지는 한계에 조금 민망했지만, 그를 똑바로 마주보았다.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지자 그가 주춤주춤 얼굴을 들었다. 덕분에 그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 날카로운 턱선이나 오똑 솟은 코, 커다란 이목구비 때문에 화려한 이미지...였을 법한데, 강아지처럼 축 내려간 눈꼬리 때문에 그의 전체적인 인상은 순박했다.

그녀의 세밀한 관찰에도, 그는 예상 외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시선을 계속 마주쳐왔다. 할 말이 있는 듯이. 그러나 입을 열지 못하고 단념해버리는.

아, 그녀는 금세 그 의미를 깨달았다.

"저는, 리자에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 그녀의 이름을 물어 봤을 것이다. 리자, 리자. 나지막히 웅얼거리는 소리가 두어번 들리기에 작게 미소 지었다.

"…"

서서히 다리가 아파지기 시작했다. 리자가 다리를 번갈아 움직이며 저리는 표시를 내자, 아고는 조심스럽게 들어가서 앉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물론 리자에겐 감사한 일이었다.

"혼자 사나요?"

작고 아늑한 오두막집. 도르륵 큰 눈을 굴리던 아고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파더'와 같이 산다고 그는 짤막히 답했다.

"파더는 어디에…"

"...내가 잠든, 사이에...어딘가로..."

“그렇군요.”

‘파더’가 누굴까? 왜인지 셰이가 떠올랐다. 마침 셰이의 이름이 ‘셰이파더’이기도 하고. 이런 저런 생각을 끌어안고 집 내부로 발을 들였다.

내부는 꽤 넓고 깔끔했다. 없는 듯 은은하게 맡아지는 향취. 아고의 첫인상과 몹시 닮았다.

"여기..."

그는 그녀에게 푹신한 방석이 깔린 의자를 내어주었다. 그녀가 앉자마자 조금 급한 모양새로 쿠키를 꺼내왔다. 하나 집어 들자 아직 따끈따끈했다.

"직접 구운 거에요?"

깜짝 놀라 물어보자 귀 끝이 발갛게 변해서는 끄덕끄덕. 웃음을 터뜨리려다가 꾹 참고 입 안에 넣었다.

"어…"

맛있어. 토끼가 귀를 쫑긋 세우는 것처럼 회색 눈동자가 둥그렇게 뜨여서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한 손으로 입을 가리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그의 솜씨에 감탄을 보냈다. 역시 이번에도 빨간 귀 끝을 달고는 끄덕끄덕.

"..."

정말이지, 귀여운 사람이야.

분위기는 고요하더라도 몹시 편안했다. 아고가 원체 신중한 성격이라 시간에 비해 많은 말을 나눌 순 없었지만, 그래도 오래 아는 사람처럼 깊이 있는 대화였다. 첫 만남에 이런 교류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몹시 놀라웠다.

“리자, 돌아오렴.”

셰이가 그녀를 불렀다. 깜짝 놀라 창문 밖을 바라보니 나무의 그림자였던 것이 번져서 어둑어둑해져 있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다니. 리자는 당황했다.

셰이의 부름은 그녀만 들은 것이 아니어서, 아고는 앉아있던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조급한 걸음으로 분주히 움직이는 아고의 너른 등을 보며 리자는 이런 저런 생각에 잠겼다. 첫 번째 왕과 두 번째 왕을 볼 때는 전혀 들리지 않던 셰이의 음성이었는데, 더군다나 열 여섯 왕이니 이제 열 셋이 남았음에도 셰이는 ‘돌아오라’고 말했다. 마지막인 걸까?

"아고,"

이제 헤어질 시간이네요.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이번엔 그녀가 쉽사리 말을 꺼내지 못했다. 아고는 비록 풀이 죽은 분위기였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 노력하는 기색이었다. 억지로나마 웃고 있었으니까. 리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걸음을 옮겼다.

사실 다른 왕을 더 만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근거 없는 확신이었다.

부스럭거리는 무언가를 쥔 아고가 따라 나왔다.

"...이거,"

그의 커다란 손에 맞지 않게 꼼꼼하게 리본으로 묶은 봉지. 먹먹한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다가 받아들었다. 다정한 눈동자를 지닌 남자를 올려다보며 리자는 입술을 꾸욱 깨물었다.

"...음,"

"...리자,"

묵묵히 내려다보던 아고가 뜻밖에 먼저 입을 열었다.

"네."

붉게 상기된 얼굴로, 아고는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다음에...,"

"…"

"꼭…보자."

"…그래요, 우리.“

‘우리’라니. 리자 스스로 써놓고도 당황했다. 먼지처럼 빛이 옅게 흩날렸다. 셰이가 그녀를 부른다. 아고가 무어라 말하려 입을 열다가 다시 꾸욱 다물었다.

그는 웃었다. 햇빛 아래에서 처음 본 그 순수한 웃음. 사라지기 전까지, 시선에 닿지 못할 그 끝의 끝까지 아고는 환히 웃었다. 덜덜 떨리던 그의 주먹을 발견하고 리자가 무어라 입을 열려 했을 땐.

"리자,"

흐뭇하게 웃고 있는 셰이가 있었다.

"셰이,"

"잘 다녀왔니?"

어린 아이처럼 답 없이 얼굴을 부비적거리자, 웃는 소리가 들렸다. 속이 심란했다. 참 이상하지. 만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부터 그리운 기분일까?

"셰이,"

"응?"

그는, 아고는..., 아. 아스라한 빛 사이로 반짝이며 빛나던 그 미소가 왜 자꾸 떠오르는 걸까.

"…"

결국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설명할 수 없는 기분, 생각, 그리고 감정.

"아고는 어때?"

"네?"

당황해서 눈을 깜빡였다. 셰이는 빙긋 웃었다.

"답하지 않아도 돼."

"음..."

당황한 얼굴로 바라보자, 머리를 쓰다듬는 손길이 퍽 다정했다.

“다른 왕을 더 보지 않아도 되겠니?”

“이미 아시고 부르셨잖아요.”

셰이는 웃으며 안다고 답했다.

“네 마음이 너무 확고하게 결정하더라고.”

“음...그렇긴 해요.”

바로 깨닫지 못했지만. 다른 왕들을 더 만나는 건 오히려 시간낭비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혹은 아고와 계속 비교를 한다거나.

“다시 만날 수 있겠죠?”

“그렇겠지? 다만, 네가 아는 그와는 조금 다를 거야. 널 못 알아볼 거고.”

“네?”

“왜냐하면, 네가 만난 아고는 현실의 아고가 아니거든. ‘진실’은 맞으니 걱정하지 말고.”

방금 전 아고를 떠올렸다. 셰이가 먼저 리자의 마음을 눈치챘지만, 그래, 그녀는 남은 열세 명을 더 만날 것도 없이 기이할 만큼 확고한 믿음으로 이미 그를 선택했다. 이 이후에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리라곤 생각할 수도 없이. 어쩌면 더 좋은 사람이 있다 한들 그래도 이 사람이 좋다고, 그렇게까지.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얼굴이 상기된 것을 리자는 알지 못했다. 셰이는 웃으며 리자가 가장 바라는 답을 들려주었다.

"곧 만날 거야. 네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고, 곧 만나요, 우리.

때가 다가오고 있었다. 눈을 뜬 그 순간부터 지금껏 함께 해왔던 셰이와 헤어지게 될 시간이.

리자는 세 왕들을 만나고 난 이후 여태껏 ‘마음이 아릿한’ 기이한 느낌에 사로잡혀있었다. 셰이가 아고에 대해 이야기를 해줄 때마다 그 애매모호한 고통은 점점 더 마음에 번져나갔다. 언제 만나게 될까 막연히 기대하고 있었지만 막상 셰이와 떨어지게 되자, 셰이의 말대로 ‘벌써?’란 생각이 들었다. 그녀가 생각한 것보다 빨랐다. 아니, 사실 리자는 셰이와 헤어질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던 것이다.

불안함으로 눈을 굴리는 리자의 머리를 셰이가 토닥였다.

“걱정하지 마. 보이지 않아도 함께 있으니까.”

리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잔뜩 풀죽은 기색에 셰이가 곤란한 표정으로 웃었다.

“리자, 아고는 지금 네가 필요해.”

“네?”

“상처가 많은 아이야. 그럼에도 다정하고 착하지. ‘버림받은 것’, ‘사라진 것’을 거둬들인 것은, 외면하지 못했기 때문이거든.”

“네. 셰이가 전에 말해주신 거 기억하고 있어요.”

“응. 그래. 그 때 우리가 그렇게 말했지. 아고는 그렇기에 ‘최초의 왕’ 임에도 비웃음을 당하고 있다고. ‘버림받은 것’이라는 건 주로 쓸모 없어서 버려진 쓰레기를 연상시키니까.”

“네.”

“그 때 너는 뭐라 말했지?”

때로 사람들은 가치를 전혀 모르고 버린다고, 그렇게.

“응. 역시 리자라고 내가 칭찬해줬잖니? 내가 지금껏 그들에게 주려했던 어떤 선물보다 네가 가장 귀하단다.”

셰이의 칭찬에 리자는 괜히 얼굴을 숙였다.

“아고를 잘 부탁한단다.”

“네?”

“너라면 그 아이를 충분히 보듬어 줄 거야.”

리자는 셰이의 눈에서 자신을 향한 신뢰감을 느꼈다. 부끄럽게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부산스럽던 마음이 평안해졌다.

“이제 갈까?”

“네.”

준비되었어요.

길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빛무리가 천천히 공간 안에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아직은 아주 느리고 옅은 정도여서 아무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다만 굶주린 쥐새끼들과 같은 두 번째 왕들은 물어뜯기에 바빴다. 유일하게 참을성이 있는 첫 번째 왕, 아고를 저열하게 희롱하면서. 그들은 온갖 오만한 착각에 빠져 쾌락을 느꼈다. 아주 오랜 세월 반복되었던 일이라, 그들은 여전히 조금의 기시감도 느끼지 못하고 관성을 따랐다.

"…"

꿈틀. 꺼멓게 가라앉아 있던 회색 눈동자는 음울한 기색을 띄기 시작했다. 지겹다. 덩굴마냥 잡초마냥 뜯어내어도 지독하게 진득하게 파고드는 모든 것들이. 아…싹을 잘라낼까.

시덥잖게 구네. 날파리보다 하찮은 것들아.

속에 있던 검은 것이 웅얼거렸다. 아고는 으레 그러했듯 대꾸도 하지 않았지만, 너무나도 오래 흐른 세월이 짐승의 입에 물린 재갈을 낡게 만들었기 때문일까. 순간 스쳐지나가던 눈빛은 몹시 위험한 범주에 속했다. 기묘한 충동은 너무나도 쉽게 그를 타고 올라가서 금세라도...

까드득, 심상치 않은 소리였다. 딱딱한 돌을 파고든 손가락이 바르르 떨리며 파괴적인 격렬함을 참아내었다. 그는 안간힘을 다해 참아냈고, 이 검은 것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심연보다 더 깊게, 처형대 이상의 단호한 끝을 보일 것을 기억했다.

안 돼. 절대 안 된다. 안간힘을 다해 떨쳐내었다.

"하아..."

아무도 모르게 흩날리는 희미한 한숨과 또 한 번의 생살을 자른 인내. 스스로에게, 오직 자신에게만 엄격한 구속구를 채우며 스스로를 잠재웠다. 열여섯 번째 의식이라 그러한가. 자신이 평소와 다름을 느꼈다. 두 번째 왕들이야 이미 익숙했으니 이렇게까지 기민하게 반응할 줄은 몰랐다.

자신을 돌아보았다. 대체 왜 이렇게 요동하고 있는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도 모르는 떨림이 그의 속에서 바르작거리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래, 원인도 모르니 자꾸만 불안해진다. 초조함? 그것도 맞는 이야기고. 이 처음 맞이하는, 설명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감정에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그는 아는 바가 없었다.

"…오!"

"최초의 왕이다."

그 때 화려한 광채. 형형색색의 물이 아래로부터 솟구쳐 올랐다. 두 번째 왕들은 그 주인공을 유추해내며 감탄을 보냈다. 물들이 모여 만든 거대한 파도가 기둥을 완전히 휩쓸었고, 맑게 빛나면서 아래에서부터 세찬 물회오리가 생겨났다. 촤악! 회오리가 만든 구멍 사이로 비죽 물고기 꼬리가 튀어 나와 헤엄질을 하였다. 사파이어와 금을 그대로 갈아 만든듯한 녹금빛 비늘. 기둥보다 거대해보이는 크기.

"역시."

"위라세이타의 왕인가보오."

"열여섯 번째라 참가한 건가?"

곱슬거리는 녹색 머리카락은 풍성하고 아름다웠다. 찬사를 즈려밟고 나타난 왕은 최초의 왕, 위라세이타의 '흐르는 샘'. 세계의 모든 강과 하늘에 맞닿아 있는 바다, 물 속 열 개의 섬을 다스리는 위대한 자.

그가 그린 듯 우아한 미소를 짓자, 과연 최초의 왕 답다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퍼졌다. 경탄과 선망의 눈빛.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아고에게 시선이 가자, 그 눈초리들은 바닥으로 떨어져 경멸과 저주 따위로 바뀌었다. 같은 최초의 왕임에도 반응이 확연히 달랐다. 같은 최초의 왕인데, 그 위엄이 이토록이나 다르기 때문이라고 두 번째 왕들은 멋대로 합리화했다.

"오랜만이네."

'흐르는 샘'은 오직 '침묵하는 자'에게만 인사를 건네었다.

"이스다,"

"...하,"

꺼멓게 죽은 눈. '흐르는 샘'은 실소를 터뜨렸다.

"여전하군."

"…"

"조용하고, 음울하고, 어둡고."

'침묵하는 자'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대답을 요구하는 말이 전혀 아니었으므로 '흐르는 샘'은 시선을 돌려 다른 왕들을 쭉 훑었다.

"…나참."

속이 불쾌했다. '최초의 왕'의 의미조차 알지 못하는 두 번째들이 최초의 왕을 저들보다 동격인 것도 모자라 아래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 그러나 그것엔 분명히 '침묵하는 자'의 태도도 한몫했다.

"대체 왜 '힘'을 쓰지 않는 거지? '침묵하는 자'라는 이명을 지키려고?"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

"지겹도록 여전해."

결국 '흐르는 샘'은 그를 한심하게 여기며 대화의 끝을 마무리했다.

아고의 눈은 여전히 빛이 없었다. 아니, ‘여전히’가 아니라 사실 그는 ‘흐르는 샘’ 덕에 더욱 더 나락의 기분을 맛보고 있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선택을 받아내야 했다. 그러나 ‘최초의 왕’이 등장했음에 그 기회는 더 짓밟혀졌다.

“이제 시작하는군.”

공간을 울리는 빛의 태동이다. 소리로 들리지는 않았지만, 공명하는 ‘존재감’, 감히 비할 수 없는 거대한 존재에 왕들의 몸이 일순 굳었다.

셰이가 굳건히 손을 잡아주었다. 그랬기에 끝없는 어둠이 이어져도 리자는 막힘없이 걸음을 이어나갔다. 요 근래 가슴께를 묵직하게 짓누르던 감정이 한없이 가벼워져 있었다. 무거운 게 아니라, 이제는 제발 가만히 있어줬으면 할 만큼 이리 저리 떨리고 설렜다.

빛이 새어 나온다. 목구멍 아래까지 심장 울리는 소리가 퍼져서 좀처럼 진정이 되지 않았다. 리자는 눈을 감았다 떴다.

선택의 장소. 16개의 기둥이 솟아오른 거대한 공간. 두터운 벽들로 사방이 막혀있었으나, 기둥 위에 앉아있는 자들이 입은 그 화려함 때문에 전혀 어둡지 않았다. 수많은, 다양하면서도 하나같이 아름다운 그들. 그러나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자. 이 중에는 그녀를 겁먹게 만들었던 두 왕도 있으리라.

시선 돌릴 것도 없이 그녀는 오로지 단 한 명을 찾았다.

서툴지만 다정하던 그를 기억한다. 올곧고 맑던 눈빛과 다정하던 귀 기울임. 두려워하면서도 솔직하고자 하는 그의 진심.

그녀는 신의 안배 아래에서 13명의 본성을 더 만날 수도 있었으나, 그를 만난 이후로 더 볼 겨를도 없었다. 아니, 이유조차 없었다. ‘사랑’이라고 하기엔…일렀으나, 평생을 살리라는 결단을 할 만큼의 감정을 가졌다. 그 짧은 순간에, 단번에 말이다.

아, 찾았다. 기둥 위, 와인빛 머리카락을 가진 유일한 이를.

“아…”

그러나 생기라곤 전혀 없는 눈동자에 한없이 웃고 있던 그녀의 입꼬리가 천천히 내려갔다. 설렘은 천천히 사그라들었다. 실망해서? 그녀가 기억하는 그 맑고 투명한 눈동자와 청량한 웃음이 없어서?

‘전혀.’

그럴 거라고 이미 예상은 했다. 다만 상처는 실컷 받아놓고서 텅텅 비었다는 듯 연기하는 눈동자가 그녀의 마음을 잔뜩 긁어놔서. 왕에겐 흔하디 흔할 그 보석 하나 없이, 검고 문양 하나 없이 단정할 뿐인 옷을 입고. 검이라 부르기 어려운 낡은 검은 허리춤에 대충 묶여있고, 얼굴에 묻은 검붉은 피는 닦지도 않은 채.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모습이 너무 속상했다.

“리자, 그래도 알고 있지? 아고가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셰이의 말이 그녀를 이끌었다. 그래, 지금은 공허한 표정을 짓는 그가 얼마나 밝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녀는 잘 알고 있다. 다정한 사람이야. 따뜻하고 배려심 많고.

속절없이 새어 나오는 웃음에 부끄럽게 두 뺨을 감쌌다. 용기를 내어 환한 웃음으로 그에게 첫 인사를 하였다.

안녕, 아고.

고작 입모양이었지만, 잿빛의 탁해 보이던 눈에 일순 빛이 맴돌았다. 리자는 확신했다. 그는, 아고는 분명히 자신의 인사를 보았을 거라고.

셰이의 도움 때문인지 아주 먼 거리에 있는 데도 아고의 모습이 잘 보였다. 한없이 떨리는 동공. 의자를 붙잡은 손이나 비틀어진 입매. 그가 그녀의 속마음을 읽고 있는지 여부는 모르지만 (아고가 셰이에게 받은 권능 중 하나는 투시하는 것이라고, 셰이가 귀띔해주었다.)…그가 그녀에게 ‘반응’해주고 있다.

리자가 그를 만난 것은 그의 ‘무의식’ 중이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리자만이 그를 만난 것이지, 아고의 입장에선 그녀를 기억하고 말 것도 없이 리자는 처음 보는 존재인 것이다.

그래서 가슴이 떨렸다. 그저 그 작은 인사, 그 하나에 딱딱한 가면을 깨고 속내를 드러내 주었단 뜻이니까.

“아고,”

작은 속삭임이었지만, 듣지 못할 리 없다. 아고의 눈동자가 크게 뜨였다. 잔뜩 지쳐서 반 죽어있는 사람처럼 보이던 모습과 달리, 얼음이 녹아내려 새로이 숨을 쉬는 것처럼 그가 반응하고 있었다.

설렜다. 환호성을 내지를 정도로 기뻤다. 그와 드디어 만났다! 셰이가 입을 가리고 작게 웃었다.

“신의 빛무리가 주변을 감싸고 있다.”

“그러나, 조금의 ‘권능도 없어 보이는군.”

“귀찮은 짐이 될 터.”

“여자라면 하나라도 더 느는 것이 좋지.”

웅얼거리는 소리가 있었다. 그 소리를 실어다 준 셰이의 바람은 따뜻하지만, 내용은 결코 그렇지 못했다. 무능해 보이는 검은 머리카락의 평범한 여자이니, 흥미를 잃었나.

그제야 아고에게서 눈을 떼고 살폈다. 앉아있는 왕들 태반이 선택이 끝나야 한다는 그 형식에 묶여 앉아있을 뿐, 따분한 눈이다.

상관없다. 그녀는 오롯이 그만 중요하니까. 다른 왕들 모두가 자리를 비우더라도, 아고 그만 남아있으면 되었다.

“이제 갈 시간이야.”

셰이의 손처럼 따뜻한 빛무리가 그녀의 주위로 모여들었다. 리자는 이것이 선택의 때임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부드러이 웃었다. 그가 이상한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다. 물론 그가 그런 생각을 할 리 없음은 알지만. 이때만큼은 그에게 있어서 그녀와의 첫 만남이니, 그녀가 예쁘게 보였으면 했다.

나부끼는 셰이의 바람에 머리가 휘날린다.

당신은 날 반가이 여겨줄까. 내가 만났던 당신의 본성처럼 다정하고 따뜻하게 대해줄까. 가슴을 벅차게 만드는 설렘에 심호흡을 했다.

“후우…”

“걱정 마렴. 그 아이는 지금 기적을 만나는 중이니.”

무거운 한숨에 답해지는 셰이의 말은 자신감을 북돋아주었다.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럼. 내가 말했잖니. 넌 최고의 선물이란다.”

“셰이가 날 도와줬던 것처럼, 나도 그가 마음에 불안함이 없도록 든든한 존재가 되어주고 싶어요.”

“넌 그렇게 될 거야.”

“셰이처럼 상냥해지려고 노력할게요.”

“넌 이미 그렇단다.”

두 손을 꼭 쥐었다. 셰이의 차분한 답은 그녀를 진정시켜주었지만, 다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어떻게 해. 무서울 만큼 떨려.’

셰이의 따뜻한 손이 그녀를 붙잡았다. 온기. 그녀가 셰이에게 받았던 그 다정함. 그래, 이걸 잘 기억하자. 그리고 아고에게 내가 전해주는 거야.

용기를 내본다. 부들거리는 입을 겨우 떼었다. 마치 고백하는 기분이니까.

“저는 이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께 제 의지를 향하려 합니다.”

이어 말을 하려던 그녀는 말을 잠시간 멈췄다. 뚫어져라 저를 바라보던 그가 확연하게 굳어지면서, 마주친 시선을 피한다.

‘아고?’

“…”

그녀는 오롯이 그만을 바라보는데, 겨우 자신감을 얻어 말하는데. 이 소심한 남자는 마치 자기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듯이 벌써부터 단념한다. 그의 눈동자는 빛을 잃었다. 아마도, ‘괜찮다. 그는, 단한 번도 주인공이었던 적이 없었으니.’ 이런 어두운 생각을 반복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정말, 못 말려.”

풋 웃고는 말을 이어갔다. 얼굴이 조금 달아올랐지만 망설이지 않고 입을 열었다.

“균형을 지키며 세계의 기둥을 담당하는…”

아고, 똑똑히 들어줘요.

“위카이사의 왕, ‘침묵하는 자’에게 저를 맡아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나는 당신을 선택하니까.

내가, 당신에게로 가니까.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빛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과연 이 의식의 수, 열여섯이 주는 신빙성을 가중시켰다. 감흥 없이 앉아있던 ‘흐르는 샘’조차 이 존재에 대해서는 궁금증을 가질 만큼.

아고는 황량한 눈으로 의식을 기다렸다.

‘위대한 왕이시여, 우리의 주인이시여. 부디 쉐이파디아의 은총이 우리 카이사에도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쉐이파디아께서 이미 당신과 같은 자비롭고 현명하신 지배자를 주신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태어난 이후로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 옆을 지키다 수명의 끝에 가까워져 가는 늙은 보좌관의 말이 기억났다. 보좌관은 쉐이파디아의 선택을 간절히 바랐다. 아고그가 가지고 있는 절박함보다 더 크게 말이다.

아고는 이번 의식 역시 그가 선택 받지 못하리라 생각했지만, 늙은 보좌관이 쉐이파디아의 선택을 바란 이유는 오로지 아고를 위한 것뿐이다. 자신이 지금껏 살아온 세월의 반의…(중략)…반의 반도 채 못 산이가 마치 저를 아들과 같이 생각하는 애정은 지금도 신기하였으나, 꺼려지는 것은 절대 아니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왕들의 조롱을 감수하고 이 의식에 다시 참여했다.

최초의 왕임에도 신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그것은 분명 ‘버림받은 것’, ‘사라진 것’을 다스리고자 선택했기 때문인가. ‘침묵하는 자’ 또한 그가 다스리는 것처럼 버림받았고, 이제는 사라지리라. 그런 오명은 지독히도 카이사와 아고, 늙은 보좌관을 괴롭혔기 때문에... 쉐이파디아가 단 한 번만이라도 그를 선택해준다면, 그와카이사는 오명을 벗으리라. 늙은 보좌관의 소망대로 그렇게 되리라.

그러나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

‘두 번째 왕’ 중 하나가 선택받으리라. 혹여나 ‘최초의 왕’이 참여한다면 반드시 그가. 실은 늙은 보좌관이나 그나 그리 생각하고 있었다. 오랜 세월 반복된 절망감은 그들을 그렇게 학습시켰으니까.

그러므로 '흐르는 샘'이 왔기에 아고는 모든 희망을 박탈 당했다.

빛무리가 번졌다. 그 중심으로 여인의 형상이 비추어졌다. 머리카락이 가장 먼저 검은색으로 색을 입었다. 희망이 꺼멓게 죽어버렸으면서도, 아고는 시선을 떼지 못했다. 무언가 내면의 깊은 중심이 불쑥 들려지는 기분.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신의 빛무리가 주변을 감싸고 있다."

"그러나, 조금의 권능도 없어 보이는군."

저열한 왕들의 속삭임이 그녀에게까지 닿자, 아고는 자신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렸다. 권능이 없어 보이는가? 정말로 그렇게 보이는가?

투시는 우리 왕만이 가진 능력이니까. 그녀는 어마어마한걸?

검은 것이 웅얼거리자 아고는 단호하게 침묵을 지킬 것을 명했다.

그녀의 몸 전체를 빛무리가 감싸고 있다. 그것은 눈으로 보이는 종류가 아니라, 본질의 눈으로서 보아야하는 것이었다. 신의 축복이 손가락 하나 하나 온 몸 구석 구석을 휘감고 있다. 눈이 부실 만큼 창조주의 휘광을 업은 자. 게다가 그의 '절대적'인 투시에도 그녀는 완전히 간파되지 않았다. 이 역시 그녀의 능력.

"귀찮은 짐이 될 터."

"여자라면 하나라도 더 느는 것이 좋지."

"신의 선물이니 색다른 맛이 될 터다."

천박하기 짝이 없었다. 어떤 존재인 줄 알고, 대체 저렇게 겁 없이...

단순히 선택 받고 싶다는 갈망이 조금 더 짙게 변했다. 목소리를 듣고 싶다. 눈을 보고 싶고, 말을 해보고 싶다. 왜? 글쎄,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 이제 선택의 때다. 그는 잘게 떨리는 눈동자를 굳게 부여잡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보좌를 간신히 붙잡은 손에 잔뜩 힘이 들어갔다.

"저는 이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께 제 의지를 향하려 합니다."

'아름다운 분께?'

싸늘한 일갈. 두루뭉실하게 저를 감싸던 따뜻한 기운이 순식간에 깨지고, 생살이 훅 파여진 듯 고통스러웠다.

"쿡,"

'흐르는 샘'이 작게 웃는 소리가 그의 귀에 정확히 들려오왔다. 여인의 그 예쁜 미소가 진실로 잔인하다. 하, 뭘 기대하고 있었지? 그를 선택할 리 없다. 그는 아름답지 않으니. 단 한 번도 주인공이었던 적이 없고, 매번 버림 받았으니. 그의 존재는 매번 사라졌으니.

"균형을 지키며 세계의 기둥을 담당하는,"

왜일까. 오랜만에 느끼는 비참함은 유난히 썼다. 그는 허망해진 눈동자를 아래로 내리깔았다. 선택의 대상은 '흐르는 샘'이 되리라. 자신을 미친듯이 비웃어주고 싶었다. 어린 소년처럼 들떴다는 것이 우스웠다. 오늘 역시 그의 날이 아니다.

"위카이사의 왕, '침묵하는 자'에게 저를 맡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뭐라고?

신의 선물이 저 왕을 선택했다는 것에 대해 경악하는 와중에서도, 아무 능력이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왕들은 다시 비웃기 시작하였다.

무능한 신의 선물이 무능한 왕을 택하였다.

‘그건 두고 봐야지.’

리자는 겉모습과 달리 말이나 행동 모두가 저열한 왕들을 보고는 자신의 선택이 진심으로 옳았다는 것을 알았다. 열여섯명의 왕이 전부 참여하지는 않았으니, 모두가 그렇다고 판단할 순 없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13명의 본성을 더 봤다면 분명 끔찍한 광경들에 마음만 심란하고, 온통 시간낭비였을 것이다.

오직 그녀가 택한 왕, 위카이사의 왕 '침묵하는 자' 아고만이 진정으로 위엄 있어 보였다. 진정한 왕은 겉모습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니까.

선택이 끝나자 셰이가 웃으며 머리를 정돈해주었다. 그리고 그녀를 꼭 껴안으며 다시 한 번 축복해주었다.

"셰이, 고마워요."

"항상 내가 함께함을 잊지 말고."

"네."

환한 빛으로 셰이가 부서져내렸다. 생겨난 빛덩어리들이 리자의 발밑에서부터 아고가 있는 기둥까지 길을 만들어냈다. 발 딛는 것만으로도 따뜻했다. 응원하는 셰이의 마음이 느껴졌으니까. 리자는 용기를 내어 한 발자국 다가갔다.

마음이 어찌나 떨리는지 걸음마하는 것처럼 서투르게 내딛어졌다. 이 길의 끝에 아고가, 있다.

"…"

허공을 걷는 지도 인식하지 못했다. 그저 그 잿빛 눈동자, 이제는 어둠이 걷혀 약간의 은빛을 띄는 눈동자에 시선을 고정한채 앞으로 걸어갔다.

두근, 한 걸음 다가갈수록, 두근, 심장이 천천히…

'나 진짜 미쳤나봐.'

'진짜' 그를 만나는 것은 처음이다. 그런데 왜 지금의 심정은 '그리운' 이를 만나는 기분인가? 스스로 비유하면서도 황당했지만.

드디어 기둥 위로 리자의 작은 발이 닿았다.

"만났네요, 우리."

아고는 당황했는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우리라니.'

리자는 스스로 어떤 말을 했는지 깨닫고 놀라서 입을 다물었다. 얼굴이 홧홧해졌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저 서로를 쳐다보며 침묵했고 그것은 서로에게 꽤나 미묘한 감정을 느끼게 했다.

미숙한 그들로선 알 수 없는, 비유하자면 간지러움에 가까운.

리자는 발가락을 꼼지락거렸다. 진짜 아고의 앞에 서니,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키가 더 컸다. 리자는 기껏해야 그의 가슴 정도에 닿으리라. 고개를 올려야 그의 눈동자를 바라볼 수 있었다.

‘앞으로 목이 좀 아프겠구나.’

조용히 생각했다.

“저…”

조그맣게 목소리를 내자, 마주보고 있는 커다란 몸이 움찔거렸다.

‘덩치는 커다란데...’

웃으려다가 그가 무안할까 봐 꾹 참았다. 신기한 눈으로 그를 보았다. 아고의 온 몸이 표현하고 있다. 그가 지금 긴장했노라고. 리자만이 알고 있는 첫만남에서도 그는 비슷했지. 화들짝 화들짝 놀랐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놓고서 사과를 하기도 했고.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맑다. 한없이 떨리고 있으며, 언뜻 보면 무서운 걸 보는 기색에 가까웠지만...그럼에도 용케 자신의 눈동자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 그는 이런 사람이야.’

기뻤다. 내가 택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싶었다.두려워하면서도, 똑바로 맞부딪히는, 용기 있는사람.

“안녕하세요.”

그녀는 혼신을 다해 웃었지만, 그게 예쁘게 보일런지는 미지수였다. 성공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더 빳빳하게 굳은 것을 그녀는 보았다. 확실히 말하자면, 느꼈다고 할 수 있겠다.

아고는 한참 후에 용케 고개를 끄덕였다.

“…풋,”

결국 그녀가 웃어버리자 눈동자를 쓱 피해버린다.

‘아, 귀여워.’

저도 모르게 웃어버렸다. 고개를 옆으로 돌리는데, 와인빛머리카락 사이로 삐죽 나온 귀 끝이 몹시 빨갰다. 더 이상 웃었다가는 그의 얼굴이 완전히 홍당무가 될것만 같아서 견뎌냈다.

“열여섯 번째라, 정말이지 별의별 일이 일어나는군. 저런 왕을 선택하다니.”

“시간 낭비했어. 별 꼴을 다보고 돌아가네.”

“잘못된 선택을 했어. 머지않아 후회할 텐데.”

“무지하니 뭘 알 수가 있나?”

“무능하기에 선택했겠지. 끼리끼리라더니.”

“쯧쯧,”

들리는 소리에 악의가 담기지 않은 것이 전혀 없었다. 갈 거면 조용히 사라져도 될 텐데 굳이 입을 여는 이유는 무엇인가. 리자는 인상이 찌푸려지려는 것을 몇 번이나 참고 대신 묵묵하게 서 있는 아고를 바라보았다.

색채 없는 표정, 생기 없는 눈빛. 아무렇지도 않게 침묵을 지키는 그를 보며 속이 아팠다. 그 연약한 껍데기 속 그를 직시했다. 인격체인 그가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있겠는가? 움츠러드는 여린 속살. 대체 왜 이렇게까지 상처를 주는 걸까?

“혹 저 여자도 신에게 버림받은 거 아닌가? 버려진 것이 버림 받은 것에게로 흘러가는 거야.”

“큭, 일리 있어.”

‘해도 해도 정말 너무하네.’

제 키가 조금만 컸더라면 아고의 귀를 막아주었을 것이다. 깊은 구덩이로 침잠하려는 눈동자가 너무나 안쓰러웠다.

“갈까요?”

그의 시선을 돌리고 싶었다. 그녀는 다소 충동적으로 그의 소매를 붙잡았다.

“…”

눈동자가 바르르 떨리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왜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거야.’

억누르려 해도 연민이 샘처럼 솟아올랐다. 그의 풀죽은 시선이 소매를 붙잡은 그녀의 손에게로 향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글쎄. 그닥 긍정적이지 않은 생각임은 분명했다.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으니까.

“여기서 벗어나요.”

‘일단은, 빨리.’

재촉하자 그는 의중을 짐작할 수 없는 표정으로 시선을 올려 눈을 마주보았다. 우울함으로 어두워보였지만, 분명히 아름다운 빛의 눈동자였다.

셰이의 안배로 만났던, 그 숲속에서의 첫 만남이 떠올랐다. 물론 일방적인, 그는 기억하지 못할 만남이었지만. 그렇게 순수하게 맑게 웃던 사람인데. 그 미소를 떠올리며 리자는 그를 향해 미소를 보여주었다.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상냥하고 배려심 많고 다정한 사람. 직접 만든 쿠키를 세심하게 포장해서 건네 준 사람. 그 외에도 많은 모습이 있겠지만, 좋은 기억들밖에 없으니까.

“…”

마치 얼음이 녹는 것처럼 그녀의 미소에 그 회색빛 음울함이 아주 조금 녹아내렸다. 아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발걸음을 움직였다. 리자가 따라 움직이자 발 밑 그림자가 한순간에 몸을 불려서 그들을 집어삼켰다.

조명 없이 온통 검은색이다. 그럼에도 어둡지 않았다. 이 모순되는 상황에 다른 때라면 이상함을 느꼈겠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었다. 아고가, 그녀의 옆에 있었기 때문이다. 둘만이 있게 되자 이성이 마비되었다.

‘…실감이 안 나.’

리자는 굳이 그의 소매를 놓지 않고 계속 붙잡고 있었는데, 다만 약간 뒤에서 걸었다. 뒷모습이라고 하더라도 마음껏 그를 바라보고 싶었기에. 셰이가 빠르게 만날 거라고 했지만…벌써 만날 줄이야. 현실의 그가 자신의 옆에 있고, 그녀에게 소매가 붙잡혀 있다. 그래, 다시 말하지만 실감이 안 난다.

그녀는 그의 옷을 바라보았다. 보석이 치렁치렁 달린 망토나 뽕이 지나치게 달린 옷이 아니어서 오히려 좋았다. 그에게는 문양 없는 검은 옷이 훨씬 깔끔해 보였으니까. 게다가 굳이 옷으로 부각시키지 않더라도 그의 어깨는 확연히 넓었다. 데, 아고의 문양 없이 깔끔한 검은 옷은 그녀에게 가장 익숙한 복식이라 제일 멋들어지게 보였다.

다만 계속 시야에 걸리는 것은, 덥수룩한 와인색 머리카락이다. 그것은 그의 시야를 아무렇게나 가리고 있었고, 그의 얼굴을 마구잡이로 가두고 있었다. 그녀가 뭐라고 자르라 마라 하겠냐만은 묶기만이라도 하면 정말 마음이 다 시원할 것 같다.

“…음.”

그의 머리를 하나로 묶는 상상을 하던 그녀가 저도 모르게 작은 소리를 내뱉었다. 그의 몸이 움찔 떨리자, 그녀도 깜짝 놀라서 입을 두 손으로 가렸다.

뒤에서 보는 그는 긴장으로 굳어있다. 경직된 어깨나 부자연스러운 걸음걸이. 꽉 쥐고 있는 주먹.

‘누가 보면 겁먹은 줄 알겠어.’

숨죽여 웃었다.

“…아.”

그가 걸음을 급작스레 멈추었다. 표정을 살피니 진지하게 굳어 있었다.

“왜,”

“…잠깐만.”

그의 목소리에 감격하는 것도 잠시, 끼이익, 공간을 찢고 기이한 괴음이 들렸다. 스물 스물 찢어진 틈새 사이로 수백 마리의 뱀들이 몰려왔다. 흉측한 광경에 리자는 비명을 막으려 입을 틀어막았다.

“...”

아고는 흘끗 그녀의 표정을 살폈다. 그녀는 두렵기보다는 본능적인 거부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어찌되었든 그 눈에는 리자의 하얗게 질린 얼굴만 보였다. 옅은 걱정이 잠시간 머물렀다.

쐐액, 독니가 매섭게 달려들었다. 그것은 아고에게 익숙한 것이었지만... 아고의 소매를 붙잡은 손이 다소 절박하게 움직여 그의 손가락을 붙잡았다. 새끼손가락에 맞닿은 연약한 온기에 그는 몸을 흠칫 굳혔다. 본래라면 방관해두는 공격이지만은…,

“타이온,”

처리하겠다.

지금은 그럴 수가 없었다. 아고의 발밑에 머물던 그림자가 짐승의 형태로 튀어나왔다. 셰이에게 아고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어둔 리자는 그것이 아고의 첫 번째 권능, ‘그림자’ 타이온임을 알았다. 검은 털에 붉은 눈동자를 가진 아주 커다란 늑대.

그것은 주인의 실로 처음일 공격 지시에 신나게 날뛰며 뱀을 물었다. 애초에 압도적인 힘의 차이가 나는, 아주 미미한 것을 내버려 둔 것이었기에. 다만 그것이 미처 신경 쓰지 못한 것은 뱀의 피가 다소 난잡하게 튄다는 것이었다.

“...”

아고는 그녀를 약간 끌어 제 뒤에 두었다. 그의 행동에 당황한 리자는 곧 그것이 배려의 일환임을 어렵지 않게 눈치 챌 수 있었다. 그의 체격은 그녀 대신 끈적거리는 액체를 받기에 충분히 컸고, 검은 옷은 붉음을 흡수하더라도 흰 피부에 묻어났으니까.

곁눈질하는 그의 회색 눈동자와 딱 마주쳐 저도 모르게 속에서부터 자연스레 나오는 미소를 지었다. 이전의 그와 똑같이 자신을 배려해준다.

가장 솔직한 모습인 본성을 만났을 때 알아보았지만. 소심하더라도 다정한 사람. 나약해 보여도 실은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 그녀는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 최고의 선택을 했음을, 벌써 알았다.

“…”

아고가 리자의 미소에 눈을 피하지도 못하고 딱딱하게 굳었다. 대체 또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지 눈빛이 어둡게 내려앉으려 했다.

“감사합니다.”

“...”

“…?”

“...아,”

빙긋 웃는 얼굴로 계속 바라보니 그가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귀 끝이 빨간 것이 확연히 보여 작게 웃었다. 짓궂은 눈으로 얼굴을 바라보다가 문득 그의 뺨까지 튄 붉은 액체를 발견했다. 원래 피부에 피가 오래 묻어있으면 좋을 게 없을 텐데. 그녀에게 튀는 걸 막아주려고…,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생각할 겨를 없이 충동적으로 몸이 움직였다.

“잠깐만요.”

잡은 새끼손가락을 그대로 당기자, 얼마나 얼이 빠졌는지 그가 순순히 따라왔다.

오로지 눈에는 그의 뺨과 그 위에 묻은 질척한 자취만 보여서...리자는 아무 생각 없이, 새끼손가락을 쥐던 손으로 그의 얼굴을 붙잡고는,

“…피부에 안 좋아요.”

쓱쓱 제 소매로 문댔다.

“...”

누군가의 숨이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한껏 피를 닦아내는데 열중한 리자의 것은 아니었다. 왜인지 그의 얼굴을 붙잡은 손에서 열기가 몰려오지만, 리자는 좀처럼 알아채지 못했다.

“대신 맞아주지 말아요.”

괜히 속상해서 눈썹을 찌푸렸다. 생각해보니 같이 피하면 되는 거 아닌가? 사람이 왜 이렇게 헌신적이야. 얼굴을 놔주었다.

“앞으론 우리 같이 피해요.”

그래도 되잖아.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낮아지지 말고.

그녀는 대답을 기다렸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침묵이 꽤 길어지자,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느냐 물으면 타이온이 뱀들을 다 정리하고 그림자로 돌아갈 때까지 정적이 유지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행동을 깨달았다.

‘방금...내가 얼굴을…’

“어어,”

말을 잇지 못했다. 아고는 여태 어정쩡하게 몸을 구부린 그 상태로 굳어있었다.

‘나 미쳤나 봐.’

정말이지. 이 대담함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얼굴로 쑥 열기가 몰려와서 손으로 부채질을 하며 가라앉혔다.

“…”

“아, 그”

눈이 다시 한 번 마주쳤다.

‘사과를 해야 하나? 갑자기 만져서 죄송하다고. 아, 허락도 없이 얼굴까지 붙잡은 건 무례하긴 했어.’

“고...고…맙다.”

“네?”

속으로 한껏 자책하다가 생각지도 못한 말에 되물었다. 그가 먼저 휘적휘적 걸어갔다. 리자는 당황이 가득 담긴 시선으로 그의 뒷모습을 응시했다.

“아…”

가슴이 울렁였다.

‘고...고…맙다,고?’

꾹, 또 한 번 더 꾹 제 가슴을 눌렀다.

“...”

아고의 모습이 꽤 작아졌다. 그 이상 멈춰있다가는 거리가 완전히 벌어질 것 같아서 허둥지둥 발을 움직였다. 몸은 바삐 움직이는 데, 머리는 온통 되감기 하는 데 열중했다.

‘분명 약간 웃었던 것 같은데.’

그녀의 착각일까?

카이사, ‘침묵하는 자’가 다스리는 고요한 땅. 그 중앙에는 거대한 돌거인, ‘침묵하는 자’의 권속인 아오그란시스가 존재했다. 그것의 웅장하고 거대한 발이 디딘 땅에는 ‘침묵하는 자’의 백성들이 살아갔으며, 그 두 눈은 속으로 깊게 파여져 있어서 태초부터 왕을 모신 일곱 명의 후손, 일곱 가문의 귀족들이 거주하는 터전이 되었다.

그보다 더 높은 곳, 돌거인이 어깨로 떠받든 거대한 땅덩어리. ‘왕가’라 불리는, 지고한 왕의 땅이었다. 그 위용을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넓으며 언뜻 허공에 떠 위태로운 느낌이 있으나, 위대한 왕의 힘이 개입되어있으니 견고하기 그지없었다.

그 중심에는 오직 검을 뿐인 ‘본궁’이 존재하며, 그것을 중심으로 10개의 탑이 주변을 두르고 있었다. 마치 본궁을 보호하는 성벽의 모양새와 흡사했다. 각 탑들은 미묘하게 다른 외양만큼이나 각기 짊어진 역할이 달랐는데, 그것들 중 가장 핵심이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 1탑, 본궁의 정면에 솟은 높은 탑이었다. 나머지 9개의 탑을 통솔하며, 카이사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기관.

“...”

한쪽 벽이 온전히 바깥을 내다보는 창인 방은 제 1탑의 주인이 쓰는 방이었다. 로에시소시옹. 왕의 보좌관이자 집사이며 시옹 가의 가주, 동시에 제1탑의 탑주.

그는 평소 같다면 벌써 책장 두 개 분량의 서류를 끝내고, 그 이상의 서류를 더 만들어냈을 것임에도…오늘만큼은 그럴 수 없었다. 쌓여가는 연륜으로 속 표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그임에도, 초조함을 감출 수 없었다. 창문 너머 먹빛 하늘. 오늘은 선택의 날이므로.

“쉐이파디아시여,”

조금의 희망도 없는 지친 목소리.

“...하아.”

오늘따라 버석 마른 입술 새로 속내를 대변한 한숨이 흘러나왔다. 자신이 오늘만 몇 십번이나 한숨을 내쉬었음을 깨닫고 입을 다물었다. 앙상한 시선은 보일 리 없는 장소에 맞닿아있었다.

그와 카이사, 무엇보다 그의 왕에게 중요한 의식의 날이다.

눈을 질끈 감았다. 역사상 단 한 번도 쉐이파디아의 은총을 받은 적이 없는 카이사가 신의 선택을 받을 것인지, 또 다시 거절당할지 판가름 나고 있으리라.

열여섯 왕이 각기 통치하는 열여섯의 나라. 이번 의식이 16번째이므로 지금까지 적어도 한 나라는 선택 받지 못하는 게 맞다. 그러나 두 번째 왕들에게 선택이 돌아가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닌가? 카이사의 왕, ‘침묵하는 자’가 ‘최초의 왕’임을 생각할 때 여직 선택을 받지 못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부디.”

사실 로에시소는 잘 알고 있었다. 이번에도 쉐이파디아의 은총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여전히 두 번째 왕들의 멸시는 거셀 것이고, 그의 왕 또한 상처받을 게 분명함을.

그럼에도 가지 않을 수 없었다. 쉐이파디아의 선택. 단 한 번이라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나무 막대기 하나일지라도, 쉐이파디아께서 카이사에게 선물을 허락해 주신다면.

아...정말이지, 그것은 꿈과 같은 얘기였으나 그렇기에 가장 애타게 바라는 일이었다.

신께서 선택을 주신다면, 가장 먼저 카이사는 신에게도 버림받았다는 오명을 이겨낼 것이다. 백성들은 자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그들의 왕 '침묵하는 자'는...

“쉐이파디아시여,”

로에시소는 간절함을 담아 웅얼거렸다. 탄식이 저절로 섞였다.

버려지고 사라진 그들을 택했다는 이유로 ‘최초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온갖 오명을 뒤집어쓴 그들의 왕. 기이하게도 그는 타인을 상처 입히는 걸 강박적으로 싫어했다. 제 주군의 세월을 전부 아는 것이 아니기에 이유는 알지 못했지만, 아무튼 그것은 오히려 약점이 되어 ‘최초의 왕’임에도 그에 합당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만들었다. 뱀 같은 두 번째 왕들은 제 왕을 아주 지나칠 정도로 우습게 여겼다.

한없이 다정하고 자비로우나, 그렇기에 물어 뜯겨지는 왕이여. 그 위대한 최초의 왕이면서도, 스스로의 존재를 하찮고 더럽게 여기게 된 왕이여.

쉐이파디아의 선택이 있게 된다면...

“부디...”

차마 뒷말은 잇지 못했다.

왕을 감히 동정할 수가 있나. 그런 무엄한 마음에서 기인한 게 아니었다. 로에시소는 왕께 맹목적인 충성을 바쳤고, 그를 경외하였다. 그가 바란 것은 오직 제 왕의 치유. 신 이상의 존재가 아니라면 할 수 없을, 그 상처로 얼룩진 마음을 온전히 뒤덮을 평온.

신이시여, 위대한 쉐이파디아시여. 자비를 베푸소서.

긴 어둠의 끝이 점차 보이고 있었다. 아스라이 스며든 빛이 한 발자국 내딛자 완전히 쏟아졌다. 순간적으로 불어온 세찬 바람이 거칠게 그들의 몸을 훑었다.

시야 한 가득 탁 트인 하늘. 그들이 밟고 있는 것은, 무엇 하나 덮은 것 없고 이어진 것 없이 가파르게 깎여진 절벽.

“...”

아고가 걸음을 멈추자 리자 역시 제자리에 섰다. 그녀는 의아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무 것도 없다. 이 이상의 길이나 계단은커녕, 그저 발 몇 발짝 더 딛게 되면 추락하게 될 절벽만 있었다.

리자는 가만히 아고의 다음 행동을 기다렸다. 그는 몸을 수그려 긴 손가락으로 자신의 그림자를 톡톡 두드렸다.

“음,”

“...”

갑작스러운 행동이라 웃을 뻔했지만,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덕에 그런 무례는 피할 수 있었다.

웃음기는 금세 놀람으로 물들어갔다. 온전한 그림자, 순전히 검은 평면. 그저 흙만 가득한 대지로부터 첨예한 날붙이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저절로 눈이 동그랗게 뜨였다. 어안이 벙벙한 채 그 광경을 보던 리자는 이윽고 그것의 정체가 발톱임을 깨달았다.

털, 검은 색의 털이다. 가장 먼저 탄탄한 다리가 그리고 사나운 이빨이 드러난 입, 마지막으로 긴 꼬리까지.

거대하고, 검은 짐승.

‘타이온.’

아까 등장했던 그 검은 짐승이 빛 가운데에서 온전히 드러났다. 한 번 보았다고 친숙한 느낌이 들다니.

거대한 몸체는 코끼리에 비견할 수 있으리라. 윤기가 흐르는 검은 털. 짐승 특유의 냄새가 날까 싶었으나, 가까이 다가가도 아무런 냄새가나지 않는다. 새빨간 눈동자는 조금 흠칫할 것이었지만, 토끼의 빨간 눈과는 달리 영롱한 빛이 감돌았다. 무엇보다 아고와 비슷한 분위기를 풍기면서 순한 빛을 띠므로 더 깊은 익숙함이 느껴졌다.

무의식적으로 몇 발자국 가까이 다가갔다. 만약 위험하다면 아고가 막았으리라. 그는 다만 우두커니 그녀와 이 커다란 짐승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괜찮구나, 막연히 생각하며 아고의 첫 번째 권능, ‘그림자’ 타이온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멋있다...”

진심이었다. 감탄사처럼 흘러나온 말이었다.

그 보드라워 보이는 털을 만질까 말까 고민했다. 맹렬히 고민하는 머릿속과 다르게 손은 자연스레 올라갔다. 다만 막상 닿진 못했다.

“끼잉,”

그 어중간하게 멈춘 손에 짐승이 얼굴을 들이밀었다. 새끼강아지처럼 연약하고 귀염성 있는 소리를 일부러 내면서 말이다.

“…어, 어...귀여워.”

아고가 흠칫했다.

“타이온!”

“끼잉, 낑.”

리자가 늑대에게 폭 안겼다. 검은 털에 푹 파묻혀 짓는 미소가 그저 맑았다.

아고는 우두커니 서서 둘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꾹 쥐고 있던 주먹이 천천히 풀렸다.

“다행...이다.”

아주 작은 목소리가 바람결에 묻혔다.

“...”

“...”

훈훈했던 아까의 분위기완 다르게, 그 누구도 쉽사리 입을 열지 못하게 만드는 어색함이 맴돌았다.

“…”

“…어,”

문제는 사실 사소한 것에 불과했다. 카이사에 갈 수 있는 이동수단이 타이온 하나, 타고 가야 할 사람은 두 명. 즉, 아고와 리자가 ‘함께’ 타이온을 타야 한다는 것.

“…음...”

“…”

두 사람은 침묵했다. 똑같이 얼굴이 시뻘개져선 각기 반대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그니까, 제가...음…”

그나마 말 없는 아고보다 리자가 적극적이긴 했지만, 그녀로서도 애매해지는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그의 앞에 타겠다, 뒤에 타겠다 먼저 말하기가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상상만 해도 얼굴이 화끈거려서...아고보다 덜 소심한 것에 불과한 이 아가씨는 쭈뼛쭈뼛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쩌지?’

리자는 그를 흘끔 쳐다보았다. 아고는 그저 멍하니 서 있다. 그의 성격과 제 성격을 비교했을 때, 여기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은 자신의 몫이었다.

‘아, 모르겠다!’

치열한 고민을 하던 리자는 결국 그의 앞에 타기로 결정했다. 조심스럽게 바람 스치는 양 가볍게 그의 팔을 건드렸다. 그 미미한 닿음에도 역시나 그는 화들짝 놀라 그녀를 보았다.

“타는 거 좀 도와주실래요?”

아고는 멍하니 그녀를 내려다보다가 다시 고개를 휙 돌렸다. 고개를 끄덕인 그가 뚜벅뚜벅 타이온의 옆으로 갔다. 뭘 하려나 지켜보았다. 그녀를 먼저 태우고 자기가 탈 요량이겠지 싶어 그의 뒤를 따랐다. 갑자기 그가 묵묵히 한쪽 무릎을 꿇곤 자신의 손을 내민다.

“...음?”

리자의 표정이 순식간에 허물어졌다.

“지금...”

그러니까 아고는 지금 자기 손을 밟고 타라고 하는 것 같은데... 불쑥 난데없는 화가 치밀어서 아랫입술을 질끈 물었다.

‘날 이렇게 소중히 여긴다니, 이런 생각이...들 리가 없지!’

아무리 그녀가 그를 선택했기로서니 그녀는 오늘 처음 보는 타인이다. 그런 자신을 위해 무릎 꿇어? 마치 시종처럼?

“아고!”

아고의 이름을 허락 받지 않고 불렀다는 것도 까맣게 잊고는, 단호한 목소리를 내었다. 아고가 움찔 하곤 그녀를 쳐다보았다.

“일어나요.”

멍하니 쳐다볼 뿐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자, 그의 손을 잡고 낑낑거리며 일으키려 했다. 지금 뭐가 뭔지도 모르겠다는 표정이라, 리자는 한숨을 푹 내쉬었다. 무어라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고맙긴 했다. 누가 자신을 위해 무릎을 꿇고 손을 내주기까지 할까? 게다가 왕인 그가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은 자신을 배려하고, 그만큼 소중히 또는 중요히 여겼음은 분명한 일이다.

‘왜 이렇게 화가 나지?’

문제는 고마움보단 속상한 게 더 크단 것이다. 그녀의 표정이 작게 일그러지자 그가 그녀에게 이끌리어 몸을 일으켰다.

“...”

자신을 빤히 내려다본다. 그 모습에 리자는 아차 싶었다. 중요한건 애초에 그녀는 그를 혼낼 수 있는 입장이 아니란 것이다. 아직 화를 낼 사이조차 성립되지 못했다.

방금 상황은 그녀가 건방졌을 수 있다. 게다가, 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나. 그가 이름을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분명 아고가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다.

“…”

어떤 식으로 사죄해야 하나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하나 고민했다.

“다른...”

“네?”

“…방법을... 그렇게 해도...되나?”

그가 유독 긴 문장을 말하기에 신기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랬을 뿐인데 묘한 표정으로 내려다보던 그가 긍정으로 알아들었는지 몸을 움직였다. 놀라지 않게 조심스러운 손길이 그녀를 안아들었다. 무릎 뒤로 손을 넣고 등을 받치자 땅을 딛고 있던 발이 떨어지면서 너무나도 쉽게 무게 중심이 그의 품속으로 떨어졌다.

사실 그는 정말이지 아주 느리게 행동했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깜짝 놀랐다.

“저, 저?”

갑작스럽게 높아진 시야가 어색했다. 게다가 성인인 자신이 가뿐하게 들려진 것이 낯설었다.

“…”

문제가 있냐는 듯이 그가 은색 눈동자를 내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 아니에요.”

리자는 빨개진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다. 서로의 얼굴이 지척에 있었다. 무엇보다 그의 체취가 쑥 맡아지자, 온 몸이 쿵쾅쿵쾅 거렸다.

아고는 그녀를 안은 상태로 균형을 유지한 채 타이온 위에 올라탔다. 평소보다 무거운 무게에 타이온이 그르릉거렸지만 이내 만족스럽다는 듯이 길게 울었다.

아고는 그녀를 자신의 앞에 잘 앉도록 내렸다. 그는 과연 그녀가 카이사까지 타이온을 잘 붙잡고 갈 수 있을지 잠시간 걱정했지만, 괜찮겠지 마음을 다독였다. 리자의 몸을 쥐고 있던 두 손이 떨어졌다. 동시에 균형을 맞추지 못한 몸이 떨어질 것처럼 한쪽으로 기울어졌다.

‘어어?’

그녀 본인이 그것을 깨달을 때엔 이미 상당한 각도로 몸이 휜 상태였다.

“…!”

강한 힘이 상체를 끌어당겼다. 중력처럼 훅, 하고.

“하아...”

한숨이 바로 귓가에 들렸다. 고개를 비틀어 바라보자, 피부가 희게 질려있었다.

‘나만큼, 아니…나보다 더 놀랐구나. 괜히 미안하네.’

그는 연거푸 한숨을 쉬었다. 맞닿은 손이 벌벌 떨리는 게 느껴져서 당황스러울 정도였다. 그녀가 꼿꼿하게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이 다시 한 번 떨어지려고 했다.

“…그냥,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생각을 거치지 않고 불쑥 말이 튀어나왔다. 방금 전처럼 잔뜩 긴장하지 않으면 몸이 기우뚱거렸다. 받쳐주는 것이 전혀 없는 상태로 짐승 위를 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

“죄송해요. 그렇지만 제가 균형을 잘 잡을 수가 없어서.”

리자는 고개를 비틀어 제 뒤에 있는 그에게 말했다. 아무래도 그녀가 혼자 타게 하려는 심산인 것 같지만, 리자는 그 생각이 별로 반갑지 않았다.

“…아.”

“도와주시겠...어요?”

다만 처음의 당당함은 누그러지고, 폐를 끼친다는 생각에 말끝이 흐려졌다. 그는 의중을 알 수 없는 표정이었다.

“...기꺼이.”

사실 그녀는 더 큰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부탁한 것뿐이었지만, 그것이 그에게 어떤 의미였을지.

짐승 위에 탄 채 하늘을 난다는 것은 분명 매력적이지만, 어떤 안전장치도 없다는 것을 감안할 때 지극히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높은 고도 때문인지 얼굴을 강타하는 바람은 거세고, 살을 도려내는 것처럼 추웠다. 발 바로 아래는 온전한 허공. 디딜 것이 전혀 없는데다가 잡을 수 있는 것은 고작해야 타이온의 검은 털이 전부였으니, 조금이라도 기울었다가는 그대로 저 세상 행일 터였다.

그럼에도 리자는 전혀 불안하지 않았다.

‘든든해.’

제 몸을 붙잡고 있는 단단한 두 손 덕에. 마치 뿌리처럼 그녀를 견고히 붙들고 조금의 흔들림도 없다. 아프지 않을 만큼 빈 틈 없이 꽉 쥐여있어 바람이 얼마나 거칠게 불든, 타이온이 몸을 뒤틀든 전혀 걱정이 되지 않았다.

다만 신경이 쓰이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리자가 완전히 편안한 표정을 지을 수 있는 이유이기도 했다. 음, 아마 누군가 그녀와 그의 모습을 본다면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게 되리라. 현재 아고와 리자가 취하고 있는 ‘자세’는 굉장히 어정쩡했으니까. 보는 사람이 다 불편해질 만큼.

구체적으로 어떤가 묘사하자면, 아고는 몸 하나 닿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떨어져서 두 팔만을 내밀어 그녀의 몸을 잡고 있었다. 타이온의 몸체가 워낙 커서 가능한 것이리라. 머릿속에 우스운 모양새가 그려지지 않는가? 마치 벌을 받듯이 두 팔을 쭉 내밀고 여자를 잡아주는 남자라니.

‘팔 아플 텐데.’

초반에는 그가 그녀를 계속 붙잡아준다는 사실 때문에 자세히 인지하지 못했는데. 몇 시간이나 더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자세를 유지한다면, 카이사에 도착한 후 팔이 꽤나 아플 것이다.

“...으음,”

리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했다. 그를 다 안다고 자부할 수 없지만 이것만큼은 확실히 알고 있다. 그의 성격 상 자기 팔이 아프든 말든 말하긴 커녕 표정 변화 하나 없이 그녀를 계속 붙잡아 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녀 쪽에서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얘기이다.

‘솔직히...’

정말 솔직하게 말하자면 아까 그녀를 안아 들었던 그 용기를 다시 한 번 내주어 그녀를 확 끌어당겨줬으면 좋겠다. 서로 좀 부끄럽긴 하겠지만, 그녀도 더 안정적이고 그도 팔이 아프진 않을 테니까.

그러나 다시 한 번 기대하기에...그는 배려심이 넘쳐도 너무 넘쳤다.

‘그냥!’

그녀는 깊게 고민하는 것을 멈추었다. 표정이 단호해지는가 싶더니 그 작은 몸이 조금씩 뒤로 움직였다.

“…!”

갑작스러운 행동에 그녀의 몸을 잡은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당황했으리라. 그걸 인식했음에도 리자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곤 곧 그의 상체에 등을 기대었다. 그녀의 의도를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손이 떨어져 나갔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힘이 풀려 아래로 떨어졌다.

미미한 열기가 등 뒤에 느껴졌다. 리자는 괜히 부끄러움으로 꼼지락거리려는 몸을 가만히 멈추었다. 자신이라고 창피하지 않을 리가 있겠나. 얼굴부터 목까지 이미 화끈거렸다.

“…읍,”

아고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가 숨을 내쉴 때마다 리자의 귓가에 스쳤으니까.

쿵 쿵

우직한 나무처럼 그녀를 받쳐준 벽이 울렸다. 누구의 것인지 모를 소리가 서로에게 들렸다. 내 것이라, 상대의 것이라 확신할 수 없이 맞닿은 부분에서 공명하는 울음이었다. 온 신경이 곤두섰다. 낯선 느낌을 떨쳐내려 리자는 허둥지둥 입을 열었다.

“이게 편할 것 같아서…”

“…”

“괜찮으신가…요…?”

끝으로 갈수록 자신감이 사라져 목소리가 작아졌다. 정말 미쳤구나. 부끄러움으로 뒤집어진 속이 주체가 되지 않는다. 끙끙거리며 안정을 찾으려 노력할 때, 작게 긍정하는 그의 대답이 들렸다.

“…괜찮,다.”

덕분에 굳은 몸이 풀렸다.

“감사해요.”

자연스레 무게가 조금 더 가해지자 누군가의 몸이 흠칫 떨렸다. 리자 그녀의 양심이, 적어도 그에겐 지금이 되려 불편한 자세일 것이라 핀잔을 주었지만...음, 가볍게 무시하자. 이미 돌이킬 수 없었으니까.

한 번 몸을 기대자, 그가 잡아주고 있긴 해도 홀로 등을 꼿꼿이 세우고 있을 때엔 상상하지도 못하던 안락함이 느껴졌다. 리자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거의 몸을 파묻다시피 기대었다. 스스로가 뻔뻔한 건 알아서 잠시간 입을 다물었다.

“제 이름,”

“…”

“리자에요.”

침묵을 먼저 깼다. 귓가의 짧은 머리카락까지 흩날릴 만큼 세찬 바람 때문에 제 말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싶었지만, 무색한 걱정이었다.

“...리자.”

너무나 잘 들렸으니까. 저절로 부끄러운 웃음이 새어 나왔다. 수없이 들어오던 이름인데 왜 지금 이 순간엔 특별히 느껴지는 걸까. 게다가 바로 귓가에 들리는 그의 목소리는...낮고 풍성하되 부드럽다.

목소리가 더 듣고 싶다.

무어라 말할까? 아직 그의 입에서 이름을 듣지 못했으니, 물어도 되나? 그녀가 새삼 고민할 때, 그가 입을 떼었다.

“아고.”

“…”

“내 이름…이다.”

리자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제가 불러도...”

“된다.”

“네.”

사실 벌써 멋대로 불렀으니 늦은 감은 있지만.

“아고,”

나지막하게 그의 이름을 불러보았다. 선명히 들렸는지 등으로 느껴지는 상체에서 떨림이 전해졌다.

작게 미소 지은 그녀는 눈을 감았다. 등 뒤의 굳건한 존재는 그녀를 위험천만한 비행 중에서도 나른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

왕. 최초의 왕. ‘침묵하는 자’. 위카이사의 왕, 아고.

기분 좋은 몽롱함에 서서히 녹아든다.

스스로에게 반문했다. 그녀는 쉐이파디아의 선물로서, 셰이에게 다짐했던 대로 잘하고 있는 걸까. 고귀한 왕인데 그녀의 이런 제멋대로인 행동들이 용납되는 걸까. 그녀는 사실 아고를 다른 그 누구보다도 낮게 취급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은 이어지고 이어져 더 깊숙해진다.

그는 그녀를 어떻게 생각 하고 있을까. 자신처럼 호감을 느끼고 있을까? 그냥 그가 착한 사람이라서 속절없이 받아주는 건 아닌가. 그와 그녀의 관계를 무어라 정의해야 할까?

‘리자, 너는 잘 할 거야.’

복잡해지는 생각들을 뚫고 상냥한 셰이의 응원이 떠올랐다.

‘고마워요.’

단번에 혼란스러움이 정리된다. 역시 셰이. 그녀가 보고 싶다.

되돌아보면, 셰이와 함께한 시간은 꽤나 길었다. 리자는 셰이와 대화하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잘 적응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었다. 그것은 셰이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셰이가 없는 지금은 그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사실 본질적인 고민은 ‘무얼 해야 할까?’에 대한 것이다. 아고에게 도움이 되고 싶지만, 그것을 어떤 식으로?

다른 걱정들도 꼬리를 물고 찾아왔다. 카이사에서 어떤 생활을 하게 될까, 당장 어떤 지위를 가지게 될까. 아고는 다정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럴까?

쓸데없는 걱정이란다.

선연한 음성이 속삭였다. 리자는 점점 잠에 빠져들었으므로 깨닫지 못했지만, 그녀에게 익숙하기 그지없는 자잘한 빛들이 그녀의 귓가에 맴돌다가 사라졌다.

평범한 인간은 가늠할 수 없는 아주 오랜 시간을 살아온 왕은 오늘만 하더라도 생애 가장 잊을 수 없는 경험들을 몇 번이나 쌓고 있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전, 그녀가...그러니까 제 품 속으로 안기던 바로 그…,

“...아,”

붉어진 얼굴을 한 손으로 쓸었다. 아까, 리자의 몸이 혹여 떨어질 까봐 전전긍긍하며 붙잡고 있을 때, 감히 그녀의 몸에 닿을 생각은 하지 않고 있을 때. 그 작은 몸은 슬금슬금 뒤로 다가오더니 점차 그의 품으로 기어들어왔다.

카이사의 칼바람으로부터 지킬 요량으로 단단히 몸을 붙들었던 손은 속수무책으로 나가떨어졌다. 그는 손가락 하나 들어 올리지 못하고 완전히 멍한 상태가 되었다. 그녀의 무게는 작디작았지만, 심장이 눌린 듯 버거운 느낌이 들었다.

정말이지, 만난 이후론 정신이 하나도 없다. 두려울 만큼 순간순간들이 벅차다.

이전에 갖던 의문들은 여전히 그를 치고 올라왔다. 당신은 나를 알고 있나. 알면서도 나를 택할 수 있나. 그럼에도 이렇게 상냥히 대할 수 있나.

그를 쓰레기의 왕이라 한다. 악취가 난다 한다. 그와 그의 백성들은 그것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모두가 그러했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시선에서 그는 정말 더러운 존재이리라 확신하였다.

그럼에도 그녀, 리자는...

“리자,”

고작 이름 하나 부르는 것임에도 목소리가 잘게 떨렸다. 충동적으로 불러놓고 혹시 그녀가 들었을까봐 화들짝 입을 틀어막았다. 슬금슬금 눈치를 보는데, 그에게 몸을 완전히 기댄 그녀는 미동이 없었다. 고르게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어깨.

자는 건가? 큰마음 먹고 고개를 내밀어 내려다보았다.

“...”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원래 할 말도 없긴 했지만, 숨이 턱 막혔다. 제 품에 안긴 그녀는 새근새근 잠에 들어 있었다.

재빠르게 고개가 원 상태로 돌아왔다.

어, 어…어떻게 하지? 마치 작은 새가 날개를 접고 둥지에서 잠이 든 것처럼...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목까지 차올랐다. 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이 가능하게 된 건지 도통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다.

그녀를 껴안을까 무의식적으로 손을 올렸다. 제 품으로 더 깊숙이, 완고히 끌어들이리라.

“...!”

그런 스스로에게 화들짝 놀라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아래로 내렸다.

지금 어딜, 감히? 그에게 그럴 자격까지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욕심을 내? 몰려오는 자괴감에 눈매가 괴롭게 일그러졌다.

쯧쯧,

답답하다는 듯 혀를 차는 소리가 선명히 들렸다.

뭘 그러고 있어? 기회잖아. 껴안아.

그를 일갈하는 날카로운 목소리. 아고는 흠칫 굳었다. 익숙한 목소리였으나 지금 들려선 안 되는 이의 것.

“타이사,”

오랜만, 주인.

“…”

주인 하는 꼴이 하도 답답하길래 나와 봤어.

붉은 눈동자를 요사스럽게 뜨고 있는 검은 고양이. 놀람으로 커다랗게 뜨였던 눈이 원래의 그 무감각하고 공허한 빛으로 돌아왔다. 이것은 그의 권능 중 하나, 그의 일부.

긴 꼬리가 그의 등을 스쳤다. 아고의 회색 눈동자는 금세 서늘해졌다. 타이사, 그를 곤란하게 만드는 직설적인 화법을 가지고 있어서 아고가 꺼리는 대상 중 하나였다.

“...명한 적이 없는데.”

아고치고는 꽤 사나운 어조였다. 어느 정도 이례적인 일인가 하면 말한 아고나 들은 타이사나 몸을 움찔할만큼.

오, 주인. 지금 나한테 화낸 거야? 응?

빠르게 무표정으로 돌아온 아고와 다르게 타이사는 곧 웃음을 터뜨렸다. 진실로 즐겁고 유쾌하다는 듯이 맑은 소리였다.

“...”

인상이 일그러졌다. 타이사는 워낙 제멋대로이고 주인인 그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원체 그런 이인 걸 알므로, 아고 자신이 평소의 상태였더라면 이런 일에도 아무렇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그는 왜인지...매우 예민하다. 안 돼. 티 내지 않으려 입술을 물며 감정을 눌렀다.

작은 고양이는 비행하는 타이온의 몸체 위에서 훌쩍 도약하여 리자와 아고의 앞에 착지했다.

타이온과 같이 검은 털과 새빨간 눈동자. 타이사는 아고의 품에 안겨 잠든 리자를 빤히 바라보았다. 이윽고 골골거리는 소리와 함께 만족감을 표출해낸다.

얘가 쉐이파디아님의 선물?

나른하나 요사스럽게 빛나는 눈. 그녀에게 접근해온다. 순간적으로 리자를 강하게 껴안아 제 품에 더욱 밀착시켰다.

타이사는 눈동자를 휘며 웃었다.

우리 순둥이 주인님이 이렇게 날이 서다니. 놀라운데?

“…”

흠? 근데 이 여자, 나랑 타이온처럼 검은 털이야. 완전 친근해.

“…”

아고는 반응하지 않았다. 다만 파르르 떨리는 눈동자로 첨예하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지라, 타이사는 흥미로웠으나 부러 시시하단 표정을 내보였다.

근데...

꼬리를 살랑거리며 말끝을 늘어뜨렸다. 타이사의 화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아고는 바짝 몸을 굳히며 그것을 보았다.

그거 빼곤 특별할 거 없네?

“타이사,”

아, 물론 우리가 ‘투시’한대로 투시도 먹히지 않고, 쉐이파디아님의 빛이 과보호하고 있긴 하지만.

아고는 이전엔 그저 부담스럽기만 했던 타이사가 슬슬 거슬리기 시작하였다.

딱히 그게 무슨 도움이 될지 모르겠단 말이지. 차라리 옛날의 그 누구냐, 그 키 작고 건방진 왕 새끼한테 간 여자처럼 미친 듯이 예쁘든지, 아니면…,

“…타이사,”

왜? 이왕 쉐이파디아님께 선택 받은 거 좀 더 좋은…,

“그만.”

왕은 경고했다. 이유를 꼬집을 순 없었지만 듣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따라서 그가 의도하지 않았다 한들 그의 말 속에 무의식중으로 힘이 담겼다.

억! 쳇, 알았어.

완전히 바닥까지 엎드러졌던 고양이는 조그마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여전히 여유로움은 있어서 느린 걸음새로 아고의 등 뒤 그림자로 걸어간다. 고분고분히 사라지겠다는 의사만으로도 충분히 기꺼워서 아고는 기세를 잠재웠다.

“...”

리자가 깨지는 않았을까 흘끗 아래를 내려다본다. 다행히 숨소리가 고르다.

왕의 그림자로 되돌아가면서 고양이는 실없는 웃음을 흘렸다. 그는 더할 나위 없이 깊은 만족감과 기쁨을 느꼈다. 평소 제 주인이 순하디 순해, 능력도 없는 반푼이 왕들에게 쥐어 터졌던 것이 불만이었던 그였으니까.

비록 주인의 화를 샀더라도 그가 분노를 표출했다는 그 사실에, 저를 거스른 이에게 반응했다는 그 사실 하나에 지독히도 즐거웠다. 사나운 목소리! 원래 제 가시 돋은 말에도 쩔쩔 매어 금세 피해버리던 주인인데. 자신을 힘으로 억누르기까지 하다니.

정말이지, 말도 안 돼. 저 여자, 쉐이파디아님의 선물은 능력이 없는 게 아니다. 실은 그 어떤 왕도 발견하지 못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제 주인을 반응하게 만들다니. ‘분노’하게 만들다니! 이게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얼마만큼의 영향을 끼칠지 감히 그 누가 상상할 수 있겠나.

너, 이 반푼이 왕 새끼들, 감히 누구 앞에서 나대는지도 모른 채 날뛰던 귀족 새끼들.

이가 바득바득 갈렸다. 그러다가 다시 온 몸이 희열로 떨렸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이후의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바뀔지 상상 하는 것만으로도 전율이 흘렀다. 진득한 미소를 지으며 고양이는 그림자로 ‘완전히’ 흡수되기 전,

그래도 싫단 얘긴 안 했다? 난 그 여자 좋아.

도도하게 중얼거렸다. 다 들어놓고서도 답은 하지 않았으나 아고는 슬그머니 눈매를 이완시켰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선택의 의식이 이루어지는 성지가 이제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카이사의 돌거인 아오그란시스 역시 아직 보이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반절쯤 온 셈이다.

쿵, 쿵, 쿵 등 뒤로 느껴지는 정박자의 심장소리. 둔탁한 안정감 속에서 리자는 어렴풋이 깨어났다. 몽롱한 와중에 추위와 바람 속에서 든든히 자신의 상체를 옭아맨 손길을 느꼈다. 무거운 눈꺼풀이 한 번 두 번 움직였다.

‘이게 뭐지?’

그녀를 껴안은 두 팔.

'아고가 껴안고 있어?'

눈을 다시금 감았다.

'꿈을 꾸고 있는 거겠지.'

꿈이라면 깨지 마라. 작게 속삭이기도 했다.

"…"

그렇게 아쉬운 마음으로 꿈에서 깨어나길 기다렸다. 그러나 점점 정신이 뚜렷해졌다. 당황이 가득 담긴 눈동자가 번쩍 뜨였다. 몸을 껴안은 촉감이 꿈이라고 하기엔 생생했다. 지금 정신도 멀쩡하고. 그렇다면 지금은,

'꿈이 아니야?'

사실을 확연히 깨닫자, 찬물에 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고가 정말로 그녀를 껴안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아고가.

멍하니 눈을 내리자 굳건히 제 몸을 두른 팔이 보였다. 몰려오는, 달디 단 기쁨을 어찌하랴. 가슴을 간질거리는 감정에 씩 웃고는,

'흡!'

제 소리를 들었을까, 긴장했다.

“...”

다행히 그에겐 반응이 없다. 아마 바람이 워낙 거세 들리지 않은 것일 터다.

‘아니면, 익숙해진 건 아니겠지? 벌써?’

그가 자신에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꽤나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이다. 언제부터 자신이 이렇게 얄궂은 사람이었나 싶지만. 불쑥 심술이 올라왔다. 장난기가 솟은 그녀는 몸을 잘게 뒤척였다.

“으음...”

“…!”

그제야 그가 몸을 굳힌다.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귓가에 들렸다. 그녀가 생각하고 기대하던 바로 그 반응이라, 아고에겐 미안하지만 조금 즐거웠다. 만족스럽게 웃다가 그가 고개를 숙이려는 낌새가 보여 재빨리 눈을 감았다.

신중한 시선이 내려왔다. 조심스럽게 바라본다. ‘조심스레’인지는 그녀야 눈을 감고 있으니 확인할 도리가 없지만, 그냥 그는 자신에게 그렇게 대하였으므로 당연히 그리 생각되었다.

혹시 내가 깨어 있다는 걸 눈치채는 건 아니겠지? 자는 척 하는 것도 웃기지만, 그렇다고 깬 걸 들켜버리면 아고의 성격상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팔을 풀어버릴 것 같았다. 혼자만의 부끄러움을 감수할 것이냐, 아고가 주는 온기를 빼앗길 것이냐. 격렬한 고민에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자, 그가 다정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불편한가?”

꾹 입술을 물었다. 순간적으로 이상한 소리가 터져 나올 뻔했으니까. 그 감미로운 음색도 음색이지만 그보다는...속에 담긴 걱정이, 확신할 순 없지만 애정이라 추측되는것이 지나치게 좋았다. 달다. 너무나.

저도 모르게 올라가려는 입 꼬리를 억눌렀다. 나중에는 제어가 불가능해져서 일부러 숨기기 위해 입을 오물거렸다.

“으응,”

“잘 자는군.”

한참을 내려다보던 아고가 다정하게 중얼거렸다. 그 목소리는 진실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나 들려줄 만큼 한없이 부드러웠다.

'그래, 그냥 자는 척 하자.'

그녀는 스르륵 고개를 기울여 그의 팔뚝에 기대며 혼신의 열기를 펼쳤다. 꽈악, 그녀의 상체를 껴안은 손길이 더 세졌다.

‘숨 막혀...’

그의 힘이 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냥 감정이 터질 듯 부풀었다.

“…으,”

그의 입에서 의미 모를 신음이 나왔다. 아마 그녀를 껴안고 있지 않았더라면 그는 손에 얼굴을 파묻었을 것이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다시 시간은 흘렀다. 연기를 펼치던 그녀는 곧 나른함에 취해서 정말로 잠에 들어버리고 말았다.

아고는 고르게 숨을 내뱉으며 자는 리자를 내려다보곤 아주 옅게 웃었다. 추위와 바람에도 잘 자는 게 신기하기도 해서. 보고 있을 수록 기분이 이상해졌다. 그가 아는 종류는 아니었다. 비슷한 감정을 느껴본 적도 없었다. 그렇기에 그는 정의할 수 없었지만 구구절절 설명하자면 일단 그녀의 늘어뜨린 머리카락의 색이 검었다. 그래서 그는 눈이 부셨다. 감고 있는 눈매가 아래로 약간 쳐져 있었다. 코는 오똑했고, 속눈썹 끝이 약간 올라가 있었다. 그래서 가슴께가 답답했다.

뭐지? 무슨 느낌이지, 이게? 선택을 받은 자들은 다 이런 걸까. 쉐이파디아의 선물은 원래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하는가? 여러 고민들이 중첩되었지만 대답해 줄 수 있는 이가 없었다. 시름이 깊어질 뿐이었다.

"…!"

맞닿은 공기가 이질감을 몰고왔다. 아고는 바짝 몸을 굳히며 먼 시야를 바라보았다. 은색 눈동자가 까맣게 변했다.

주인, 뭔가 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저 하늘 끝, 목에 걸린 이물질처럼 이 공간에 맞지 않는 존재가 있다. 돌연변이, 흐름을 깨고 강제로 욱여진 것이.

"하아…"

참을 수 없는 한숨이 터져나왔다. 왜, 대체 왜 가만히 두지 않는 걸까?

“까아아아아,”

곧 기괴한 소리가 퍼졌다. 타이온의 털이 휘날릴 만큼 강력한 파동이었다.

저건 뭐지?

투시하지 못하는 타이온이 중얼거렸다. 체구에 비해 입이 몹시 컸다. 덩치는 얼마나 큰지 산도 삼켜낼 만큼 거대한 아가리였다. 몸에 돋아난 비늘들은 부숴진 돌처럼 견고했고, 눈은 하얗게 타 있어서 시력이라곤 남아있지 않는 것 같았다.

"...심해어…"

그러나 정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 기괴한 형상의 그것이 하늘을 가르며 달려온다. 수 백만 개의 형형한 이빨을 드러낸 채.

“...”

타이온과 타이사 같은 왕의 ‘권능체’이다. 아직 판단을 내리지 못한 아고는 손이 바르르 떨리는 것을 막으려 주먹을 쥐었다. 먼젓번의 독사와는 차원이 다르다. ‘권능체’는 왕에게 완전히 속한 것이며 왕의 일부. 능력 자체에서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것이, 독사들의 수준이 먼지바람이라면 ‘권능체’는 태풍이었다. 그러나 그가 기꺼워하지 않는 것은 힘 때문이 아니었다. ‘권능체’는 개별적으로 인격을 갖춘다. 그 사실이 영 마뜩치 않아서.

“...”

눈동자가 음울히 가라앉았다. 공격하고 싶지 않았다. 그가 힘을 쓴다면, 그건 ‘끝’에 다다르니까. 자신의 속에 숨어있는, 통제 불가능한 거대한 괴물은 하나의 생각과 감정을 갖춘 존재를 뿌리까지 말살할 것이다.

"까아아아아아!"

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전처럼 가만히 있을 것인가? 아니, 절대로. 그럴 순 없다. 제 품 안의 존재를 지켜야 했다.

"타이사,"

아고는 그림자에서 검은 천을 뽑아 냈다. 검은 천 위로 빨간 눈동자 두 개가 생겨났다.

살다 보니 이런 일도 경험하네? 주인이 나를 먼저 불러내고, ‘이런 용도’로 나를 쓰다니.

답하지 않은 채 리자 위로 천을 둘러쌌다. 천 끝으로 길쭉한 고양이 꼬리가 살랑거리다가 다시 천안으로 사라졌다.

저건…?

"능력은 쓰지 마라."

기묘한 눈이 샐쭉 휘어졌다. 그러나 복종할 수밖에 없다.

쳇, 알았어.

불러준 것만도 장족의 발전이었으니까.

그나저나 구더기 같은 새끼. 우리의 왕이 선택 받는 걸 가만히 두고 보지 않겠다는 거군?

아까 독사들도 그렇고. 의식 후에 공격이 두 번이나 이어지는 것은 처음이었다. 애초에 두 번째 왕들은 의식 전에나 공격해댔지, 의식이 끝나면 그를 '동정'하며 내버려두었다. 그건 그것 나름대로 비참한 기분이었다. 또 쉐이파디아의 선택을 받지 못했고, 카이사의 사람들은 실망할 것이며 '쓰레기의 왕'이라는 오명은 변함없이 이어지기에.

곱씹고 싶지 않았지만 강제로 떠올린 기억은 되려 리자의 존재를 상기시켰다. 아고는 품 안의 그녀를 내려보았다. 잿빛 눈동자는 아주 희미하게 영롱한 기미가 감돌았다.

그는 아직도 잊지 못한다. 그녀가 그를 선택한 그 순간, 지옥같이 목을 옭매던 족쇄가 풀려나간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자유에 한참을 얼떨떨해 했다. 아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몸부림 쳐도 벗어나지 못하던 늪 속에서 그는 건져짐 받았다.

"...지켜야…해."

이 감정은 단순하지 않다. 다 보답할 순 없겠지만 적어도 그녀를 보호해야 한다.

아고는 어느 정도 결심을 마쳤다. 가라앉은 회색 눈동자로 저 너머의 권능체를 바라보았다.

엥?

'투시' 타이사조차도 읽어 내지 못한 전개였다. 갑작스러운 허공. 훅 엄청난 중력이 아래로 끌어당겼다. 아고가 리자와 타이사, 정확히는 타이사에 둘둘 싸인 리자를 허공으로 떨어뜨린 것이다.

주인! 날 이렇게 버리냐! 맙소사, 아무리 내가 싫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런다고 내가 죽을…,

"리자를...지켜."

주인!

애잔함 마저 묻어나오는 마지막 말이었다. 아고는 타이사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지체하지 않고 흉측한 물고기에게 정면으로 달려들었다.

성인 남성으로 몸을 변화시킨 타이사는 기 막힌 심정을 추스리지 못하면서도 리자를 고쳐안고 몸을 웅크렸다. 고양이의 특성이 남아있는 몸은 그 높이에서도 가뿐한 착지를 성공시켰다. 몸에 일절 충격을 받지 않으면서 우아한 자세를 고수한 그는 주인에게 시선을 떼지 못했다.

"대체 뭘 하려고…"

걱정스러운 눈빛은 얼마 안 가 그 속내를 투시했다.

"미친 거 아니야?"

타이사가 경악스러운 표정으로 머리를 붙잡음과 동시에 거대한 충격음이 대지를 울렸다.

리자는 기이한 곳에 서 있었다. 하늘도 땅도 온통 물이었다. 동굴에 있는 기분이었다. 물이 톡 톡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졌고, 그 작은 소리가 아주 크게 울렸으니까. 거대한 시계 속에 삼켜진 기분이었다. 물 떨어지는 소리가 그마만큼 일정했으므로, 종래에는 신경조차 쓰지 않게 되었다.

걸어.

누군가의 목소리가 공기를 타고 흘러왔다. 매끄럽고 유연하지만, 울림은 없었다. 그저 흐를 뿐이었다.

"누구세요?"

리자는 주변을 살폈지만 과연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다. 찰랑, 찰랑. 딛고 있는 물은 끝없는 심연처럼 검은 입을 벌리고 있었지만 신기하게 발목 바로 아래까지만 물에 잠기었다. 그 이상 빠질라치면 무언가가 발을 밀어내었다. 리자는 계속 걷기로 했다.

"여긴…"

이 공간은 셰이가 왕의 본성을 보여줄 때와 비슷한 감각이 느껴졌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 순간, 쏴아아 하늘의 물들이 흘러가기 시작했다. 리자는 고개를 들어 머리 위에서 넘실거리는 파도를 바라보았다. 삼킬 듯이 커다란 소리였지만 그녀는 별다르게 겁먹지 않았다. 이미 셰이와 함께 하며 훈련받았다. 셰이를 따라 갔던 곳들은 아름답지만은 않았으니까. 지금 이것보다 더 큰 무력감을 안겨주고 더 무서운 곳이 많았다.

리자는 계속 걸었다. 셰이가 함께 한다고 했다. 느끼지 못해도, 보이지 않아도. 어떤 곳에 있든 자신을 지켜주었을 때처럼 지금도 그러하리라.

그녀에게 별다른 표정 변화가 없자 머리 위에서 위협하던 흐름도 잠잠해졌다. 다시 처음의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톡, 토옥, 톡, 토옥,

"뭘 원하는 거에요?"

'의도'가 있을 것이다. 누구인지는 짐작가지 않았지만.

끝.

"누구의?"

다시 대답이 없다. 정말 제멋대로인 존재였다.

리자는 다시 걸을 수밖에 없었다. 아마 그걸 원하겠지.

거기.

어느 정도 걷자 목소리가 다시 지시했다. 움직이던 발이 우뚝 멈추었다. '거기'라니? 그렇게 지칭할 만한 부분을 찾아서 고개를 돌려 사방을 살펴보았다. 계속 보았던 것처럼 물 뿐이었다.

"어디를요?"

아래.

딛고 있는 발 아래를 바라보았다. 물, 그리고 물, 더 깊게까지 물, 그 아래는 보이지 않는 어둠이지만 물.

"아무 것도 없는데..."

자세히 봐.

스스스, 녹슨 철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시야에서는 계속 검음 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소리만큼은 점점 더 커졌다. 챙, 끼이익, 끼익,

"...뭐지?"

눈이 조금 더 밝아졌다. 깊은 수면 아래 얼기설기 맺힌 검은 지느러미가 있었다. 아니, 그것은 불에 달구어진 사슬이었다. 심해의 차가운 물로도 그 열기를 꺼뜨릴 수 없는.

사슬을 따라 아래로 더 아래로 시야를 내렸다. 더 깊은 곳. 잘 보이지 않아 바닥에 엎드렸다.

이제는 족쇄가 보였다. 날카로운 이빨이 달려있는 족쇄들이 '무언가'를 구속하고 있었다.

"…저건,"

그것은 끊임없이 움직였다. 숨을 쉬지 못해 의미 없는 물거품들이 터져나왔다. 소리가 들리지 않는, 들을 수 없는 비명들. 발버둥칠수록 살에 날카로운 것들이 파고들었음에도, 그래서 아주 고통스러울 텐데도 그것은 저항을 멈추지 않았다.

"저게 누구지?"

기묘해.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사방에 뻗친 긴 머리카락, 커다란 키, 이목구비까지 자세히 보이진 않는데…마치...,

쏴아악!

그 순간 잠잠하게 가라앉아 있던 하늘의 수면이 터져내렸다.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물줄기에 몸 전체가 휘말렸다. 리자는 두 손으로 입가와 코를 틀어쥐고 눈을 감았다. 숨이 막힐 것 같아 걱정했는데, 그런 느낌은 전혀 없었다. 표층을 헤집고 조금 더 아래로 떨어지자 몸을 뒤흔들던 물살이 잔잔해졌다.

다시 톡, 토옥, 톡,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눈 떠.

살며시 눈꺼풀을 들어올렸다.

리자는 심해 속에 있었다. 검은 사슬과 가시를 단 족쇄들이 아주 가까이에서 보였다.

누가 대체 저기에 있는 거야?

"아!"

리자는 절규했다. 그는 아고였다.

"안 돼!!! 제발!!!"

발작하듯 비명이 터져나왔다. 리자는 벌떡 일어났다. 식은땀이 줄줄 흘렀다. 온 몸이 떨렸다.

처음 보는 공간에 혼자 놓여있을 때도, 파도가 위협할 때도, 심연 같은 심해 속에 빠졌을 때도 전혀 느끼지 않았던 두려움은 타인에 기인하여 번져나갔다. 족쇄에 묶여 심해에 갇힌 이, 그 얼굴을 보게 되자…, 그 고통이 마주친 눈을 타고 넘어와서. 공포를 억누를 수가 없었다.

"...아고,"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주변을 살펴보았다. 막 깨어난 그녀는 아직 불안정했다.

없다. 그가 없어. 아고가 있어야 했다. 확신이 필요했다. 비틀거리는 몸을 추스르고 주춤 주춤 일어났다.

여긴 어디지? 숲?

"아고,"

어디인가는 중요하지 않아. 그를 찾아야했다.

그것은 환상인가, 실제인가.

관념일 뿐인가, 실재인가.

확인해야만 했다. 무사한지 아닌지 봐야만 했다.

"저기?"

떨떠름한 목소리가 들렸다. 처음 듣는 목소리. 그러나 아고와 비슷한 기운이라서 자욱을 쫓아 시선을 돌리자, 그 끝에는 당황한 표정의 남자가 서 있었다.

"괜찮은 거지?"

"…"

"저기, 정신 이상하고 그런 거 아니지? 응?"

검은 머리카락과 붉은 눈. 익숙한 채도와 낯 익은 조합.

"제발 나 불안하게 하지 말고. 설마 설마 했는데 어디 약간…"

"타이온?"

"아니, 아니. 타이사인데."

타이사라고?

"어, 놀라진 말고. 나는…"

"…'투시' 타이사."

"어? 어."

아고의 권능체.

"…하."

자신의 정체가 간파당하자 다시 한 번 더 당황한 타이사는 리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다다닥 달려왔다. 손을 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쩔쩔 매는 모습이 주인과 비슷했다.

천천히 숨을 고르며 스스로를 안정시켰다. 머리가 점점 맑아지자 자신이 확실히 꿈 비슷한 것을 꾸었음을 깨달았다. 현실의 감각과 전혀 달랐으니까.

그러나 의미가 없는 것인고 하면 그건 아닐 것이다. 잘 기억해두자. 그 기이한 말들과 느낌, '물'들과 물소리, 심해에 갇힌 아고.

완전히 스스로를 추스린 리자는 다시 한 번 벌떡 일어났다. 파들파들 떨던 이가 갑자기 쌩쌩해지자 타이사가 몸을 크게 움찔거렸다.

"와, 너는 투시도 안 되니까 정말 어렵다..."

웅얼거리는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한 리자는 고개를 꾸벅 숙였다.

"이렇게 급작스럽게 인사하게 되네요. 타이사 씨,"

"으응."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인사가 아니라 아고, 그의 안위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아고는 어디에 있어요?"

"주인?"

붉은 눈동자가 도르륵 굴러가고는 위를 향했다. 타이사는 검지를 쭉 뻗어 하늘을 가리켰다.

"저기에."

"그래요?"

리자는 비장한 얼굴로 걸음을 옮겼다. 일 치를 것만 같은 느낌이라 타이사는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녀의 앞을 필사적으로 가로막았다.

"잠깐, 잠깐, 자암깐만!"

"왜요?"

"어디 가는데?"

리자의 손가락이 향하는 것은 하늘 위.

"저기요."

그리고는 성큼 성큼 걷는다. 타이사는 다시 그 앞을 막고는 한숨을 쉬었다.

이 당돌한 여인은, 투시조차 통하지 않아 속을 알 수 없는 쉐이파디아의 선물은 대담한 구석이 있었다. 타이온이나 타이사처럼 권능체인 심해물고기와 왕이 싸우고 있다. 타이온이 버거워하는 게 느껴지는데, 대체 뭘 할 수 있다고 저기를…, 게다가,

"무슨 수로?"

검은 눈동자가 말끔하게 저를 바라보았다.

"타이사 날 줄 알잖아요. 변신 능력 있으니까."

"하아…"

나참, 그는 이마를 되짚었다. 하도 당당하길래 어떤 숨겨진 능력이 있는 줄 알았더니. 물론 따지고보면 능력이 있긴 했다. 쉐이파디아께서 그녀에게 많은 걸 알려주신 것 같으니, 알고 있다는 능력이.

매번 '투시'의 권능체로 남의 속을 샅샅이 살피고 희롱하는 것만 즐겼지, 상대가 볼 수 없는 사람인데다가 자신의 많은 것들을 알고 있으니 기분이 영 이상했다. 타이사의 표정이 오묘해지자 리자는 별 말을 덧붙이지 않았다.

그녀는 시선을 비껴 하늘을 바라보았다. 물고기, 그것도 심해어라. 그녀가 갇혔던 무의식의 공간과 연관을 안 지을 수 있겠는가.

그 순간,

"으윽!"

타이사가 비틀거렸다.

"괜찮아요?"

희게 질린 리자가 그를 부축하자, 타이사는 거친 숨을 몰아쉬고 하늘을 다시 올려다보았다.

"이 미련한 주인이, 진짜!"

심해 물고기의 몸이 박살났다. 아고의 맨 몸과 부딪혀서. 타이사에게 충격이 왔다는 것은 주인인 아고에게도 굉장한 무리가 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능력을 쓰라니까, 좀!"

"무슨 말이에요?"

"하아…"

타이사는 심각한 표정의 리자를 내려다보았다. 오호. 고통에 찡그려져 있던 붉은 눈동자가 금세 반짝였다.

타이사가 백 번 말하면 듣지 않지만. 한 번 호되게 혼나봐라, 고집불통 주인.

"그게…,"

그는 쪼르르 리자에게 모든 것을 일러바쳤다. 듣는 리자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다.

싸움이 완전히 마무리되었다. 걱정스럽게 하늘을 올려다보던 리자는 타이온과 함께 아고가 내려올 기미가 보이자 걸음을 빠르게 옮겼다.

타이사는 진작에 머리가 깨졌을 것이라고, 어깨는 탈골되고 무릎뼈는 아작이 났으리라고 귀띔해주었다. 어느 정도는 마음에 대비를 했건만, 그녀는 결국 벌벌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아야 했다.

막상 돌아온 그의 모습은 생각보다 훨씬, 더, 처참했으니까. 온 몸에 피가 묻어있었다.

"...아고,"

피가 자꾸만 흘러서 오른쪽 눈은 뜨지도 못하면서,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다가오는 그의 존재가 왜 이렇게 아픈지.

타이온은 아고가 땅으로 발을 디딛자, 절뚝이면서 그의 그림자 속으로 녹아들어갔다.

리자가 몇 걸음 다가가자 그의 죽은 시선이 살짝 위로 올라왔다.

"…"

그는 걸음을 멈추었다. 내려다 본 손에는 온통 피, 붉음. 온 몸이 다 그러하리라. 징그럽겠지. 흉측할 스스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몸을 휙 돌린 그는 반대 방향으로 휘적휘적 걸어갔다.

"아고?"

타이사, 카이사까지 리자를 부탁한다.

엥? 주인은 어디 가고?

나는…,

큰 몸이 덜컥 잡혔다.

"어디 가요?"

울먹이는 목소리에 도저히 발을 뗄 수가 없었다.

"…"

우두커니 서 있는 아고의 앞을 다다다 달려온 작은 몸이 가로막았다.

눈물기 가득한 눈과 마주치자 아고는 흠칫 시선을 피해버렸다. 어쩌지?무서울 텐데.

"아프잖아요."

뜻밖의 말에 잿빛 시선이 멍하니 올라갔다. 눈물이 후두둑 떨어지자, 아고는 몸을 움찔거렸다. 닦아줘야 하나. 올린 손이 붉어서 금세 내렸지만은.

"...금방...나을…"

"그래도 아프잖아요."

눈물이 또 후두둑.

쩔쩔 매며 아고는 타이사에게라도 도움을 구하려 했지만, 이미 없었다.

"능력을 쓰라고까진 안 할게요. 다치지만 않으면 안 되나요?"

"..."

"왜 굳이 맞아주고 있어요?"

"..."

"…그러지 말아요. 제발."

입이 달싹이기만 할 뿐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뭐라고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큰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다. 억눌려있던 울음소리가 점차 커지기 시작했다. 그게 자기 몸보다 더 아팠다. 그래서 그는 그냥 있었다. 할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으니까.

언제 울었냐는 듯 금세 기운을 차린 리자는 여전히 속상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맹렬한 기세로 그의 손을 잡았다. 진득거리는 액체로 촉감은 그닥 좋지 않았다. 그걸 당연히 알고 있는 아고도 손을 빼려고 했지만.

"그…으..."

"안 돼요."

"…더러…우니까..."

"싫어요."

리자를 막을 수 없었다. 그녀가 또 울까봐. 물론 그만의 생각이었지만.

"일단 씻어요."

리자는 그를 끌고 물가를 찾기 시작했다. 아고는 그저 빈 나무조각처럼 터덜터덜 끌려갔다. 아파서 무력했기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신기해서. 이런 자신을 망설이지 않고 잡고 있음이.

"왼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호수가 있어."

그림자 속에서 쑥 얼굴만 내민 타이사가 말해주었다.

"고마워요, 타이사씨."

"응."

역할을 다 한 그는 다시 사라졌다.

"그럼 둘이 좋은 시간 보내."

짓궂은 말을 하는 것도 잊지 않고. 괜히 리자만 얼굴이 불긋해졌다.

"크흠,"

민망한 발걸음이 빨라졌다.

얼마 걷지 않아서 과연 타이사의 말대로 호숫가가 곧 나왔다. 리자는 주춤주춤 따라오는 아고를 앉히고 손부터 물을 끼얹었다.

"…내가...해도...된다..."

"..."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를 두고 묵묵히 씻어주었다. 다른 데는 해줄 수가 없으니 손만이라도.

물로 씻어내자 상처가 더 선연히 보였다. 고작 손인데. 손에도 수많은 상처가.

"왜...우나…"

깨끗해진 손이 뺨을 닦아주었을 때, 그제야 리자는 자신이 또 다시 울고 있음을 깨달았다.

자신이 이렇게 울보였나. 달래주니 더 서럽다.

"그러니까, 욱,"

울음이 왈칵 터졌다.

"왜 거기서, 히끅, 맞고만, 흑, 있어요!"

"...맞지만은…않았…는…데,"

"흐끅, 이렇게, 흑, 다쳤잖아요, 끄윽,"

"…미안…하다..."

"사과…하지, 끄으, 말아요. 흑,"

그는 충실히도 입을 다물었다.

리자는 좀처럼 진정될 기세가 보이지 않았다. 되려 호흡이 부족할 만큼 울자 아고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울지…마라."

그 말대로 할 수 있을 리가. 피는 계속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는데.

"...하아…"

결국 그는 한숨을 깊게 내쉬고는 능력을 사용하려 기운을 발동시켰다.

잿빛 눈 가운데에 쉐이파디아의 것과 비슷한 빛이 반짝였다.

유有와 무無를 보았다. 수많은 존재들 사이로 아주 작게 비집고나온 실마리를 잡고, 기운을 불어넣는다. 검고 서늘한, 뼈처럼 앙상한 형체가 아고가 선택한 존재 위로 스며들었다.

태초 이전 갇힌 곳. 공허하게 무 無로 돌아갈 것.

피와 함께 상처가 완전히 사라졌다. 세상이 크게 변동했지만, 오직 아고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었다.

"…"

그는 조금 씁쓸함을 느꼈다. 올려다보는 검은 눈동자에 눈물은 자취도 없이 사라졌으니까.

아마 그녀 역시 기억하지 못하겠지.

그의 능력은 무無. 그는 자신이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무로 돌렸다. 사라진다는 개념이 아니었다. 애초에 존재한 적이 없게 만드는 것이다. 그 누구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은 흔적조차 없이 무로 돌아간다.

왕들 중 오직 그만이 받은 전능.

그러나 피조물의 전능은 가능할 수 없는 것이어서, 저주인지 대가인지 아고는 영원히 세상의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것을 홀로 기억하고 살아갔다. 자신의 손으로 지워낸 것을 영원히.

아고가 능력을 꺼리는 것은 그 때문이었다. 아무리 필요에 의해 소멸시킨다고 하더라도, 아주 긴 시간동안 그것을 곱씹다가 보면 언젠가 후회하게 되었으므로. '굳이 그 때 그것을 무로 돌려야 했는가? 내가 더 참을 수는 없었는가?'라고.

"아고,"

이 작은 이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도저히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

"지금 능력 쓴 거에요?"

그는 자신이 들은 말을 의심했다.

"상처가 다 사라졌어요."

무로 돌린 것을, 기억한다고?

세상에서 오로지 혼자만이 형벌을 짊어지던 그였는데.

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려고 하는 걸까.

두 개의 기억이 공존한다. 혹은 하나의 기억 위로 또 다른 기억이 씌워진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똑같은 것이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다. 설명할 수 없는 질서, 덧씌워지는 기이한 법칙. 기묘한 성질의 이것은 분명 셰이의 전능과 비슷한 면이 있었다.

아고의 상처는 있었으되 없었다. 그는 분명 다친 적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기도 했다.

어렵고 애매모호한 말이었다. 리자는 이전에 이와 비슷한 주제로 셰이와 얘기를 한 적이 있었다.

'이해가 안 돼요. 셰이의 말은 너무 어려워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대로 두면 돼.'

그 때의 말은 다시 한 번 해답이 되었다. 리자는 받아들일 수 없는 모순적인 이 상황을 건드리지 않고 그냥 두기로 했다.

"...어…떻게?"

다만 아고는 여전히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해서. 하얗게 질린 얼굴은 영 돌아올 줄을 몰라 걱정이 슬슬 되었다.

"어…떻게...무無를…?"

"아마 셰이가 알려주었으니까 알지 않을까요?"

셰이가 직접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았더라도, 함께 한 시간동안 모든 것을 통하여 리자는 배웠다. 셰이의 잔재는 리자의 무의식에도 행동에도 말에도 담겨있다.

"제가 혹시 잘못한 부분이라도…"

"아니."

평소의 말투와 달리 칼같은 대답이었다. 리자는 작게 웃었다.

"아고가 더 아프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

덧붙이는 말에도 그의 심각한 얼굴은 풀릴 기색이 없었다.

타이온이 그림자에서 나왔다. 그들은 다시 카이사로 길을 떠났다.

바람은 칼같이 피부를 가르며 기승을 부렸다. 이전보다 더 말이 없는 데다가 그는 계속 종잡을 수 없는 표정인지라 리자는 아고에게 더 기대지도, 춥다고 말하지도 못하고 코를 훌쩍거렸다.

얼마나 더 가야할까? 이러다 분명 감기에 걸릴 것 같은데. 카이사 사람들에게 보이는 첫모습이 콧물을 흘리고 기침하는 모습이라니. 아, 그건 너무 끔찍하다.

여러 생각을 곱씹고 있을 때, 검은 천이 그녀의 몸을 덮었다.

“…이건?”

어리둥절하게 천을 내려다보는 그녀의 몸을 강한 팔이 껴안았다. 생각지 못하게 벌어진 일이었다. 당연히 리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얼굴을 붉혔다. 그녀의 얼굴을 보지 못한 아고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바람이...춥다.”

“...”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지만, 입을 열더라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리자는 그냥 고개를 끄덕거리기만 했다.

한동안 어색한 침묵이 감돌았다.

졸리진 않고, 뭐라도 대화하고 싶은 마음에 고민하던 리자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저한테 궁금한 건 없어요?"

고심 끝에 나온 말이 고작.

'저런 질문밖에 못하다니.'

스스로에게 한탄하며 눈을 질끈 감았다.

"...있다."

'어?'

예상 외의 답.

"어떤 거에요?"

"..."

그는 한참을 뜸을 들였다.

뭘 물어볼까? 은근히 긴장이 되었다.

"…좋아하는...색."

"네?"

"...그대가…좋아하는...색."

소소한 질문이라 조금 놀랐다. 그러나 그마저도 물어봐 준 것이 기꺼워서 서둘러 입을 열었다.

"아, 파란색이요. 은색도 좋고, 보라색이나 빨간색도 좋아요."

"아…"

머리 위에서 그가 고개를 끄덕이는 게 느껴졌다.

그의 눈동자가 은색이라서, 머리카락이 적보라빛이어서 일부러 그렇게 말했는데 과연 아고가 알아차릴 지는 모르겠다. 그녀는 이어서 자신도 질문을 할까 고민했다.

"좋아…하는 음식은...있나?"

질문이 또 있어?

'신기해라.'

입꼬리가 올라갔다.

"사실 셰이와 있을 때 음식을 먹은 적이 많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단 것은 뭐든 좋아했어요."

"단 것..."

그녀는 아주 좋은 질문을 한 스스로를 칭찬했다. 아고는 이후에도 끊임없이 질문을 했으니까. 뭐하는 것을 좋아하는 지에서부터, 좋아하는 동물, 꽃, 날씨, 성격, 옷 등등 인터뷰하는 것처럼 아주 세부적으로 물어보았다.

"근데, 아고. 왜 싫어하는 것은 안 물어봐요?"

그래. 질문을 계속 받다보니 의아함이 떠올랐다. 좋아하는 색,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활동, 좋아하는 꽃 등등. 싫어하는 것 하나 물어볼 법 한데도.

"그건…"

궁금하지 않다고, 한참 후에 그는 답해주었다. 무언가 묘하게 이상한 답이었지만 리자는 신경쓰지 않기로 했다.

도란도란 이야기가 오가는 중에 검은 천 위로 빨간 눈동자 두 개가 생겨났다. 키득키득 소리 내어 웃던 그것은 뱅글뱅글 천 위를 돌아다니며 아고와 리자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와, 진짜 대단하다고. 쉐이파디아님의 선물.

오직 아고만이 들을 수 있는 음성. 그러나 그 주인은 리자와 이야기를 하느라 타이사에게 신경은 커녕 인식조차 하고 있지 않았다.

도착하면 카이사에 난리가 나겠네.

여태 그에게 신경을 전혀 주지 않던 아고가 게슴츠레 눈을 뜨고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무슨 소리인가.

그 난리가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었는데, 주인은 꽤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럼에도 타이사는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아서, 오히려 아주 작게나마 표현을 하는 주인이 기꺼워서 눈을 잔뜩 휘었다.

타이사,

거역할 수 없는 주인의 부름.

그렇잖아. 카이사가 그토록 기다렸던 선택을 받은 건데. 축제를 벌이고 연회를 열고 난리가 나지 않겠어?

“…아,"

그 순간 아고와 하나이되 개별체인 타이사는 순수하게 놀라워했다.

주인, 왕이면서 카이사를 까맣게 잊고 있었어?

"…"

리자 그녀는, 쉐이파디아의 선택은 분명 카이사 전체가 나눌 기쁨이다. 그러나 묘하게도 카이사 전체의 기쁨이요 영광이라 생각하지 않고, 왕은 줄곧 자신만의 행복에 젖어있었다. 그가 다른 왕들의 모멸을 감수하면서도 기어코 이 선택의 날에 나온 것은, 오직 카이사를 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이사조차 주인에게 낯설을 정도의 이질감을 느꼈다.

그는 단 한 번도 스스로가 카이사, 버림받고 사라진 존재들의 왕임을 잊은 적이 없다. 정말 기이하지. 그녀를 만난 이후로, 그는 그들 카이사의 왕이라거나 더러운 악취의 존재라기보다는 그냥 평범한 존재가 되어 순수하게 기쁨을 느끼고 있었다.

...기뻐할 것 같나?

내가 장담하건대 로에시소 그 늙은이는 펑펑 울걸?

그 말 그대로 늙은 집사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는 모습이 상상되어 피식 웃었다. 이제서야 아고는 ‘그녀와 함께’ 카이사에 간다는 것이 설레었다.

카이사 위의 모든 이들이 기뻐하리라. 그녀는 환영 받을 것이다. 사랑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녀는 환히 웃겠지. 카이사에서...행복해지겠지.

허어?

타이사의 눈동자가 동그래졌다. 앞만 바라보며 아고의 질문에 열심히 답해주던 리자는 안타깝게도 보지 못했지만, 인형처럼 다채로운 표정을 짓지 못하는 왕이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진실로 맑고 기뻐 보였으므로, 종래에는 타이사 또한 순수한 웃음을 지을 수 있었다.

버림받은 자들의 나라, 카이사. 400일의 태반이 잿빛 먹구름으로 뒤덮여 우중충한 이 땅 중앙에는 거대한 돌거인이 있다. '아오그란시스', 카이사를 떠받드는 돌거인. 근방에서 가장 높은 산이 고작 허리에 미치는 것을 생각하면, 그 크기의 정도를 대충 가늠할 수 있으리라.

카이사가 세워질 당시 카이사의 왕 ‘침묵하는 자’는 이 거대한 석상을 심연에서 꺼내어 중앙에 심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아오그란시스는 카이사의 구역을 나누는 기준이 되었다.

회색빛 어깨와 왼쪽 손으로 왕이 사는 본궁과 10개의 탑이 세워진 땅덩어리, 왕가를 떠받든다. 하늘을 향해 뻗은 오른쪽 손바닥 위에는 쉐이파디아를 위한 신전이 존재하며, 거대한 두 눈구멍에는 고대부터 왕가를 수호해오던 7개의 가문이 살아가고 있다. 그 아래… 아오그란시스가 디딘 땅, 그 광활한 지역은 카이사의 평범한 백성들이 사는 터전이었다.

“쉐이파디아시여,”

허리가 구부정한 노인이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다. 그 옆을 지나가던 검은 머리카락의 아이는 동그란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를 시작으로 주변의 사람들도 걸음을 멈추고 잠시간 하늘을 바라보며 신의 이름을 불렀다.

카이사는 하늘빛이 어둡다. 거기에 왕의 영향이거나 그들 본연의 성격인지 조용하고 울적한 분위기가 있었다. 마을은 사람들로 북적이지만 소란스럽지 않다.

오늘은 이례적으로 그 목소리들이 컸다. 대화의 주 내용은 쉐이파디아의열 여섯 번째 선택의 의식이 있으며, 그들의 왕이 다시 그 자리에 참여한다는 것이었다. 사실상 수많은 세월 동안 선택 받지 못한 그들로선 선택 받으리란 기대가 전혀 없었다. 다만 그들이 관심을 쏟는 것은, 자신들의 왕. 버림받은 그들을 거둠으로 동시에 모멸 받기 시작한 왕.

잘 표현하진 못하더라도 왕을 닮아 다정한 그들은 마음 깊이 왕에게 감사했고 한없이 따스한 왕을 사랑하였으므로.

그들이 느끼는 것은 부질없는 희망 따위가 아니라 저들의 왕이 모욕을 받음에 대한 억울함과 격분이다. 선택의 때, 그들의 왕은 또 다시 다른 왕들에게 무시 받으리라. 조롱 당하고, 같잖은 말들을 듣겠지.

“왕께서 무사히 돌아오시길.”

노인은 가라앉은 눈으로 짧은 기도를 올렸다. 그리고 지팡이를 움직이며 본디 가던 길을 갔다. 아이는 그가 떠나자 작은 고개를 힘껏 젖혀 하늘을 바라보았다.

왕은 갔다. 그것이 왕과 카이사에게 씌워진 오명, 신에게조차 선택받지 못하고 버려졌다는, 그 지독하고 끈질긴 굴레를 벗어 던지기 위함을 모르는 이가 없으리.

그러나 희망을 어떻게 다시 붙잡을 수 있겠는가? 선택 받지 못한, 진실로 버림받은 때가 너무나도 오래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힘들겠지.”

“그런가?”

한 줌 남았던 소망마저 남아있을 수 없는 것이다. 멈추었던 이들이 다시 길을 간다. 누구도 기대하거나 희망하지 않는다. 그들은 체념했고 포기한지 오래니까.

언제부턴가 푸른 하늘을 잿빛 먹구름이 삼키기 시작했다. 그 칙칙한 빛은 계속 이어지고, 점점 온 사방이 황폐한 대지로 그득 찼다.

"왜 하늘에 먹구름이 저렇게 많지?"

그녀가 기댄 아고의 몸이 움찔 굳었다. 고개를 올려 흘끗 보니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리자는 눈치껏 아주 나중에나 지나가는 말로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시선을 돌린 곳, 저 멀리 거대한 석상이 있다. 거대한 땅덩어리를 지고, 여유로운 손은 하늘을 향해 펼친 기이한 자세의 거인이.

“아...”

리자는 자신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으며 그것을 바라보았다. 거인이 지고 있는 땅덩어리는 거대하지만 아직 정확한 형태는 보이지 않았다.

거인이 점점 커진다. 한계를 모르고 더, 더. 그녀의 시야에 좀처럼 담을 수 없을 만치 가까워지는데, 막상 그 거리는 그다지 좁혀지지 않았다. 거인이 이고 있는 땅덩어리, 그 위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다.여러 개의 탑이 세워져 있다.

“저긴 어딘가요?”

“왕가.”

“아고가 머무르는 곳인가요?”

“…그렇다. 10개의 탑과...본궁이 있다.”

새삼 저를 껴안고 있는 아고의 지위가 깊이 각인되었다. 최초의 왕, 카이사의 지배자. 그 어떤 수식어도 필요 없는.

잠들기 전에 그녀의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하던 걱정들이 다시금 올라왔다. 그녀 자신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카이사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이제 곧...카이사다.”

그녀를 집어삼킬 만큼, 이제는 두 시야로도 채 담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크기. 카이사, 그녀와 아고의 도착지.

왜인지 숨이 막힐 정도라 그녀는 시선을 아래로 내렸다. 숨이 좀 트인다. 땅에 넓게 펼쳐진 마을들, 빼곡히 메운 집들. 점과 같아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사람들을 보니, 그녀가 올라와있는 높이를 새삼 실감할 수 있었다.

마음이 작은 깨달음에 울렸다. 적어도 그녀가 보고 있는, 이땅 위의 모든 것이 아고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

“정말로,”

그것은 경외감마저 느낄 정도의 감탄이라. 말을 뱉지 않고선 견딜 수 없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멋있네요.”

“...고맙다.”

그의 목소리가 한없이 떨렸다. 보지 않아도 어떤 표정을 지을 지 알 수 있을 것만 같아서 리자는 작게 미소지었다.

카이사의 경계를 지난 바로 직후였다. 바람에 휘날리는 리자의 옷자락 끝에서부터 빛덩어리들이 퐁퐁퐁 나오기 시작했다. 민들레 씨앗처럼 하늘을 향해 날아간다. 파란 편지를 가지고 온 우체부. 카이사에 기쁨이 찾아왔다. 쉐이파디아의 선택이 임했다.

어느 때부터인가, 주인과 항시 동행하여 그를 지켜야 했을 검은 천년의 얼음에 봉인되었다. 날은 검은색이요 손잡이는 붉은색이라 극명한 대비를 이루는 검은 물건의 형상이었으나 왕의 또 다른 권능체. 그러므로 이지를 가지며 말을 할 수 있었다.

검은 드러나지 않은 눈을 가져 그것으로 저 멀리의 광경까지 선연히 볼 수 있었다. 그 눈으로 자신의 왕을 보았고, 제 형제들에게 분명한 사실을 들었다.

왕이 선택 받았다.

그것은 담담하고자 했으나, 그 무미건조한 어조에도 숨길 수 없는 전율이 흘렀다.

“뭐?”

얼음 위로 몸을 기대고 있던 남자는 뜬금없는 말에 되물었다.

“다시 말해봐.”

그가 얼음을 두드리며 심드렁하게 말했다. 퉁퉁 커다란 주먹이 제 딴에는 약하게 친다고 두드리지만 안에 갇힌 검마저 떨릴 정도의 힘이었다.

...

“뭐라고?”

카이사의 군단장, 아론. 제3탑을 이끄는 자. 현 세대에선 왕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검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자.

검이 다시 입을 열지 않자, 그는 멍 때리느라 검의 말에 집중하지 못했던 자신을 탓하며 행동을 멈추었다. 검은 제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낌새를 보이면 금세 삐쳐버리고 만다. 검 따위가 웃긴다고 투덜거리며 다시 그 옆에 털썩 드러누웠다.

텁텁하고 우중하게 카이사를 짓누르는 잿빛 하늘.

“...”

여전하네. 짜증 어린 기색을 감추고 눈을 감았다. 오늘은 훈련도 없으니 잠이나 자둘 심산이었다.

...!

아론은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하지도 못했지만. 왕의 일부이기에 일부를 공유하는 검은 흥분해 있었다. 검은 잠들어버린 아론은 깨울까 하다가 그만두었다.

아, 아론은 이 진귀한 광경을 보지 못한 것을 두고두고 후회하리라.

그로부터 멀리 떨어진 제1탑. 근심 어린 표정의 노인 옆에서 서류를 읽고 있던 소녀가 붉은 눈을 반짝였다. 소녀치곤 성숙한 목소리가 담담하게 뱉어졌다.

“축하합니다.”

“으응?”

“인내의 열매를 드디어 맺었군요.”

“...”

왕을 걱정하고 있던 늙은 보좌관, 제1탑주 로에시소는 소녀를 게슴츠레 바라보았다. 파란 피부는 사람의 것과 다른 데다 평소 많은 표정을 보이질 않으니 인위적인 느낌을 준다. 그러나 적어도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음을 알기에 그는 소녀를 주목한 것이다.

“나오미, 무슨...”

노인은 말을 온전히 끝내지 못했다. 그는 오히려 멍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다. 태어나면서부터 소녀를 봐왔지만, 저런 웃음은 처음이었다. 믿기 힘들게도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돌아오고 계십니다. 그녀와 함께.”

이제 아오그란시스가 떠받든 왕가에서 내려와, 그 발이 디딘 낮은 땅. 좁고 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골목길에는 아주 앙상한 아이가 있다. 검은 머리카락, 이질적인 붉은 눈동자.

실 끊긴 마리오네트처럼, 또는 버려진 장난감처럼 아무렇게나 몸을 널부러뜨리고 있던 아이의 눈동자에 일순 초점이 돌았다.

우당탕탕, 황급히 몸을 일으키자 디디고 있던 쓰레기통이 바닥을 나뒹굴었다. 형제들을 통해 놀라운 소식이 전해진 탓이었다.

"아으, 아으아아!"

아이는 말하는 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괴성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다. 웃는 법 또한 모르기에 얼굴을 찡그리는 것으로 기쁨을 발산했다.

하늘에서 조각이 부스러지는 것처럼 아주 작은 빛 덩어리가 부스스 내려왔다. 작은 온기를 담은 그것은 아이에게까지 날아왔다.

너 또한 곧...할 거야.

작은 눈이 믿지 못할 소식에 깜박거렸다.

"어아..."

눈물이 툭 떨어졌다. 작은 손이 얼굴을 감쌌다. 오열이 두 손안에 틀어막혔다.= 그 위로 위로하듯이 빛 무리들이 투둑투둑 떨어져내렸다.

잿빛이 무너진다. 푸르름이 돋아나고 있었다.

먹구름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저주와 같았다.

카이사의 사람들은 자신이 자신을 버린,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전생의 기억을 아주 어렴풋이 가지고 태어난다. 이전 생에선 푸른 하늘이 익숙했으므로, 두 번째에 먹빛 하늘 아래에서 태어나더라도 푸른 하늘을 자연스레 그리워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태어난 땅의 하늘은 먹구름에 갇혀 빛을 주지 않는다. 400일 간 나흘을 제외한 모든 일수가 흐리다. 그것은 마치 자신들을 감금하는 것 같아서, 이미 실패한 삶을 살았노라고 증명하는 것 같아서 꺼려지지만 바꿀 수도 없는 하늘이기에 카이사의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 걸 택했다.

예외는 존재하는데, 그들에게 두 번째 삶을 허락한 쉐이파디아에게 기도를 올릴 때였다.

"부디,"

자신들의 왕을 위해 짧은 기도를 올린다. 그러면서도 견고하게 막힌 먹구름으로 인해 알지 못하는 새 체념과 절망을 함께 새겨넣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있던 여자는 한숨을 내쉬고 고개를 내렸다. 언제 보아도 잿빛 하늘은 숨을 막히게 했다.

"엘라, 가자."

아이가 환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맑은 웃음에 그녀도 덩달아 미소를 지었다. 하늘이 뭐 대수이겠는가. 이 두 번째 삶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다.

자살로 생을 마감했던 그녀는 왕에 의해 심연에서 꺼내어져 지금의 삶을 얻었다. 그녀를 빤히 바라보는 이 아이, 상처를 아물게 할 만큼 사랑을 주는 남편. 이전 삶과 두 번째 삶을 통틀어 얻은 가장 큰 축복이었다.

"엄마,"

"응?"

아이가 그녀의 손을 잡아당겼다. 걷던 걸음을 멈추고 그녀는 몸을 쭈그려 아이와 시선을 맞추었다.

"이거 뭐야?"

고사리같은 손이 펴지자 하얗고 빛나는 둥근 것이 있었다. 눈이 부셔 잠시간 그것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으응? 엄마?"

아이가 답을 재촉하자 그녀는 난처한 얼굴로 그것을 달라 부탁했다. 아이가 깨질까봐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 위로 둥근 덩어리를 옮겨주었다.

차가울까 긴장했던 그녀는 내심 놀랐다. 눈이 아니다. 녹지 않을 뿐더러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무엇보다 빛, 마치 별과 같이 환하게 빛나고 있다.

아이가 동그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자신도 알지 못하는 낯선 것이므로 아무 답을 할 수 없었다.

당황한 얼굴로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다.

"흠흠. 엘라, 이거 어디서 났는데?"

"응? 하늘에서 떨어졌어."

"하늘에서?"

"응. 이게 뭐야? 응?"

"그,글쎄?"

"엄마도 몰라?"

하늘에서 이런 게 떨어졌다고? 그녀는 난처한 얼굴로 하늘을 바라보았다. 비 한 번 내리지 않은 먹구름에서 무엇이 떨어질 리가

"아"

"어?"

"대체,"

"엄마, 저거 봐!"

그녀는 할 말을 잃었다. 엉거주춤 하늘을 바라본 그대로 딱딱하게 굳었다.

엄마의 손을 놓은 아이는 이리 저리 뛰어다니며 하늘에서 떨어지는 빛무리를 받아내었다.

"...쉐이파디아시여,"

그녀는 감탄하며 중얼거렸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빛무리, 눈처럼 수북하게 쏟아져내린다. 그녀의 아이 뿐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소리를 지르며 그것을 잡으려 방방 뛰어다녔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보다 더 높은 것을 바라보았다.

"대체"

파란 하늘이었다.

"우와"

"으응?"

"뭐야?"

절망하며 고개를 숙였던, 애써 눈을 돌려 체념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본다.

낮게 가라앉아 있던 눈동자가 믿기 힘든 광경에 떨렸다.

저 높은 곳을 보라.

거대한 검은 짐승이 땅을 울리며 포효했다. 그 위 피처럼 혹은 태양빛처럼 붉게 빛나는 머리카락의 왕이 오고 있다.

왕이 잿빛 먹구름을 갈라내었다. 왕의 뒤로 하늘이 파란 속내를 드러내며 눈부신 햇빛을 쏟아내었다. 그가 지나간 먹구름은 하얀 빛무리로 부스러져 메마른 지상에 떨어졌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았다.

카이사가 쉐이파디아의 선택을 받았다!

"아,"

"쉐이파디아시여!"

"…와아"

주춤주춤 터져나오던 소리가 점점 커져가기 시작했다. 장엄한 광경이었다. 오랜 세월 쌓여왔던 억울함과 억눌렸던 분이 사라진다. 기다렸던, 차마 바라지도 꿈꾸지도 못했던 일이 이루어졌음에 놀라움과 환희로 가득 찼다.

"우와아아!!"

"쉐이파디아시여!!"

"와아아!!"

카이사를 가두던 먹구름을 가르고 푸른 하늘과 함께, 카이사 전역을 덮는 빛무리와 함께 카이사의 왕이 왔다. 환호가 카이사를 뒤흔들었다.

카이사가 세워진 이래 가장 큰 소리였다.

타이온이 지나가는 위의 하늘, 두텁게 껴있던 먹구름이 얼음 녹아내리는 것처럼 파스스 빛으로 떨어져내렸다. 정확히는 리자로부터 퍼진 빛무리가 위로 올라가 구름들을 부숴낸 것이었지만, 리자는 알지 못했다. 위로 빛 무리가 떨어져내렸다. 눈이 내리는 것처럼, 반짝이고 하얀 것들이 지상으로, 저 아래로, 카이사로.

"예쁘다."

리자가 멍하니 중얼거렸다. 손 위로 그것을 받고 싶지만 아고의 팔과 담요 아래로 갇혀있었으니 옴짝달짝 할 수 없다.

고개를 들어 새파랗게 광채를 드러낸 하늘을 바라보았다. 파란 하늘이 드러나자 가슴이 뻥 뚫린듯 해방되는 기분이 들었다. 비도 내리지 않고 빛을 가릴 뿐인 먹구름은 텁텁한 기분을 주었기 때문이다.

"셰이."

그녀는 이 빛무리들이 익숙하다. 따스함과 빛남은 셰이의 것이었으니. 주변을 둘러보며 셰이를 찾았지만 느껴지지 않았다. 왜인지 싱긋 웃고 있을 얼굴이 떠올라 혼자서 쿡쿡 웃었다.

리자는 문득 기대되었다. 아고는 어떤 표정일까.

"아고?"

그의 얼굴이 보고 싶었으므로 몸을 떼내어 고개를 비틀었다. 그녀의 부름에도 그는 아무 말이 없다. 그러나 그녀는 그를 다시 부를 생각을 하지 못했다.

은빛으로 빛나는 눈동자 한가득, 먹구름이 빛무리로 떨어져 드러난 푸른빛이 담겼다. 그 지독한 아름다움에 숨을 쉬는 것도 잊고 빠져들었다.

"아…"

눈동자에 투명한 물기가 어렸다. 푸른 빛 아래 마치 은빛 바다처럼 출렁거렸다. 그가 눈을 감자 방울이 툭 아래로 떨어져내렸다.

"…"

마음이 몹시 이상해서 그녀는 아랫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그의 턱을 타고 눈물이 후두둑 떨어지자 그녀는 입을 열 수밖에 없었다.

"왜…우나요?"

"…"

은빛으로 빛나는 눈동자가 그녀를 향했다.

"…"

서로의 눈이 마주치자 동시에 울렁였다.

아고가 눈마저 휘며 온 얼굴로 웃는다. 눈꼬리로 눈물이 툭 떨어져내렸다. 그가 이번엔 눈 한가득 그녀를 담았다.

"...고맙다."

"…"

"…리,자."

"…"

리자는 무어라 말하고 싶어 열심히 고민했지만 이내 포기했다. 그저 그의 표정을 따라 웃는게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주어진 이 순간이 꿈과 같았다.

그런 그녀를 마주보던 그가 문득 이상한 표정을 지었다.

"그, 으"

"…"

"리자,"

"네?"

"…으음…"

아고가 무어라 말하려는 듯 입을 우물거리다가 다물었다. 리자는 그를 가만히 기다려주었다. 그가 머뭇거리며 손을 들었다. 리자가 저도 모르게 긴장하자 그의 손이 허공에서 잠시간 멈추었다.

"괜찮아요."

용기를 북돋아주자 그가 떨리는 손을 움직였다.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얼굴에 닿았다. 온 신경이 그의 손이 맞닿은 피부에 몰려, 그 손가락의 까슬거림이나 제 얼굴을 누른 정도가 전부 느껴질만큼 예민해졌다.

그가 손가락을 움직인다. 다정하게, 금방이라도 깨질 유리인형 대하듯이 조심스럽게. 호흡도 하지 못하고 은색 눈에 사로잡힌 그녀의 눈이 부들 떨렸다.

"…"

"왜 우나."

안타깝다는 듯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린 그가 눈부근을 꾹 눌렀다. 그녀는 그제야 자기도 울고 있음을 알았다.

이 얼마나 상냥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인지.

따스한 빛무리가 그녀와 아고를 감쌌다.

선물이야.

상냥한 셰이가 속삭였다. 리자 뿐 아니라 아고의 귀에도 들릴만큼 분명한 소리였다. 그리고 이어서 저 멀리 떨어진 땅에서, 이 카이사의 온땅에서 환희에 찬 소리가 터져나왔다.

검은 짐승이 왕가에 첫 발을 디뎠다. 본궁의 정문인 이곳과 이어지는 은색 길 끝에 짐승의 형상이 점점 커져간다. 그 뒤로 펼쳐진 푸른 하늘, 여전히 주변에 남아있는 빛무리들이 있으므로 수없이 보던 그 모습은 평소와는 달리 보일 수밖에 없었다.

"…"

그러나 로에시소는 울지 않으리라 품위 있는 모습을 보이리라 다짐하곤 손에 쥔 손수건을 꾸욱 움켜쥐었다.

어느 정도 가까워지자 그는 서둘러 달려가 자신의 왕을 살폈다. 빠르게 왕의 옷이나 피부 등을 훑었다. 다행히 옷이 말끔하고 핏자국도 없다. 다른 왕들이 이번엔 공격하진 않은 듯 했다.

"왕께 인사올립니다."

그는 안심하였으므로 한껏 풀린 얼굴로 예를 차렸다.

"안녕하세요."

검은 눈동자, 검은 머리카락. 여자가 고갤 숙이며 인사한다. 그러다가 아고에게 안겨있는 제 처지를 발견하곤 민망한 얼굴로 웃었다. 허나 로에시소는 그 웃음에도 따라 웃을 수 없었다. 왕에게 안겨있다니? 게다가 그의 예리한 눈은 평소의 음울한 빛은 온데간데 없이 빛이 날 정도로 환한 왕의 분위기를 볼 수 있었다. 왈칵 울음이 나올 뻔했지만, 그는 꿋꿋하게 참았다.

"쉐이파디아님의 선물이십니다."

"...허."

먹구름이 사라지는 기이한 현상에 설마설마했더니, 정말로 카이사가 선택받았다. 마주친 검은 눈동자가 맑고 올곧다. 그는 다시 울컥하였으나 기어코 억눌렀다. 첫 만남이니 주책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 되뇌이면서.

그러나,

"...돌아왔다."

희미하게 웃으며 자신의 왕이 당당하게 말하더라. 늙은 집사는 기어코 눈물이 터져버렸다.

"쉐이파디아께서 은총으로 허락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카이사의 위대하신 왕을 모시는 집사, 로에시소 시옹 인사 올립니다."

손수건이 젖을 만큼 펑펑 울던 로에시소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되자 언제 울었냐는 듯 붉은기 하나 없는 얼굴로 예를 차렸다.

멋들어진 수염, 깔끔하게 넘긴 백발, 얇은 은경테나 구김살 하나 없는 회색 정장. 중년을 넘어선 나이에도 충분히 우아하고 깔끔한 신사였다. 투명한 녹색 눈동자가 따사로이 마주하자 리자 또한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신의 자비 아래 아름다운 카이사에 머무르게 된 리자입니다.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잘 부탁드려요."

다만 로에시소가 굽힌 만큼 숙여지지 않는 것은 아직 그녀가 아고에게 안겨있기 때문이다.

"아고, 저 팔 좀"

"아,"

작게 속삭이자 아고가 허둥지둥 팔을 풀었다. 얼떨떨하게 웃으며 로에시소에게 다시 고개를 숙이고, 제 몸을 덮은 담요를 곱게 접어 아고에게 건넸다.

"…그것은,"

"네?"

익숙한 것인지 로에시소가 담요를 빤히 쳐다보았다. 무슨 이상한 점이 있는가 살펴보려하자, 그가 빠르게 표정을 지웠다.

"아닙니다. 리자님,"

아고가 타이온에서 먼저 내렸다.

"그럼 이제부터는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 왕가를 둘러보시지요."

"아, 네."

매시간 붙어있으리라 생각한 것은 아니었지만, 도착하자마자 헤어질 줄이야.

"탑주들과 가주들이 왕께 예를 차리고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왕께선 제1탑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무엇보다 리자님께서 이 카이사에 오셨으니 급히 결정해야 할 안건들도 많이 있으니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로에시소가 굳이 묻지 않은 말을 덧붙이자 리자로선 더 할 말이 없어졌다. 항상 셰이나 아고와 함께 했기 때문에, 둘 모두 옆에 없는 경우를 처음으로 겪는 때가 다가오자 조금 심란했다. 그녀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자 아고가 가까이 다가왔다.

"…리자,"

로에시소는 눈치껏 한 발자국 물러났다.

"…리…자?"

그가 낮게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그녀는 멍한 와중에도 조바심이 느껴진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결국 아고마저 표정을 굳혔다.

"…아, 잠깐 심란해서…"

리자는 말을 얼버무렸다.

"…"

놀란 건 자신이었음에도 그를 안심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마치 버림받으면서도 울지 못하고 얼굴만 일그러진 아이 같았으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또 자책감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건 아니겠지?

리자는 조심스레 그의 옷자락을 쥐었다. 그가 느릿하게 시선을 내린다.

그가 느릿하게 시선을 내렸으므로 그녀 또한 그 시선을 따라갔다. 그의 옷자락이 제 손에 쥐어져 있었다.

"아,"

"아고,"

부름을 들은 그의 시선이 잘게 떨린다.

"아고,"

"…"

"..."

마주친 눈이 이전의 것과 확연히 다르자 그녀는 할 말을 잃었다. 푸른 하늘을 담고 은색으로 빛나던 눈동자가 탁한 회색빛으로 음울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 속에 깔린 음습한 무언가들은 그녀가 이해하거나 알 수 있는 류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두려움이나 불안감보다 훨씬 짙고 낮은 감정이다. 절박한 빛마저 띄고, 마주칠 수록 새카맣게 타올라 몹시 비이상적인 느낌을 주었다.

울던 그를 보았을 때완 또 다른 느낌이다. 그녀의 속이 괜시리 쓰리고 아린 것은 동일했지만은. 어떻게든 저 질척임을 깨주고 싶어 충동적으로 입을 열었다.

"끝나면,"

"…"

"…데리러 와주실래요?"

"...뭐?…"

"…"

그 상황에서 답이 오랫동안 없자, 괜히 애꿎은 땅을 발로 툭툭거렸다. 그가 원체 생각이 많고 조심스러운 성격이라 대답이 느린 건 알지만 이런 때 기다리는 것은 긴장감을 주었다.

"…리자,"

화들짝 놀라 바라보자 그가 검은 담요를 건네었다.

"...이거…그…"

"…"

"…음..."

얼떨떨하게 받아 품에 껴안았다.

"...끝나면…"

"…네."

그가 또 한참을 우물쭈물거렸다.

"…받으…러…가겠다…"

수분 후에 들은 대답이었다

그녀가 유쾌하게 웃음을 터뜨리자, 그가 재빠르게 몸을 돌려 가버렸다. 가는 발걸음이 몹시 급했으나, 그가 얼마나 수줍어할지 얼마나 얼굴이 상기되어있을지 충분히 알았으므로 그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그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자 그의 체향이 날까 싶어 담요에 붉어진 얼굴을 묻었다.

로에시소는 분명 왕에 한해선 지나치게 눈물이 많은 사람이긴 하지만, 제1탑주이니만큼 매우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사람이기도 했다. 때론 왕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냉철한 그는 늙은이의 주책 따위를 부리는 사람이 아니다. 간절히 소망하다 못해 착각으로 눈을 허황되게 만드는 사람은 더더욱 아니었고 말이다.

'왕비다. 이 분은 분명 왕비감이야.'

따라서 리자를 만난지 얼마 되지 않아 그가 내린 이 결론은, 그가 왕을 얼마나 사랑하고 왕비의 존재를 얼마나 원하는지와는 별개로 정확하단 뜻이었다.

리자를 껴안은 팔을 풀 때 아쉬워하던 왕의 표정, 그녀에게 허락한 이름, 그녀의 작은 행동에도 '눈에 띄게' 반응하는 모습, 수줍은 웃음이나 쉽게 붉어지는 얼굴, 어두운 회색이라 생각했던 은색 눈동자에 어리는 기쁨이나 짙은 감정들.

그 중에도 무엇보다 확실한 것은, 리자가 지금 껴안고 있는 검은 담요였다.

로에시소가 그것을 곁눈질하자, 검은 담요에서 나타난 빨간 눈동자가 그를 알아보고 히죽 휘어졌다.

안녕, 로에시소?

타이사님,

너도 알아차렸구나?

그렇다. 검은 담요는 왕의 권능체 타이사였다.

로에시소는 진실로 오랜만에 타이사를 만났기 때문에 당황했다.

타이사는 제 속에 있는 말은 기어코 내뱉어야 직성이 풀리는 이였다. 무엇보다 쉐이파디아께 받은 권능 '투시'의 본질이자 왕의 일부였으므로, 타이사의 말로 인해 발가벗겨진 기분이 여러 번 들었다는 왕의 말마따나 왕이 인정하지 않는 왕의 속내를 드러내고는 해서 왕은 타이사를 기꺼워하지 않았다.

왕은 리자를, 큼, 좋아해.

지금까지 어지간한 일이 아니면, 사실 어떤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타이사를 꺼내지 않은 왕이었는데.

그러니까, 정정하자면 옛날까지는 말이다. 로에시소는 기민하게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으리란 것을 알아차렸다. 그 결론을 내린 것에 이어 타이사가 흥분이 어린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거 알아?

무엇을요?

주인이 나에게 리자를 지키라고 '명령'까지 내렸어. 알아? '명령'이라고! 나한테 '명령'을 했단 말이야.

…

게다가 내가 리자에 대해 조금 안 좋은 얘기를 한다 싶으니까 날 억누르기까지 하더라고.

이로서 기실 확정이었다.

울어? 옆에 리자만 있는데 울거야?

아닙…니다.

로에시소는 꾸역꾸역 감격어린 눈물을 삼켰다.

쉐이파디아님이 기다린 만큼 대단한 걸 주셨어.

부인할 수 없이 확실합니다.

로에시소는 리자를 바라보았다.

늙은이의 감으론, 리자님은 괜찮은 분이십니다.

괜찮다고?

타이사가 황당하다는 듯이 웃음을 터뜨렸다.

고작? 난 평생 저런 인간 처음 만났어. 쉐이파디아님 선물이라 그런가. 보통 인간이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 정도로 순수한 호의를 가질 수 있나?

타이사나 로에시소는 리자가 아고를 향해 품은 감정이 단순한 호감이든 점점 무르익을 사랑이든 상관없었다. 그저 그 감정이 어디에서 기인하였는가, 순수함의 여부가 중요했다.

이 카이사가 세워진 몇 천년, 혹은 그 이상의 세월 동안 왕의 옆자리를 탐낸 여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알려지지 않았을 뿐 오히려 지긋지긋할만큼 많았다.

왕이 버림받은 자들, 이 카이사를 선택함으로 멸시를 받긴 했지만, 최초의 왕이며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기에 수많은 여자들이 접근했다. 문제는 그녀들이 저마다의 의도, 예를 들어 권력욕이나 명예욕, 왕의 아름다운 외모를 탐하는 음욕을 채우기 위해 다가왔다는 것, 그리고 왕이 그러한 것들을 기민하게 꿰뚫어 보았다는 것이다.

왕은 외로웠지만, 그런 여자들을 필요로 할 만큼 나약하진 않았다. 다만 끊임없이 상처받으며 온전한 정에 더 목말라갈 뿐이었다.

혹시 리자님이…왕을 동정하는 것은 아닙니까?

동정심?...글쎄,

로에시소는 타이사가 말을 흐리자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동정심에 기인한 것은 더 끔찍했다. 몇백년 전의 그 여자가 그러했던 것처럼, 오히려 동정 따위의 같잖은 감정이 고귀한 왕을 더 깊게 상처 입힌다.

안타까워하는 것도 동정 비슷한 건가.

글쎄요.

그래도…그 계집처럼 감히 주인을 불쌍하다고, 그래서 제 아래라고 생각하진 않았어.

그것이면 충분했다. 로에시소는 쉐이파디아께 온 마음으로 감사를 올리며 진심으로 웃었다.

왕가는 몹시 넓었다. 당연히 일일이 돌아다니며 소개할 수 없다. 그러나 당장에라도 카이사의 모든 것을 구석구석 소개하며 자부심을 떨치고 싶었던 로에시소는 그것에 안성맞춤인 '물건'이 있음을 발견했다. 그는 리자를 이끌고 제 1탑으로 들어왔다.

계단을 올라가면서 늙은 집사의 속은 다시 한 번 감격으로 울렁이기 시작했다. 아주 아주 오래전, 로에시소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 선조 때로 거슬러 올라가 2대 가주가 만들어놓은 것이 있다. 카이사에 귀빈이 올 때를 대비하여…사실은 카이사가 선택을 받고, 그 신의 선물이 인격체일 때를 대비하여 부푼 마음으로 만든 것이.

그 누가 상상했을까? 2대 가주는 자신의 생애 그것을 사용할 수 있길 바랐지만 결국 이뤄지지 못했고, 그 다음의 가주, 그리고 그 다다음의 가주, 역대의 가주들 모두 사용하고 싶어했지만... 아, 로에시소 시옹, 그의 때에 그것을 목적대로 사용하게 되다니.

"…로에시소님, 괜찮으세요?"

또 울어?

리자의 걱정스럽게 묻자, 그리고 리자의 품에 곱게 접힌 채 안겨있는 타이사가 떨떠름하게 말하자 로에시소는 그제야 자신의 주책스러운 모습을 깨달았다.

"이런 모습을 자꾸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편하게 대해주세요, 로에시소님."

"...감사합니다."

도란도란 오가는 다정함.

와, 진짜 리자는 착하네.

물론 적응 못하는 이도 있긴 하지만.

손수건으로 눈물샘을 닦은 로에시소는 단정한 자세로 문 앞에 섰다. 아주 살짝 떨리는 손바닥을 문고리에 올려놓자 푸른 휘장이 둘러진 문의 틈새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톱니바퀴가 맞물리듯이 타닥 타다닥 소리와 함께 문이 천천히 열렸다.

어두운 공간. 리자는 로에시소를 따라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검은 담요를 꼭 쥔 채.

"이 곳은 제 선조께서 만드신 물건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

"물건이요?"

"예. 언젠가…카이사가 선택을 받고, 신의 선물께서 오신다면…이 카이사를 한 눈에 보여주기 위해서 만드셨지요."

로에시소는 천장으로부터 길게 내려온 줄을 잡고 그대로 내렸다. 그 때 커튼이 사라지듯이 이 공간을 둘러싸고 있던 검은 막이 아래로 벗겨져내렸다. 분명 딛고 있던 곳은 실내였는데, 공간이 뒤바뀌었다. 거대한 탑이 앞에 서 있었으니까.

"이건…"

"거기 의자에 앉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공간들이 바뀔 테니까요."

리자가 의자에 앉자 로에시소는 위에서 새로 내려온 두 줄을 붙잡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치 마리오네트를 움직이는 것처럼 섬세한 손짓이었다.

"제 선조께서는 '반'이라고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왕가는 물론 아오그란시스 아래 땅까지 대략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글쎄요. 그 분은 첫 번째 생애에서 천재화가라고 하셨으니까. 긴 생애동안 그릴 시간은 많으셨겠죠."

"그럼 이게 다 그림이라는...?"

이토록 생생하고, 거대한 장면이? 말을 잃은 리자의 표정에 로에시소는 뿌듯함을 감추지 못하고 웃었다. 그가 줄을 움직이자, 10개의 탑이 전부 한 자리에 모이는 그림이 펼쳐졌다.

"10개의 탑은 각기 다른 역할이 있습니다. 각 탑의 주인을 탑주라고 부르며, 탑주의 자격은 제한이 없긴 하나 아무래도 일곱 가문의 핏줄들이 맡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는 탑 하나 하나가 어떤 역할인지 대략적으로 설명해주었다. 줄을 움직일 때마다 그의 선조가 하나 하나 소중히 그린 탑의 그림들이 보였다. 굳이 지금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주고 전부 보여주지 않아도 되지 않나. 시간은 많고, 반을 사용할 때는 많을 테니까.

"탑주와 가주는 동등한 위치인가요?"

"사실상 끼치는 영향력은 동일하니, 그렇다고 봐야겠지요. 카이사의 위계구조를 정리한다면 땅에 사는 평범한 백성들, 아오그란시스(돌거인)의 눈에 사는 일곱 가문, 즉 귀족들, 각 가문의 수장과 왕가 위 10개의 탑을 다스리는 탑주들, 그리고 가장 위에 존재하는 왕 이렇게 이루어져있습니다."

"집사님도 탑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왕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 시옹 가의 가주와 행정처리를 맡은 제1탑의 탑주, 그리고 왕의 보좌관이자 집사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리자가 작게 감탄하자, 로에시소가 털털하게 웃으며 나지막히 덧붙였다.

"그렇지만 저는 제 직책 중 왕의 보좌관인 것과 하나뿐인 집사인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로에시소의 모습은 가식이나 예의상의 겸손과는 거리가 멀었다. 좋은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이 지금까지 아고 옆에, 아고를 정말로 좋아해주면서 있다는 것이 굉장히 든든했다. 아직 만난지 얼마 되지 않은 그녀가 품을 입장은 아니긴 했지만.

"리자님, '반'을 사용할 수 있음에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저 역시 너무나 감사드리는 걸요. 직접 걸어다니지 않아도 되니까 굉장히 편하구요. 다만 만드신 분께 제가 직접 감사를 표하지 못하는 게 아쉽네요."

"아닙니다. 그저, 이 곳에 있으신 것만으로도…봐주신 것만으로도...너무나 충분합니다."

다시 울 것처럼 녹색 눈동자가 울렁거렸다. 리자는 애매하게 웃었고, 손수건이 다시 꺼내졌다.

"리자님의 처소가 준비되었습니다."

제 1 탑을 나오자 검은 정장을 입은 소녀가 고저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파란 피부?'

순간 꾹 참아 당황했음을 드러내진 않았지만. 약간 보랏빛이 도는듯 어두운 푸른빛. 그녀의 것보다 짙은 검은색 머리카락은 양갈래로 묶여있고, 왜인지 익숙한 붉은 눈동자는 맑다. 표정이 없고 목소리가 딱딱하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귀여운 인상의 소녀였다.

"아, 안녕하세요. 쉐이파디아님의 자비로 카이사에 머무르게 된 리자라고 해요."

자신이 무례할 정도로 빤히 쳐다보았음을 깨닫곤 인사했다.

소녀가 고개를 숙인다. 그 딱딱한 시선이 검은 담요를 스치는 순간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워낙 빠르게 사라졌기에 리자는 확신할 수 없었다.

"리자님께 인사드립니다. 위카이사의 왕, '침묵하는 자'의 권능체 나오미입니다."

"'심연의 인도자' 나오미."

숙인 자세 그대로 몸이 움찔거렸다. 들어올린 얼굴에는 부인할 수 없는 미소가 한 가득이어서 리자는 당황했다. 모르긴 몰라도 웃음이 많은 타입은 아닌 것 같으니까.

"절 아시는군요."

"셰이가 알려주었으니까요."

나오미의 얼굴에 붉은 빛이 돌았다. 파란 피부에 홍조라니, 드문 일이겠지? 옆에 잠잠히 있던 로에시소의 눈이 한껏 휘둥그레졌다.

"영광입니다."

셰이를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싶었다.

셰이가 말했던 것이 떠올랐다.

내가 첫 번째 아이들에게 준 것은 네 가지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의지, 다스리는 왕의 지위와 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힘, 그리고 그들을 돕는 존재들, 권능체.

왕을 돕는 존재, 권능체. 그리고 아고의 권능체는,

'그림자' 타이온, '투시' 타이사, '심연의 인도자' 나오미, '분리' 노아. '지옥의 입구' 스올.

이제 둘만 보게 더 보게 되면, 말로만 듣던 아고의 권능체 전부를 보게 되는 것이다. 나머지 둘은 어떤 모습일까 기대가 되었다.

"리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미의 말에 상념에서 헤어나와 발걸음을 옮겼다.

왕가의 중심, 검은 본궁. 그들은 금세 정문에 다다랐다.

정문은 두꺼운 쇠창살로 이루어져있었다. 건장한 청년이 세네명 달라들어야 겨우 움직일 수 있으리라. 자동으로 열리려나 기다리던 그녀 앞으로 나오미가 예의 표정 없는 얼굴로 나섰다.

"나오미?"

"네."

그녀의 부름에 충실히 대답하면서도 뒤돌아보지 않고 자그마한 손을 가져갔다.

"…설마,"

리자가 반신반의한 눈으로 로에시소를 바라보았다. 그는 흐뭇한 얼굴로 나오미만을 쳐다보았으니 그녀 또한 잠자코 있을 수밖에.

끼기기기긱,

"…"

조금의 찡그림이나 머뭇거림 없이 손쉽게 문이 열렸다. 느리긴 하였으나 분명 한 소녀의 손에서 나온 괴력. 기괴하기까지 한 모습에 리자가 멍하니 쳐다보았다. 세 사람이 충분히 들어갈 만큼 틈을 벌린 나오미가 리자의 옆으로 돌아왔다.

힘든 기색이 전혀 없다. 숨도 고르다.

"나오미는 힘이 셉니다."

"…"

로에시소가 덧붙였다.

"…아…그…놀랍네요."

'심연의 인도자'가 아니라, '힘' 나오미인 게 아닐까.

가장 높은 곳, 닿는 빛마저 죄다 삼켜버리는 흑색 의자는 왕의 것이었다. 그들의 왕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그들을 내려다보면서도, 텅 빈 무채빛 눈으로 황망히 입을 다물고는 했다. 그는 어지간한 일엔 가타부타 말하지 않았다. 왕의 반응을 무관심으로 받은 이들은 왕에게 실망하여 그들 역시 침묵이나 무반응으로 일관했고, 일부는 여전히 왕이 작게라도 변화할 것이란 소망을 잃지 않았다. 바랄 수 없는 쉐이파디아의 선택을 받은 것이 그 소수의 사람들에겐 큰 희망으로 다가왔으니까.

그러나 아주 일부, 침묵을 암묵적인 동의로 삼은 일부는 제멋대로 입을 열고, 저가 왕인 마냥 움직이는 것을 여전히 몹시 좋아했다.

"축제는 우리 블란샤 가문에서 진행하는 게 마땅하오! 넘쳐나는 자금으로…"

"아니, 축제는 동일하게 모든 가문이…"

"모두 진정들 하시지요. 생각해보면 축제를 굳이 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헛소리! 카이사가 그토록 기다렸던 선택이다. 축제는…"

"…결국은 그런 소리군. 네놈의 가문에서 하겠다는…"

"네놈? 감히 대 피온디쉬아 가의 수장에게 네놈이라?"

"그만들 하십시오! 이 자리는…"

블란샤 가의 가주와 피온디쉬아 가의 가주가 그 대표축에 속했는데, 시옹 가를 제외하고는 가장 유력한 가문들이며 많은 탑주들을 배출하기도 하였으므로 의기양양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쉐이파디아의 선물과 동행한 로에시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아무도 그들을 억누를 수는 없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왕처럼 억누르지 못한 게 아니라 무관심일 뿐이었다.)

"…쉐이파디아님께서 선택해주신 것은 감사하나,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리라곤…"

"왜 이렇게 어렵게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축제는 예술에 조예가 깊은…"

"닥쳐라! 결국 똑같은 소리를…"

"...한 가문의 수장에게 그런 시덥잖은 소리를…"

난장판 한 가운데에서 아고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다.

모두가 기뻐하리라, 리자의 존재를 모두가 반기리라 생각했으나 그것은 그의 소망에 지나지 않았다. 쉐이파디아의 선택은 분명 카이사 전체와 아고의 기쁨이었으나, 카이사의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를 매우 슬프게 했다.

설레임으로 밝게 빛나던 은색 눈동자는 침침한 회색빛으로 죽었다.

지금껏 그는 이런 난장판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왔다. 매번 결론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과연 힘을 조절하면서 사용할 수 있을까, 또 후회하는 건 아닐까, 이런 우울감들 뿐.

"…리자,"

그러나 그 한 번의 부름으로 그의 속에 밝은 빛이 차올랐다. 익숙한 검은색이나 그것이 그토록 다정한 빛을 품을 수 있음은 처음 알았다. 그녀는 능력이 없더라도 진정 쉐이파디아의 선물이라. 안타깝게도 카이사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진 못했지만, 적어도 그에게만큼은 놀라운 기적이었다.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그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낀다.

'…데리러 와주실래요?'

그녀의 목소리가 울렸다. 그는 느릿하게 눈을 감았다. 금방이라도 그녀를 만나고 싶어 몸이 근질거렸다. 비록 그가 말을 더듬거리고 느리게 하더라도 그녀는 모든 것을 들어준다. 상냥한 미소. 부드러운 대답.

뛰쳐나가려는 자신을 붙잡으려 몸에 힘이 들어갔다. 사실 지금까지 몇 번이나 이 자리를 나가려 했으나 꾹 참고 있었다. 자신의 인내심이 이토록이나 부족하다는 것은 처음 알았다. 대체 저 싸움판은 언제 끝나는 것인지, 그러한 생각조차 처음으로 한 아고는 멍하니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계속 듣자하니, 웃기는 말들을 하십니다그려? 축제를 어디에서 주관할지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왕께서 하실 일이외다."

"하, 이제 와서 충실한 척 하지 마시오. 왕께서 이미 우리에게 결정권을 넘기셨으니…"

"왕께서 언제 그러셨습니까? 없는 소리는 지어내지 맙시다."

"...왕께서..."

"…왕..."

"...우리의 왕께서..."

초점이 축제에서 왕인 그로 바뀌었다. 감히 왕의 면전에서 왕을 물어뜯는 꼴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으나 이곳이 카이사요, 그 왕이 아고였기에 가능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응시했다.

"…"

주인에게 건방지다.

로에시소가 있었다면 경을 쳤으리라. 그의 충실한 이들은 절대 이런 상황을 가만두고 싶어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의 사나운 그림자가 단번에라도 폭발할 것처럼 으르렁거렸다. 아고가 이대로 둔다면 타이온은 금세라도 그림자에서 빠져나와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할 것이다.

그러나 필시 누군가는 피를 흘리리라.

"…"

자신 때문에 다치는 것은 보고 싶지 않았으므로 아고는 타이온을 억눌렀다.

“주인!”

타이온이 불만스럽다는 듯이 크릉 거렸으나, 매우 충성스러운 그림자였으니 그의 뜻을 따라 금세 사라졌다.

두 오만한 가주는 타이온의 기척에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 하기사, 매번 으르렁거리긴 하나 한 번도 자신들을 해친 적 없으니 그럴 것이다.

의미없는 논쟁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하아."

왕이 한숨을 내쉬는 빈도가 잦아졌다. 가주들과 탑주들 중 기민한 이들 몇몇은 벌써 왕의 평소와 다른 모습을 알아차렸지만, 목에 핏대를 세우고 고함을 지르는 이들은 그런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을 터였다.

눈치로 먹고 살아왔던 제5탑주 닥터 W는 애초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지만, 의자를 내팽개친지 오래인 블란샤 가주나 울그락불그락한 얼굴의 피온디쉬아 가주를 걱정스레 바라보았다. 왕은 반응하지 않는다. 그것은 암묵적인 룰이었으나, 왕이 그것을 깰 기미가 보였다. 한숨을 쉬다니. 그것도 여러 번이나! 더군다나 오늘은 닥터 W도 확률 7천억분의 1이라 계산했던 쉐이파디아의 선택이 있는 날이었으니 그 주장은 점점 더 확률이 높아졌다.

"왕이시여!"

한참을 피온디쉬아 가주와 다투던 블란샤 가주가 오만하게 왕을 불렀다. 지켜보던 닥터 W나 몇 몇 사람이 몸을 움찔했다. 왕 앞에 방자히 행하는 것까진 좋으나, 왕께서 부르지 않았음에도 먼저 왕을 부르는 처사는 심히 모욕적인 것이다.

제 교만을 알지 못하고 블란샤 가주가 호기롭게 외쳤다.

"대답해보십시오. 블란샤 가문이 그동안 카이사를 위해 어떤 것들을 행하였는지 말입니다. 감히 피온디쉬아 가문이 블란샤의 것이던 대가문 자리를 사칭하며 오만히 행하는데, 왕께선 어찌 생각하십니까."

"이 뻔뻔한 작자를 보았나! 왕이시여, 대답해주십시오. 블란샤 가문의 콧대가 어찌 이리도 높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대 피온디쉬아 가문이야말로 블란샤 가문의 방자함이 우습습니다."

닥터 W가 보기엔 도토리 키재기였다. 지극히 평범한 발화점을 가진 왕이었더라면 벌써 목이 분리되었으리라. 왕은 어떻게 행동할까. 왕은 항상 그 감정 없는 눈으로 그들을 응시하곤 했다. 회색 눈동자는 무생물의 것마냥 텅 비어있고 아무 뜻이나 의미도 없었다. 마치 기계처럼 입력되는 신호에 반응을 출력할 뿐.

"…"

작은 기대를 품었으나, 그러면 그렇지... 소망이 사그라졌다.

왕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블란샤 가주와 피온디쉬아 가주는 오히려 기대하지 않았다는 듯이 다시 저들끼리 붙기 시작했다.

"네 피온디쉬아 가문에서 대체 카이사를 위해 한 것이 무엇이냐? 재물을 바치길 했나, 인재를 바치길 했나! 네놈도 잘 알겠지만 여기 있는 탑주 중 셋이 블란샤 출신임을 모르는 이가 어디 있더냐."

"흥! 피온디쉬아 출신의 탑주도 있다. 대 피온디쉬아 가문에서 카이사를 위해…"

"대…뭐라? 감히 대 가문임을 사칭해?"

"내가 틀린 말을 했나. 대 가문이기에 대라 하였거늘."

점점 진흙탕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 저 투쟁 본능은 신기할 정도지만, 그들의 말은 죄다 쓸모없는 내용이었으므로 닥터 W는 귀를 닫았다.

"오냐, 좋다! 피온디쉬아 가주여. 어디 오늘 결판이 나기 전까지 한 번 쭉 가보자!"

블란샤 가주의 눈알이 금방이라도 터져나올 것처럼 벌겠다. 가히 악귀의 모습이나 피온디쉬아 가주도 만만치 않았다.

"원하는 바다. 오늘 블란샤 가문인가, 대 피온디쉬아 가문인가 한 번 승부를 내보자."

"늙은이들이 적당히 좀 하지."

제3탑주 아론이 중얼거렸지만, 이미 둘의 귀엔 닿지 않는 소리였다. 그 때 이 공간에 울리리라 전혀 생각치 않았던 목소리가 담담히 그들을 압도했다.

"그만."

몸이 뻣뻣하게 굳었다. 그것은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이었다. 고저없는, 감정없는 목소리였으나 이 넓은 공간을 채우기에 충분하다.

"..."

싸한 침묵, 정확히는 그들은 태생부터 따라갈 수 없는 그 고귀한 위압감이 공간을 채웠다. 여전히 왕의 얼굴과 눈동자엔 비춰지는 감정이나 온기 따위가 전혀 없었으나, 왕이 목소리를 낸 시점에서 왕의 불편함을 모르게 된 이가 없을 리가.

아, 모두가 당연히 여기던 법칙들이 깨지는 순간은 얼마나 즐거운가. 왕의 반응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몇몇 탑주들의 몸이 근질거렸다. 왕이, 왕이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래, 모두가 잊고 있었던 것이다. 그토록 오래 침묵을 지키며 존재감을 지우던 왕. 그러나 분명히 그는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카이사의 태고 때부터 존재했던 최초의, 유일한 왕이 아니신가.

다만 오만함이 너무 가득찬 자는 눈 앞이 까맣고 우둔할 뿐이어서,

"왕이시..."

"…"

쿠웅,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바닥에 강제로 앉혀졌다. 순둥이 왕이 무얼 할 수 있느냐고 왕이 없던 자리에서 지껄이곤 했던 블란샤 가주는 본디 허세가 그득한 사람이었다. 큰 마음 먹고 제 체면 세우려 입을 열었던 그는 되려 더한 치욕을 맛보게 되었다.

가만히 보고 있던 피온디쉬아 가주의 등에 식은땀이 주륵 흘러내렸다. 사실 그뿐이겠는가. 면전에 무어라 지껄이고 난동을 피워도 반응 없던 왕이었으므로,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은 가주들과 탑주들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타이온,"

그들은 일제히 바닥의 '그림자'를 바라보았다. 거대한 짐승의 그림자. 두꺼운 앞발이 블란샤 가주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으니 그가 단숨에 앉혀진 것도 이해가 되었다.

문제는 그것의 날카롭고 커다란 이빨이 가주의 목덜미를 금방이라도 꿰뚫을 것처럼 들이밀고 있었다는 것이다.

블란샤 가주의 귀에 선연한 경고의 울림이 들렸다.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살을 뚫고 목을 찢을 수 있는 길다란 이빨이 제 숨통을 쥐고 있음을 모를 수는 없었다.

"요, 용서를..."

벌벌 떨며 구하는 자비.

"후우…"

왕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마치 한낱 미물의 생사를 두고 고민하는 느낌이라서, (그건 물론 그들의 생각뿐일지라도) 일순 공포감 비슷한 긴장이 퍼져나갔다.

"...그만."

왕은 그 급박한 상황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느릿하게 말했다. 그래. 사실 그는 창조주를 제외하고, 피조물 중 그 어떤 존재도 두렵게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림자가 다시 왕에게로 돌아갔다. 블란샤 가주는 여전히 온 몸을 덜덜 떨고 있는 채였다.

자신들과 똑같은 신분의 고귀한 가주였으므로, 그가 이토록이나 쉽게 목숨의 위협을 받는 것은 그들 전부에게 적지 않은 교훈을 주었다.

"...여기서 끝낸다."

왕의 일방적인 통보였다. 그러나 덧붙이는 이 아무도 없었다.

본궁은 총 3층으로 이루어진 커다란 건물이었다.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 가장 깊숙한 곳을 들어가면, 바로 그 곳이 왕의 침실. 그 아래 층 끝방은 리자에게 주어진 공간이었다. 리자는 당황했는데, 왕인 아고와 자신이 같은 건물에 머무르리라곤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멈칫하는 기색에 로에시소는 쉐이파디아의 선물인 그녀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이 카이사에 올 때 공격을 받았던 것을 떠올리면 수긍하지 않을 수 없어서 고개를 끄덕였다.

2층 복도의 끝에 파란색 휘장으로 가려진 하얀색 문이 있었다. 로에시소가 먼저 문을 열며 에스코트했다.

"들어가시지요."

"감사합니..."

빛나기는 커녕 빛을 죄 흡수하여 침침한 먹색 궁전에 이런 방이 존재할 줄이야.

"와…"

그이상 발을 내딛지 못하고 멍하니 서있었다. 밝고, 상쾌한 분위기. 더듬더듬 발을 옮겨 안으로 들어갔다. 로에시소의 만족스러운 눈과 나오미의 따스한 눈길이 그녀에게 머물렀다.

벽의 반절 이상이 청명한 하늘과 따사로운 빛을 품은 창문이었다. 열린 창문 틈으로 들어온 바람이 연푸른색의 얇은 커튼을 살랑거리며 청명한 내음을 풍겼다. 정면에 보이는 창틀에는 붉은꽃이 핀 화분 다섯개, 디딘 바닥에는 회색빛의 카펫이 깔려있다. 전부 리자가 아고에게 좋아한다고 말한 색으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어떻게, 제가 좋아하는 색들을 아시고…"

"우리의 왕께서는 소리내지 않고 대화하는 법을 아시니까요."

리자 모르게 귀띔해주었다는 얘기다. 손으로 입가를 가렸다. 세심한 부분까지 기억해주고 신경써준다는 것이 몹시 고마워서.

"혹시 필요한 게 더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십시오."

흐뭇하게 웃으며 로에시소가 말했다.

"아니, 충분해요.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푹신한 침대와 전신거울, 왼쪽에는 테이블과 의자 네 개, 그리고 큰 책장 하나가 놓여있었다.

"리자님, 드레스룸도…"

나오미가 그녀를 이끌었다. 리자는 테이블 위로 품에 꼭 껴안고 있던 담요를 내려놓고 나오미를 따라갔다.

로에시소는 천천히 테이블로 걸음을 옮겼다. 그는 그림자에서 쿠키와 케이크, 차를 꺼내어 위에 세팅해놓았다. 나오미가 왕의 의사를 전하기로, 리자님은 단 것을 좋아한다고 하셨으니까.

단 내가 풍기자 담요에서 붉은 눈동자가 두둥실 떠올랐다.

로에시소, 방금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말이야. 너 아마 그 꼴 못 본 건 두고두고 후회할걸?

잔뜩 신이 난 목소리로 타이사가 약을 올렸지만, 충분히 기분이 좋은 로에시소는 그것을 받아줄 여유가 있었다.

"그렇습니까? 타이사님의 기분이 좋으셨다면, 제가 보지 못했더라도 만족합니다."

으, 재미없게. 뭔진 궁금하지 않아?

"말해주시면 기쁘게 듣겠습니다."

로에시소는 세 개의 잔에 차를 따랐다. 도르륵 눈을 굴려 그것을 바라본 타이사가 심드렁하니 말했다.

하나 더 꺼내야 할 걸?

"그렇습니까."

이유를 묻지도 않고 잔을 하나 더 꺼낸다. 쳇, 재미없게. 본체인 고양이 형태로 모습을 바꾼 타이사가 입을 삐죽였다. 로에시소가 싫은 건 아니었지만 그는 도통 타이사가 원하는 반응을 보여주지 않았으므로, 가끔 답답했다.

로에시소?

"네."

그러나 분명해. 타이사가 씨익 웃었다. 이 얘기를 듣는다면 이전과 같이 무반응일 순 없을 것이리라. 타이온의 눈으로 본 광경, 자신조차도 그 무딘 타이온조차도 통쾌함을 느낀 그 순간을 전해준다면 기막힐 반응을 보일 것이다.

검은 고양이가 꼬리를 살랑이며 바닥으로 내려왔다.

로에시소라면 눈물을 흘릴 수도 있을 테니 잔뜩 흥분되었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주인이 엄격하게 가주들과 탑주들을 다스리길 원했으니까.

네가 없으니, 놈들이 아주 멋대로 날뛰더군.

로에시소가 어두워진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곤 예상했습니다, 작게 덧붙였다. 왕이 그에게 리자를 맡겼을 때 분명 그는 우려를 가지긴 했지만, 아고는 그의 왕, 그의 주인. 결정하신 바에 토를 달고 쓸데없는 걱정을 덧붙이는 것은 신하로서도 집사로서도 할 일이 아니었다.

타이사는 가시 돋힌 혀로 입 주변을 훑었다.

그런데 우리 순둥이 주인이 딱 한 마디 하자…,

"예?"

우아한 몸이 쩌적 굳어서 돌아보자, 타이사는 잔뜩 만족감을 느꼈다. 그렇지, 이거지. 이런 반응이지.

놈들이 벙어리가 된 마냥 입을 다물더라고.

"왕께서 입을 여셨단 말입니까…"

응. 거기서 끝난 게 아니야.

아예 자리에 앉아 이야기에 집중했다. 화자인 타이사에게는 퍽 만족스러운 자세였다.

블란샤의 그 붉은 돼지 놈이 분위기 파악 못하고 입을 열었는데,

"예."

타이온이 당장에 달려가서 그 놈을 짓눌러서 돼지 놈은 바닥에 나뒹굴었다니까?

물론 '타이온'이 블란샤의 가주를 무너뜨린 것이다. 그러나 로에시소나 타이사는 왕의 암묵적인 허락이 없었더라면 타이온은 애초에 뛰어나갈 수도 없었음을 알고 있다.

"왕께서..."

로에시소는 말을 잇지 못했다.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금세 울 것 처럼 녹색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타이사는 자신이 원하는 반응이 제대로 나왔으므로 꼬리를 로에시소의 다리에 휘감았다.

그 때였다.

"…리자?"

하얀 문이 열리고 그 사이로 왕이 빼꼼 고갤 내밀었다.

물기 어린 눈의 로에시소와 심술궂게 웃고 있는 타이사와 눈이 마주치자,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빨개졌다.

"주인이 오셨습니다."

한참 드레스룸의 옷을 구경하던 와중에 나오미가 무뚝뚝하게 말했다. 리자가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자, 다시 입을 뗀다.

"리자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고가요?"

"네. 테이블에 앉아계십니다."

손에 들린 옷가지를 내려놓고 리자는 급한 발걸음으로 드레스룸을 나왔다.

"리자님,"

테이블을 둘러싸고 로에시소와 처음 보는 검은 고양이, 그리고 아고가 앉아있었다. 다른 것엔 신경쓸 여유 없이 그녀는 그만을 바라보았다.

그가 흘끗 뒤돌아보았다. 그녀는 눈이 마주치자마자 저절로 피어나오는 웃음을 막을 수 없었다.

"아고!"

떨어진지 몇 시간이나 되었다고 이렇게 반가울 수가 있나. 목소리가 저절로 올라갔다.

"…"

그가 귀 끝을 붉힌 채 원 상태로 얼굴을 휙 돌렸다. 덕분에 그녀는 그의 뒷모습을 보게 되었지만, 막상 부르고 나니 너무 유난 떨면서 반가워한 것 같아 저도 창피한 참이었다.

"…"

살짝 상기된 얼굴로 그녀는 테이블에 갔다. 로에시소가 일어나 의자를 빼주었다. 하필 남은 자리가 아고와 마주보는 자리였다.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레 자리에 앉았다.

"…"

"..."

"…"

아고와 그녀는 부끄러워 어쩔 줄 몰라하고 로에시소와 나오미는 슬금슬금 뒷걸음질로 자리를 피하고 있다. 리자는 그들이 올라간 입꼬리를 숨기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을 보고는 더 부끄러워졌다.

"…정말 데리러 와주셨네요?"

"..."

약간 설렜다. 부끄러이 은색 눈동자를 바라보며 말하자, 그가 작게 숨을 들이켰다.

"...응."

작게 대답하곤 눈을 또 휙 돌렸다.

서로 면역이 생긴 줄 알았는데, 조금 떨어져 있었다고 다시 원 상태인가보다. 예나 지금이나 그가 자신에게 반응해주는 것은 묘한 충족감을 주었으니 별 상관은 하지 않았지만. 게다가 아고는 정말 끝난 이후 바로 달려온 것 같다.

"그럼 날도 어두워지니, 이만 물러가 안식을 취해도 될런지요."

리자가 당황해 무어라 하기도 전에 아고가 고개를 끄덕였다. 로에시소는 리자와 눈이 마주치자 눈을 찡긋했다. 아니, 로에시소님, 그건 무슨 의미인가요?

"리자님,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필요하다면 나오미라 부르시면 됩니다."

로에시소는 방을 나오며 마지막으로 작게 속삭였다.

"좋은 시간 되시길."

아마 리자님은 얼굴이 빨개지실 거야.

"좋은 방, 감사해요."

그리고 그 로에시소의 생각대로 얼굴이 빨개졌던 리자는 열기를 가라앉히려 부채질을 하며 조심스레 말했다.

방은 화려하진 않되 깔끔하다. 고목나무 결을 살린 가구들이나 연한 파스텔 톤의 천장, 민무늬의 카펫과 커튼. 색깔은 그녀가 좋아하는 색들로 제법 잘 어우러지게 해놓았으니 말할 것도 없고.

"...다행,이다."

"…"

아고가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대답하자 그녀는 멈칫했다. 그리곤 아까보다 훨씬 풀려있는 아고의 모습에 싱긋 웃었다.

'다른 사람이 있어서 어색했나?'

둘이 타이온을 타고 왔을 땐 느리긴 해도 담담히 잘 말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다시 불편해졌는가 싶어 신경이 쓰이던 차였다. 로에시소와 나오미, 타이사가 가자 시선을 마주치는 횟수나 대답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이토록이나 달라졌으니, 그가 쩔쩔 매는 이유가 타인의 존재 유무임을 알 수밖에.

"불편한…것은...없나?"

그가 눈을 마주하며 조심히 물어온다. 먼저 말을 거는 것을 보니 확실했다. 무슨 이유인진 몰라도 타인 앞에선 매우, 굉장히, 엄청나게 부끄러움을 탄다.

'귀여워라.'

이런 생각을 감히 왕에게, 그것도 다 큰 남자에게 해도 될런진 모르겠지만. 그녀는 대답을 기다리는 그에게 웃는 얼굴로 도리질쳤다.

그가 밝아진 얼굴로 희미하게 웃었다.

"다행...이다."

새삼 할 말을 잃었다.

아고의 은색 눈을 감싼 속눈썹은 숱이 많아 풍성했다. 따라서 눈이 아주 작게 휘더라도 휘어진 각을 따라 촘촘히 세워지면서 더 예쁜 눈을 만들어냈다. 그가 웃음이 많은 사람이 아니란 게 아쉬울 정도로 그의 웃음은 매력적이다.

"웃으니까,"

"..."

"…너무 좋아요."

처음엔 충동적으로 내뱉었다가 나중엔 애써 담담한 척하며 말을 이어나갔다. 제 말을 들은 아고가 역시나 당황하며 입가를 손으로 가렸다. 그녀가 풋, 웃자 머쓱하게 손을 내린다.

"집사님께서 미리 귀띔해주셨는데, 쉐이파디아님의 선택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축제를 여신다면서요."

조금의 침묵 후에 말을 꺼냈다. 나라 전체의 축제라니. 그녀는 아고와 함께 하기 위해 온 것 뿐이지만, 카이사 전체가 자신을 환영한다는 것은 기쁘고 고마운 일이었다.

"…맞다."

아고가 고개를 끄덕였다.

"실감이 잘 안 나요."

"그런가."

"전 한 번도 이 세계의 문화를 접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떤 축제일지 많이 설레어요."

"...음,"

"축제 준비는 잘 되가고..."

아고의 인상이 갑작스럽게 찌푸려졌다. 자신이 주제 넘게 왕의 일을 물었나 싶어 그녀는 멈칫했다.

"아…죄송해요. 제가 꺼낼 주제가…"

"아니다. 괜찮다."

황급히 몸을 숙이려 하자 아고가 강하게 저지했다.

리자는 기민하게 그의 얼굴을 살폈다. 화가 났다거나 심기가 불편해보이진 않았다. 다만 깊게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가슴이 움츠러드는 것이 궁금해서 물었을 뿐인데 벌써부터 왕의 공적인 일에 개입하는 이로 보일까 염려가 되었다.

"죄송합니다. 혹시 오해하실까 말씀드립니다. 궁금했을 뿐이지, 저는..."

자신도 모르게 극존칭의 말투로 공손하게 변명하자 그가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리자,"

"…네."

"오해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게 뭐든 물어봐도 괜찮다. 그러니 부디...그런 말투는 쓰지...않았으면...좋겠다."

그는 그럴 상황이나 입장이 아님에도 절박하게 말했다.

"리자,"

"…아,"

그녀는 멍하니 있다가 마치 '애원'하는 듯 대답을 독촉하는 그의 모습에 얼굴을 붉히고 시선을 내리깔았다. 촉촉히 젖은 은색 눈은 사람의 정신을 홀려놓는 마력이 있다.

"리자?"

응, 확실히 그러하다.

"…"

그가 어쩔 줄 몰라 하는게 느껴졌다. 테이블에 올려둔 손을 꼼지락 거렸으니까. 그 꿈틀거리는 손짓이 귀여워서 또 웃으려다가, 이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가는 무릎이라도 꿇고 사과할 분위기라 서둘러 입을 열었다.

"아고가 원한다면...그럴게요."

"…고맙다."

그가 그렇게 안도하면서 답해야할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그녀는 웃지 못했다.

셰이는 이 세계와 왕들과 아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최초의 왕'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렇게 격이 다른 존재이면서도 아고가 자기 자신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알려주었다.

이렇게 그가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낮출 때마다 그 사실을 다시 되새기게 된다.

"아고는,"

"...?"

입술을 질끈 깨물곤 신중히 말을 골랐다.

괜시리 속상하다. 고작 그녀의 발을 받치느라 거리낌없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던 때처럼, 그녀를 지나칠 정도로 조심히 배려해주는 것은 감사하나 자신을 깎아내리면서까지 헌신하는 것은 반갑지 않았다.

그러나 끝끝내 말을 정리하지 못한 그녀는 대신 다른 이야기들을 꺼냈다. 하루 일정은 주로 어떻게 되는지, 아고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고, 로에시소가 보여준 '반'이라는 물건을 보았는데...등등.

아주 사소한 화젯거리였으나 더듬거리면서도 꾸준하게 말을 이어나가는 아고의 얼굴에는 미소가 끊이지 않았다.

창문 너머 하늘은 아주 까맣고 둘의 말소리를 제외하곤 사위가 몹시 고요했다. 아고는 시간이 꽤 오래 지났음을 알고 깜짝 놀랐다. 원래 이렇게 빨리 흐르는 게 시간이던가? 짊어진 멍에, 또는 커다란 수레바퀴처럼 지독하게도 천천히 흐르던 것이었는데. 그를 고통스럽게 만든 형벌에 어울리는 것이었는데.

맑은 은색 눈동자가 리자의 눈을 바라보았다. 다소 신중한 눈길에 깜박, 눈꺼풀이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속도가 느린 것이 포착되었다. 졸리구나.

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여기서 웃으면 리자의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최대한 참았다. 마치 그녀가 하품을 참으려고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처럼.

"리자...이제, 늦었…으니까..."

"어, 네. 자야죠, 아고도."

의자에서 일어나 방을 나갔다. 리자가 그 뒤를 졸졸졸 따라왔다.

문이 열리고 검은 복도가 시야에 펼쳐졌다. 아, 저 어둠. 침묵. 고독감. 여태껏 자신이 머무르던 그 곳으로, 익숙한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때마다…겨울날 화로에서 멀어지는 것처럼 시리고 추웠다.

"내일 봐요, 아고."

리자가 후욱 속에 불을 넣어주었다. 내일이라는 약속, 그리고 그 웃음. 이 온기로 하룻밤쯤이야 버틸 수 있지 않을까?

"...그…래."

달칵.

"..."

닫힌 문 앞에서 아고는 한참동안이나 서 있었다.

놓여진 적막, 어두움. 그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외로움이 너무나 커서. 그의 등 뒤에서 집어삼킬만큼 커다랗게 입을 벌리고 있었으니까.

혹시나 이게 꿈이면 어쩌지? 어떤 왕의 장난이라면. 이 문을 다시 열었을 때 텅 비어있는 건 아닐까?

"...리자,"

작은 울림도 먹히고. 결국 불안함에 덜덜 떨리는 손을 천천히 뻗어 문으로 향했다. 있을까. 장난은 아닐까. 꿈은 아닐까. 이 모든 게 환상이라면?

끼익, 문이 다시 열렸다.

"이럴 줄 알았어."

"...어...그게…"

문 틈 사이 리자의 장난스러운 미소가 있었다. 문을 조금 더 연 그녀는 여전히 공중에 뻗어져 있는 그의 손을 보고는,

"자, 도장."

자신의 손을 맞대었다. 빛이 퍼지는 것처럼 잿빛 눈에 은색 빛이 울렁거렸다.

"어디로 안 사라지겠다는 약속이에요."

"..."

"그러니까 안심하고, 어서 가서 자요."

이것은 그의 속을 그득 채워서.

"이번엔 정말 안녕. 내일 봐요, 아고."

"…응."

멍한 정신으로 어느샌가 그는 자신의 침실에 와 있었다.

먹먹한 시선이 자신의 방을 훑었다. 제대로 된 가구 하나 없이 딱딱한 침대가 고작인 이 황량함. 그의 속내와 가장 비슷했으리라. 그는 침대 위에 조심조심 누웠다. 곧은 자세를 유지하며 배에 두 손을 올리곤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평소와 같은 고요함과 자세.

그러나 조그마한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에 비추어진 그의 얼굴엔 얼음이 녹아내린 듯 부드러운 웃음이 가득했다.

같은 건물, 바로 아래에 그녀가 있다. 같은 것을 공유하고 있다는 기분이 이런 거였구나.

아무 것도 없는 자신과 비슷하므로 가장 곁에 두었던 검은색.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부드러운 온기를 품을 수 있음은…오늘에야 처음 알았다.

지긋지긋하던 까만 천장이 울렁거리며 검은 구멍을 만들어냈다. 그녀의 눈동자를 떠올렸다. 사람의 눈은 그 바닥까지 볼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한다.

다시 떠올리는 지금도 신기할 만큼, 그는 그 검은 눈동자를 마주할 때마다 새로운 기적을 계속적으로 경험했다. 그 속내에는 언제나 그를 향한 호의와 애정이 깔려 있었으므로. 그럼에도 그에게 욕망하고 있는 것이 전혀 없었으므로.

그런 맑음이 정말로 가능한가? 바라는 것 없는, '조건 없는' 애정이 가능한가? 더군다나 그에게?

만일 이 질문이 리자를 만나기 전에 주어졌더라면, 바로 어제만 하더라도 그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답했으리라. 그에게 다가오던 사람들, 특히나 여자들은 하나같이 질척거리는 속내가 있었다.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구역질 나게 만드는, 그의 뼈, 살점 하나 남기지 않고 씹어먹을만치 더러움이 가득한. 특히나 떠오르는 한 인물은 더욱 더 그의 속을 뒤집어놓아서.

"…파더,"

그는 문득 그의 창조주를 불렀다. 기이한 불안감이 좀먹는 것을 느꼈다.

"...어떤 대가를"

상상치도 못한 너무나 큰 축복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뤄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을 준다.

"..."

그러나 그는 그녀 이전의 삶이 지독히도 불행했음을 떠올렸다.

혹시 자신이 이때까지 원인도 모른채 겪어야했던 괴로움, 그것으로 이미 대가를 치뤘다면, 그 보상이 리자 그녀라면.

그것은 몹시 달콤한 생각이었다.

카이사의 첫 아침이 밝았다. 투명한 커튼을 타고 넘어온 잔잔한 빛이 그녀의 얼굴을 쓸었다. 침대는 푹신하고 공기는 상쾌하며, 서서히 개어가는 정신은 어지러운 데 없이 맑았다. 막 깨어난 아침이라고 치기엔 최상의 컨디션. 기분 좋은 기상.

침대에서 내려온 리자는 커튼을 양 옆으로 쳤다. 커다란 창문 너머 보석처럼 새파란 하늘이 있다. 달칵, 창문을 열자 노래소리처럼 공기를 노닐던 청명한 바람이 초대를 받아들였다.

"셰이…"

바람의 손길도 새파란 하늘도 모두 셰이를 떠올리게 한다. 그립긴 하지만, 보이지 않을 뿐 항상 같이 있겠다고 했으니까.

"…잘 해볼게요."

만약 셰이가 보였다면, 그녀는 지금도 잘하고 있다고 웃으며 격려했을 것이다. 리자는 씨익 웃으며 욕실로 걸음을 옮겼다.

깨끗하게 단장을 하고 밖으로 나오자 나오미가 기다리고 있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나오미."

"네."

파란 피부 위 입가가 곡선을 그리고는 다시 내려갔다.

"식사하실 수 있도록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복도 끝에는 로에시소가 서 있었다. 오늘 역시 단정한 집사는 허리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다.

"잘 주무셨어요, 로에시소님."

"물어봐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리자님, 불편한 점은 없으셨는지요?"

"네. 아주 잘 잤어요."

리자는 있어야 할 또 다른 사람을 찾으며 고개를 두리번거렸다.

"저...아고는요?"

"왕께서는 아침을 잘 드시지 않으십니다."

"아..."

그럼 점심 식사는 같이 할 수 있을까? 리자가 자신도 모르게 아쉬운 표정을 짓자, 로에시소가 빙긋이 웃으며 입을 열었다.

"원래 식사 자체를 잘 하지 않으십니다."

"네? 배고픔은 느낄 텐데."

최초의 왕이라고 하더라도 피조물이니까.

"그럼에도 워낙…"

로에시소는 말을 잇지 못했다. '삶에 의욕이 없으셔서'. 아무리 로에시소라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말을 뱉는 것은 꽤나 불경한 일. 그러나 리자가 예상할 수 있을 만큼 뚜렷한 사실이기도 했다.

잠깐 고민에 빠졌던 리자는 결단을 내렸다.

"제가 왕을 모셔올게요."

앞으로 그의 식사는 그녀가 챙기기로. 그러길 간절히 바라고 있던 로에시소는 '쉐이파디아이시여,' 중얼거리며 손수건으로 눈가를 훑었다.

왕은 고요하게 눈꺼풀을 들어올렸다. 작은 창문으로 들어온 아침의 빛은 눈동자의 은색빛보다 밝지 못했다. 그는 잠들지 못하게 하는 설렘, 꿈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으로 결국은 밤을 새웠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을 수 있는 잠은 그의 평안이었으니, 그로선 이렇게 지샌 밤도 처음이었다. 형벌 같던 삶이 꿈이지 않길 바라는 것도 처음이었고.

낯설음에 고개를 비틀어 창문을 확인한다. 아침, 새파란 하늘은 아고에게 아직 익숙하지 못하다.

"아고?"

"…!"

별안간 여자의 목소리가 방문 바로 밖에서 들리자, 그는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켰다.

리자. 잔뜩 수축된 눈동자로 그는 뚫어져라 방문을 바라보았다.

"일어났어요?"

부드러운 목소리.

일어났냐고? 그는 조금 당황했다. 그가 잠에서 깨어났는지의 소소한 일상을 신경 써주는 이는 맹세코 그녀가 처음이었으니까.

얼굴이 붉어진채 얼굴을 끄덕였다. 마치 리자가 제 앞에 있다는 듯 행동했으나, 부끄럽게도 그녀는 아직 방 밖에 있다. 당연히 제 대답을 보지 못했으니 바보같은 제 행동에 얼굴을 손으로 덮었다.

"아고?"

똑…똑똑.

그녀가 방문을 두드렸다. 그는 정말로 어찌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서, 사실은 속에서 쿵쾅쿵쾅거리니 정신을 차릴 수 없으므로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다.

"...들어가도 되나요?"

"...!!..."

그가 식은땀을 흘리며 공황에 빠졌을 때 문고리가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쩌지? 이대로 마주하기도 창피했을 뿐더러, 깨어있음에도 대답하지 않았으니 그녀가 기분 나빠할 수도 있다.

문이 열리자 그는 일평생 가장 빠른 놀림으로 침대에 고이 누웠다.

끼익.

문이 완전히 열리자 그녀의 체향이 쑥 제 코끝을 간질였다. 저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곤 침을 꿀꺽 삼켰다. 이마에 송골송골 땀이 맺히는 게 온 몸을 뒤흔드는 심장소리가 들리진 않을지, 그리고 문가에 서서 그를 내려다보고 있을 그녀가 있으니 긴장되는 터였다.

옷자락이 스치고, 그 발이 바닥을 내딛을 때 바닥이 눌리는 소리, 그녀의 작은 숨소리 모두가 그의 귓가를 민감하게 만들었다.

그녀가 제 옆까지 다가왔다. 순간 그는 숨을 크게 들이킬 뻔 했으나 혼신의 힘을 다해 참아냈다.

그는 '침묵하는 자'. 그 무엇보다도 침묵이 가장 익숙하다 여겼지만, 지금의 이 정적은 그를 몹시 긴장되게 만들었다.

"..."

리자는 아무 말이 없다. 그러나 자신을 보고 있음만은 분명하게 느껴졌다.

그는 답지 않게 눈을 뜨고 싶다는 충동에 시달렸다.

표정이 궁금하다. 그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어떨까. 그가 봐왔던 대로, 바라는 대로, 터무니없이 간절히 소망하는 대로 부드러울까. 아니면, 모두가 그러했듯 시린 칼날을 품은 차가움일까.

'…리자, 너만은 나를…'

너만은? 그는 문득 자신이 그녀에게 무언가, 그로선 아직 명확히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깨달았다.

바라? 자기가? 그녀에게? 머릿속이 하얗게 질려갔다. 자기혐오가 목구멍까지 올라왔다.

"세상에...무슨 땀이 이렇게…"

아. 세상에.

그 자신을 저주하던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이 거짓말처럼 멈추었다.

그는 제 이마에 맞닿은 온기를 믿을 수 없었다.

"악몽을 꿨나?"

온 몸에서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다정한 손길이 그의 이마를 쓸었다. 젖은 머리카락을 떼내어주고 땀을 닦아준다.

마음이 바르르 떨렸다.

"열은 없는데..."

아, 안 돼.

이마를 쓸던 손이 사라진다. 그는 급하게 그녀의 손을 잡아채었다.

다소 우악스럽게 제 손을 쥔 것과 달리 그는 물기가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빛 아래 드러난 은색은 여전히 아름다워 그녀는 당황함도, 할 말도 잃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가 그녀의 손을 자신의 뺨까지 잡아당겼다. 다급하게 다른 손으로 침대를 디뎠으나 숨결이 느껴질만치 가까운 거리였다. 그녀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

숨도 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곤란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허리를 좀 피자 쉽게 얼굴 사이의 거리가 멀어졌다. 그제야 숨을 내쉰다. 다만 그에게 잡힌 시선은 떼낼 수 없었으니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 은색 눈이 울렁거리더니 옆으로 눈물이 쭉 흘러내렸다.

"아고,"

정말 악몽을 꾸었나 싶어 당황했다. 잡힌 손을 꿈지럭거려 그의 눈물을 닦는데 성공했다.

자신이 기특해서 씨익 웃었는데 그가 마치 꽃이 피는 것처럼 천천히 따라 웃었다.

"...잘…잤나?"

아침이라 그런지 낮은 목소리였다.

'이건 반칙이야.'

그녀는 벌게진 눈가를 붙잡히지 않은 손으로 가렸다.

"리…자?"

재촉하는 듯한 목소리에 리자는 눈을 가린 그 상태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는, 맙소사. 갈라진 것마저 매력적이어서 속이 쿵쾅쿵쾅거렸다.

"…다행,이다."

그가 덧붙였다. 그녀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귀가 홧홧한 느낌이다.

'목소리 하나에.'

얼떨떨해있는 스스로를 책망하다가, 손을 내리며 그를 바라보았다.

잔잔히 미소 짓고 있는 얼굴. 풍성한 속눈썹과 그 아래 영롱한 은빛의 눈동자. 그 속에 자리잡은 올곧은 시선.아, 다시 손을 올려 얼굴을 감쌌다.

"..."

스윽, 그가 몸을 일으켰다. 불편할 텐데 기어코 그녀의 손을 쥔 채였다.

"어!"

그 흔들림에 비틀거리다가 그녀의 코끝으로 그의 짙은 체향이 훅 끼쳐들어왔다. 아무렇지 않은 척 자세를 바로 잡았지만, 생리적인 현상은 어쩔 수 없는지라 얼굴이 다시 빨개지고 말았다.

"…괜찮나."

"네?"

와인빛 머리카락이 검은 상의로 흘러내렸다. 정리하지 않아 덥수룩한 앞머리가 얼굴로 쓸려오자 그가 길다란 손가락으로 조용히 정리했다. 풍성한 속눈썹 사이로 은빛 눈동자가 숨겨진 보석마냥 드러났다. 그 모든 모습이 슬로우 모션처럼 제 눈에 하나하나 박혔다. 갓 잠에서 깨어나 흐트러진 모양새는 한껏 나른함을 풍긴다.

'분위기가…'

"뭐,뭐라고…"

"괜찮냐고…물었다."

한 번, 두 번. 느릿하게 깜박이는 눈꺼풀. 스르륵 올라와 저와 시선을 맞추는 그.

"으,"

그가 답을 바라고 있으나 대답할 정신이 없었다. 기묘한 기분을 느끼는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매우 미약한 정도였지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종류의 것이라 몹시 낯설었다.

'어떻게 해.'

"…리자?"

아고가 걱정스럽게 자신을 불렀지만, 시선을 아래로 푹 내리고 아랫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셰이...으으,'

조심스럽게 숨을 몰아쉬곤 자신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셰이가 이런 자신을 보며 만족스럽게 웃을 거라 생각하니 다시 얼굴이 빨개질 뻔했다.

그는 여전히 그녀와 눈을 마주치며 표정을 살피려 했다. 리자가 부자연스럽게 시선을 피하자 그의 표정이 더 굳었다.

"왜…그러나."

"그…아니에요."

"...아픈가?"

"…아니요."

"…그럼..."

그는 무어라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녀도 딱히 해 줄 말이 없었으므로 입을 열지 않았다.

"…"

"…"

애매한 상태가 계속 되었다. 제 손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흘끗 바라보자 불안한 기색이다. 또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지 초점이 멍해졌다.

"미안…하다."

무엇이? 그러나 묻기도 전에 아고는 손에 힘을 풀고 놓아버렸다. 실이 툭 끊긴 것처럼 절단되는 느낌.

리자는 이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부끄러움 이상의 원치 않는 결과를 몰고 오리라 생각했다. 차라리 말을 해주자.

"...사실…"

그렇지만 무어라고 말하지? 정말 사실 그대로 말하기엔 너무나 창피한데!

"…응."

그러나 그가 고개를 끄덕이면서까지 귀를 기울이자, 입이 저절로 움직였다.

"배,배고파서…"

"…"

"어…제부터 배고팠거든…요. 지금 찾아온 것도…아침을 빨리 같이 먹고 싶어서…로에시소님 부탁도 있고...아무튼..."

그가 횡설수설 말하는 그녀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런가."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지 딱딱한 얼굴이 설핏 풀렸다.

그렇지만 리자는,

'그게 변명이라고 하다니.'

둘러댄 것이 되려 더 민망했다. 대체 무슨 소리를 한 건지!

"...으으으,"

결국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방을 뛰쳐나갔다.

"리,리자!"

그가 당황한 목소리로 그녀를 부르며 따라나갔다.

"왕이시여, 좋은 아침 보내셨는지요."

밖에는 흐뭇한 얼굴의 로에시소와 나오미가 기다리고 있었다. 리자는 타다닥 빠른 발걸음을 옮겨 나오미 옆에 찰싹 달라붙었다. 아고는 저도 모르게 리자에게 손을 뻗으려다가 그걸 의식하곤 꾸욱 말아쥐었다.

얼핏 눈치를 보던 로에시소가 나섰다.

"오늘의 하늘은 어제처럼 파랗습니다."

"...그런가."

"예. 일단 리자님과 식사를 같이 하신 후에, 함께 보시는 건 어떠신지요."

파란 하늘이 어떤 곳에서는 흔하다고 할지라도, 이 카이사에서는 아주 희귀한 것이었으므로 아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리자의 뻣뻣한 뒷모습에 있었다.

"식사 장소로 모시겠습니다."

발걸음이 옮겨졌다.

시옹 가의 직계는 대대로 외동아들만을 낳아왔다. 그 누구도 의도하거나 법으로 정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항상 그러했다. 그 암묵적인 법칙이 깨진 때는 로에시소 때였다. 그는 아들 둘, 딸 하나를 얻었기 때문이다. (참고로 그의 인생에 있어서 여자란 존재는 그의 아내 단 한 명 뿐이다.)

그가 장남 라엔 이후 두 번째 아들인 마엔을 얻게 되었을 때 일곱 가문이 모두 술렁였다. 부인의 외도라는 더러운 소문마저 있었지만, 그 둘째 아들은 놀라울만치 로에시소와 판박이였으므로 금세 사그라들고 말았다. (마엔 덕에, 이후 막내딸 슈엔이 태어났을 때는 주목받지 않았다.) 눈과 같이 하얀 머리, 서늘한 연푸른색 눈동자와 약간 모아져 있는 짙은 눈썹, 얇은 윗입술, 치켜올라간 눈꼬리. 이런 외모는 당연했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평소 꼿꼿하게 허리를 세우는 자세, 글자있는 것들, 예를 들어 책이나 로에시소의 경우 서류에 중독되는 것, 손수건을 꼭 들고 다니는 작은 버릇까지. 모든 것이 그와 닮아있었다.

다만 시옹 가의 이단아라 불리우는 것처럼 기이한 점은 하나 있었다. 그것은 로에시소와 마엔이 서로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했다. 마엔은 왕에게 충성하지 않았다.

시옹 가는 대대로 왕을 맹목적으로 사랑했다. 장남 라엔은 로에시소와 같이 왕에게 충성을 맹세했다. 그는 로에시소의 모든 자리를 이어 후대에 왕을 모실 것이다. 현재는 왕의 부 보좌관으로 로에시소의 일을 인수인계 받고 있다.

그러나 마엔은, 마엔 시옹은 왕을 사랑하지 않았다. 정확히는 왕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 시옹의 강력한 피는 왕을 사랑하라 종용했으나, 고집이 기괴할만큼 굳센 그는 그 울림을 무시하고 왕을 따르지 않았다.

이유는 간단했다. 왕은 힘이 있음에도 날뛰는 가주들을 제압하지 않는다. 반응하지 않는다. 내버려둔다. 그 모든 것은 '무관심'으로 비추어져 그를 실망하게 만들었다.

"저 분이…"

마엔 시옹. 그는 성미에 맞지 않게 온 몸을 벽 뒤로 숨기었다. 머리만을 조심스럽게 내밀고 왕의 맞은 편에 앉은 쉐이파디아의 선물을 바라보았다.

왕의 그림자들과 똑같은, 그러나 조금 더 옅은 검은색 머리카락. 그의 왕은 검은색을 사랑하니 친숙히 여기리라.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제 왕을 바라보는 검은 눈동자는 상냥한 빛을 띈다. 전체적으로 웃는 인상의 얼굴은 그녀가 매우 다정할 것을 알려주었다. 왕에게 상처는 주지 않으리라 조금은 마음을 내려놓았다. 공간을 울려 여기까지 희미하게 들리는 목소리는 둥글둥글했다. 짜증이 많은 성격도 아니야. 거기에 조곤조곤히 말하는 게 아마 차분할 것이다.

흠, 조금은 마음에 들었다.

'무엇보다,'

마엔은 왕의 표정을 살폈다. 왕의 입은 빠르게 움직이진 않았지만 쉴 새 없이 벙긋거렸다. 때론 말을 채 하지 못하고 다물렸지만…, 저 정도가 어디인가.

정말로 '살아있는' 왕을 보는 것 같다고 마엔은 생각했다.

기이한 기분이었다. 여자는 왕에게서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었다.

"…"

무채빛이라고만 생각했던 회색 눈동자가 놀랍도록 생동감이 넘쳤다. 그것은 맑은 은색이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얼굴이 녹아있었다.

여자가 무어라 말하자 왕의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마엔은 멍하니 바라보았다. 왕은 부끄럽다는 듯이 고개를 숙였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가, …이런. 방금은 정말 깜짝 놀랐다.

"…웃다니."

오도독 팔을 타고 소름이 돋았다. 마엔은 답지 않게 팔을 벅벅 긁었다. 그만큼 정신이 얼빠져 있었다. 맹세코 그의 인생 처음으로 보는 진귀한 광경이다. 아마 그의 아버지 로에시소로도 신기하리라.

왕이 웃었다. 소리가 나는 것은 아니었지만, 눈이 휘고 입꼬리가 올라갔다. 제 형 라엔이 이 장면을 보았더라면 눈물을 줄줄 흘리지 않았을까.

웃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라면 지극히 평범하겠지만, 왕은 다르다. 그가 웃는 것은 몇 십 년의 주기를 가지고 있다고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이니까.

"대체…"

여자가 웃었다. 왕이 멍하니 여자를 바라본다.

"..."

제 가슴께가 간지러울 만큼 묘한 기운이 그 둘을 감싸고 있었다. 누가 끼어들 수 있나 싶을 만큼 긴밀하고 끈끈한 유대감.

분명 신의 선택이 있었던 때는 엊그제였으니 왕과 여자가 함께 한 시간은 얼마 되지 않을 터다. 그런데 무어라 설명할 수 없는 저 친밀함, 저 사이에 흐르는 편안함은 대체 어떻게 가능한가.

"…훌쩍,"

그는 갑작스러운 소리에 화들짝 놀라 제 옆을 바라보았다. 언제부터 있었는지 형 라엔이 손수건에 얼굴을 파묻곤 끅끅거리며 흐느끼고 있었다.

"태초에 세계를 지으시고 위대하고 광엄하신 최초의 왕을 만드신 쉐이파디아님께서 당신의 자비로우심을 다시 한 번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작은 손가락부터 기품이 흘러 넘치시는 당신의 딸을 이 카이사에 보내셔서 저희를 얼마나 감격케 하시는지, 크흡…, 오, 쉐이파디아시여! 감사합니다."

"…"

"미천한 소인의 이름은 라엔 시옹입니다. 하늘의 기개와 땅의 광활함을 지니신 우리의 왕, 위카이사의 '침묵하는 자'를 모시는 보좌관이며 집사, 더불어 제 1 탑주이며 왕을 위한 시옹 가의 가주인 로에시소 시옹께서 제 부친이 되십니다."

"그,그렇군요."

리자는 라엔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자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도 장황한 말들을 막힘없이 늘어놓는 것을 매우 신기하게 바라보았다. 얼떨떨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정말 감격한 표정을 지으며 몸을 들썩였다.

깔끔하게 뒤로 넘긴 하얀 머리카락, 연푸른 눈동자.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는 것. 라엔이 말하지 않았더라도 그가 로에시소의 아들임은 명확히 알았을 것이다.

그녀는 라엔의 옆에서 그런 그를 한심하게 쳐다보는, 또 다른 로에시소 2세를 바라보았다. 라엔은 로에시소와 다른 얼굴형과 눈매, 전체적으로 둥근 분위기를 가지고 있지만, 이 남자는 외모부터 분위기 모든 것이 로에시소와 판박이였다. 세모꼴 얼굴형과 치켜올라간 눈매, 안경 너머 서늘한 눈빛. 그러나 확연히 다른 점이 있다면 로에시소나 라엔처럼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아고에게 무한 애정의 눈빛을 보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그가 입을 열었다.

"일곱 가문 중에서도 최초의 가문, 시옹 가의 차남인 마엔 시옹입니다. 쉐이파디아께 영광을."

간결하게 말한 것이 예의 전부. 부담스러울 정도인 라엔보다야 나았다. 딱딱한 표정, 담담한 분위기이기야 했지만 근거 없는 호의가 생기는 것은 날 선 예민함이나 적의가 느껴지진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작게 미소를 띄곤 그들에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쉐이파디아님의 자비로 아름다운 카이사에 머무르게 된 리자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정말 영광입니다, 리자님…어흑,"

라엔은 이젠 소리를 숨기지 못했다.

"제가 살아있을 때에 이 카이사가 쉐이파디아님의 선택을 받게 되다니. 시옹 가의 모든 선조님들이 바라던 순간이 지금 제게, 이렇게, 맙소사…"

진정하려는 듯 숨을 들이키지만 결국은 울음을 이기지 못했다. 덩치가 작지 않은 성인이 오열하는 것은 굉장히 기이한 풍경이다.

"쯧쯧, 라엔, 볼품없는 모습 보여드리지 말고 나가서 진정하고 와라."

혀를 차며 로에시소가 그를 쫓아냈다.

"흡,"

그녀는 상상하지도 못한 기괴한 상황에 웃음을 꾹 참았다. 로에시소는 죄송합니다,라며 허리를 숙이고 마엔은 심각한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었기 때문에 대놓고 웃을 수 없었지만.

잠잠히 있던 아고가 흘끗 그녀를 바라보며 걱정스레 물었다.

"...불편…한가?"

"네?"

"라엔과 마엔이...불편하게…"

"아, 절대 아니에요."

고개를 도리질치며 부인했지만 그는 마음이 놓이지 않는듯 보인다.

"...표…정이…"

"…그게, 음."

상황이 너무 웃겨서요. 차마 이렇게 말하기엔 로에시소나 마엔이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녀가 말을 잇지 못하자 아고가 다시 입을 열었다.

"...리자, 혹시…그대가…이런 자리가…음, 불편하다면,"

조심스러운 기색이었다.

무슨 얘기가 나올까 두려워져 사실대로 말하기로 했다. 그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귀 좀…"

"으,응."

그가 입을 벙긋거리다 말고 조심스럽게 상체를 숙였다. 자기보다 키가 큰 남자가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는 것은 몹시 귀여웠다. 그녀가 풋 웃자 그가 움찔 몸을 떨곤 얼굴을 붉혔다. 그럼에도 자세는 그대로 유지했다.

여기서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간 그가 민망할 것 같아 꾹 참고 그의 귀에 두 손을 대었다.

"불편한 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상황이…너무 웃겨서."

"어..."

"로에시소 집사님이나 마엔은 심각한데, 그 앞에서 웃기다고 말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랬던가."

그가 떨떠름하게 대답했다. 그의 몸이 움칠 움칠 떨렸다.

'간지럽나?'

"원래 라엔 씨는 그래요?"

"어, 어?"

"눈물이 저렇게 많은 사람은 처음 봐서 놀랐어요. 물론 로에시소 집사님도 그러시긴 하지만…"

"으…리, 리자…"

아래로 내리깐 눈을 이리 저리로 돌리며 안절부절. 옆으로 흘끗 곁눈질하니 로에시소가 뒤돌면서 그녀와 아고를 빤히 바라보는 마엔의 시선을 끌어당겼다. 순간적으로 리자는 장난기가 발동했다.

"…후!"

"윽!"

"푸흐,"

결국 그가 자신의 귀를 잡곤 펄쩍 떨어졌다. 그 와중에도 자신이 다칠까봐 밀어내진 못하고 뒤로 멀어졌는데, 그가 정말로 곤란하다는 듯이 얼굴이 일그러져선 귀 끝이고 목이고 얼굴이고 죄다 빨개진 모양새가 미안하지만 너무 통쾌했다.

"미, 미안…해요, 흡, 푸흐, 흐,"

"..."

그녀가 흐느끼듯이 웃자 그가 귀를 막은 그대로 그녀를 새침하게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 뿐이지만)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 원망이 담겨 있었지만 아고에겐 안타깝게도 아직 그녀의 장난기는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리자는 최선을 다해 애처로운 표정을 지었다.

"혹시...화났나요?"

"어?"

그는 이제는 딱딱하게 굳었다. 빨갰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다.

"아니다, 전혀 아니야."

그가 파르르 떨며 극구 부인했다. 더듬거나 머뭇거리는 것도 전혀 없었다.

찌르는 듯한 시선에 말없이 옆으로 고개를 휙 돌리자, 두 명의 시선이 그녀를 향하고 있었다. 로에시소는 거의 울기 직전까지 몰리는 자신의 왕에게 안타까움을 느끼며 그녀에게 원망을 내보이고 있고, 마엔은, 음, 그녀로선 알 수 없는 눈빛을 하고 있었는데…다만 웃고 있었다.

리자는 다시 아고를 바라보았다. 이이상 했다간 아고가 쓰러질 것만 같아 그만두기로 했다.

"미안해요."

"아, 그게…"

"너무 재밌어서 자꾸 장난을 치게 되네요. 이제 그만할게요."

아고가 그녀의 표정을 살피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진심으로 깊은 숨이라 조금은 미안했다. 베시시 웃자 그가 입을 조심스레 열었다.

"재, 재밌나…"

아고가 작게 중얼거렸다.

"네?"

되묻자 그가 뒷머리를 머쓱하게 긁적이며 다시 입을 열었다.

"...그…재밌나?…"

"아, 혹시 기분이 나쁜,"

"아니, 아니…그게 아니라..."

그가 답지 않게 빠르게 자신의 말을 끊었다.

"…다...행,이라서…"

"…뭐가요?"

"...재미…없는...사람이라는 것보단…나으니까…"

그가 웃는다. 묘한 기분에 리자는 가만히 있다가,

"재미있든 없든 아고는 아고니까 신경쓰지 않아도 돼요."

짧게 덧붙였다. 은색 눈동자가 휘둥그레졌지만 리자는 더 이어 말하진 않았다.

"리자님은 어떤 능력이 있으십니까?"

마엔은 말이 없지만 아고와는 다르게 필요다고 생각한 말은 반드시 하는 성격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때로 남을 배려할 만큼 둥글게 표현되지 않을 것이다. 리자가 판단하기론 그러했다.

"마엔!"

라엔이 작게 경고했다. 마엔의 직설적인 말에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졌다. 그녀도 체감했지만 기분이 나쁜 것은 절대 아니었으므로 빙긋이 웃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다. 카이사의 입장에서 저 말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아고 외엔 꺼내기 굉장히 예민한 말이고, 아고라면…음, 아마 그녀에게 그런 말을 꺼내진 않았을 테니까.

다만 아쉬운 것은 차라리 로에시소가 말하는 게 나았으리라. 아니면 아고가 없는 자리에서 묻든지.

셋 중 가장 낮은 위치의 마엔이 왕의 허락 없이 꺼낸다는 것은, 아고를 약간 무시하는 의도로 보이기 쉬웠다. 그녀에겐 그렇게 비추어졌으니까.

"…"

아고의 옆얼굴을 곁눈질했다. 과연 기분이 나쁜 것일까. 풍겨오는 분위기가 약간 살벌했다. 그는 그녀가 느끼기에 '무섭게' 굳어있었다. 이전처럼 부끄러워서, 긴장해서, 당황해서 이런 연유로 굳어진 것과는 확실히 다르다.

그의 옷자락을 잡았다.

조심스러운 말이었기 때문에 신중하게 입을 열었다.

"제가 신께 구한 건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은 많지 않을 거에요."

다행히 아무도 실망한 기색은 보이지 않았다. 질문을 한 마엔조차도 애초에 상관이 없었다는 듯. 그럼 의도가 무엇일까?

"그래서 카이사와 아ㄱ, 왕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리자!"

"음, 후회는 하지 않아요. 저는 쉐이파디아께 현명한 선택을 할 기회를 달라고 구했고, 덕분에 이곳에 왔으니까요."

"..."

그녀의 말에 정적이 찾아왔다.

라엔이 또 훌쩍거리기 시작했다. 로에시소마저 손수건을 꺼내고 있었다. 그녀는 두 부자의 모습에 꺄르르 웃음을 터뜨렸고 아고는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고?"

그의 은색 눈동자 속 검은색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족쇄? 낡은 쇠사슬이 한꺼풀 벗겨진다. 그건 마치 예전에 물에 둘러싸인 기묘한 꿈 속에서 본 것과 같아서 리자는 뻣뻣하게 굳었다.

"아고, 잠깐만요…"

기민하게 경고 신호를 느낀 리자가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느릿하게 마엔에게로 시선을 옮긴 아고는 서늘한 표정이었다. 순식간에 검은 그림자가 마엔과 아고를 감쌌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검은 덩어리가 그들을 잡아먹고는, 바닥으로 흡수되었다. 깜짝 놀란 그녀가 소리 지르기도 전에 벌어진 일이었다.

저 바닥, 심해 속. 달아오른 쇠사슬에 묶여 한없이 고통받던 아고의 모습이 머릿속을 스쳐지나갔다. 리자는 고민했다.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마엔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혹여나 일이 벌어지고 그 후에 상처받을 아고를 위해서. 그렇지만 리자 자신이 되려 오만한 것은 아닐까? 왕인 아고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행동인데.

복잡한 얼굴로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자, 분위기에 맞지 않게 유쾌한 웃음이 터져나왔다. 당황한 그녀가 시선을 돌리자, 그곳에는 라엔이 배를 잡고 웃고 있었다.

"대체 왜…"

라엔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웃는 건지, 우는 건지. 나중엔 구분할 수 없었지만. 그 웃음의 이유를 로에시소에게 묻자 로에시소 역시 상황에 맞지 않게 만족스러운 웃음을 짓고 있었다.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네?"

"왕께선 원체 별 시덥잖은 날파리가 건방을 떨어도 그 어떤 반응도 하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럼, 지금은…"

"아마, 리자님께 무례를 범한 마엔을 벌하실 겁니다."

마엔이 끌려간 것인데도 아무렇지 않을 뿐더러 둘 다 오히려 고소하단 반응이었다. 얼떨떨한 리자는 마음 속 불안감을 잠재웠다. 그들이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쓸데없는 걱정은 내려놓자.

"일단 제 집무실로 모시겠습니다, 리자님."

"네. 감사해요."

멀거니 서 있는 것보단 나았으니까. 로에시소는 기쁜 마음으로 먼저 걸음을 옮겼다.

제 1탑. 그 곳에 도착하자마자 탁 트인 광경의 태반이 청명한 쪽빛이라 리자는 멍하니 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시선을 완전히 빼앗겨서는 유리 위에 손을 올려놓고, 공중에 떠 있는 것 마냥 장엄하고 거대한 광경 속에 잠시 파묻혔다. 한쪽 면이 모두 유리창인 집무실. 그마만큼 시야를 가득 채운 파란 하늘과 그 한참 아래 빼곡하게 점점을 이룬 집들이 그려내는 그림이 몹시 아름다웠다.

저기 저 아래. 돌거인 아오그란시스가 디딘 땅 위에 아고의 다정한 백성들이 살고 있다. 어떤 사람들일까? 돌거인의 눈에 산다는 귀족들도 궁금했지만, 그것보다는 저 아래가 더 궁금했다. 기회가 되면 아고와 꼭 같이 내려가보리라.

"카이사에서 파란 하늘은 흔치 않지요. 평소에는 회색 먹구름이 가득해서 되려 답답함을 주었기에, 전망이 아름답다고 느껴본 적이 많지 않습니다."

"…아."

카이사에 발을 디디기 전 그 어마어마한 먹구름은 과연 칙칙했으니 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리자님께서 오실 그 때, 오랫동안 이 카이사를 억누르던 먹구름은 부숴지고 진정한 하늘, 눈부신 푸른 하늘이 모습을 드러냈지요. 과연 쉐이파디아님의 선물! 위대하신 분! 이 카이사에 앞으로 도래할 영광과 찬란함이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카이사는 이틀 이상 연속으로 파란 하늘을 보는 게 힘듭니다. 다시 먹구름이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쉐이파디아님의 선택을 받은 것만으로도 모두가 해방된 기분이 들 겁니다."

먹구름이 다시 돌아올까?

"먹구름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에요."

리자는 결연하게 말했다.

잿빛 족쇄는 다시는 카이사의 발목을 묶지 못하리라. 셰이가 분명히 말했으니까.

"네? 혹시 확신하시는 이유를 물어도 되겠습니까."

"셰이, 아니 쉐이파디아님이 그러셨어요. '이건 선물이야.'라고."

그 따스한 음성. 셰이의 미소를 떠올리며 아스라하게 웃자, 라엔이 맙소사 중얼거리며 입을 틀어막았다.

그들은 다같이 시선을 돌려 흰 구름 한 점 없이 온전하게 맑은, 완연하게 뚫려있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 부스러지는 빛더미의 의미가 그것이었을까.

"그럼 이 카이사의 푸른 하늘이 바로 리자님의 능력이 되겠군요."

로에시소는 그렇게 말하곤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예."

"어흑, 리자님. 맙소사, 이런 멋진 능력을…! 이건 당장 모든 나라에 알려야 할 일입니다. 카이사에 푸른 하늘이 도래했다! 이제 쉐이파디아님의 자비와 사랑이 빛무리처럼 흘러넘치고, 그 분의 선물인 리자님으로 인해 먹구름은 감히 카이사를 침범하지 못한다!"

"라엔, 그만해라."

로에시소가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그의 입을 다물게 했다. 마엔이 있다면 그 역할은 그가 했겠지만.

로에시소는 그제야 마엔이 벌려놓은 일, 그러니까 리자는 전혀 개의치 않더라도 무례하게 굴었던 것을 떠올렸다. 그는 허리를 숙여 리자에게 용서를 구했다. 그제야 일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떠올렸던 라엔 역시 파리한 낯이 되어 허리를 숙였다. 그는 거의 절하는 지경이어서, 리자는 그의 팔을 잡고 만류했다.

"아니에요. 이러지 마세요. 전 괜찮아요. 카이사에게 중요한 일이란 건 아니까."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오기 전에 걱정하긴 했어요. 능력이 별다르게 없어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뭘 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리자님. 그렇게 말씀하지 말아주십시오! 그 망할 마엔놈이 무례하게 굴었던 것은 용서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주 배가 부르다 못해 터진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쉐이파디아님께서 선택해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몇 천 번은 땅에 머릴 박으며 감사를 표해도 모자랄 판인 데다가, 리자님의 능력은 카이사의 푸른 하늘 아닙니까."

라엔은 계속해서 그녀의 아름다움과 쉐이파디아의 자비로움과 선택 받은 데에 대한 기쁨을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리자는 그의 말을 끊을 겸 장난을 칠 겸 짓궂게 웃으며 물었다.

"그래도 다른 능력이 있으면 좋았겠죠?"

"리, 리자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라엔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로에시소는 단호한 목소리로 부인했다. 그녀는 풋 웃고는 장난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말했듯 그녀는 셰이에게 현명한 판단을 할 기회를 달라고 말한 것을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눈에 띄는 능력이 없으나 자격지심 따윈 없다. 너무 당당한가 싶어서 미안하긴 했지만, 그녀는 카이사가 아니라 아고를 택해서 온 것이니까. 미안하더라도 아고에게 미안해야지.

그리고 그녀가 신경써야 할 그 아고는 이미 선택해주어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나. 그것은 진심이었고, 그는 쉽게 변하는 사람이 아니다. 능력이 없다고 가벼이 여길 사람은 애초부터 아니었고.

"사실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진 크게 상관없어요. 전 카이사가 아니라 아고를 선택한 것이라서 그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리자님..."

리자는 쐐기를 박듯이 확실히 말했다. 이것은 셰이에게 말했던 각오였으며, 다시 한 번 다지는 결단.

"전 아고를 위해서 온 거에요."

많은 의미가 함축된 말이었으므로 라엔과 로에시소가 한참 침묵하다가 이내 둘이 동시에 손수건을 꺼내들었다. 당연히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다.

잠시 후 눈물 많은 두 부자가 어느 정도 진정되자 리자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그런데, 아까 그…왕께서 반응하지 않는다는 그 말은 무슨 뜻인가요?"

마엔이 끌려갔을 때 들었던 말, 그러니까 '왕께서는 별 시덥잖은 것이 건방을 떨어도 반응하지 않으셨다'는 체념 섞인 말은 기민하게 신경 쓰이게 만들었다.

셰이가 말한 적이 있었다. 아고는 군주로서 부족한 점이 있다고. 정확한 것을 알 수는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떠오르는 이유는 무슨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리라.

"그…"

리자는 물끄러미 라엔의 입이 열리길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았다. 이전 같았으면 신나게 이야기할 그가 땀을 뻘뻘 흘리며 곤란한 표정으로 제 아버지를 바라본다.

그 행동은 로에시소의 허락을 구하는 의미로 보였다. 리자는 로에시소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잠깐 파란 하늘을 응시하던 로에시소가 잠시 후 입을 떼었다.

"리자님도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왕께서 얼마나 다정하신지요."

리자는 저도 모르게 살풋 웃었다. 그렇지. 그는 다정함에 인격을 부여해서 만든 생명체처럼 느껴졌다.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지요. 애초에 '버림 받은 것', '사라진 것' 따위의 꺼림칙한 것을 제 백성으로 받아주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네."

"지금도 계속해서 '심연'에서 '버림 받은 것'과 '사라진 것'을 데려와 주시곤 하니까요."

심연. 심연의 인도자, 나오미. 문득 그녀를 떠올리다가 다시 로에시소에게 집중했다.

"그러나…"

로에시소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 정도가 너무 크시지요. 군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엄격함을 잡아먹을 만큼 말입니다."

군주로서의 엄격함. 셰이가 말한 부족한 부분이 그것이었구나.

"신하들에게 얕보이기 쉽겠군요."

로에시소가 고개를 끄덕였다. 확실히 리자가 보기만 하더라도 아고는 누군가를 강제하거나, 제 고집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들이 얼마나 무례하더라도 왕께선 그 분의 성정 상,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가주들과 탑주들을 더 제멋대로 행동하게 만들었죠."

"…"

"그것이 그 뜻입니다. 왕께선 어찌할 바를 모르시다가 결국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기로 마음 먹으신 듯 합니다. 차라리 그러는 것이…"

로에시소는 뒷말을 얼버무렸다. 그녀도 얼추 짐작할 수 있었다. 그렇게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것이 덜 상처를 받으니까.

분위기가 낮게 침잠했다.

일상 얘기를 하듯 아무렇지 않게 꺼낸 말이었으나 이 문제는 꽤 심각했다. 쉽게 해결할 엄두를 낼 수도 없는 것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정이 근본적인 원인이므로. 무엇보다 간단히 바뀔 류의 것이었다면 몇 천 년이나 왕이었던 아고가 여직 그 늪에서 허우적 거릴 이유가 있나.

라엔은 한숨을 내쉬며 시옹 가의 고질적인 속병이 그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자기 자신에게 엄격한 정도의 반의 반 만이라도 적용한다면, 괜찮을 텐데요."

리자가 한숨을 쉬며 내뱉는 그 말이 정답이었으므로, 라엔과 로에시소, 그림자 속에 녹아있던 타이사와 나오미마저 고개를 끄덕였다.

"으윽,"

왕의 그림자에게 삼켜져 어딘가에 내뱉어진 마엔은 정신을 차리자 비틀거리며 용케 몸을 일으켰다. 이곳은 어디인가? 온통 어둠, 검음. 그런데도 용케 그와 왕의 주변에서 스물거리는 검은 그림자 파편 덩어리들이 보였다. 그것들은 더 까맣고 색이 진했으며, 텅 비어있었다.

마엔은 본능적인 두려움에 몸을 굳혔지만, 그와 별개로 그의 속내는 희열 비슷한 감정이 자리잡아 있었다.

그는 일부러 리자님을 걸고 왕 앞에서 방만히 행동했다. 그것은 충동이며 도박이었지만, 왕은 진실로 반응해주었다. 만약 마엔이 왕께 건방지게 굴었더라면 왕께선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확실한 건 이만큼이나 반응하진 않으셨으리란 것이다.

팔짱을 낀 채 마주 서 있는 왕은 이전의 그 익숙한 표정…감정이 전혀 묻어 나오지 않는 무채빛의 그 딱딱한 얼굴이었다. 그럼에도 마엔은 몹시 만족스럽고 들떠서, 자신도 모르게 라엔과 비슷한 웃음을 지어버렸다.

"…"

막상 마엔을 데려와놓고도 왕은 신경을 쓰지 않다가 한참 후에야 텅 빈 회색 눈동자를 들어올렸다. 그 순간 마엔은 침을 꿀꺽 삼키곤 주춤주춤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거대한 왕의 존재감, 저절로 감탄을 자아내는 그 위압.

그가 그토록이나 왕에게 바랐던 그 모습. 마땅한 예를 차리리라.

"…마엔,"

왕은 드디어 분노하고 있다.

"주제를...모르나."

낮고 공허한 목소리. 귓속을 긁어내듯 음습한 종류의 것은 그의 몸을 저절로 긴장시켰다.

정말 바라던 순간이었음에도 그는 손가락까지 뻣뻣해져 몸의 어떤 부위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 바닥을 짚은 주먹을 간신히 펴내었다.

위협하는 살벌한 기운과는 다르게 왕은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금방이라도 그의 몸을 물어뜯을 마냥 주변의 검은 것들이 날카롭게 움직였지만, 왕이 허락하지 않았는지 그의 몸에 다가오진 못했다.

마엔은 자꾸만 올라가려고 하는 입꼬리를 있는 힘을 다해 막았다.

이제야, 드디어 자신이 기쁘게 굴복할 수 있게 되었다.

"왕이시여,"

그는 왕의 자비함에 기대어 조금 더 방자하게 굴어보기로 했다.

"제 무례는 뼈저리게 압니다. 어떤 벌을 내리시든 달게 받을 것입니다."

"…"

"그러나,"

그는 꿀꺽 침을 삼켰다.

"카이사의 모두가 리자님께 우호적이진 않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왕의 고요한 표정이 조금 갈라졌다.

"뭐…?"

왕이 귀를 열자 오랫동안 이 기회를 기다리고 기대했던 마엔은 입을 열었다.

"리자님께 무례를 범할 이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왕 앞에서 방만히 행동하는 가주들이나 몇 탑주들이 리자님께 예를 차리겠습니까? 제가 범했던 무례 이상일 것입니다."

그 틈을 타 오래간 참아왔던 검은 그림자가 살금살금 그의 어깨를 타고 올라왔다. 귓가에 자리잡은 그 검은 덩어리, 아주 작고 작으면서 혀에 독을 발라놓은 그것은 자신의 욕망을 불어넣기 시작했다.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소리지. 네 앞에서도 소리를 지르던 놈들이 그녀 앞이라고 입을 다물까. 왕인 너를 조롱하던 그들이 그녀라고 희롱하지 않을까.

"무엇보다 리자님을 아끼시는 왕의 모습을 보고 나면, 그들은 어떻게든 리자님을 이용해 더 큰 권력을 취하려 할 것입니다."

말들이 머릿속에 섞인다. 충동질과 기괴한 감각이 속을 자극했다. 아고는 참아내기 위해 주먹을 말아쥐었다.

"부디 가주들도 탑주들도 왕께 방만히 행할 수 없도록, 제게 행하셨던 것처럼 벌을 내리시어 질서를 잡으십시오."

아, 이 놈은 대체 뭐라 하는 걸까. 그 벌의 일부조차 감당할 수도 없는 미미한 존재가. 그러나 네가 처음으로 누군가의 방자함에 반응한 건 처음이긴 하지. 안 그래?

"왕이시여, 부디 질서를 잡으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왕께서 위엄을 갖추신다면 그 누구도 왕께서 보호하시는 리자님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음, 솔직히 그녀에게 다가갈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되는 거야.

아고는 그림자의 마지막 말에 고개를 번쩍 들었다.

이건 마치, 그래, 음...면죄부?

"아니다."

그는 부인했다.

"왕이시여?"

이상함을 감지한 마엔이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 뒤에 있던 어둠에서 칼날 같은 가시가 돋아났다.

"...안…돼."

"왜..."

그것을 시작으로 온 사방에서. 본능적인 것이라 아고가 통제할 수 있는 종류가 아니었다.

"왕이시여! 잠ㄲ…"

"나가!"

아고는 다만 가시가 그 연약한 살에 닿기 전 마엔을 내쫓았다. 그것만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

"윽,"

왜? 뭘 부인해? 괜찮다니까?

가시들이 몸을 꿰뚫었다. 아고는 반항조차 하지 않고 고통을 감내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욕심내. 가져. 취해. 빼앗아.

"안…돼."

넌 그래도 된다고. 왕이잖아. 최초의 왕. 위대한 왕. 피조물 중 가장 전능에 가까운 너. 네가 아니면 누가 신의 선물을 가지겠어?

어떻게 감히 그가, 그녀를? 리자를 욕심 낼 수가 있지? 자신이?

"그만해."

눈을 질끈 감자, 검은 그림자들이 해일처럼 쏟아졌다. 오물처럼 그의 위를 쏴아아 뒤덮은 그것은 높고 견고한 탑을 만들었다. 들어갈 수 있는 문도, 나갈 수 있는 문도 없는 검은색의.

아고로 인해 가까스로 빠져나온 마엔은 머리를 털며 정신을 차리려 애썼다. 정신이 어지럽다. 그 와중에 뒤에서 으스스 뿜어져나오는 한기와 기피감.

멍하니 눈을 돌린 그는 바닥을 기어가며 뒷걸음질쳤다. 생전 처음 보는 검은 가시탑.

"저게, 대체, 무슨…"

말을 채 이을 수가 없었다.

자신 때문인가? 이 모든 일이?

커다란 죄악감을 마엔은 감당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감정에 빠져 있을 때는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뺨을 철썩 때리며 정신을 차리려 애썼다. 부들 떨리는 다리를 애써 일으키고는 뛰기 시작했다.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리자는 문득 위화감을 느꼈다. 팽팽하게 버티고 있던 실 하나가 끊어졌다. 그것은 눈 앞에서 보이는 형상은 아니었지만, 후각이나 청각처럼 분명하게 느껴지고 보여지는 것이었다.

손에 쥐고 있던 찻잔을 조심히 내려놓았다. 그녀는 창문 너머 위치를 가늠했다. 무언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었지만 비유하자면 검은색에 비슷한 기운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아고,'

곡선을 그리고 있던 입꼬리가 내려갔다. 본능적으로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한 리자는 벌떡 일어났다.

"가봐야겠어요."

"리자님?"

그녀의 돌발행동에 작게 미소 짓고 있던 로에시소와 라엔이 당황스러운 얼굴로 엉거주춤 따라 일어났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아고에게 가봐야해요."

타닥, 여유없이 빠르게 답한 리자가 뛰어나갔다. 테이블 그림자에 녹아있던 타이사가 고양이 모습으로 쏙 빠져나와 그 뒤를 따랐다.

"왕께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 어서 가자."

라엔과 로에시소는 그 뒤를 따라 나가려 했다. 그 때 바닥의 그림자가 격렬하게 휘몰아치며 소녀가 뛰어나왔다. 답지 않은 다급한 모양새로 나오미가 그들을 막았다.

"잠깐."

"나오미님?"

"나가면 안 됩니다."

"예?"

조급한 얼굴로 라엔이 되물었지만 나오미는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주인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다. 주인의 생각을 공유받지 못하고 차단 당한 것은, 다른 권능체들이라면 몰라도 나오미에게는 처음이었다. 나오미는 불안했지만 평소의 그 무표정한 얼굴로 티를 내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절제할 수 없는 현재의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것. 만약 누군가 다치기라도 한다면 제 주인은 아파할 테니까.

오랫동안 나오미를 봐온 로에시소는 그녀의 표정 가운데 미세한 불안감을 읽어냈다.

"라엔, 자리에 앉는 게 좋겠다."

"예? 하지만 왕께서,"

로에시소는 라엔의 어깨를 두어번 다독였다. 그들이 가도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는 일. 되려 상황을 더 안 좋은 쪽으로 몰고 갈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리자님이 가셨으니까 괜찮을 거다."

쉐이파디아님의 선물이 카이사에 존재하므로. 햇살처럼 따스한 리자의 다정함과 예리한 현명함은 상황을 해결해 줄 것이다. 로에시소는 그녀를 믿었다.

"…"

그 신뢰감에 동조하지 않을 수 없는 라엔은 로에시소를 따라 다시 자리에 앉았다.

"저기."

나오미는 파란 손가락을 들어 창문을 가리켰다.

"저게 대체..."

로에시소는 말을 잃었다. 자신들이 있는 곳은 왕가에서도 가장 높은 곳이었다. 그런데도 정면에서 보인다는 것은 이 기이한 검은 탑이 아주 높게 솟아올랐다는 뜻이다. 그는 창문으로 가까이 다가가 그것의 표면을 바라보았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꾸물거리는 덩어리들. 검은 오물과 그 사이 사이 붉은 색의 뾰족한 가시들이 뒤엉켜 있었다. 저것을 과연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 저 정체를 감히 무엇이라고 추론할 수 있을까.

"아버지!"

문이 벌컥 열렸다. 잔뜩 일그러진 얼굴의 마엔이었다.

검은 덩어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운 가시를 세우며 위협했다. 다가오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겠다는 듯이 팽팽하게 대적하는 모양새. 한 발자국 움직일 때마다 짐승이 으르렁거리듯 가시들이 덜덜 흔들리며 예민하게 굴었다.

리자는 조용히 눈을 들어 그 검은 탑을 위 아래로 훑어보았다. 왕가의 탑들만큼이나 높이 높이 솟아오른 탑. 저 하늘의 푸른 빛과 어울리지 않는 짙은 색. 그녀와 만나기 전 바닥으로 침잠해있던 잿빛 눈동자가 떠올랐다. 온기라곤 한 줌 남아있지 않던, 메마른 얼굴. 상처에 상처가 쌓여 황폐하고 삭막했던 그의 속.

"타이사 씨,"

"응?"

타이사는 큰 인기척 없이 따라붙었음에도 자연스럽게 그의 존재를 인식한 리자에게 내심 놀랐다. 고양이는 쑤욱 성인 남성의 모습으로 변했다.

"지금 아고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아니...단절되어 있어."

"그렇군요."

과연 이 쉐이파디아의 선물께선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걸까.

타이사의 묘한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리자는 검은 덩어리에게로 다시 시선을 돌렸다. 이 속에 아고가 있다. 분명히 존재감이 느껴졌다. 아고가 웅크리고 있다. 고통과 슬픔. 아니, 그 단순한 단어들로만 정의할 수 없다. 그 이상의 격렬한 감정이 그를 공격하고 있었다. 독을 품은 뱀처럼, 흰 줄 위에서 먹잇감을 농락하는 거미처럼 지독한 꼴로 그를 죽이고 있는...자괴감.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지? 대체 무엇에 자괴감을 느끼는 지까진 알 수 없었다. 그건 아고에게 직접 들어야 하리라.

리자는 천천히 앞으로 움직이며 손을 뻗었다. 붉은 가시들은 전혀 수그러지지 않고 당장 달려들 것처럼 빳빳하게 세워졌다.

"자, 잠깐!"

되려 기겁한 타이사가 그녀를 만류했다.

"위험하다고! 미쳤어? 겁도 없이…"

"타이사 씨, 놔주세요."

리자의 표정은 단호했다. 타이사는 움찔했지만 고개를 저으며 거부했다.

"저거 장난 아니야. 내가 가도 다친다고. 주인의 권능체인 내가 가도!"

"맞아요."

"뭐?"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당당할 수 있을까. 혹시 능력 중 하나가 용기 뭐 이런 건가?

전혀 흔들리지 않는 리자의 기색에 압도당한 타이사는 한 풀 꺾였다. 그러나 무모한 시도를 두고 볼 수는 없었으므로 말을 이었다.

"난 저런 거 처음 봐. 주인한테서 나왔다는 게 아직까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저게 무슨 짓을 할지, 얼마나 고통스럽게 할 수 있을지 상상이 안 간다고."

"네."

"아니…저기..."

타이사가 말을 잇지 못하자 리자는 성큼성큼 걸어갔다. 뾰족한 가시가 그녀의 팔뚝을 꿰뚫듯 달라들자 되려 기겁한 타이사는 그려는 붙잡으며 절박하게 소리쳤다.

"아니, 자암까안! 네가 다치게 되면 내 주인은 그 자체만으로 엄청 상처를 받을 거야. 이번엔 무덤 만들 기세로 땅 파고 들어가서 절대 안 나올 거라고."

그건 리자도 짐작한 일이었다. 아고의 성격 상 반드시 그렇게 행동하리라. 그러나,

"아고가 땅 속으로 들어가면, 나도 같이 가면 되니까 걱정 말아요."

"…와아…너 정말…"

"타이사 씨, 이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에요."

그렇게까지 말하는 리자를 더 이상 말릴 수 없었다. 타이사의 손이 스르르 풀렸고, 작게 웃은 리자는 그대로 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일말의 두려움조차 없이 검은 덩어리를 향해 손을 뻗었다. 아픈 것에 익숙하거나 고통을 잘 참는 것은 절대 아니었지만, 타이사에게 말했듯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 쐐애액 벌떼처럼 몰려든 가시들이 그녀의 하얀 손에 박혔다.

"…윽,"

붉은 가시들이 흰 손을 파고들며 검은 덩어리에 닿는 것을 막으려 발버둥쳤다. 가시보다 더 붉은 빛의 액체가 흘러내렸다.

"아, 난 못 보겠다...진짜…"

타이사는 고개를 돌렸다. 지켜보는 입장에서 이 처참한 광경은 고문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

리자는 이를 악물고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따갑긴 했지만 생각보다 아프진 않았다. 다행스럽게도 참을 수 있는 정도의 고통이라서 그녀는 힘을 주어 조금 더 파고들었다.

가시들은 더 이상 그녀를 막지 못했다. 손가락이 검은 표면에 닿았을 때, 리자는 되려 마음이 울컥했다. 너무나 부드럽고 연약하여, 그것이 마치 상처로 썩어버린 아고의 속내와 같아서.

"아고,"

그 이름을 부른 그 순간, 그 부름에 반응한 검은 덩어리들이 위에서부터 쏟아져내렸다. 해일처럼 바닥으로 떨어져내리는 어마어마한 어둠.

'셰이, 도와줘요.'

리자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눈을 질끈 감았다. 검은 덩어리들이 리자를 통째로 집어삼켰다.

삭막한 사막에 씨앗 하나가 심긴 때가 있었다. 때마침 옅은 비가 내렸고, 햇빛은 구름에 숨을 때가 많아서 연약한 씨앗은 몸을 일으켜 싹을 맺었다.

그 찬연한 녹빛은 처음 보는 것이라서, 그는 드넓은 황야 중 점보다 작은 생기임에도 가슴이 설렜더랬다.

새싹이 자라났다. 줄기가 곧아지고 녹빛이 짙어졌다. 분수도 모르는 기대감이 같이 커져나갔다.

세차게 몰아치기 시작하는 바람에 불안감이 차오르기 시작했지만, 그는 그것을 억누르며 간절히 소망했다. 부디 꽃을 맺기를. 혹은 피지 못해도 좋으니 봉오리만이라도 맺기를. 그 붉음을 조금이라도 엿보고 싶었으니까.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 예상한 대로. 그의 손에 남은 것은 결국 뿌리까지 죄 말라비틀어진, 모래의 일부로 바스라져버리는 죽은 것만이.

햇빛이 너무 뜨거웠으니까.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바람이 강하게 불었으니까.

아니. 변명은 하지 말자.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가 사막이었으니까. 생명이 조금도 살 수 없는 황폐하고 버석한 땅이 그였으므로, 무성한 나무가 될 씨앗을 죽였다.

그의 또 다른 이름은 타나 타 노스(Thanatanos), 죽음의 왕.

사방이 어둡고 온 몸이 오들오들 떨릴 만큼 추웠다. 사위는 지나치게 고요했다. 리자는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었다. 사각, 눈같은 질감의 땅이 밟혀서는 푹 꺼졌다.

발목까지 빠지자 당황한 리자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이게 뭐지? 바닥이 온통 검은 모래로 뒤덮혀 있었다.

'모래?'

모래가 맞긴 한가? 허리를 수그려 한 줌 쥐곤 유심히 살펴보았다. 색은 검정, 냄새는 잘 모르겠고. 다만 알갱이들이 육안으로 잘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작았다.

'모래가 아니라 먼지…같은 데.'

무언가가 잘게 바스라져서 남은 것처럼.

'바스라졌다?'

무엇이? 이곳은 아고를 형상화한 것들. 그렇다면 그의 무엇이 부숴졌는지 알아야 했다. 아무래도 그것이 그녀를 집어삼킨 이 검은 탑의 본질인 것 같으니까.

그녀는 고개를 이리 저리 돌렸다. 검정 하늘 아래 끝없이 펼쳐진 검은 사막. 그녀 외에 숨쉴 존재가 있으리라곤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황량한 땅.

"아고?"

─아고?

──아고?

────아고?

단 한마디, 아주 작은 목소리였는데도 저 멀리까지 메아리가 퍼졌다.

동굴도 아닌 이 광활한 공간에 울림이 있다. 의심쩍은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여긴 대체 어딜까?

"어디에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애타게 불러도 되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목소리 뿐.

"…"

리자는 움츠러들지 않았다.

이 곳 어딘가에 아고가 있음은 분명하게 느껴진다. 아마 이것은 단순한 감이 아니라, 셰이가 선물한 축복 중 하나이리라. 그렇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혼자 돌아갈 생각은 절대 없으니까.

걸음을 옮기며 생각을 정리했다.

이 검은 탑은 아고에게서 나온 것이 맞았다. 그렇다면 리자는 알고 싶었다. 왜? 왜 그가? 마엔과의 대화가 그의 어떤 부분을 건드렸기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가. 그의 감정이 폭발한 계기는 대체 무엇인가.

타이사의 말을 참고해보면 이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했다.

빛나는 눈이 흔들림없이 앞을 향한다. 작은 발이 검은 모래 속으로 다시금 빠져들었다.

최초의 왕인 그를 창조주도 아닌 누가 감히 가둘 수 있겠는가? 물론 스스로를 가둔다면, 그런 선택을 한다면 이처럼 가능한 일이 되리라.

아고는 몸을 웅크렸다. 뼈를 얼리는 냉기가 사방에서 뻗어나와 몸이 덜덜 떨렸다. 추위로 끝이 얼어붙은 머리카락이 무릎을 끌어안은 팔 옆으로 쏟아졌다. 서늘한, 아니, 박제된 것처럼 죽은 회색 눈이 공간을 훑었다. 너무나 조용한 이 감옥은 침묵이 생을 잡아먹을 것처럼 몹시 위압적이었다.

철창은 열려 있다. 잠겨 있지 않고, 닫지 않은 곳. 그것을 잘 알고 있고, 그의 눈이 넓은 문 틈을 발견했더라도 움츠러든 몸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를 가둔 자. 혹은 스스로를 가둬야만 했던 자.

잿빛 시선이 언뜻 앞을 향했다. 감옥 바로 앞에는 다섯 개의 얼음이 있었다. 세 개는 갇힌 것 없이 얼음만 멀거니 놓여있을 뿐이었지만,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속에는 살아있는 것이 통째로 얼려 있었다. 얼음에 빛이 굴절되어 형상이 일그러졌다. 하나는 검이요, 하나는 어린 아이니. 그것들은 그의 일부. 그럼에도 차가운 눈으로 보는 이유는 저들이 그가 스스로를 억눌러야 하는 이유였기에.

천고의 얼음에 갇힌 검, 생기를 잡아먹은 듯 검은색의 날과 핏빛의 손잡이. 예전에, 아주 예전에 저 검이 왕인 그를 제외하고 타인의 손에 쥐인 적이 있었다.

여자는, 그러니까 나중에 변질되었다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왔던 그녀는 무지(無知)했다. 그것이 아고가 그를 여직 불쌍히 여기는 이유. 그녀는 아무 것도 알지 못했다. '권능', 그러나 그 대가 또는 책임이 어떠한 것인지.

여자는 왕의 검을 잡았다. 이지를 가진 강력한 권능체, '분리' 노아는 그것을 허용치 않았다. 검은 자길 쥔 하찮은 날파리의 손을 움직여 단호한 처단을 감행했다.

"…,"

핏빛 참상이 떠오르자 끔찍한 얼굴로 눈을 감았다.

여전히 그려지는 형상들. 검은 날이 목을 자르고 붉은 피가 튀어올랐다. 노아는 피를 마시고도 만족하지 않아서…기고한 빛으로 반짝이던 녹색 눈에서 생명이 꺼져나가자 그 육체는 남는 것 없이 전부 바스라졌다. 옅은 미풍에 그대로 흩날리던 검은 먼지들. 존귀한 하나의 숨이 그렇게 허무하게,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처럼 공허하게 사라짐은 얼마나 끔찍하던가.

그래, 잊지 말자. 그로 인해 그 찬란한 생명이 어떤 꼴을 당했는지.

그는 위험하다. 세상 그 어떤 것도 그만큼 위협적인 것은 없으리라.

그는 '소멸'할 수 있다.'분리' 시킬 수 있으며,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스올,"

잿빛 눈은 얼음에 봉인된 어린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 속엔 일견 두려움과 비슷한 감정마저 담겨 있었다. 말라비틀어진 몸, 그의 것만큼이나 죽은 붉은 눈.

그러나 너는...나는, 태어나선 안 되었다고. 아고는 스스로에게 자조적으로 중얼거렸다.

'아고,'

선연한 목소리가 생각나자 주먹을 꾹 쥐었다. 태양처럼 화려하게 빛나는 웃음. 새벽의 별처럼 가장 눈부신 이.

리자, 떠올리는 것마저도 그녀를 더럽히는 것 같아 죄책감으로 속이 번들거렸다. 고작 나 따위가 욕심내다니. 선택 받는 것만을 간절히 바랐으면서, 막상 받게 되니 배가 불렀나.

자신의 모습이 낯설고 어색했다. 만족하지 못하는 스스로의 게걸스러움에 속이 메스꺼웠다.

그럼에도 기대는 차올라서. 욕심은 올라와서. 바르르 떨리는 주먹이 맨 바닥을 강타했다. 정신 차려. 리자는 절대 안 돼. 가빠진 호흡을 가다듬으려 노력했다.

아고는 두려웠다. 절제하지 못할까봐. 혹여나 그의 밑바닥까지 모두 까발려지고, 그 태고의 그림자에 깃든 가장 끔찍한 괴물이 그녀를 집어삼키게 될까봐.

그러니 리자, 혹시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

"찾아오지 마라."

음울한 목소리가 공기를 울렸다.

찾아오지 마라.

웅, 우웅, 웅, 목소리 파동에 따라 같이 진동하던 공기들이 흩어지지 않고 그대로 모여 형체를 이루기 시작했다. 그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말은 곧 능력.

찾아오지 마라.

검은 것이 꾸물꾸물 덩어리가 되어가면서 거대한 얼음벽을 지나 사막으로 넘어왔다.

찾아오지 마라.

덩어리가 몸을 키운다. 그것은 투명해졌지만 존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찾아오지 마라.

끊임없이 커지고 커져가면서 단단한 벽을 이루었다.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그건 분명한 벽이었다. 벽이 된 덩어리는 멈추지 않고 몸을 늘여가며 미로를 만들었다.

아주 복잡하고, 도착지가 존재하지 않는 거대한 미로를. 그리고 그것은 발이 가는 대로 열심히 움직이던 리자를 멈추게 만들었다.

"윽,"

이마를 콩 찧은 리자는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다.

"…?"

보이는 것은 뻥 뚫린 검은 사막인데, 거대한 벽이라니. 한 손으로는 얼얼한 이마를, 그리고 다른 손을 앞으로 내밀어 더듬거렸다.

"이게…"

신기하게 만져진다.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딱딱했다. 세게 부딪히지 않아서 망정이지, 달려가다가 부딪혔으면 이마가 깨졌을 수도 있겠다.

벽은 시간이 지나도 실루엣조차 보이지 않았으니 크기를 가늠할 수는 없었다. 검은 눈동자가 제 손이 딛고 있는 것을 바라보았다. 텅, 터엉! 손바닥으로 두드리자 타격음도 들렸다.

혹시 다른 쪽에도 벽이 있을까?

천천히 걸으며 손을 파닥거리자, 여섯 걸음 정도 갔을 때 또 다른 벽이 만져졌다.

'갇힌 건 아니겠지?'

보는 것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공간이었다. 앞 뒤로 손을 허우적거리며 천천히 나아가자, 다행히 사방이 막힌 공간은 아니라는 게 판명되었다.

이 곳은 길. 그렇다면 방향이 정해져있다는 뜻.

물론 길을 잘못 들어 평생 헤맬 수는 있겠지만...왜 막연히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지. 대책 없기 보다는 믿는 뒷배, 셰이가 있으므로 리자는 웃었다.

단호한 결심을 담아 소리쳤다.

"곧 찾아갈게요!"

─찾아갈게요!

───찾아갈게요!

─────찾아갈게요!

온기를 담은 목소리가 보이지 않는 벽의 표면에 맞닿았다. 어둠 속에 빛이 켜지듯 서로 다른 성질의 것이 만났다. 견고한 벽이 파도치는 것처럼 출렁이며 물렁해졌다.

그 순간 덜덜덜 공간이 진동했다.

"자, 잠깐!"

리자는 몸의 중심을 잃었다.

"아!"

벽을 짚어 가까스로 넘어지는 것으로부터 무사했지만. 강하게 딛은 손바닥에는 가시에 꿰뚫렸던 상처들이 남아서 붉은 피를 흘렸다.

핏방울이 벽에 삼켜지자, 리자는 이제 벽의 존재를 눈으로 볼 수 있었다. 허공에 붉은 이파리들이 돋아나기 시작했으니까.

리자는 조금 더 큰 희망에 작게 미소지었다. 벽의 존재가 제대로 보였다. 이제 손으로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붉은 이파리에 손가락이 스쳐지나갔다. 그 순간적인 닿음에도 이파리가 화들짝 놀라는 것처럼 파들거리다가 꾸물꾸물 오그라들었다. 마치 아고를 연상시키는 행동이라 리자는 묘한 표정을 지었다.

이 검은 탑은 아고를 형상화해놓은 것일 거다. 그렇다면 바닥에 깔린 검은 모래들과 안으로 파고드는 붉은 이파리의 존재들은 무엇을 상징한단 말인가.

'아직은 모르겠어.'

생각을 멈추고 몸을 움직였다. 뭐가 되었든 끝에 도달한다면 알게 되리라.

리자는 한참을 헤매었지만 붉은 이파리와 검기만 한 공간에는 좀처럼 변화가 생기지 않았다. 계속 걸어도 걸어도 말이다. 그녀는 혹시 자신이 같은 공간을 계속 돌고 있는 건 아닐까 심각하게 고민했다.

벽에 표시라도 해놓을까? 똑같은 곳을 맴도는 건지 확인해 볼 심산이었다. 그렇지만 리자가 도구 같은 걸 들고 왔을 리가 없다. 표시를 하더라도 무슨 수로?

"흐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이파리 뿐. 그것을 뽑아 바닥에 자취로 흘려놓거나, 특정한 부분을 꺾어두면 좋겠지만은...고개를 저었다. 아고의 것에 조금도 상처 입히고 싶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할까?

"아,"

리자는 나풀거리는 소매를 들어올렸다. 긴 천자락을 이파리 안쪽 줄기에 묶으면 충분한 표식이 될 것이다.

그녀는 옷 소매를 잡고 힘을 주었다. 얇은 천이라 쉽게 찢어졌다. 한 손에 그것을 쥐고 다른 손으로 적당한 높이의 잎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붉은 것은 닿는 손길에 오그라들기야 했지만 사라지거나 완전히 피해버리지는 않았다. 잎이 찢어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안쪽 줄기에 느슨하게 묶어두었다.

'다 됐다.'

다음에 또 옷자락이 묶인 이파리가 나타나면 같은 곳을 맴도는 것이 확실해지는 것.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야지.

여인이 자리를 떠나자, 천이 묶인 이파리를 중심으로 벽의 붉은 이파리들이 동시에 파들거리기 시작했다. 그것들은 잎 끝에서 실 같은 가닥을 뿜어내어 그 움직임으로 대화를 했는데, 수많은 가닥가닥들이 뻗어나왔다. 마치 숲과 같이 빽빽하게 손을 뻗은 이파리들. 그 끝은 리자의 온기가 머무른 천조각 위를 향했다.

뭔가 익숙한 기운인데?

수많은 잎 중 하나가 그렇게 중얼거렸다. 용기를 얻은 가닥 하나가 조심스럽게 건드리자, 옷 조각에서부터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파아아 은은한 빛이 새어나왔다. 그것은 점점 세져서, 종래에는 강이 흐르는 것처럼 풍성하게 어두운 것을 밀어내었다. 금세 추위가 물러가고 온기가 찾아왔다.

이파리들이 떨렸다. 그들은 금세 그 근원을 알아차렸으니까. 모를 수는 없었다. 모든 것이 하나로부터 비롯되었으니까.

쉐이파디아님!

말도 안 돼.

그래도 이건 그분의 기운이야.

겨울날 화롯가로 모여드는 아이들처럼 작은 잎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뭐지? 누구지? 누군데 그 분의 기운을 가지고 있지?

쉐이파디아님?

그럴 리가.

어떻게 가능하지?

부인할 수 없는 쉐이파디아의 기운이었지만, 그일 리가 없었다. 상냥하게 웃던 얼굴이나 검은 머리카락 등, 그녀가 신이라면 이파리들은 그 존재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해야 했다. 위대한 신의 형상을 피조물이 뚜렷하게 볼 수 없었으니까. 그건 능력의 문제였다. 그 상위의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 그저 창조주의 모양을 딴 자신들을 보고 몇 가지를 짐작할뿐.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이 사람은 우릴 도와줄 수 있어!

한 잎의 외침에 나머지 이파리들이 더 붉은 빛을 띠었다. 그것은 마치 웃는 것과 같았다.

그래. 그렇지.

가능할 거야. 쉐이파디아님의 빛을 가지고 있다면.

'그'를 꺼내줄 거야.

도와달라고 하자.

붉은 이파리들은 벽에 내린 뿌리들을 더 깊게 늘어뜨려 서로와 서로를 연결했다. 작은 힘들이 모아졌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움직임이 이파리들을 변화시켰다.

투둑, 잎 사이 사이에서 작은 꽃망울들이 생겨났다. 붉은 이파리의 존재로 벽을 확인하며 계속 걷던 리자는 금세 그것을 발견했다.

"이게 뭐지?"

도와줘.

'그'를 꺼내줘.

우리가 길을 알려줄게.

따라와. 대신 도와줘!

이파리들이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낼 수 있더라면…그것은 공간을 울리는 큰 외침이 되었으리라. 그러나 안타깝게도 리자가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었다.

"꽃이네?"

우리를 따라와.

도움이 필요해.

꺼내줘.

그녀는 갑자기 생겨난 꽃망울, 아직 피지 못한 그것을 신기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안 되겠어. 다른 '소리'가 필요해.

'소리'를 내자.

붉은 이파리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표출하기로 했다.

그래, 꽃을 피우자.

꽃을 피우고 같이 외치자.

들을 수 있도록.

이파리들이 힘을 모으자 꽃망울이 더 커졌다. 싹이 움트는 것처럼 쑤욱. 깜짝 놀란 리자는 걸음을 멈추었다. 붉은 꽃봉오리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꽃이?"

그 순간 꽃봉오리가 화악 하고 터졌다. 화사하게 피어난 꽃잎. 여태 붉은 이파리들이 소중하게 머금고 있던 것들이 벌어진 꽃잎 사이로 터져나왔다. 그것은 리자의 천 조각에서 퍼져 나온 빛의 힘을 빌어 공중으로 떠올랐다. 힘차게 비상하는 빛의 씨앗들.

"와…"

리자는 감탄으로 입을 벌렸다. 바람이 없는 이 잔잔한 곳에서 꽃씨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혹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날아간다. 꽃이 쏟아낸 그것은 마치 어둠을 밝히는 반딧불이처럼 환하게 반짝이며 공중을 장식했다.

수많은 빛의 방울들이 등불이 되어 검은 공간을 밝혔다. 아스라하게 빛나는 덩어리들이 검은 눈동자에 잔잔하게 비추어졌다. 리자는 그제야 붉은 이파리들의 '소리'를 듣게 되었다. 거대한 외침이 해일처럼, 그러나 부드럽게 몰아닥쳤다.

우리를 따라와.

'그'를 꺼내줘.

길을 알려줄게.

'그'가 있는 곳으로.

검은 눈동자에 신기한 빛이 어렸다. 그녀는 춤추는 것처럼 움직이는 씨앗들을 쳐다보았다. 귀에 직접 들리는 파동은 아니었다. 다만 바람이 부는 것을 알 수 있듯 따사로운 햇살을 느끼듯, 그들이 전달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

우리 좀 도와줄래?

순수함이 배어나오는 리자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고마워."

그녀가 자신들에게 얘기하자, 빛덩어리들이 춤을 추는 것처럼 한 바퀴 돌았다.

와아아, 들었다!

신기해. 정말 들었어.

"응. 잘 들려."

부정할 수 없는 그들의 소리. 분명히 그녀에게 맞닿은.

우와, 좋아. 그럼 이제 가자.

도와줘. 그를 꺼내줘.

"같이 가자."

은하수가 흐르는 것처럼 빛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거대한 빛무리를 눈에 담으며 리자는 천천히 걸었다. 셰이의 온기가 느껴진다.

시간을 머금은 공간이 통째로 바뀌었다.

눈을 뜨기도 전에 습기에 짓눌린 곰팡이내가 물씬 다가왔다. 그것은 축축하고 음습해서 콧 속 깊은 곳까지 이끼가 돋아나는 것처럼 까슬거렸다.

리자는 코와 입을 틀어막곤 천천히 눈을 깜박거렸다. 시야가 맑게 개이기를 기다렸으나, 이곳이 어두운 음지임을 깨닫는 것이 더 빨랐다.

'여긴 어디지?'

어둠에 적응한 눈이 흐릿한 실루엣들을 더듬었다. 딱딱한 벽돌? 양 옆에 높게 쌓인 담이 있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만 남아있는 길. 붉은 이파리들을 만나기 전까지의 광경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시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그뿐이라 리자는 다른 감각에 집중했다. 후웅, 가벼운 바람이 피부를 쓸고 지나간다. 빈 공간을 가르며 지나가는 공기.

공간이 흘러내리는 그 곳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떼었다. 철컥, 철컥. 쇠가 부딪히는 소리들이 저 멀리에서부터.

눈을 게슴츠레 뜨자 희미한, 아주 옅은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 같기도 했다. 하얀 여운을 등불 삼아 걸어갔다.

아고가 저기에 있는 걸까? 붉은 이파리들은 길을 알려준다고, '그'가 있는 곳을 알려준다고 말했으니.

빛을 뿜는 것과 가까워지고 있다.

문? 거친 결이 선연히 드러나는 나무문은 문고리가 없는 것을 제외하곤 평범한 것이었다. 틈새 사이로 이 어두운 공간을 비추는 빛이 뿜어져 나온다.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 수 없어서 조심스러운 손길로 표면을 쓸었다.

거친 목재를 딛은 손가락에 힘이 실렸다. 아주 약한 힘이었는데도 끼이익, 틈새가 벌어졌다.

"아고?"

부르는 것과 동시에 익숙한 색의 머리카락이 앞을 스쳐지나갔다. 얼굴에 미소가 그려졌다.

안으로 들어가려 몸으로 문을 밀었다. 퉁. 그러나 문은 움직이지 않고 되려 리자가 밀려날 뿐이다.

"응?"

리자는 몇 번 더 힘을 주었으나 평범한 나무문으로 보였던 그것은 거대한 성의 철문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처음에 작은 힘에 내주었던 틈, 그 이상을 허용하지 않았다.

안 돼!

문과 씨름하던 리자는 움찔 몸을 움츠렸다. 격앙된 목소리. 중요한 것은, 그것이 누구에게서 나왔는가.

'상처'를 소멸시켜주겠다.

아니요.

처음 듣는 것이었다. 명확한 거절과 단호한 어조가 아고에게서?

틈새 사이로 보이는 곳은 낯선 방이었다. 침대에 몸을 늘어뜨린 남자는 목 아래 전부 붕대를 감고 있었다. 애벌레가 꿈틀거리는 것처럼 힘겨운 모양새로 상체를 일으키곤, 그 과정 자체가 버거웠는지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다. 짙게 드리워진 고통, 살을 저미는. 보는 것만으로도 같이 아파서 주먹을 꾹 쥐었다.

왕이시여, 저는 제가 태어난 그 날을 저주합니다.

녹아내려 형체를 알 수 없는 입 사이로 냉소적인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비교적 잔잔한 어조였지만, 리자가 놀랄만큼 뚜렷한 적대감이 서려있었다.

기이하게도 그 격렬한 감정은 아고에게 집중되진 않았다. 그는 분노하며 억울해하고 있었지만, 그 대상은 너무나 포괄적이었다.

제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공평하게 나눠주셔도 되잖아요? 왜 저 하나에게 불행이란 불행은 모조리 몰아주시는 거냐고요!

증오를 토로하는 방 안에 남자의 기억이 흘린 잔상이 스물스물 피어올랐다.

이딴 식으로…! 신께선 막을 수 있으셨잖아요?

술에 취한 남자는 집으로 들어간다. 무슨 일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곧 새빨간 화마가 작은 집을 뒤덮기 시작했으니까. 당황한 남자는 아내와 아이를 구하려고 했지만…곤히 잠들어 있던 여인은 어찌할 방도 없이 금세 사나운 혀에 집어삼켜졌다. 문가 침대에 잠들어 있던 어린 아이만 허겁지겁 남자의 손에 구해졌으나…둘의 연약한 피부는 금세 녹아내렸다.

리자는 입을 틀어막았다.

시시때때로 생살을 뜯어먹는 고통. 아내를 잃은 참담함. 그러나 그것들을 꺼멓게 집어삼키는 죄책감.

대체 왜! 날 왜 만들어서!

스스로를 죽이고 싶다. 생이 고통스럽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목이 옥죄어온다. 힘만 있다면 제 목줄기를 뜯었으리라. 비참하게도 몸 하나 일으키는 게 숨 들썩거릴 만큼 고역스러워서 할 수가 없다. 무엇이라도 대가를 치르고 싶은데.

그렇다면, 이 상황으로 이끌고 애초에 날 만들고, 날 이렇게 만든 신이 내 감정을 모두 받아내야 마땅하지.

향방을 잃은 감정. 증오는 절제를 잃고 넘쳐서 그뿐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제 인생을 이딴 식으로 만들어 주시다니. 저를 이딴 식으로 만드시다니! 그것도 모자라!

입을 열 때마다 무수한 저주가 쏟아졌다. 아고는 침묵하며 그 말을 전부 받아내었다. 낮게 내리깐 은색 눈동자가 무슨 감정으로 젖어있는지 알기에 리자는 문을 열려고 다시 한 번 부딪혔다.

남자는 곧 말을 멈추었다. 횡설수설 말을 늘어놓고 결국 끝은 하나. 남자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감정을 이해해줄 사람을 원하지 않았다. 본심으론 원하더라도 그 대상이 아고는 아니었다. 지고한 왕에게 원하는 것은 단 하나, 오직 한 가지. 아고만이 행할 수 있는 것.

그러니 왕이시여, 저를 소멸시켜 주십시오.

'소멸'.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는, 무지하여 그리 말하지만. 절대 안 돼. 소멸이란 건 유(有)를 무(無)로 바꾸는 것. 단순히 상처를 없애는 것이라면 몰라도, 세계와 수만, 수억가지로 얽힌 존재를 무로 돌린다는 건 엄청난 파도를 불러온다.

"안 돼요."

아고가 주먹을 꾹 쥐었다.

너와 딸의 '상처'라면 소멸시켜주겠다.

아니요! 절 소멸시켜 주십시오!

안 돼.

그럼 제 과거를 없애주시든지요!

...

리자는 아랫입술을 깨물었다. 남자는 분명히 알고 있으리라. 피조물의 전능은 불완전한 것. 아고는 현재의 것만 소멸할 수 있었다. 그것을 알면서도…굳이 아고에게 죄책감을 짊어지우려 하다니.

멈칫한 기색을 알아챈 남자는 제 뜻을 이루려 더 득달같이 달려들었다.

신은 왜 날 만들었답니까? 차라리 태어나게 하지 말지! 날 뱃속에서 유산시키지, 대체 왜 날 낳게 했답니까?

…그래도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힘 없는 목소리. 불안하게도, 아고는 처음만큼 격렬하게 거부하고 있지 않았다.

"아고, 절대 안 돼요."

...

저같은 하찮은 피조물은 너무 같잖아서 신을 봴 수도 없잖습니까? 그래서 당신에게 말하는 겁니다! 고귀하신 신께 능력을 받은 존귀한 자이시니, 책임을 지셔야죠.

아고는 답하지 못하고 침묵했다.

"…!"

리자는 그 초점 잃은 은색 눈동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쿵, 쿵! 온 힘을 다해 문을 열려고 했지만…개입이 허락되지 않는 공간은 건재했다. 소리라도 닿을까 입을 벌렸지만 이제 목소리마저 닫혔다.

아고는 남자의 논리에 설득당하진 않았다. 그러나 '책임'에 관련된 스스로의 틀에 강제되고 있었다. 이를테면, 저 남자가 평생 고통스럽게 쉐이파디아를 저주하며 사는 것보다는 자신이 고통스러운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아니, 그건 현명한 방법이 아니야.

'아고가 견딜 수 있는 길도 아니고.'

바닥을 맴돌고 있던 은색 눈동자가 점점 회색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아고는 결심을 굳혀가고 있었다.

리자의 목안에서만 절박한 목소리가 갇혀 울렸다.

그는 그 굴레를 짊어질 수 없다. 아고의 성격은 그럴 수가 없었다. 자신을 죽이게 되리라. 남자의 증오는 그 속에 삼켜져 아고를 찌르는 가시로, 영원토록,

책임이라.

아고가 고개를 들었다. 단호한 눈빛,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를 향한 칼날이 되리라.

리자는 이제 우두커니 서서 그 모든 것을 관망하기로 했다. 고통스럽지만, 자신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으므로. 듣고 보는 것이 주어진 자신의 역할이라면.

그래.

제 뜻이 받아들여지자 남자의 눈이 번들거렸다. 비로소 안식을 맞이하리라는, 근거 없는 평온. 무지가 그 눈을 가리웠다. 남자는 진정한 소멸이 무엇인지, 존재가 무로 돌아가는 게 어떤 것인지 아주 조금도 알지 못한다. 안식과 평온? 그것은 소멸과 가장 먼 거리에 존재하는 것.

아고 역시 그것을 잘 알리라. 그럼에도 본인의 '책임'이라는 것에 사로잡혀서 멈추지 않았다. 리자는 아고의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을 보았다.

태초 이전 갇힌 곳.

검고 차가우며, 뼈처럼 삭막한 형체가 나타났다. 냉기가 공간을 뒤덮었다. 피부로 느끼는 촉감이 아닌, 죽음 그 밑의 흑암으로 가까이 갈수록 다가오는 공포감.

남자의 얼굴이 굳어가고 있다. 소멸의 칼이 그림자처럼 길게 드리워졌다.

공허하게 무無로 돌아갈 것.

검고 붉은 칼날이 남자에게 닿기 시작했다. 창조주가 허락한 유에서 무로 돌아가는 것은 그 누구라도 버틸 수 없으리라. 리자는 칼날 앞 피식자가 하얗게 질리며 두려움을 자각하는 것을 보았다.

시...!

그것을 아고 역시 발견했으나 은색 눈동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젖어있었다. 그는 가만히 바라보았다.

작은 점에서 흔들리는 파동이 점점 거세졌다. 단 한 명의 소멸은 구멍을 만들어낸다. 검은 안개가 피어올라 줄기를 내뻗었다.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거대한 아가리. 비명을 지르며 또 다른 생명들이 엮어 심연으로 떨어졌다. 남자의 어린 딸은 고통에서 해방되었으나 선택할 수 없는 소멸을 강요받았다.

아고는 이를 악물었다. 시퍼런 칼날이 그의 여린 속살을 쑤시고 후벼냈다. 선연한 핏줄기가 흘렀다. 세계는 문제가 없었지만, 불완전한 전능은 그에게 흔적을 남기므로.

...하아.

은색 눈동자에 가시 하나가 새겨졌다. 아래로 떨궈지는 고개.

리자를 뒤로 밀어내고 문이 쾅 닫혔다.

리자는 조금 지친 기분이 되어 잠시간 앉아있었다. 남자의 마지막 눈빛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절벽으로 내리떨어지는 사람이 절박하게 붙잡는 것을 떨궈낸 것마냥 속이 더부룩했다. 마치 살인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궁지까지 몰아놓고 선택을 강요하다가 결국은 제 목숨의 무게마저 짊어지게 만들다니.

지켜본 것뿐인데도…생명들이 구멍으로 떨어지면서 내뱉던 공포의 기운이 아직도 으슬거렸다. 비명과 절규. 정작 검은 문을 열어놓고서도 닫을 수 없으며, 돌이킬 수 없는 사람의 심정은 왜 생각하지 않나.

대체 몇 년 전에 일어난 일일까. 짐작이 되지 않았다. 옆에서 지켜본 자신의 속이 이런데 하물며 직접 능력을 행한 아고는. 이런 일이 과연 한 번 있었을까. 그것마저 장담할 수 없었다.

차게 식은 손을 주물렀다. 어두운 곳에서 웅크리고 있을 아고의 모습이 떠올랐다. 늘어진 와인빛 머리카락 사이로 빛을 잃었을 눈동자.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지고 어둠으로, 심연으로 자꾸만 꺼져가는.

당장에라도 달려가고 싶다. 욱 다리에 힘을 주어 일어났다. 그 때 검은 공간이 작게 일렁거렸다.

어디로?

"셰이,"

탄식과 같은 부름이 터져나왔다. 빛, 찬란하게 모든 것을 비추는.

리자.

오랜만에 만나는 셰이였다.

셰이는 모든 것에서 절대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붉은 이파리들이 리자를 데려온 검은 공간은 셰이가 존재함으로 더 이상 어둠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빛 앞에서 모든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므로.

"오랜만이구나."

남성의 목소리. 리자는 셰이가 중년 남성의 형상으로 고정되는 것을 바라보았다.

"셰이?"

깔끔한 남색 셔츠를 입은 중년의 신사는 모자 한 귀퉁이를 잡고 멋들어지게 인사했다. 검은 모자 아래 와인색 머리카락과 익숙한 채도의 은색 눈동자.

리자는 낯익은 이의 흔적을 발견하곤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 모습은 마치…,

"그래, 지금은 '파더'지."

파더, 입으로 한 번 읊조렸다. 수면 위로 톡 떠오르는 기억.

'아고,'

그래, 분명히 아고를 만났을 때…그렇니까 실제의 아고를 만나기 전 숲 속 오두막에서 들었던 말이었다.

'아고는 셰이를 '파더'라 불러.'

그래. 그 셰이가 스스로를 '파더'라 지칭함은 아고를 찾으러 온 것이고.

"그리웠던 곳인데, 네 덕에 왔구나. 고맙다, 리자."

셰이는 애틋한 눈으로 공간을 한 번 둘러보았다. 시선만으로도 상처에 온기를 덧바르는 다정한 눈이었다.

"셰이, 그럼…오고 싶었지만 올 수 없었다는 건가요?"

"그렇지."

셰이는 그렇게 말하며 뒤로 돌았다. 순순한 긍정에 리자는 깜짝 놀랐다. 셰이는 절대성을 가진 유일한 존재. 전능주 쉐이파디아에게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다는 것은, 셰이를 잘 아는 그녀로선 우습기 그지 없는 말이었으므로.

"난 꼭두각시 인형을 만든 게 아니야. 거절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

그 말은 아고가 셰이를 거부했다는 뜻이다. 셰이의 곁에서 발걸음을 맞추며 잠잠히 생각에 잠겼다. 여러 가지가 머릿속에서 뒤엉켰다. 이 거대한 검은 탑은 아고의 무의식이라고 생각했는데... 붉은 이파리들의 존재, 그것들이 이끈 아고의 옛 기억 파편. 의미를 알 수 없었다. 또 셰이는 왜 이 때, 이곳에 온 것인가.

복잡한 실타래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았다.

"혼란스럽니?"

"네."

"때가 되면 말해줄게. 그러니 지금은 조금만 기다려주렴."

리자는 당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셰이의 때는 항상 최선이며 최적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잠시간 앞을 바라보며 걸었다. 오래 지나지 않아서 곧 하늘 끝까지 닿을 것처럼 거대한 고목들이 나타났다. 그루터기 사이로 발을 내딛자, 휭 휭 거인이 피리를 부는 것처럼 공허하게 바람이 엇도는 소리가 들렸다. 리자는 나무 속의 빈곤을 알아차렸다. 굳건한 듯 자리를 지키고 뻗어있을지라도 속이 텅 빈 것이다. 밝아진 눈에 검음에 가까운 나무 기둥에 어린 죽음의 기운이 선연하게 보였다.

리자는 메마른 줄기에서 곧 익숙한 붉은 빛을 발견했다. 나무들마다 갑옷처럼 돋아난 축 늘어진 이파리들을.

"저건,"

그녀는 곧 그 식어가는 붉은 빛의 이파리들이 자신을 인도한 것들임을 깨달았다. 즉, 고목들 사이로 이리저리 엉킨 길들이 그녀가 지나왔던 길목이었음을. 손을 뻗어 나무를 쓸었다. 어둠 속에서 손을 허우적거리며 짚고 왔던 벽의 그 감촉이, 죽은 지 오래되어 겉 껍데기만 남은 고목의 표피와 똑같았으므로 더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리자의 온기를 먹고 천천히 식어가는 붉은 빛의 이파리들이 꾸물꾸물 몸을 움직여 그루터기 부분으로 내려왔다. 그것들은 다시금 말을 전하려는 듯이 세차게 잎을 움직였지만, 안타깝게도 리자는 들을 수 없었다.

물끄러미 그것을 바라보던 셰이가 손을 올렸다. 셰이가 죽은 나무에 손을 얹자 지면 전체가 은은한 빛을 내기 시작했다.

쉐이파디아님이다!

말도 안 돼. 정말로, 쉐이파디아님이야?

리자는 그제야 이파리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파리들이 바르르 떨리며 환호하는 것처럼 출렁거렸다. 셰이가 아이를 어르는 것처럼 나무 위 올린 손으로 토닥거렸다.

"오랜만이구나."

쉐이파디아님, 보고 싶었어요.

정말로!

붉은 이파리들에게 몸이 있었다면 통통 튀어다녔을 것이다. 꺄르르, 터지는 웃음소리들 사이로 기쁨이 묻어나왔다. 그 밝음은 전염성이 있어서 옆에서 듣고 있던 리자도 살포시 미소를 지었다.

우리 열심히 버텼어요.

엄청 목마르고 힘들었는데,

완전 열심히 참았어요.

"그래. 뿌리가 죄 잘렸는데도."

와아! 인정해주시는 거에요?

알아주시는 거에요?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당연히. 마지막으로 꽃을 피우는 것도 다 보고 있었단다."

마지막으로? 리자가 의문 어린 눈으로 셰이를 바라보자, 눈이 마주친 셰이가 얼핏 웃었다.

"아주 예쁜 빛이었지."

정말요?

쉐이파디아님이 예쁘다고 해주셨어!

"그래. 이제,"

셰이가 손을 떼었다. 그리고 동시에 썩어 절단된 뿌리에 웅크려있던 죽음이 몸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쿠오오오오 리자는 검은 괴물이 입을 벌리고 포효하는 소리를 들었다. 죽음이 입을 벌려 독과 같은 기운을 퍼뜨렸다. 쿠오오오 거대한 고목이 하나둘 진동하기 시작했다. 리자와 셰이가 딛고 있는 대지 전체가 뒤흔들리기 시작했다.

"리자, 나를 잡아."

조금의 놀람도 없는 안정된 목소리. 리자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이며 내밀어진 셰이의 손을 잡았다.

스물스물 퍼져나가는 검은 기운은 벌레처럼 나무를 갉아먹었다. 가지 끝과 뿌리에서부터 검갈빛의 먼지들이 흩날리기 시작했다.나무들은, 이파리들은 완전한 끝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안녕!

그러나 해맑음은 여전해서. 허공으로 떠오른 이파리들은 마지막으로 바스라지기 전에 재빠르게 소리쳤다.

리자도 고마워!

쉐이파디아님 데려와줘서 고마워!

리자가 웃어주자, 눈은 없지만 마음을 느낀 이파리들이 꺄르르 웃으며 바스라졌다.

후우웅, 공중에 떠오른 나무의 시체가 어지러이 독을 머금은 악취와 함께 소용돌이쳤다. 리자도 셰이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다만 셰이는 지팡이를 들은 손을 위로 올렸다.

"새롭게 태어나."

그리고 아래로 내리쳤다. 쿠웅, 그것은 작은 지팡이임에 불과했음에도 산처럼 몸을 키운 죽음보다 훨씬 더 강력한 파동을 일으켰다. 여태껏 약하게 밝히던 대지의 빛이 폭발할 것처럼 거세졌다.

모든 것이 한 데 뒤섞여 일렁거리기 시작했다.

리자는 대지 아주 깊은 곳에 잠들어있던 씨앗들이 깨어나는 것을 보았다. 비옥한 토양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다리를 내민 씨앗은 곧 땅을 파고 위로 고개를 내밀었다. 새싹이 된 것들이 하나둘 나타났다. 기지개를 피며 쑤욱 자라나자, 초록색 줄기는 두꺼워지고 길어지더니 짙은 갈색빛을 띄게 되었다.

"셰이,"

"응?"

"그 숲이 이곳이었군요."

아고를 만났던 바로 그 곳, 그 작은 오두막이 있던 숲 속이.

셰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리자, 가보렴."

아고가 있는 곳으로.

빛 앞에서 모든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것이 비록 감추고 싶은 부분일지라도.

아고를 가두고 있던 것들은 죄 녹아내려 검은 덩어리로 남았다. 빛이 그 본질마저 소멸시키기 전에 그 검은 것들은 꾸물꾸물 뱀의 형상이 되어 어디론가 도망쳤다.

갑자기 환해진 시야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아고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다만 몸을 덜덜 떨었다. 완전한 해방, 그러나 되려 숨이 막혔다. 기실 그는 언제든 박차고 나갈 수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벌하기 위해 묶어둔 것이었으므로. 몸을 움츠려 천고의 얼음이 내뿜던 추위와 퀴퀴한 감옥에서 벗어난 스스로를 구속했다. 냉기와 어둠 속에서보다 되려 더 괴롭다.

파더가 왔다.

"날…벌하러…"

겁먹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아고의 머릿속이 온통 두려움으로 젖어들었다. 드디어 진정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 온 것일까? 그는 눈을 뜨지 않고 되려 꼭 감으며 어떻게든 숨으려 고개를 무릎 사이로 처박았다.

전능하면서 한없이 다정한 존재는 먼 발치에서 그것을 보고는 남몰래 쓴 웃음을 지었다. 아늑한 오두막은 처형대의 칼이 목전에 아른거리는 재판대요, 아들을 만나러 온 아버지는 비정한 심판자가 되어 있었다.

"좀 더 기다려야겠구나."

"네?"

"아니야. 어서 가렴, 리자."

"셰이, 같이 가요."

리자는 씁쓸한 얼굴을 보고 얼핏 눈치를 챘으면서도 그렇게 말해주었다. 고마웠지만, 파더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아고가 여전히 거절하고 있으니.

"난 걱정말고 어서 가보렴."

"…그래도,"

"시간은 많아."

파더의 표정이 눈에 밟혔지만, 그는 걱정을 받을 만큼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존엄과 광채를 두른 자, 유일성과 절대성을 쥔 쉐이파디아.

"알았어요. 다음에도 볼 수 있죠?"

"다음이 아니라, 언제나."

다정하게 웃는 얼굴이 아고와 꼭 닮았다. 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걸음을 옮겼다.

언뜻 보았을 때 숲은 꽤 먼 거리에 있었다. 리자는 발을 열심히 움직였다. 몇 발자국 더 걷자 공간이 일렁거리며, 그녀는 숲 한가운데 놓여져 있었다.

숨을 들이켰다. 나무 특유의 청명한 향이 짙게 났다. 솨아아 시원한 바람이 불자 잎끼리 부딪혀 박수와 같은 소리를 내기도 했고, 녹색 잎 사이로 빛이 타고 들어와 아롱거렸다. 주변 풍경이 눈에 익다. 조금 더 걷고 나면 오두막이 보이리라.

리자는 잠깐 멈추어 뒤를 돌았다. 돌아본 그 자리에는 지팡이를 두 손으로 쥔 채 파더가 여전히 서 있었다. 시선을 발견한 그가 손을 흔들었다. 계속 쭉 걸어가라고, 잘할 거라고 응원하면서.

마음이 괜스레 울렸다. 같이 가면 좋을 텐데.

그러나 잊지 않는다. 셰이와 함께 한 무수한 발걸음 동안, 셰이는 언제나 옳았음을. 셰이는 단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었으니. 다른 어떤 존재도 아닌 오직 셰이이기에 마음에 걸리적거리는 가시를 떼내었다.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정해둔 때가 있으며 그것이 반드시 오리라는 것을 암시했다. 새벽에 이슬이 돋아나는 것처럼, 분명하게 오리라. 셰이와 아고가 만나게 되어 모든 것이 태초와 같은 형상으로 회복될 때가.

당당한 발이 다시 힘차게 앞을 향해 걸어갔다.

돌길에서 흙길로 바뀌었다. 이제 숲은 조금 더 우거져서, 뒤를 돌아보아도 셰이가 보이지 않았다. 자박자박, 흙을 밟는 느낌을 즐기며 맑게 울리는 새소리를 음미했다. 예상대로 오두막은 머지 않아 나타났다.

"오두막,"

왜 하필 오두막일까?

리자는 멈추지 않으면서, 기억들을 되짚었다. 붉은 가시를 달았던 검은 탑, 그 안으로 들어왔을 때 늘어져있던 검은 파편과 붉은 이파리들. 이파리들이 보여주었던 아고의 옛 상처, 죽은 고목들. '파더'로 온 셰이와 셰이가 빛을 뿌렸을 때 완전히 부숴진 후 다시 태어난 나무, 이파리. 그 의미를 헤아리려 노력했다.

그러나 아직은, 아무 것도 알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아직은.

셰이가 말했던 것이 여직 기억에 남는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두어라. 언젠가는 이해할 때가 오리라. 그래. 알게 될 때를 위해 잠시 기다리자.

작은 발이 문 앞에서 멈추었다. 이번에도 문고리가 없을까 괜스레 걱정했지만, 다행스럽게도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고리가 존재했다. 리자는 조심스럽게 문에 손바닥을 덧대었다가 움츠러들었다. 서늘한 냉기, 철덩어리도 아닌데 차가운 감촉이 생생해서.

그러나 긴장한 것처럼 잔뜩 곤두선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녀보다 더 움츠러든 누군가의 가파른 호흡이. 주춤거리는 손가락을 가만히 펴서 등에 대는 것처럼 문에 대었다.

"아고?"

숨 멈춘 피식자처럼 날세운 경계감이 손 너머로 느껴졌다. 아주 조그마한 부름이었는데도. 쓰게 웃은 리자는 멋대로 들어가는 것을 선택지에서 제하곤 가만히 두드렸다.

똑, 똑똑…똑,

"아고,"

돌 틈에 피어난 흰 꽃처럼 작고 따듯한 부름이었다. 그러나 한껏 작아진 이에겐 천둥같은 일갈로 들릴 수도 있으니까. 리자는 조금 더 자신을 깎아내리고 부드럽게 다듬어서, 다시 똑, 똑,

"들어가도 돼요?"

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열어줄 때까지 기다릴게요. 물론 강요는 아니에요. 아고가 싫으면 전 그냥 여기 있어도 되니까."

그것은 진심이었다. 문에서 손을 떼고 리자는 옆에 앉았다.

하늘의 빛이 따사롭게 내려앉았다. 침묵은 계속되었지만, 의미 없는 소리침이 아니었음을 알기에 기다릴 수 있었다. 그는 여러 생각과 감정이 뒤엉킨 가운데에서 고민하고 있으리라. 주저하긴 하지만 그건 신중하기에. 그걸 아는 리자는 잠자코 문 옆에서 등을 기대어 그를 기다릴 수 있는 것이다.

"…기다릴게요, 언제든."

역시 응답이 오진 않았다.

시계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어떤 것이 고요하게 흐르고 있음을 느꼈다. 잔잔함 가운데 스스로를 내맡기며 리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고요함 속에서 생각은 자르르 흘러내려 깊은 곳까지 범람했다.

붉은 가시를 단 검은 탑으로 처음 들어왔을 때를 떠올렸다. 손을 파고들며 필사적으로 밀어내던 붉은 가시는 분명 고통스러웠다. 대체 그건 무슨 의미일까? 아고를 집어삼키곤 가장 깊은 곳으로 숨긴 탑과 붉은 가시들은.

'아직도 모르겠어.'

여전히 알 수 없다고 생각하며 손을 올려 손바닥을 보았다. 벌어진 살 틈으로 굳은 피딱지들이 더덕더덕. 게다가 손을 움직일 때마다 붉은 껍질들 사이로 핏물이 질질 흘러내렸다. 닦을 때가 없어서 두었는데, 이미 마른 핏자국과 그 위를 덮는 핏줄기는 썩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

그 때, 리자가 기대고 있던 벽 아래 그림자에서 음습하고 짙은 덩어리가 튀어나왔다. 꾸물꾸물 움직이는 덩어리는 불쑥 리자의 몸 속으로 들어갔다.

그와 동시에 리자는 생각하기 시작했다.

'흉측해.'

욱 갑작스럽게 충동이 올라탔다. 고작 상처일 뿐인데, 더할 나위 없이 끔찍하게 보였다. 아랫입술을 깨물며 리자는 옷 속으로 손을 파묻었다. 하얀 천 위로 적갈빛 자욱이 남았다.

'보여주고 싶지 않아.'

손등에 핏줄이 오를만큼 힘이 들어갔다. 맞댄 옷 위로 붉음이 퍼져나갔다. 동시에 아릿한 고통이 퍼져나갔지만, 리자는 스스로 아프면서도 더 깊이 파묻었다.

아픔은 상처 입은 자신만이 알뿐, 고통을 공유할 수 없는 타인의 눈으로 볼 땐 그저 징그러운 장면일 것이다. 그래서 숨겼다. 혹시 아고가 보게 되면 얼굴을 일그러뜨릴까봐. 의도하지 않더라도 순간적으로 꺼림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녀는 상처보다 더 깊은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결국 리자는 두려웠다.

"…응?"

리자는 문득 옥죄면서까지 강박적으로 숨기려는 스스로를 발견했다. 그리고 멈추었다. 어느샌가 생각의 방향이 이상한 쪽으로 틀어졌어.

"갑자기."

왜 그럴까? 원인을 되짚으며 턱을 괴는데 그 순간, 퐁 하고 몸에 흡수되었던 덩어리가 밖으로 내팽개쳐졌다. 배로 기어다니는 어두운 것. 그것은 그림자를 타고 다시 리자 안으로 들어가려 튀어올랐다.

그만.

그러나 은은한 빛이 일어났다. 그것은 덩어리를 무수한 파편으로 부수어 리자를 지키고는 다시 없는 것처럼 사라졌다.

그 사이 리자는 생각 하나 하나를 거르며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왔다.

자신에게 되물었다. 아고가 그런 사람인가? 이 상처를 숨겨야 하는 사람인가?

아니. 절대로. 걱정 한 톨 없이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다. 그라면 오히려 걱정할 것이다. 약을 발라주고 자기가 아픈 것처럼 얼굴을 찡그리며, 마음 속으로 차라리 자신이 대신 상처를 입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어찌할 바 모르고 쩔쩔 매는 아고의 얼굴을 덧그리며 리자는 피식 웃었다.

그는 그런 사람인걸. 오래 만난 사람이 아님에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본질'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절대자 쉐이파디아의 말을 믿기 때문에.

리자는 손을 다시금 꺼내곤 편안하게 두었다.

부드러운 바람이 불었다. 셰이의 손과 같이 다정한. 파릇파릇 연둣빛 잎들이 미끄러지며 내는 소리는 꼭 웃음소리와 같다. 그 속살거림에 몸을 내맡기고 있다가, 희미하지만 빛나는 흐름 한 줄기가 머리 속으로 흘러들었다. 리자는 어느샌가 깨닫고 있었다. 아고가 왜 검은 탑 속으로 도망쳤는지를.

방금 전 강박적으로 스스로에게 모질게 굴던 모습이 꼭, 스스로를 가둔 아고의 모습과 같지 않았나.

서늘하게 목을 죄는 냉기, 옴싹달싹 못하게 가둔 어둠은 바로 자신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것이었다. 아고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본디 자신은 그런 존재였다. 꺼림의 대상, 조롱과 멸시를 받아 마땅한. 그러나 사실 가장 견딜 수 없을 때는, 모든 두려움의 향방이 저에게로 끝날 때.

리자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부터 움츠렸던 몸은 얼추 풀었지만, 그렇다고 나갈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그는 감금당함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절대에 가까우나 조절할 수 없는 제 능력은 목줄에 금 간 금수. 스스로도 두려워 숨길 수밖에 없었다.

'소멸'로 인해 그의 기억에만 남았을 뿐인 존재들을 떠올려본다. 하나같이 찬연하게 피어오를 생들이었으나, 그가 견디지 못했고 그가 버티지 못해서 죽여버린 잿더미들. 그래. 음울한 생각은 더 깊게 땅을 파고들어 쉐이파디아의 권한까지 침범했다.

"…"

붉은 속살 드러낸 은빛 눈동자가 눈꺼풀 사이로 사라졌다.

조금 더 솔직해져볼까? 리자는 너무나도 손쉽게 자신의 벽을 허물고 다가왔다. 설명할 수 없는 친밀감. 그녀는 자신의 일부를 내어주어 그가 머무르게 했다. 리자가 주는 온기와 덧없는 애정. 그것은 분명 그가 바란 전부였으나...

두렵다. 그게 언제까지? 그리고 어디까지?

기한이 정해져 있으리라. 언젠가는 끝나리라. 무엇보다 그의 속내를 보여주게 되면, 진정한 그의 모습을 보게 되면 반드시 사라지리라. 그리고 그 종말은 그에게 독탑(獨塔) 이상으로 커다랗고 두꺼운 창이 되어 그를 죽이리라.

그러니 날 찾지 말고 가. 리자, 너는 반드시 날 죽일 것이다. 그러니 내가 하찮은 욕심을 갖기 전에, 쓸데없는 희망을 갖기 전에 날 버려라.

밖은 마침 고요했다. 리자는 언제든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그 온기가 머무른다고 하기에 이 정적은 너무나 크고 추웠다.

리자는 결국 간 것이다. 드리워진 침묵은 몹시 깊었다. 상황에 맞지 않게 웃음이 새어나왔다.

결국 쉐이파디아의 선물은 무지하여 그를 선택한 것이다. 이제 본질을 아니 무서웠겠지. 그리하여…그는 또 버림받은 것이다.

공간의 덩어리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꾸물거렸다. 그것들은 아고를 잡아먹을 것처럼 배로 기어 내려왔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밖에서부터 안으로. 치켜든 무형의 독니가 아고의 살을 찢기 위해 달려들 그 때,

"의식이 있기 전에 셰, 아니 쉐이파디아님께 소원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저는 현명한 판단을 할 기회를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음, 사실 선택에 대해 자신이 없었거든요. 왕들을 쭉 훑어보고 선택을 하는 건데, 처음 보고 뭘 알겠어요? 나중에 지독하게 후회하게 될까봐, 쉐이파디아님이 현명다고 생각하시는 길을 찾고 싶었어요. 그게 정말 현명한 거니까."

바람이 속삭이는 것 같이 작은 소리였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귀에 들어왔다.

"그랬더니 쉐이파디아님께서 보게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구요. 왕들의 본성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쉐이파디아님이 보시는 모습 그대로를 제가 볼 수 있도록, 안배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절대자로부터 '투시'의 권능(권능체 타이사)을 부여받은 아고는 그것이 무슨 말인지 잘 알았다. 피조물의 능력으로도 그 밑바닥까지 보일진대, 하물며 절대자의 관점이라면.

"음…그래서 보게 되었는데... 흐음...다른 왕들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별로 떠올리고 싶지 않으니까."

리자는 무엇을 보았을까? 목소리에 떨떠름한 기색이 그대로 묻어나왔다. 그는 은근슬쩍 긴장하기 시작했다.

"아고는, 세 번째였어요."

리자는 제 모든 걸 보았단 말인가? 어디까지?

슬슬 두려움이 차올랐다. 그녀가 말을 잇지 않는 그 사이, 아고는 다시금 도망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쉐이파디아의 눈에 보인 저의 존재란…얼마나 미미하고 하찮으며, 더러울 것인가. 알지만, 알면서도 리자의 입에서 직접 듣는 것은 꽤 곤욕스러운 기분이었다.

아고는 힘없이 몸을 일으켰다. 도망치자, 차라리. 독탑의 더 깊은 곳으로.

"순…수했어요."

뭐?

"저는 숨어있었거든요. 이것과 똑같이 생긴 숲에서 아기 동물들이 몰려왔는데, 오두막에서 나온 아고가 웃었어요. 웃는 소리가…부드럽고, 낮아서...악기 같고…"

끝말은 아주 작아서 하마터면 듣지 못할 뻔했다.

"다정했어요, 아고는. 나한테 쿠키도 줬고...음, 맛있었는데. 혹시 직접 구워봤어요, 아고? 어...아무튼, 우린 꽤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되게 웃기죠? 아고 기억엔 전혀 없을 텐데. 전 너무 편안했어요. 그리고 마음 속으로 결정을 했나봐요. 당신이 열두 명 중 세 번째였는데도, 셰, 쉐이파디아님은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부끄러운 기색이 가득했다. 그럼에도 충분했다. 아고는 자신도 모르게 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헤어질 때, 아고가 저한테 그랬어요. 물론 진짜 아고가 말한 건 아니었지만, 아무튼...'다음에 꼭 보자'고. 그래서 전 이렇게 답했어요. '그래요, 우리.'"

떨리는 손가락이 문에 닿았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끝났는지 침묵이 찾아왔다. 그러나 이전과 다른 고요함이었다. 맞댄 차가운 문에서부터 온기가 피어올랐다.

"...아고, 난 현명한 판단을 했어요. 당신을 선택한 거. 그건 쉐이파디아님이 인정해주신 거니까, 계속 확신을 주셨으니까, 당신이 내게 가장 좋은 사람이란 걸 알아요."

문 틈으로 빛들이 파고들었다. 하얗고 선명한 것이 공간 안을 잠식했던, 검은 덩어리들을 부숴가기 시작했다.

문 위에 올려둔 손등 위로 힘줄이 불거졌다. 바득, 손가락이 구겨졌다. 익숙치 않은 감정에 고개를 내리며 아고는 말을 잃었다.

"그러니까 아고, 혹시 내가 믿어지지 않더라도...쉐이파디아님을 믿고, 아고를 보여줘요. 당신이 날 감당할 수 있다면, 나 역시..."

문을 딛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달칵, 굳게 닫혔던 문이 열렸다.

그 때 오두막에서 보았던 맑음과 순수한 웃음은 없지만.

"…안녕,"

꽃이 피어오르듯 환하게 웃으며 리자는 차분하게 인사했다. 그 목소리의 잔잔함과는 대비되게, 과감하게 아고의 손목을 잡고 완전히 오두막에서 끌어냈다.

"…!"

체격이나 키나 한참은 큰 남자는 얼이 빠진 상태로 훅 끌려왔다. 문이 다시 닫히고, 허둥지둥 중심 잡기 바쁜 아고의 품에 리자가 쏙 안겨들었다.

"어…,"

2차적으로 당황한 그는 오두막에 스스로를 가뒀을 때보다 더 딱딱한 얼음이 되었다. 허공에서 향방을 잃은 손이 부들거렸다. 생글거리며 웃은 리자가 품 속에 얼굴을 비비기까지 하자,

"…으,"

얼굴이 머리카락보다 더 진한 채도로 벌겋게 물들었다. 그는 끝까지 제 두 손을 아래로 내리지 못했다.

"아고,"

애정이 가득 담겨, 자취를 남기는 부름. 고작 이름 하나인데도.

은색 눈동자를 깜박거리며 하늘의 색을 훑은 아고는 어떤 말을 해야할지 한참을 고민했다. 그러다 기민한 코끝에 익숙하지만 여전히 꺼려지는 냄새가 맡아지자,

"..."

"아고?"

그는 부드럽게 그녀를 떼내었다. 둥근 눈이 의아함을 담고 그를 올려다보았지만, 심각한 표정은 지워지지 않았다. 아고는 빠르게 리자의 몸을 훑곤 상처가 없음을 확인한 뒤 이 비릿한 냄새가 어디에서 왔는지 주변을 살폈다.

혹시 제 손 때문인가? 리자는 그의 허리를 둘렀던 손을 스물스물 풀었다. 그러고보니 피가 흐르는 데 막무가내로 그를 껴안았다. 검은색이긴 하지만 묻었으면 어쩌지? 뒤로 가서 확인을 해볼까?

리자가 홀로 걱정하는 사이 아고가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쥐었다.

"…리자,"

피와 상처로 점철된 손바닥. 눈동자가 덜덜 떨렸다.

여린 살을 찢는 붉은 가시. 제게 오는 것을 막기 위해 둘렀던 갑옷이 리자의 손을 찢어놓았다. 이걸 어떻게,

"잠깐, 잠깐, 아고. 또 이상한 생각 하지 말아요."

"..."

"괜찮아요. 아프긴 하지만, 치료 받으면 낫는 거니까. 네?"

"…"

아래로 힘없이 내려간 얼굴을 두 손이 잡았다. 키 차이가 워낙 나서 리자가 까치발을 들어야 했지만 말이다. 풀죽은 눈동자와 올곧게 마주친 리자가 웃으며 말을 이었다.

"그냥 미안하다고 그렇게만 말하면 돼요."

"…미안하다."

"네. 그럼 전 용서해 줄 거니까. 괜찮아요, 아고."

"그래도,"

"아니에요. 용서 받았으면 이제 끝. 깊은 자책은 제가 더 싫어요."

알겠냐고 이글거리는 눈으로 물어보자, 떨떠름한 얼굴로 아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제야 리자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뺨을 쥔 손을 내려놓았다.

"이제 나가요."

"…응."

아고는 여전히 얼떨떨한 얼굴이긴 했지만, 발걸음을 움직였다.

왕이 걷자 탑이 공명하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늘은 빠르게 흘러가고, 나무들은 바람 없이도 춤추는 것처럼 흔들흔들. 나풀거리는 연두빛 잎이 붉은 이파리들 같아서 리자는 따뜻한 눈으로 그것을 쳐다보았다. 고마워, 이파리들. 소리 없이 고마움을 전했다.

"…"

말없이 아고가 걸음을 멈추었다. 곧 아고와 거리가 벌어진 것을 깨달은 리자가 뛰어갔다. 그의 손을 잡을까 하다가 제 피를 묻히긴 싫어서 그대로 두었다.

나란한 걸음. 아직 흔들리긴 하더라도, 옅은 뿌리를 내린 안정감.

흘끗 아래를 내려다본 아고가 손가락을 꼼질거렸다. 그리고 곧 단단한 손가락이 리자의 손을 얽어맸다. 덩쿨처럼 깊게, 그러나 아프지 않도록 부드럽게. 감촉이 다른 손가락들이 부딪혀 교차하며 깍지를 낀다.

이번에 얼굴이 붉어진 것은 리자였다.

"...아픈가?"

혹여나 싶은 걱정이 더 달아서, 리자는 눈을 내리깔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그러자 그의 손에 힘이 더 들어갔다. 순간 조금 아프긴 했지만, 리자는 꾹 참곤 태연함을 가장하며 계속 걸었다. 분명 얼굴 빨개졌을 텐데, 아고가 놀랄 텐데.

그러나 높은 곳에 있어서 볼 수 없었을 뿐이지, 아고의 얼굴이 더 빨갰다.

날을 세우고 위협하던 붉은 가시들이 안으로 들어갔다. 사실 녹아내렸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이다. 콰과과과 검게 솟아오른 첨탑은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으니까.

여태껏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있던 타이사는 신호라도 된 것처럼 벌떡 일어났다. 처음 겪는 상황은 그를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만들었다. 검은 잔재가 시야를 뿌옇게 가렸다. 그에게는 전능자에게 받은 투시안이 있었다. 최대한으로 개안하자 붉은 눈동자 가운데 검은 소용돌이가 생겨났다.

주인, 그리고 리자. 제발 무사해라.

그러나 검고, 검고, 검을 뿐이고.

"젠장,"

주인과 리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점점 초조함이 올라왔다. 그는 엄지를 입에 가져가며 하지도 않던 행동을 했다. 손톱을 물어뜯자, 발 아래 그림자가 출렁이며 검은 늑대가 솟아올랐다.

타이온,

타이온은 주둥이로 타이사의 손을 밀어냈다.

뭐야.

타이사는 불퉁한 표정을 지었지만, 말을 덧붙이진 않았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넌 주인 감지되냐?

…아니.

젠장,

너도 안 보이나?

그래.

권능체는 이지를 가진 이후로 영원까지 주인과 함께한다. 타이사야 뾰족한 소리를 했다가 몇 번 차단 당한 적은 있더라도, 타이온은 그림자인만큼 그런 일이 없었다. 검은 늑대는 처음 겪는 느낌에 불안하고 심란했지만, 제 주인만큼 의연한 태도로 그것을 내색하지 않았다.

두 권능체가 빠르게 주변을 훑는 와중에 탑은 완전히 지면까지 내려앉았다. 탑이 흩어진 탓에 일어난 검은 안개는 시야를 가렸지만, 그들은 곧 '느낌'으로 알았다. 주인과 다시 연결되었으니까.

타이온이 공유된 곳으로 달리기 시작하자, 고양이로 변신한 타이사 역시 그 뒤를 따랐다.

콰과과과 굉음과 함께 탑이 무너진다.

"이럴 수가! 왕이시여! 리자님!"

라엔은 입을 떡 벌리며 유리창으로 달려갔다. 검게 흩날리며 부숴지는 첨탑. 로에시소는 자신의 큰 아들만큼 호들갑을 떨진 않았지만 역시 희게 질린 낯으로 유리창에 다가갔다. 그들은 점점 낮아지는 탑을 따라 유리창 안에서 고개를 내렸다. 그것이 시야에서 벗어나 완전히 아래로 내려가자,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나오미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는 물음이 담긴 것이었다.

"…잠깐,"

아직 왕과 연결되지 못한 파란 피부의 소녀는 제 형제들의 생각을 가늠했다. 초조함, 불안함. 그대로 전해져 배로 불어난 감정들. 표정 없이 그걸 견뎌내며 침묵을 지켰다.\

"…"

정적이 지속될수록 홀로 죄인의 구속구를 지우고 앉아있는 마엔은 더 심하게 떨었다. 모든 것은 제 탓이었으니까. 검은 탑, 붉은 가시, 도망간 왕과 가시 속으로 뛰어들은 쉐이파디아의 선물.

유리창 너머 하늘은 여전히 선명한 푸름이었지만, 그것은 저 때문에 회색빛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 숨구멍을 죄 틀어막는 죄책감에 버둥거리지도 못하고 내리눌렸다.

제 오만이 가장 컸다. 하늘을 찌르고 그것도 모자라 왕을 찌르다니. 위한답시고 지껄인 소리가 결국은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었다니. 왕이여, 절 벌하소서. 무사히 돌아오셔서 저를,

"왕께선 무사하십니다. 리자님께서도."

나오미의 고저 없는 말에 세 사람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푸른 피부에 생기가 도는 건 없었지만, 나오미의 속내는 남모르게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그럼 지금 가는 건…"

"네."

로에시소의 제의에 나오미는 그림자로 세 부자를 감싸안았다. 그녀는 답지 않게 빠른 놀림으로 움직였다. 주인의 곁, 리자님의 곁으로.

바깥과 완전히 단절되었던 공간은 아고의 손짓 한 번에 무너지고 검은 재가 되어 뿔뿔이 흩어졌다. 춤추듯 너울거리며 공중을 장식하던 검은 먼지들은 불어온 바람에 쫓겨 도망을 가고, 자취가 새파랗게 남았다.

빛이 쏟아지는 청명한 색채를 따라 리자는 고개를 들었다. 거대한 하늘은 넘치는 푸르름을 베풀며 아무리 걸어도 동일한 모습을 보였다. 그것이 꼭 누군가와 같아서 리자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흘렀다.

‘셰이.’

언제나 상냥하게 리자를 어르던 셰이. 그 다정함이 빛 덩어리로 산화되고 빛들이 모여 무리를 이루자, 모든 존재 위에 쉐이파디아의 광명이 드리워졌다. 빛의 근원, 정의할 수 없는 존재.

누구도 마주할 수 없는 절대자의 위엄 위로 허름한 정장이 내려앉고, 덮을 수 없는 광채가 자의에 의해 사그라들었다. 파더는 스스로 작은 몸에 들어가 갇혔다. 직접 아고에게 찾아가 거부당하기 위하여.

파더와 아고의 관계는 오래전 단절된 것 같다. 그 사실은 좀 의외였다. 셰이는 항상 즐거운 얼굴로 아고에 대한 말들을 노래 부르듯이 하곤 했다. 꾸밈도 거짓도 없이 말 한마디마다 애정이 그득했으므로 리자는 막연하게 둘의 사이가 친밀할 것이라 생각했다.

‘셰이와 왜?’

말간 눈이 아고에게 향했다. 힐끗 그녀를 곁눈질하던 아고는 눈이 마주치자 화들짝 놀라며 반대편으로 시선을 돌렸다.

리자는 직접 묻고 싶었지만 셰이가 칭찬한 그 현명함을 발휘하여 입을 다물었다. 셰이, 즉 파더와 관련된 문제는 아주 최후로 미뤄야 할 물음이었다. 특히 리자는 제삼자의 입장이 아닌가. 자칫 그녀가 개입하는 걸로 보일까 조심스러웠다.

그녀는 대신 다른 화젯거리를 꺼냈다.

“다른 사람들이 걱정하겠어요.”

“…응…잠깐만…”

그는 맞잡은 손의 온기에 기대며 제 주위로 둘러두었던 차단막을 걷어냈다. 연결을 기다리던 권능체들이 속속히 안위를 살폈다.

주인, 괜찮나?

무사하지? 응? 대답해봐! 리자는 어때?

괜찮으십니까.

호들갑을 떠는 것도 이해할 수 있었다. 빨간 가시가 줄줄이 달린 검은 탑은 아주 오랜 세월을 함께한 권능체들도 처음 본 것이다.

그래.

아고는 짤막하게 답해주고 제 위치를 알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늘어진 나무 그림자에서 타이온과 타이사가 튀어나왔다. 동시에 검은 소용돌이가 반대편에서 휘몰아치며 까만 입을 벌렸다. 나오미와 함께 시옹 가의 세 부자가 걸어나왔다.

“리자님!”

나오미의 안배로 제 1 탑에서 이곳까지 빠르게 도착한 로에시소와 라엔은 리자부터 먼저 살폈다.

“괜찮으십니까?”

“리자님, 다치신 데는 없으십니까?”

“괜찮아요.”

...

타이사는 게슴츠레 뜬 눈으로 꼬리를 살랑거리며 리자의 꾹 말아쥔 주먹을 바라보았다.

“저기?”

못마땅하게 눈가를 찡그린 남자가 고양이의 몸에서 빠져 나왔다. 쉬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타이사, 그가 인간화까지 하자 라엔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손.”

리자는 상처를 입으면서도 막무가내로 탑에 들어가려 했고, 타이사는 그 처참한 장면을 목격한 유일한 존재였다. 그는 아픈 티조차 내지 않는 리자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손 말이야.”

“네?”

“안 괜찮을 텐데.”

아고가 다른 손바닥 위에 리자의 손을 펴 놓자, 작은 손바닥 한가득 상처가 있었다. 다시금 목도한 상처는 그새 새로운 피가 고여있었다. 주제 모르고 정신 못 차린 그가 손을 잡은 탓에 상처가 더 벌어진 탓이다.

“맙소사! 리자님!”

“별로 안 아파요. 정말 괜찮아요.”

“리자님, 가서 치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가요.”

은근슬쩍 맞잡은 손이 빠지려 하자 리자는 아고를 쳐다보았다. 우울하게 가라앉은 표정.

“아고?”

어두운 회색빛 눈동자가 바닥을 배회했다. 다시 손을 잡은 리자는 다른 사람들과 권능체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아고를 이끌었다.

커다란 체격의 남자는 언제나 그렇듯 속수무책으로 끌려갔다. 어느 정도 멀리 떨어지자 그녀는 그를 마주보았다. 무거운 죄책감과 자기 혐오에 사로잡힌 아고의 시선은 고작 턱 언저리까지 올라오고 멈추었다. 풀죽은 얼굴이 리자의 속을 상하게 했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용서받았으면 끝. 깊은 자책은 제가 더 싫다고 그랬잖아요.”

회색 눈동자는 울긋불긋한 손에 고정되어 있었다.

“상처야 어차피 나을 거예요, 네?”

“…”

“아고.”

리자는 쉽사리 수긍하지 않는 그를 어느 정도 이해했다. 오랜 세월 근거 없이 쏟아지던 비난은 위대한 왕을 그렇게 만들었다. 모든 잘못의 원인을 스스로에게 찾고, 그리하여 더 자책감에 빠져 스스로 족쇄를 채우라.

‘일단 눈을 보고 싶은데.’

혼자 열심히 고민하던 리자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아고는 쉽게 움츠러들어도 다정함을 잃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녀는 과장하며 눈가에 손을 올렸다.

“앗, 저 눈에 뭐 들어간 것 같은데…!”

급조한 연기는 이미 대사부터 실패였다. 본인 스스로도 부끄워 한없이 어색한 말투.

그러나 아무리 허술한 미끼일지라도 리자라면 걸려들 준비가 된 아고는 화들짝 놀라며 그녀의 눈을 쳐다보았다.

“괜...”

서로 다른 이유로 떨리는 눈이 마주치자 리자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웃었다. 얼음 녹이는 것처럼 아주 해사하게, 더는 시선을 뗄 수 없도록 애정을 담아서.

상냥한 덫에 발이 묶인 아고는 꼼짝하지 못하고 그녀의 눈동자에 사로잡혔다. 모나지 않고 둥근 감정만 묻은 검은 눈동자. 그녀는 진심으로 괜찮다고 말하고 있었다. 정말로 괜찮다고, 그러니 불안해하지 말라고. 그가 들을 준비가 되자 리자는 천천히 입을 열어 부드러운 바람 같은 목소리를 내었다.

“아고, 한 번 생각해봐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제가 아고한테 상처를 입혔어요. 그것도 피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큰 상처를요.”

그게 쉽게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리자가 원한다면 그렇게 되리라.

“그럼 아고는 저 미워할 거예요?”

이어진 질문은 습관적으로 자학의 방향으로 걸어가던 아고를 멈췄다. 그는 당황했고, 잠시 답하지 못했다. 리자라면 저에게 무엇을 해도 괜찮을진대, 저가 미워하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아니다.”

“그렇죠? 제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럼 안 용서할 거예요?”

“…아니.”

아고는 조금씩 리자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어떤 방향으로 그를 이해시키려 하는지 깨달았다.

“제가 아고한테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너무 미안해서 계속 당신을 피해 다녀요. 그래도 괜찮겠어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욱신거렸다. 아고는 가만히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그제야 리자가 바라는 어느 지점까지 도착했다.

“아고, 그런 거예요.”

리자는 환하게 웃었다.

“당신이 그렇듯 나도 그래요.”

마음이 완전하게 가라앉지는 않았지만 아고는 그녀를 따라 조금, 아주 조금 고개를 끄덕였다. 기쁘다는 듯이 얼굴에 환한 빛이 번지자, 그것만으로도 아고는 괜찮아졌다.

“그래.”

그럴 수 있었다.

아고가 스스로를 굴레로부터 놓아주자, 딛고 있는 발밑 그림자에서 검고 매끄러운 비늘을 가진 무언가가 튕겨 나왔다.

기괴하게 생긴 들짐승은 흉악한 눈으로 제 숨을 구석을 찾으려 두리번거렸다. 샤악, 샤악. 어두운 곳을 발견한 들짐승은 배로 기어 수풀 사이로 파고들었다. 자취 없이 은밀한 움직임이었다.

아고와 리자가 돌아오자 분위기는 바닥에 가라앉아있었다. 꼭 아고가 그랬던 것처럼 어두운 분위기를 풍기는 남자, 굳이 따지자면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마엔은 무너지듯 무릎을 꿇으며 엎드렸다.

“모든 게…저의 탓입니다.”

목소리부터 검은 오라가 풍기는 듯했다. 당황한 리자가 눈을 굴려 아고의 표정을 살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마엔 시옹, 입을 함부로 놀려 왕의 심기를 거슬렀고 그 결과 쉐이파디아의 선물에 상처를 입힌 장본인. 스스로를 그렇게 정의 내린 마엔은 덮쳐오는 죄책감에 헐떡거렸다. 바닥과 맞닿은 눈에 물기가 흥건히 번졌다.

“시옹 가엔 후계자가 있으니 괜찮습니다.”

소리 없이 속을 억누른 로에시소는 냉정한 얼굴로 말했다. 아들은 분명 오만하고 경거망동하게 굴었으니,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그게 아비 입장으로선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더라도.

“무슨 처벌이시든 달게 받겠습니다. 부디 제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눈을 질끈 감은 마엔이 다시 처벌을 촉구했다. 누구도 쉽사리 입을 열 수 없는 상황이었다.

권능체들은 쉽게 읽히지 않는 주인의 속내에 심란한 표정을 지었다. 평소의 아고였다면 당연히 처벌 따윈 없었으리라. 그러나 쉐이파디아의 선물인 리자와 관련된 사안이었고 아고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그가 어떻게 행동할지는 그들도 짐작할 수 없었다.

오묘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던 아고가 한 발자국 앞으로 걸었다.

“일어나라.”

정갈한 왕의 명령에 마엔의 몸이 움찔거렸다.

“마엔, 끝까지 왕의 명령을 어길 셈이냐.”

로에시소가 조용히 일갈하자 마엔이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여전히 아고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얼굴이었다. 그는 잠시 리자와 시선을 교환하고 냉정을 가장한 로에시소의 푸른 눈을 바라보았다.

“로에시소, 라엔,”

“예.”

“...리자를…데려가. 가서 치료…하도록...”

“예.”

별다른 물음 없이 리자는 왕의 명령을 따랐다.

우리는?

“너희도...”

왕의 명령에 타이사가 히죽 웃으며 타이온을 끌고 그림자로 몸을 던졌다. 나오미는 고개를 숙이곤 다시금 검은 소용돌이를 만들어냈다. 리자와 로에시소, 라엔이 그곳으로 걸어가자 이제 마엔과 왕 둘만이 남게 되었다.

“잠깐...걷지.”

“예.”

왕보다 한 발자국 뒤에서 따르는 마엔의 발걸음은 죄수의 것처럼 무거웠다. 걸음걸음마다 제 피를 뿌리고 싶었지만, 그런 건 왕이 명령하지 않았으므로.

“마엔,”

“예.”

“…네 탓이…라 생각하나?”

마엔은 왕의 질문이 무엇을 의도하는지 알지 못했지만, 무엇을 부인하겠는가.

“예.”

“검은 탑은…네가 만든 게 아니다. 내가…만든 것이지.”

제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 혹 용서를 주시려 하나.

“왕께서 탑을 만드시도록, 제가 오만하게 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얕은 생각이 진정한 자만임을 마엔은 알지 못했다.

잠시 침묵하던 아고가 입을 열었다.

“너는…원인이 아니야. 그럴 수 없다.”

“…예?”

“…내가…약한 존재인가?”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지만 마엔은 그 말을 정확하게 알아들었다. 그는 지금껏 최초의 왕을 신하의 말 한 마디에 상처 입고 폭주하는 존재로 여겼던 것이다. 자신이 왕께 그만큼의 타격을 줄 수 있는 위대한 존재라 여기면서.

“그, 그런!”

마엔은 자신의 진정한 무례가 무엇인지 깨닫고 말을 잃었다.

왕은 약하지 않다. 왕은 자신이 보호하고, 상처 입지 않게 신경 써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위대한 존재. 한낱 피조물이라고 동일한 범주로 분류하기에는 지극히 높은 곳에 닿아있는 이였다.

그런 왕을 ‘동정’했다니. 들판의 잡초같은 자신이 왕을 바꾸고 싶어했다니! 제깟것의 분수에 맞는 일인가?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마엔은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마엔.”

왕은 뒤돌아 마엔을 바라보았다. 왕의 첨예한 은색 눈동자가 그를 관통하듯이 직시했다. 존재 자체가 까발려지듯 아주 세밀한 투시.

마엔은 부끄러웠으나 왕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너의…잘못은.”

“…”

“리자를…이용했다는 거다. 날 변화시킬…도구로.”

“...왕이시여...”

“그녀는 그런 도구로 쓰일 존재가 아니야.”

단언하는 말들은 마엔의 폐부를 찌를 정도로 정확했다. 그는 그제야 감정은 물론 이성적인 측면에서도 제 잘못을 깨닫고 완전하게 수그러들었다.

“맞습니다.”

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는 다시 무릎을 꿇었다.

“모든 말이 맞습니다. 왕이시여, 저는... 저는, 왕이시여. 그렇습니다. 감히 왕의 존재를 우습게 여겨 무례 이상의 죄를 범했습니다.”

마엔의 고개가 땅에 처박혔다. 내뱉는 말은 아까와 똑같았으나 그는 더는 우울한 기색을 띠지 않았다. 그의 속에서는 어떤 격한 감동이 휘몰아치고 있었으므로.

마엔 시옹이 그토록 바라던 진정한 왕의 모습, 그러한 틀조차 산산조각 깨졌다. 제 가려진 눈을 깨끗하게 닦으니 미천한 제 판단의 기준을 그분께 가져다 댈 수가 없었다. 왕은, 이 카이사의 왕 ‘침묵하는 자’는 그 존재 자체가 이미 완전한 지배자였다.

그걸 목도한 마엔은 이제 조금의 아쉬움이나 우울함 따위는 없이 기쁘게 죽을 수 있었다.

“이젠 저를 정말로 죽여주십시오. 제가 대가를 치르게…”

“마엔, 너를 용서한다.”

“…예?”

묵묵하게 주어지는 자비에 마엔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왕이시여.”

용서라니? 저에게 그게 가당키나 한 말인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리자…에게도…용서를 구하도록.”

“예.”

아, 그 일이 남았구나. 리자님께 용서를 구하고 나면…그때엔 정말로 제 목숨을 바치리라. 한 점 부족함 없는 위대한 왕께 용서도 받았으니 이제 거리낄 게 없었다.

감히 왕께 동정과 미천한 기준을 갖다 댄 자신은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비참하게 죽어야 했다. 어떤 식으로 죽어야 할까? 마엔의 벽안이 쓸데없는 의지로 활활 타올랐다.

참으로 기발하기 그지없는 신하의 속내를 투시한 왕은 한 마디를 덧붙였다.

“…용서받았으면…그걸로 된 거다.”

마엔은 그 말의 의도를 알고는 억울한 표정으로 펄쩍 뛰었다.

“예? 왕이시여.”

“깊은…자책은…내가 싫다.”

“...”

왕이 그러시다는데, 감히 왕께서 그렇다 하시는데 자신이 또 무어라고 입을 놀릴 수 있겠는가.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학습된 마엔은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지만 그것을 지우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돌아서는 아고의 입이 느슨하게 풀려있었다.

약통을 쥔 파란 손이 조심스레 약을 쏟자 또 다른 손이 솜으로 상처 부근을 눌렀다. 리자는 나오미와 타이사가 하는 양을 쳐다보다가 자신을 향한 시선들을 둘러보았다.

“저 정말 괜찮아요.”

괜찮다는 소리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감히 답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저 눈으로 말했다. 미안함과 고마움, 자책과 걱정 같은 각자의 범주 내에서. 리자는 결국 민망하게 웃으며 상처로 시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약은 정성스럽게 발려 있었고, 여러 번 관통 당해 넝마가 되었던 살은 제법 빠르게 아물고 있었다. 비정상에 가까운 회복 속도라서 리자는 약 성분이 좋은 것인지, 혹은 셰이의 손길이 닿은 것인지 고민했다. 후자가 아닐까 생각했으나, 그렇다기엔 상처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타이사나 나오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마 카이사의 약이 이만큼이나 효율성 있는 것이리라.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불쑥 검은 구멍이 나타났다. 구멍과 방의 경계선을 밟고 아고가 나타났다. 리자는 환한 얼굴로 그를 불렀다.

“아고.”

단 두 음절로 이루어진 단어였음에도 온기가 흘렀다. 아고는 숙이고 있던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웃고 있는 리자가 눈에 들어오기 전에, 방 안에 퍼진 약 냄새가 먼저 그를 자극했다. 알싸한 냄새는 쓴 자취를 남기며 그의 시선을 끌었다. 한껏 풀려있던 얼굴이 조금 가라앉았다.

“상처는...”

“네?”

“...아니다.”

아고는 두 입술에 힘을 주어 꾹 다물었다. 그의 변한 심경을 리자가 모를 리 없었다. 그녀는 난처하게 웃으며 아고가 오기 전까지 몇 번이나 중얼거렸던 말을 입에 올리려다가...

그냥 그만두었다. 자신은 이미 여러 차례 그를 달래며 감정을 가라앉혔다. 우울과 비관으로 이어지는 자책만 아니라면, 그가 스스로의 감정을 갈무리할 수 있도록 두는 것도 필요하리라. 아무리 그를 위한 것이라 한들 리자는 아고를 통제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되니까.

마엔은 리자의 생각이 마무리될 때쯤 나타났다. 그림자처럼 조용히 걸어온 마엔은 턱이 목에 붙은 것처럼 바짝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분위기는 조금 삭막해졌다. 왕이 입을 닫고 있었으므로 아직 누구도 입을 열 수 없었고, 무엇보다 마엔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느린 걸음이 이어졌다. 왕의 옆에서 정갈하게 서 있던 로에시소는 그를 한 번 쳐다보고는 다시 왕께 시선을 고정했다. 제 아들이 살았음에는 감사했으나 멀쩡한 채 돌아온 것은 꽤 괘심했다. 철부지에 망나니 같은 놈은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안경 너머 벽안이 차갑게 굳었다.

그러나 단호한 아버지와 다르게 라엔은 안심하는 마음이 더 컸다. 그는 불안하게 제 동생을 여러 번 쳐다보다가 그런 마음을 품는 다는 사실 자체가 왕께 죄스러워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

그리고 리자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아고가 입을 다문 때에 먼저 말을 걸어도 되는 것인지 고민하며 가만히 있었다.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아 마엔의 속을 짐작하기는 어려웠다. 무엇이 되었든 이전처럼 우중충한 분위기는 아니라 다행이었다. 그녀는 적당히 마음을 내려놓았다.

“리자님...”

아고를 지나친 마엔은 나오미와 타이사에게 손을 맡긴 채 앉아있는 리자에게 걸어왔다. 설마 자신에게 올 줄은 몰랐던 그녀의 눈이 동그랗게 뜨였다.

마엔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그는 두 손을 바닥에 짚고는 고개를 숙였다.

“마엔?”

“리자님, 저의 무례함을 용서해주십시오.”

“이러지 않아도…”

“아닙니다. 저는 지금 얼굴을 들 수가 없으니 부디 이렇게 있는 것을 허용해 주십시오.”

“…”

어떻게 해야 하나 갈피를 잡지 못한 리자는 아고를 쳐다보았다. 그는 마엔을 그대로 두고 있었다. 그녀는 마음이 불편하긴 했지만 일단 마엔의 이야기를 계속 듣기로 했다.

“저는 사실 왕을 제멋대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의 왕께선 무례하고 오만한 신하들을 벌하지 않으시는가, 그것은 저에게 우유부단함 내지는 넓은 의미의 무관심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왕이 바뀌기를 바랐습니다.”

그건 비단 마엔만의 생각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림자인 타이사조차 힘을 제대로 쓰지 않는 아고를 답답하게 생각하지 않았던가.

“홀로 헛된 상상 속에 빠져 있을 때, 리자님께서 이 카이사로 오셨습니다. 리자님과 함께 계실 때, 왕께서는 이전의 저로서는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왕께 있으리라 생각조차 하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리자님을 왕을 바꿀 도구쯤으로 여겼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면 왕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할까.”

좋은 마음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 리자는 카이사에 도착한지 3일밖에 되지 않은, 아직은 낯선 존재일뿐더러 마엔은 왕과 카이사를 그만큼이나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이다.

“염치없지만, 마엔 시옹 이렇게 용서를 구합니다. 리자님을 도구로 여기고 함부로 대했던 것을 부디 용서해주십시오.”

리자는 그가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용서를 구할 일인가 고민했다. 그러나 아무리 되돌려보아도 마엔은 마땅히 할 만한 질문을 한 것 뿐이다.

‘리자님은 어떤 능력이 있으십니까?’

그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말이었다. 설사 마엔이 그 질문에 좋지 않은 의도를 품었다 하더라도 그가 그녀에게 어떤 감정을 가졌는지까지 사과할 필요는 없었다. 게다가 그녀는 그 질문이 필요하다 생각했지 기분 나쁘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줄줄이 말하며 진지하게 용서를 구하는 이에게 당신이 사과할 필요가 없는 문제이니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네.”

받아들이는 게 그의 마음을 편하게 해 줄 것이다.

그녀의 흔쾌한 대답에 아고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다. 아무래도 마엔이 그녀에게 무례하게 굴었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사과하길 바랐던 것 같다.

리자는 손수건을 꺼내고 조용히 눈물을 찍는 로에시소와 라엔 부자를 모른 척 하고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약 묻은 손을 조심히 움직여 그의 등을 두드렸다.

“마엔, 이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예.”

바닥에 묻은 얼굴에서 새어 나오는 건 울음기 묻은 목소리였다. 시옹 가는 원래 울음이 많구나, 리자는 조용히 생각했다.

어느 정도 진정이 되자 마엔은 리자의 뜻대로 상체를 일으켰다. 그러나 몸을 일으키는 대신 그대로 한 쪽 무릎만 세웠다. 물기로 반짝이는 벽안은 비장한 각오로 반지르르 빛나고 있었다. 눈이 마주친 리자는 왜인지 기묘한 불안감에 젖었다. 각오…라고 생각했는데, 마치 라엔이 아고에게 보이는 눈빛과 같았다. 그러니까 충성심 비슷한 종류 말이다.

“리자님, 혹여 부담스러우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계속 마엔에게 시선을 두고 있었던 타이사가 문득 입꼬리를 올렸다. 그의 기묘한 미소에 나오미는 그를 힐끗 쳐다보았다.

“왕께서 허락해주시고 리자님께서 받아들여 주신다면, 이 마엔 시옹, 리자님만의 전속 집사가 되어 일평생 섬기고 싶습니다.”

리자는 깜짝 놀라 입을 가렸다. 집사라는 직분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역할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상치 않은 마엔의 눈은 그가 어마어마한 결단을 내렸음을 알려주었다.

“허락…한다.”

리자가 고민에 빠져 있는 동안 아고는 빠르게 승인을 내렸다.

마엔이 ‘집사’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속죄의 의미만 가진 것이 아니었다. 자칫 애매해질 수 있는 그녀의 위치를 확실하게 다질 수 있는 기회였다.

“리자님, 부디 저를 집사로 받아주십시오.”

“저에게 집사님이 필요할지, 판단을 잘 못하겠어요.”

리자가 설명을 요구하자 내내 웃고 있던 타이사가 입을 열었다.

“카이사에서 집사를 둘 수 있는 존재는 왕, 탑주 그리고 가주 뿐이야. 그러니 마엔이 네 집사가 되면 넌 탑주, 가주와 동등한 권위를 인정받는 거야.”

가만히 듣던 라엔이 고개를 끄덕였다. 쉐이파디아의 선물이 제대로 공표되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그녀의 지위를 제대로 확립할 만한 좋은 수였다. 로에시소 역시 둘째 아들이 내놓은 영민한 방법에 표정이 밝아졌다.

“음…”

그러나 리자는 마엔이 먼저 언급했듯 조금 부담스러웠다. 자신에게 그만한 권위가 필요할까.

“리자님, 다른 나라에서도 쉐이파디아님의 선물은 존귀하게 대접받습니다. 쉐이파디아님의 선택은 국가의 경사이고 나라의 자랑이지요.”

로에시소가 덧붙였다. 정치적으로도, 외교 차원에서도 상징성을 갖는다는 뜻이다. 리자 그녀는 오롯이 아고만 바라보고 왔다 하더라도, 그가 카이사의 왕인 이상 여러 측면을 고려하고 행동해야 했다.

리자는 잠시간 침묵했다. 그녀가 신중히 결정을 내릴 때까지 그 이상은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 한들 그녀가 거부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아고는 조금의 덧붙임도 없이 받아들이리라.

곧 생각을 마무리한 리자가 방긋 웃었다. 마엔은 꾹 쥔 주먹 안에 습기가 차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아주 조금 긴장했다.

“그럼 앞으로 잘 부탁해요, 집사님.”

울컥 또다시 눈물이 차올랐다. 마엔은 꾹 참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목숨을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호들갑을 떠는 목소리가 아니었다. 진심이 느껴지기에 묵직하기 그지없는 말이었다. 최선을 다하여 주인의 명을 지키고 그녀의 안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리라. 마엔은 경건하게 맹세했다.

로에시소는 자신이 왕께 충성을 맹세했던 과거를 떠올리며 다시금 눈물을 찍었다.

“목숨까지는…괜찮은데요. 다만 부탁이 있어요.”

“예. 무엇이든 하문하십시오.”

“앞으로는 이렇게 무릎 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광휘의 쉐이파디아 외에 무릎을 꿇기 마땅한 존재는 없다. 마엔은 잠깐 고민했지만, 제 주인의 말을 가벼이 여길 수는 없었다. 그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리자의 표정이 편안해졌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훈훈한 결말이었다.

곧 로에시소는 라엔과 마엔을 이끌고 밖으로 나갔다. 무릇 모든 일에는 행정적인 과정이 필요한 법이라고 그는 진중하게 말했다. 나오미와 타이사는 그림자로 녹아들어 가고 이제 남은 것은 아고와 리자 둘 뿐이었다.

그는 미적거리며 어디에 있어야 할지, 그렇다고 방 밖으로 나갈 생각은 없으니 움찔거리며 고민했다.

그를 지켜보던 리자는 손을 잡고 그를 옆으로 이끌었다. 속수무책으로 끌려간 덩치 큰 남자는, 다시 속수무책으로 의자에 앉게 되었다. 리자의 힘은 아주 조금의 조금도 들지 않은 일련의 과정들이었다.

그녀는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아고를 마주보았다. 그리고는 두 손바닥을 그의 앞으로는 쫙 피었다.

“짠.”

조금 민망한 추임새였지만 그의 시선을 끌기엔 충분했다. 아고는 얼떨떨하게 약으로 덧발라졌을, 난도질당한 상태일 손바닥을 쳐다보았다.

“…?”

그러나 손바닥은 말끔해져 있었다.

“약이 좋은 건지 벌써 나았어요. 아고 반응을 보니까 약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가 도와주신 덕인 것 같지만.”

그 누군가가 누굴 지칭한 것인지 아고 역시 알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작게 끄덕이며 조용히 읊조렸다. 파더. 아직은 복잡한 마음이었다.

리자는 그의 어두워진 얼굴을 보다가 곧 화제를 돌렸다.

“그런데, 제가 집사님을 갖는 것에 대해서 다른 탑주님들이나 가주님들이 반대하진 않을까요?”

“…”

“모두 찬성하진 않을 것 같은데.”

리자가 그들의 자리를 빼앗는 것은 아니었지만, 기득권층 입장에서는 침범으로 여길지 모르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걱정대로 사실은 시옹 가를 제외한 거의 모든 가문이 반대하며 큰 소리를 낼 것이었다. 아고는 난장판이 될 희의장과 고함소리들, 지극히 낮아질 싸움의 발화점을 당연하게 예상하고 있었다.

“…괜찮…다. 걱정하지…마.”

그럼에도 그는 대수롭지 않게 그녀를 안심시켰다. 아무리 진창일지라도 리자를 위한 것이라면 견딜 수 있으므로.

그녀는 자신처럼 무시 받게 둘 수 없었다. 비록 쓰레기의 왕이라 멸시받는 그를 선택했기에 모든 조롱을 받는 것이라 하더라도…그녀의 선택을 번복시킬 만큼의 여유를 가지지 못한 그는 적어도 고귀한 귀에 더러운 소리는 들어가지 않게 하리라 마음먹었다. 설사 무분별한 독재자가 되고 절제 없는 폭군이 된다 한들, 오직 리자에 관련해서만큼은 선의 반대를 걷는 것도 감수하리라.

독재자와 폭군이라니.

타이사가 감탄하며 중얼거렸다.

제발 좀 그렇게 벼...

조용히 해라.

이런, 바로 옆에 있었네.

...

아고는 타이온과 타이사의 소리를 어둠으로 묻어버리곤 리자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이 초롱초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멋있어요.”

아고의 귀 끝이 발개졌다.

누군가 물은 적이 있었다. 그에게 익숙한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될, 간단한 질문이었다. 이미 그의 주변에는 공허한 단어들이 겉돌고 있었으므로. 아고는 바람을 불 듯 제 옆에 있는 것들에게 이름을 붙였다. 삭막하게 마른 공기, 입을 벌린 까만 웅덩이들과 홀로 단절된 공간. 망자조차 되지 못한 사람들의 이름과 제 기억 속에 빼곡하게 묻혀진 무덤들. 죄악감, 어깨에 짊어진 족쇄, 심연과 나락.

그의 답을 들은 이는 짤막하게 결론을 내렸다.

당신의 이명(異名)은 ‘침묵하는 자’. 그것만큼 적절한 부름이 없군요.

아고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이였음에도 존재를 관통하는, 정확한 명명이었다.

아고는 몸을 뒤로 기댔다. 끼익, 의자가 뒤로 뉘어지며 익숙하기 그지없는 고요함을 뚫었다. 잠시 과거에 젖어 있던 그는 손에 쥔 종이 뒤로 시선을 넘겼다.

책상 앞에 한가득 고인 빛 웅덩이. 그에게 친숙한 것은 검고 어두운 그림자인데, 고작 한 발자국 앞에 정확히 반대인 것이 머물러 있었다. 어둡기만 했던 제 집무실 안으로 빛이 번진 광경은 꽤 생경했다. 그는 낯섦에 여러 차례 눈을 깜박이다가 고개를 들었다.

창문 너머 해사한 햇살. 도화지 위에 파란 물감을 엎어놓은 것처럼 하늘의 색채는 선명했다. 푸르른 하늘을 배경으로 잔잔히 흐르는 바람의 결은 깨끗해 보였다.

혹시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

“...”

아침마다 하늘을 통해 확인을 받으면서도 기어코 의심을 하게 되었다. 종종, 아니 사실은 꽤 많은 순간 실감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는 그만큼이나 쉐이파디아의 선택을 염원했고, 또 그렇게 절박했던 만큼 이루어질 수 없으리라 확신했으므로.

쉐이파디아, 그러니까 파더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알게 된다면 마음이 놓일 것 같다.

설령 사형과 같은 처벌이 그에게 예정되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안하진 않겠지. 언제 빼앗길까, 언제 부서질까… 언제 버림받을까. 비참함은 불쑥 찾아오곤 했다.

그는 전능에 가까운 최초의 왕이었으나, 그건 쉐이파디아에게 비할 수 있는 급이 아니었다. 파더의 전능에 비한다면 아고는 가진 능력의 속성처럼 무(無)와 같았다. 그러니 파더가 뺏고자 한다면 아고는 처참하게 모든 것을 잃으리라.

물론 쉐이파디아가 선택을 무를 이유는 없다. 선물을 앗아갈 이유도 없다. 창조주가 그런 변덕스러운 성정이었나 떠올리면 그렇지 않았으니 말이다.

그러나 기실 그가 쉐이파디아와 직접 대면한 때는 카이사가 생기기 전이었다. 오래 묵힌 기억은 뚜렷하지 않고 두루뭉술했으며, 무엇보다 연고 없음을 떠올리자면 쉐이파디아의 오랜 외면 역시 그러했다. 그러니 아고는 불안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여전히.

우울감으로 속이 메스꺼웠다. 그는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건조한 손바닥으로 쓸고는 중얼거렸다.

“리자.”

존재를 부른 게 아니었으니 그의 입에서 나온 건 이름이라기보단 주문에 가까울 것이다. 어둠을 밝히는 빛처럼 질척거리던 속을 깨끗하게 하는 마법의 단어.

마음은 유려하고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그는 숨막히게 옥죄어 오는 강박증에서 쉽게 벗어났다.

자신이 어떤 감정들을 느끼고 있었는지 새까맣게 까먹은 그는 리자에게로 온 생각을 귀결시켰다. 그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타이사에게 물어볼까 잠시간 고민했지만, 그만두었다. 나중에 그녀에게 직접 듣는 편이 나으리라.

리자는 타이사와 함께 있었다. 집사로 임명이 된 마엔은 바쁜 제 1 탑 업무를 돕고 있고, 나오미 또한 로에시소의 옆에서 일을 수행하고 있으니 마땅히 그녀의 곁에 붙여둘 이가 타이온이나 타이사밖에 없었다. 타이온은 무뚝뚝하고 인간형으로 있는 것을 싫어했으니, 조금 수다스럽고 귀찮게 굴더라도 타이사가 제격이었다.

사실은 그가 옆에 있고 싶었지만...

“하아...”

아고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대신 한숨을 내쉬었다. 문을 지키는 수문장처럼 책상 위 쌓인 서류 더미들이 그를 가로막고 있었다. 사실 더미라고 표현하기에 서류의 양은 너무나 방대했지만 말이다. 축제 기획안 결재 서류부터 사절단 초청장 초고와 기관 협조문, 마을 공고문, 진행 보고, 그 외 건의안과 각 탑의 회의록까지.

다리가 들썩거렸지만, 결국 리자를 위한 일이 태반이었으므로 참아야만 했다. 그래, 리자를 위해서.

그의 산더미 만한 서류와 리자가 어떤 연관성을 갖는가 하면, 반절 이상이 리자의 ‘소소한 환영식’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원래 아고는 유능한 보좌관들대표적으로 시옹 가의 세 부자을 둔 덕에 업무량이 많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가 제대로 잘 시간 없이 바쁜 이유는 카이사에서 나라적으로 행사를 여는 것이 처음이라 준비할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다.

그는 과거의 자신을 조금 원망하고 있긴 했다. 그토록이나 쉐이파디아의 선택을 바랐으면서도 막상 준비한 게 많지 않았다.

리자를 위한, 그리고 카이사의 기쁨이 될 축제의 시간. 파란 하늘이 도래한 것처럼 쉐이파디아의 손길이 이곳 카이사까지 왔노라. 쉐이파디아의 선택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카이사의 온 환영을 리자에게 선물할 것이다.

그건 비단 리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잿빛 하늘 아래 숨죽이며 살았던 카이사 백성들의 수치를 씻어내며, 닫혀 있던 입술 사이로 환희의 탄식을 이끌어 내리라.

지쳐 있던 눈동자에 장작이 던져진 것처럼 활활 의욕이 감돌았다. 동기를 곱씹으며 제대로 회복한 아고는 상체에 힘을 주었다. 안온하게 늘어져 있던 몸이 세워지면서 집무실은 다시 바쁜 일터가 되었다.

이따금 셰이가 그리울 때가 있다. 그건 현실이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선택을 후회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완전했기에 찾아오는 결핍이었다. 셰이와 온전히 함께한 때가 너무나 충만했기에.

리자는 허한 속을 달래려 셰이의 약속을 상기했다. 지금 함께 있나요? 목소리를 듣지 못해도 괜찮으니, 그저 선명히 느끼고 싶을 뿐이에요.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어디에서 불어오는지 알지 못하는 바람이 리자를 스쳐 지나갔다. 바람에 향기가 있다고 하면 듣는 이마다 비웃으려나. 바람은 끊이지 않았고, 리자는 눈을 감으며 그 흐름 속에서 셰이의 숨결을 느꼈다. 솜털처럼 부드럽고 안온한 셰이의 기운. 흐르는 결에 맞추어 고개를 가만히 살랑거렸다.

“…뭐하는 거야?”

갑작스러운 리자의 행동에 타이사는 당황하며 물었다.

“숨 쉬어요.”

“…숨?”

“네.”

“굳이 고개를 흔들면서 숨을 쉰단 말이지.”

이어지는 답변은 궁금증을 해소하기는커녕 도리어 타이사를 깊은 미궁에 밀어 넣었다. 그가 황당하다는 듯이 숨을 들이키자 리자는 친절하게 덧붙였다.

“셰이를 느끼면서요.”

타이사의 답답함에 도움이 되는 말은 아니었다. 그는 게슴츠레 붉은 눈을 뜨며 그녀의 주변을 샅샅이 훑었다. 아무리 세밀하게 투시하더라도 쉐이파디아의 흔적은 일절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대꾸하지 않고 다만 그림자처럼 고요함에 숨어들었다. 굳이 제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리자의 시간을 침범하고 싶지 않았다.

바람이 멎자 리자의 시간도 끝이 났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털었다.

“아고는 지금도 바쁘겠죠?”

“아마 그러겠지.”

“흠.”

아고의 얼굴을 보기가 부쩍 힘들어졌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리자의 얼굴에 섭섭한 기색이 어리자, 타이사는 흠흠 헛기침을 하며 몰래 아고를 찔러보았다.

주인.

...왜.

바빠?

그래.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의 주인은 칼같이 단호하게 굴었다. 타이사는 쯧쯧 혀를 차며 다시 한 번 유예를 주었다.

많이 바빠?

...그래.

눈치가 없는 거야, 뭐야? 나오미나 타이온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타이사는 공적인 일을 처리하는 것보다 리자가 훨씬 중요했다.

그것 참 안타깝네. 리자가...

그는 일부러 뒷말을 흐렸다.

연결이 잠시 끊겼다.

그것은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타이사는 잠시 멍해졌다.

“리자가 왜?”

맙소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쉽게 미끼를 물고 한달음에 쫓아오다니. 타이사는 기가 막혀 입을 벌린 채로 제 주인을 쳐다보았다.

말 좀 의뭉스럽게 했다고 대체 어떤 상상까지 했는지 아고의 얼굴은 잔뜩 일그러져 있었다. 제 주인 성격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타이사는 자신의 장난이 조금 심했다 싶어 스르르 도피를 시도했다.

“아고! 무슨 일이예요?”

갑자기 아고가 나타나자 리자 역시 깜짝 놀라 그를 불렀다. 그녀는 방금 전 타이사에게 아고의 근황을 물었을 뿐이다. 마치 호출을 받고 달려온 듯한 그의 모습은 대체…?

아고는 리자의 몸을 먼저 살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겼을까, 별의별 걱정을 짊어지며 달려오는 길이었다. 다행히 리자에게는 아무런 이상도 없었다. 아고는 그제야 숨을 몰아쉬고는 타이사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

그러나 주범은 이미 그림자 속으로 도망쳐버렸다.

아고는 잠시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가만히 서 있었다. 심장이 발밑까지 내려갔던 터라 온몸에 기력이 빠졌다. 그것과는 별개로 별일이 없어 진심으로 다행이었다.

“무슨 일 생겼어요?”

“…응?”

리자는 한껏 심각한 표정을 지고 있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쁜 아고가 이렇게 달려오지 않았는가. 급한 일인 게 분명했다.

“음…”

아고는 무어라 답해야 할지 잠시 고민했다.

“…타이사가…”

“네.”

정확히 따지면 타이사가 그를 부른 것은 아니었다. 그냥 짓궂은 구석이 있는 제 그림자는 리자의 이름을 언급하고 말을 흐렸을 뿐이다. 무슨 일이 생겼을까 지레짐작하여 식겁하고 달려온 것은 순전히 아고가 아니었나.

“…아니…그냥…”

“네.”

“걱정…되어서.”

“...”

그의 말주변으로는 고작 그렇게 말하는 것이 최선이었다. 듣는 리자가 얼마나 황당할지 생각하자 아고는 더없이 미안해졌다. 걱정이 된다고 말도 없이 갑자기 찾아왔다고? 아무런 일도 없었는데 말이지. 아고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얼굴을 쓸었다.

리자는 한참 답을 하지 않았다. 침묵이 생각 외로 길어서 마음 깊숙한 곳에서 불안함이 몰려왔다. 사과를 해야할까, 아고가 불쑥 입을 열었다.

“미안해요.”

“…?”

제 입에서 나와야 할 말이 다른 곳에서 나오자 그는 화들짝 놀랐다.

시선이 닿자 리자의 얼굴이 빨개졌다. 그녀는 더듬더듬 말을 이었다.

“전…그냥, 아고가 얼마나 바쁜지 알고...지금도 피곤해 보이니까…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멍하니 바라보는 시선에 리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아고가 와줘서 너무 좋아요.”

손가락 틈 사이로 새어 나온 목소리가 불어오는 바람에 흩날렸다. 아고는 자신이 바람소리를 잘못 듣고 오해를 했나 심각하게 고민했다.

정말 그런 것이면 우스울 테니 아고는 태연하려고 노력했다.

“…뭐…라고…”

떨리는 목소리는 차마 억누르지 못했지만.

“…와줘서 고맙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는 말을 잃었다. 파란 하늘, 내리쬐는 햇빛. 아직 그것들에도 익숙해지지 못했는데...

리자는 손을 내리고 아고를 보았다. 맑은 눈은 애매하게 일그러진 표정을 직시했다.

“같이 걸을까요?”

아고는 정신없는 와중에 고개를 끄덕였다.

리자는 참 이상한 사람이었다. 평소에 말을 잘 하지 않는 아고가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이 그것이다. 리자는 이상하다. 부정적인 의미로 비정상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냥 그녀가 당연하다는 듯이 저에게 다가오는 것이, 어떤 벽도 세우지 않고 어떤 선도 긋지 않은 채 계속해서 온기를 주는 것이 참...

리자와 함께 있으면 그가 평범한 것처럼 느껴졌다. 최초의 왕도, 죽음의 왕도, 멸시받는 왕도, 불쌍한 주인도, 버림받은 존재도 아닌… 그냥 아고란 존재 자체로.

‘원래’ 아무도 그러지 않았는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럴 수가 없을 텐데. 검은 목소리도 같이 덧붙였다.

“아고.”

혼자 쏘아나가던 생각은 리자의 부름으로 멈추었다. 그는 고개를 내려 제 옆의 리자를 바라보았다.

“축제 준비는 잘 되고 있어요?”

“...응.”

“다행이다. 귀족들의 항의가 어마어마하다고, 타이사 씨가 투덜거리던데요.”

아고는 난처한 표정으로 입을 다무는 것으로 답을 대신했다.

귀족들이 반발할 것은 충분히 예상했고, 그에 따라 충분한 준비를 해두었다. 곤란할 것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기분이 마냥 좋을 순 없다. 나라의 회의가 진흙탕이 되는 꼴을 번번이 봐야 했으니.

탑주와 가주들이 참여하는 회의는 원래도 권위가 없었지만, 적어도 규칙에 의해 진행되기는 했다. 그러나 근래 회의는 엄숙하게 시작하더라도 난장판이 되기 일쑤였고, 가문의 수장들은 결탁이라도 했는지 입을 모아 제 목소리들을 높였다.

그들은 두 가지를 비난하고 있었다. 시옹 가문의 차남인 마엔을 리자의 집사로 임명하는 것, 그리고 축제 준비를 왕과 제 1 탑, 시옹 가문이 ‘독점’했다는 것.

‘이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쉐이파디아님의 선물께도 시옹 가문의 아들을 붙이고, 축제에도 시옹 가문의 손이 닿으니 말입니다. 이 꼴을 가만히 두고 본다면 제 손으로 카이사를 죽이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시옹 가문은 섭정이라도 할 셈입니까?’

고집이 섞인 고함은 참을 수 있는 선을 지나갔다. 표정 없이 가만히 있던 나오미는 ‘섭정’이라는, 카이사에서 존재치 않는 말을 듣자마자 블란샤 가문의 수장을 죽이려 했다. 한숨을 내쉰 아고는 나오미 대신 타이온의 개입을 허락했고, 거대한 그림자 늑대는 날파리 같은 존재를 넘어뜨렸다.

‘왕이시여! 언제부터 이런 폭군이 되셨습니까...’

그러나 힘을 쓰더라도 생명에는 손을 대지 않자. 그것을 왕에게 심약함이 남아있는 증거라고 생각한 귀족들은 몸을 사리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아니 이전보다 더 심한 정도로 날뛰고 있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아고가 변하기 시작했단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일 것이다.

가시 돋힌 말들과 진흙탕 같은 시간들을 떠올리자 머리가 지끈거렸다.

“아고, 괜찮아요?”

그가 미간을 찌푸리자 리자가 걱정스레 물었다.

“응. 걱정…하지…마라.”

말은 그렇게 해도, 여전히 일그러진 얼굴은 펴지지 않았다. 잔소리로 들릴까봐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리자는 주섬주섬 제 속에 있던 걱정들을 꺼내었다.

“그래도... 일도 많은데, 요새 몸 관리도 잘 안 한다면서요. 바쁘다고 끼니도 대충 해결하고 잠도 거의 안 자고.”

“…응.”

대수롭지 않게 답하던 아고는 리자의 얼굴이 어두워지자, 화들짝 놀라며 덧붙였다.

“아니, 그건…원래 그러는 거다. 그러니까…괜찮아.”

“원래?”

그는 고개를 끄덕이려다가, 리자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멈칫했다.

“…그…매일매일 잘 때도 있다.”

“잘 안 자면요? 얼마나 안 자는데요?”

아고는 침묵하려다가, 리자의 눈빛에 버티지 못하고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1년 정도.”

답을 들은 리자는 충격을 받고 입을 쩍 벌렸다.

“1년이요?”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지만, 1년 동안 잠을 안 자고 버틴다고?

“밥은요? 설마 식사도 그렇게 걸렀어요?”

“...”

침묵은 긍정을 뜻했고, 리자는 말을 잃었다. 속이 상한 건지 화가 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둘 다 인지 마음속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입을 꾹 다물고 앞으로 고개를 돌렸다.

리자가 기계적으로 걷기만 하자, 아고는 난처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굳은 표정이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보니 화가 난 것처럼 보이는 데, 화가 난 게 맞다면…대체 왜 화가 났는지 그로선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무슨 실수를 한 걸까?

정적 아래 혼란스러운 발걸음들은 계속 이어졌다. 침묵은 참 익숙한 것인데도, 아고는 점점 견딜 수 없어졌다.

혹시 리자가 후회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이토록이나 형편없는 왕을 택했다고 자신의 선택을 무르고 싶어하는 것은…아닐까.

그는 무엇이라도, 무슨 말이라도 해야만 했다. 차라리 애초부터 선택을 받지 못했다면 나았으리라. 달콤한 온기를 맛보게 하고 다시 앗아가는 건, 너무나 잔인하고 비참한 일이었다.

몸에 한기가 돌았다. 꽁꽁 언 것처럼 굳은 입은 움직이지 않으려 했지만, 얼음을 부수고 그는 말해야만 했다. 무엇이든, 그녀를 붙잡아야만 했다. 어떻게든 후회하지 않게…그녀가 떠나지 않게.

한없이 초라한 남자는 파랗게 질린 얼굴로 물었다.

“내가…뭘 잘못했지?”

그건 맹세코 그가 하려던 종류의 말이 아니었다. 왜 화가 났는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리자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질문이어야 했다.

그러나 더 깊은 마음을 반영한 입이 멋대로 움직였다. ‘나’의 무엇이 ‘또’ 잘못되었느냐고.

“네?”

예상치 못한 질문에 리자가 고개를 들었다. 동그란 검은 눈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가득했다.

“…잘 모르겠지만…화가 난 것 같은데. 내가…잘못한 거면...”

아고는 초조함을 감추려 얼굴을 쓸었다.

그의 말에 화들짝 놀란 리자가 발을 멈추자 또 다른 발 역시 멈추었다. 까맣게 침잠한 눈동자가 느리게 올라왔다.

리자는 분위기가 심각해진 것을 깨달았다. 자신의 침묵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화가 난 건 맞지만, 그건 그를 죄인으로 몰고 추궁할 종류의 문제가 아니었는데. 그녀는 그저…아고를 너무...

아고는 커다란 죄를 지어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가만히 서 있었다.

“아고, 화가 난 건 맞아요. 맞는데, 아고가 잘못해서 화가 난 게 아니예요. 그렇다고 굶고 잠 안 잔 게 잘한 건 아니지만...아무튼 제 감정에 대해서만 말하자면 속상함과 안타까움에 가까운 거예요.”

생각 외의 답을 들은 아고는 당황했다.

“…왜?”

그리하여 되물을 수밖에 없었다. 왜 그녀가 분노하고, 속상하고, 안타까운가?

“그야…안 먹으면 배고프고, 잠 안 자면 졸릴 텐데...”

그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가 배고프고 졸린 게 어떻게 해서 그녀를 화나게 만들었는가.

그는 굳이 묻지 않고, 대신 자신이 왜 제대로 먹지 않고 자지 않는지 그 이유를 상기했다.

먹고 일하고 자고. 다른 피조물이라면 으레 돌아갈 일상. 그러나 그는 반복이 도리어 숨 막혔다. 시작은 있으나 끝이 보이지 않는 시간은 단조롭고 무거웠으며, 오롯이 그의 기억 속에만 머무는 존재들은 족쇄가 되어 그를 옭아매었다. 그를 자근자근 밟으며 흘러가는 형벌. 어떻게 수면을 취하고 식사를 할 수 있겠는가. 제 기억에 묻은 시체들이 그토록 많을진대.

“나는...그럴 수 없어.”

리자는 투시 능력이 없었지만,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었다. 아고가 만들었던 검은 탑에서 똑똑히 보았던 장면들이 있었으니까. 그녀는 그때부터 참고 있었던 말들을 다시 곱씹었다.

“늦잠 자도 돼요. 맛있는 거 많이 먹어도 되고요.”

“…”

“그리고, 아고. 꼭 해주고 싶은 말이었는데...이제 그만 죄책감을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아고는 아고가 선택해서 그들을 소멸시켰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요. 그 사람들이 선택한 거예요. 쉐이파디아님께서 선물하신 자유 의지로 본인들이 직접.”

아고는 ‘그들’의 이야기가 나오자 깜짝 놀랐다. 제 그림자들에게도 한 적 없는 이야기였다. 그의 능력으로 소멸시킨, 오로지 그만이 기억하는 존재들. 잊을 수 없는 이름들이 스쳐 지나갔다. 아득하게 먼 옛날의 일이었어도 바로 어제처럼 생생하게 기억한다. 제 영혼에 생살을 찢으며 새겨놓았으니.

“선택을 했으니 대가와 책임은 그들이 져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건...”

잊을 수 없는 비명들이 생생하게 들렸다. 그가 없었다면, 그가 그런 능력을 가지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그들은 소멸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없었다면…그런 일도 없었을 거야.”

“그럼 쉐이파디아님께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요. 아고에게 소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그들이 소멸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도록 방관하셨으니까요.”

방관이라니. 꽤 공격적인 단어였다. 아고는 괜스레 주변을 둘러보고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리자.”

“쉐이파디아님께서 잘못…”

아고는 땀을 뻘뻘 흘리며 리자의 입을 막았다. 아주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지만, 놀랍도록 빠른 속도였다.

그는 초조하게 하늘을 힐끗 올려다보았다. 혹시 먹구름이 다시 끼는 건 아닐까? 파란 하늘을 못 보는 거야 상관없었지만, 혹여나 리자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 두려웠다.

“알았다.”

그러니 그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아고는 덧붙였다. 리자는 무슨 생각인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리자의 입을 막았던 손을 떼었다. 어쩌다가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됐는지 모르겠다. 다만 리자의 말은 허투루 듣지 않아서, 그녀의 울림은 속에 쌓여있었다. 훗날 그는 그것을 다시 꺼내어 곱씹어보게 될 것이다.

“그럼 앞으로는 밥도 잘 챙겨 먹고, 잠도 잘 자기로 해요.”

검은 눈동자가 반짝였다.

“왜…이렇게까지…”

그는 어차피 굶어도, 자지 않아도 죽지 않을 텐데. 그녀 역시 최초의 왕이 어떤 피조물인지 대강은 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을 쓰는 이유를 여전히 알 수 없었다.

아고가 의아한 표정을 짓자 리자는 웃으며 답했다.

“…아고가 소중하니까.”

“…어?”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가장 변덕스러운 존재를 꼽으라면, 아고는 시간을 선택할 것이다. 저주스러울 만큼 느리게 흘러가는 시간은 리자와 함께 할 때만큼은 전력질주로 달리기 시작하니까. 그는 눈 몇 번 깜박한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리자는 옆에 머물렀다가, 사라졌다. 자욱한 허탈감.

그러나 그녀의 온기는 분명히 남아있었다. 가슴께를 꾹 누른 아고는 의무를 따라 걸음을 옮겼다.

검은 그림자를 통과하여 집무실로 넘어오자, 서류는 어느새 산처럼 쌓여있었다. 그것은 비유가 아니라 정확한 묘사였다. 시옹 가 사람들이나 나오미의 서류 쌓기 스킬이 조금만 더 정교해진다면, 천장까지 능히 쌓이리라.

아고는 잠시 그것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문득 목소리가 스쳐갔다.

‘축제 준비는 잘 되고 있어요?’

동그랗게 뜬 검은 눈. 맑은 얼굴의 리자.

그렇다고 답하기야 했지만 사실 망설임이 가득한 답이었다. 그녀가 다음에 또 묻는다면, 그땐 확실하게 답하고 싶다. 그래, 너무나도 잘 되고 있어.

아고는 결연하게 표정을 굳히며 주먹을 쥐었다.

왜 그렇게까지 해?

검은 목소리가 꾸물거리며 물었다.

왜냐고?

“...”

이유를 묻는 말의 기저를 따라 생각을 하다가 엉뚱하게 그를 걱정하던 리자가 떠올랐다.

속상하다고 말하던 리자를…이해할 수 없었는데. 최초의 왕이기에 비정상적으로 튼튼한 몸을 누가 또 염려했던가. 죽지 않으니 상관없던 그를.

‘아고가 소중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녀의 당연함과 그의 당연함은 몹시 달랐다. 그런데 조금 알 것 같아.

그녀가 소중하니까.

그래서 그녀를 위한 축제에 열심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림자 깊숙한 곳까지 드리워진 빛을 피해 검은 것이 움츠러들었다. 제 영역을 빼앗기자 검은 벌레는 독기를 흘리며 중얼거렸다.

멍청하긴. 널 소중히 여긴다는 거짓말에 쉽게 넘어가 버리다니. 그 말이 진심일 것 같아? 누가 너를…누가 너 같은 것을, 누가 너 따위...

아고는 똑같은 레퍼토리의 말이 우스워 피식 웃었다. 그는 악에 받힌 말들을 무시하고 착실하게 자리에 앉아 서류들을 손에 쥐었다.

잘 들어. 나만큼 너와 오래 있던 존재가 없어. 넌 내 말을 믿어야 해...!

대수롭지 않게 손을 내젓자 아고의 그림자에서 검은 벌레가 툭 튀어나왔다. 내쫓김당한 벌레는 추레한 몸통을 꾸물거리며 다시 돌아가려 했으나, 은은하게 흐르는 빛이 벽으로 둘러있었다.

쒸익 쒸익. 뱀과 같은 소리를 내며 검은 벌레는 움직였다. 그것은 은밀하고 어두운 곳을 찾아 시야를 두리번거렸다. 이윽고 창문 너머로 햇빛이 들어와 몸통을 비추었다. 끼이이익 들리지 않는 비명이 공간을 채우고, 연기나 흔적조차 없이 벌레는 사라졌다.

빛이 아고의 어깨를 타고 책상 위로 내려왔다. 그의 온몸에 의욕과 생기가 넘쳐 흘렀다.

반짝거리는 은색 눈동자는 손이 가져온 서류에 집중했다. 종이가 넘어가고, 사각사각, 펜촉이 움직인 뒤에 탁, 도장이 찍혔다. 손가락이 서류의 표지를 덮고, 또 다른 서류를 잡았다. 사락, 사각사각, 다시 탁. 사락, 사각사각… 탁.

소리는 한참이나 반복되었다.

로에시소는 최종 승인자에게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다. 퀭한 눈은 그가 얼마나 혹독하게 일을 했는가 증명하고 있었다.

쉐이파디아의 선물, 리자가 카이사의 땅에 온 지 꼬박 열흘이 흘렀다. 정신이 없었던 첫날을 제외하고 9일간은 가히 생존과 일의 경계에서 허덕이는 날들이었다.

아고는 눈이 풀린 라엔과 거뭇하게 수염이 돋아난 마엔의 얼굴을 생소하게 바라보다가 그것을 받았다.

축제. 버림 받은 것과 사라진 것들의 나라인 카이사에서 단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던 기쁨의 날. 이제 마지막 행정 승인만 내려진다면, 축제에 대한 소식이 땅끝까지 퍼질 것이고 기획서에 따라 모두가 준비만 하면 되는 일이었다.

아고가 신중하게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지긋지긋한 종이와 글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아고를 포함한 모두에게 위안이 되었다. 물론 결재를 받는다면, 그 후에 누릴 기쁨이겠지만.

탁. 책상 위에 서류를 내려놓은 아고는 잠시간 말이 없었다. 여러 개의 푸른 동공이 흔들렸다. 라엔은 간절한 표정으로 제 왕을 쳐다보았다.

“…음.”

없던 환각 증세가 생겼나? 라엔은 눈을 비볐다. 왕이 만족스럽게 웃고 있었다! 로에시소마저 당황한 나머지 표정을 숨기려 헛기침을 했다.

잿빛 구름이 녹아내린 것처럼 밝게 웃은 아고는 도장을 들었다.

“수고…했다.”

쾅, 왕의 도장이 붉은 흔적을 남기며 찍혔다.

“그럼 이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돌거인의 발 아래 영광과 환희가 퍼지길.”

“…그래.”

“…오, 쉐이파디아시여.”

라엔은 드디어 해방됐다는 기쁨에 그대로 기절했다.

상쾌한 아침 공기에 작은 눈이 반짝 떠졌다. 구슬처럼 말간 하늘색 눈동자가 본능적으로 창문을 향했다. 투명한 유리창 너머에는 아이의 눈만큼이나 청명한 푸르름이 가득했다. 아이는 저도 모르게 씨익 웃으며 작고 통통한 다리로 씩씩하게 이불을 걷어찼다.

거울을 보니 폭탄처럼 머리카락이 뻗쳐 있었다. 부스스한 금색 머리카락을 손으로 정리하며 침대에서 내려왔다.

끼익, 방문이 열렸다. 아이가 채 발을 딛기도 전에 식탁에서 신문을 읽고 있던 여인은 인기척만 듣고도 방 안 상황을 뻔히 알아차렸다.

“에리카, 이불.”

예리한 엄마의 직감. 입이 뾰로통해진 아이는 다시 뒤돌아서 구겨진 이불을 갰다. 하고 싶지 않아도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이란 건 알기에 불평을 참았다.

에리카가 제 할 일을 수행하고 나오자 엄마는 피식 웃으며 아침을 차려주었다.

“잘 잤어?”

“응. 엄청 많이 잘 잤어.”

“다행이네.”

얼핏 듣기엔 일상적이고 평범한 대화였지만, 적어도 이 가족에게 에리카가 잘 잤다는 사실은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검은 뱀들이 하나도 안 나왔어.”

“하나도?”

“응! 큰 곰 아저씨도 안 쫓아왔고. 어, 그리고, 넘어지지도 않았고…또, 음, 맞아. 늪괴물한테 잡아먹히지도 않았다?”

아이는 악몽에 시달리곤 해서 밤에 잘 자지 못했다. 별안간 비명을 지르기도 했고, 식은땀에 젖어 경련하는 것은 다반사였다. 얼러서 재우더라도 깼다 잤다를 반복하거나 긴장한 채로 얕은 잠을 잤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힘들어했다.

그러나 얼마 전, 쉐이파디아께서 드디어 카이사의 손을 들어 올렸을 때, 저주와 같았던 카이사의 먹빛 구름이 빛 덩어리로 부서지며 깨졌을 때, 그리하여 자유로이 푸르름을 발산하는 하늘이 나타났을 때, 그 때부터 많은 것이 바뀌었다.

“오늘도 쉐이파디아님이 짠, 나타나셨지?”

“응. 약간 뭐지, 뭐라고 해야하지? 그니까 옛날 꿈처럼 어두워지려고 했는데! 막 쉐이파디아님이 손을 휘두르니까 빛이 나와서 파랗게 변했어. 그래서 그냥 재밌게 놀기만 했어.”

“그랬구나.”

두서없이 설명하는 말이었지만 아이의 목소리에 담긴 안정감만으로도 충분했다.

“이제 밥 먹자.”

그녀는 웃으며 접시를 밀어주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낭랑하게 답하곤 포크로 커다란 소세지를 찍어 입에 집어넣는다. 아이가 먹는 양을 지켜보다가 턱을 괴곤 창문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원래’ 하늘색으로 돌아왔다고 했지만, 그녀에게는 태어났을 때부터 본 하늘이 회색빛이었으므로 선연한 파랑색이 되려 낯설었다. 일주일이 넘었으니 익숙해질 법도 하지만, 마치 고귀한 성물을 가렸던 장막이 찢어져 광채를 엿보게 된 것처럼 볼 때마다 신기한 기분이 들었다.

“쉐이파디아시여.”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작게 읊조렸다. 생경하긴 하더라도 파란 하늘은 축복의 상징이었다. 아이는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으니까. 고요하고 평온한 밤이 주어진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에리카는 열심히 우물거리며 밥을 먹다가 생각에 빠진 엄마의 옆얼굴을 보았다. 잠을 깊게 잔 덕에 아침밥도 든든히 먹을 수 있었다. 그래도 야채는 여전히 싫어서 몰래 옆으로 치우고 소세지를 다시 베어물었다. 엄마를 힐끗거리다가 엄마가 식탁 위에 내려놓은 신문 속 사진들이 아이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첫 번째 사진은 오른발 광장이었다. 에리카가 가장 좋아하는 놀이 장소인 오른발 광장은 며칠 전부터 입장이 금지되었다. 표지판에 뭐라고 쓰여있었는데 읽기 싫어서 그냥 지나쳤다.

그 아래, 두 번째 사진에서는 광장 기둥에 화려한 천들이 묶여서 휘날리고 있었다. 이게 뭐지? 괜한 호기심이 생겨 진하게 쓰인 글자들을 더듬더듬 읽었다.

추우…ㄱ, 축, ㅈ…ㅔ…제.

“축제?”

느리게 읽긴 했어도 무슨 말인지는 잘 알고 있었다.

“축제라고?”

에리카는 벌떡 의자에서 일어났다. 축제라니? 카이사에서 축제가 열린다니. 적어도 에리카가 태어난 이래, 그리고 그녀의 엄마가 태어난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아이의 눈이 찬란하게 반짝거렸다.

“응. 사흘 뒤에 축제가 열릴 거래.”

“정말?”

“그럼. 그래서 오른발 광장을 못 들어가게 한 거야. 축제 준비하려고.”

“와아!”

“에리카, 앉아서 밥 먹어야지.”

이리저리 방방 뛰기 시작한 에리카를 말리긴 했지만, 엄마 역시 기대감이 부풀고 있었다. 그녀도 축제는 처음이었으니까.

고요한 카이사에 설렘이 찾아왔다.

설렘은 생기를 몰아왔다. 숨죽이고 가만히 있는 것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어색함을 느끼면서도 곧 있을 축제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공문에는 축제 기간동안 밝은색의 천을 목에 둘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었다. 평소에 잘 꾸미지 않는 카이사 사람들의 특성상 목에 무언가를 매야 한다는 것이 어색했지만, 우려와 다르게 반응은 뜨거웠다.

“여기 분홍색 천에 연녹색 수를 놓은 천이 있어요! 한 번 보고 가세요.”

“아, 혹시 밝은 노란색 계열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가게로 들어오시겠어요?”

시장이 소란스러워졌다.

“어, 거기 가고 있는 언니, 여기 핀 있어. 천 끝에 매달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 한 번 착용해볼래?”

“신상 귀걸이 있습니다! 천 위로 늘어뜨리면 환상적일 거예요!”

천 가게와 악세사리 상점은 사람들로 붐볐다. 한산하기 그지없던 가게들부터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카이사의 경제를 총괄하는 제 2 탑은 그만큼 바빠졌다.

“오른발 광장에 근접해 있는 상점에 공문을 보내도록. 축제를 대비하여 재고를 비축해놓으라고 말이야.”

“예.”

“예상인원은 통계부 보고 받으면 바로 추가 첨부하도록 하게.”

“알겠습니다, 탑주님.”

딱딱한 표정의 남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만큼은 이지적으로 빛나고 있었다. 마스무트 앨리울, 그는 제 2 탑의 탑주였다.

“이건?”

“소상인 모임에서 온 면세 요청 서류입니다.”

“…면세 요청?”

“예.”

그는 혈통의 보증이나 귀족의 뒷배 없이 순전히 능력만으로 제 2 탑의 정점에 오른 자였다. 한 올 남기지 않고 뒤로 넘긴 청색 머리카락. 정상적인 크기보다 조금 더 가는 형태의 주홍색 동공. 그는 철저하고 꼼꼼하게 일을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선 시옹 가의 핏줄 못지 않았다.

“일단 검토하겠다고 답신 주게.”

“예. 그럼 결재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했다. 다음으론 상점끼리 담합하지 않도록 감사원 꾸리고, 숙박업소들 가격 규제할 수 있는 기준표 가져오도록.”

“예.”

“노점상인 건은 제 7 탑과 상의해야 하는데... 제 7 탑에 협력 공문 하나 보내고.”

“알겠습니다. 더 시키실 일 있으십니까?”

“없네.”

“예. 그럼 이만.”

마스무트는 보좌관이 고개를 숙이며 밖으로 나가자 의자에서 일어났다. 이틀째 밤을 지새운 증거로 눈 밑이 거뭇했다. 축제까지 남은 기간이 너무나 촉박했으므로 그는 강행군을 견뎌야 했다.

손가락으로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누르며 창문가에 섰다. 유리 너머 파란 하늘, 그 아래 그림자를 늘어뜨린 검은 본궁. 가늘어진 주홍색 눈동자에 왕가 끄트머리까지 밀려난 탑들이 비쳤다.

축제를 기대하며 준비하느라 바쁜 아래와 다르게 위에서는 애매한 기류가 흘렀다. 귀족들은 간을 보고 있었다. 그들은 이대로 블란샤 가문과 파온디쉬아 가문을 필두로 한 귀족파에 머무를지, 왕의 오른팔인 시옹 가문과 같은 노선을 걸을지 결정해야만 했다.

블란샤 가문과 파온디쉬아 가문은 여전히 왕왕한 활동을 하였고, 귀족 사회와 탑 내에 보유한 인사들을 생각하면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그 영향력은 이제 한미해져서, 그들은 시옹 가문이 뒷받침하는 왕의 결정을 막지 못했다.

그래, 블란샤와 파온디쉬아, 둘의 손아귀로는 결코 막을 수 없었다.

그건 마스무트에게 꽤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에게 있어서 두 가문은 카이사를 움직이는 가장 거대한 세력이었기 때문이다.

‘블란샤만이 카이사를 움직일 수 있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파온디쉬아 가문이 만든 카이사요!’

마스무트가 제 2 탑주로 처음 참석한 회의에서, 블란샤 가주와 파온디쉬아 가주는 당당히 소리쳤다. 시옹 가주는 차갑게 눈을 빛내며 조용히 하라고 자중시켰으나, 마스무트는 침묵하는 왕을 보며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 왕은 조각상과 같이 그저 상징적인 존재로만 남아있노라고. 그의 권위는 조금도 없으며, 남아있는 허울은 시옹 가문에 의해 유지될 뿐이라고.

그런데...

‘위카이사가...쉐이파디아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축제를 열…생각이다. 또한, 시옹 가문의 마엔 시옹을 집사로 임명하여...쉐이파디아의 선물을 보좌하도록 하겠다.’

왕의 음성은 잔잔했지만 뚜렷했다. 아니, 애초에 무슨 말을 했는지 얼마나 길게 말했는지 다 차치하고 나서라도, 마스무트는 그만큼 선명했던 왕의 눈동자를 본 기억이 없었다.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갑작스럽게 축제라니. 게다가 마엔 시옹은 시옹 가문의 차남이 아닙니까?’

블란샤와 파온디쉬아는 여러 이유를 들어 반대했지만 놀랍게도 왕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리고 굽히지 않는 왕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다.

결국 블란샤와 파온디쉬아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회의 때마다 이의를 제기하고, 축제 준비에 협조하지 않는 것이었다. 마스무트는 사실 왕이 당황하거나 대비해두었던 타협안을 제시하리라 생각했다. 그도 그럴 것이 외교를 담당하는 제 6 탑과 카이사의 치안을 담당하는 제 7 탑이 빠진다면 축제 준비에 큰 차질이 있을 테니까. 그러나...

‘맹목적인…반대는…받아들이지 않겠다.’

묵직한 왕의 선고. 왕은 이어서 개선할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듣겠노라 말했다. 실상 자신의 뜻을 그대로 관철하겠다고 못 박은 셈이다.

두 가문은 얼굴이 붉어진 채 회의장을 떠났고, 남은 이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 우물쭈물 고민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이 흐르는 동안 왕은 다른 탑과 가문의 도움 없이, 시초 때부터 절대적 아군이었던 시옹 가문과 함께 축제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데 성공했다.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되자 추후 명분과 체면을 위해, 혹은 이후 영향력이 줄어들 것을 고려하여 대부분의 귀족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결국 자신들의 부재가 큰 차질을 빚으리라 생각했던 두 가문만이...

“한 방 먹었지.”

마스무트는 느릿하게 눈을 깜박였다. 유리창 너머 본궁이 시야에 잡혔다. 검은 건물은 왕의 이명‘침묵하는 자’처럼 고요하고 조용했다. 매번 본 것이라 익숙하게 넘기던 것인데, 오늘따라 본궁의 색이 유독 짙었다. 꼭 공간을 잡아먹고 형태를 갖춘 어둠 같지 않은가.

“...”

그는 이 순간 자신이 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되짚어야 했다. 조롱에도 반응하지 않는 것이 연약한 존재인가. 꺾는 대로 꺾여준다 하여 그것이 무력함을 상징하던가. 그림자에 가만히 스며들어 있던 왕은 존재감을 점점 강력하게 발산하고 있었다.

심해처럼 깊은 회색 눈동자가 떠올랐다. 오싹 소름이 돋아 몸을 움츠렸다.

왕은 침묵이 아니라 인내할 뿐이고, 그 관용에 기대어 ‘우리’들의 숨이 붙어있는 것이라면? 왕은 변하기 시작했고, 어쩌면 머지않아 인내가 끊어질지도 몰랐다. 오래 참음이 사라진 자리에는 무엇이 터져 나올 것인가. 폭발적인 분노, 냉정한 처단, 잔인한 손속. 무엇이 되었든 ‘최초의 왕’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경험하게 되리라.

마스무트는 생각보다 겁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는 조용히 ‘그들’과 선을 긋기로 결정했다.

리자의 일과는 많지 않았다. 타이사와 소소한 대화를 나누거나 왕가의 구석구석을 둘러보는 산책이 주 일정이었고, 그 외에는 왕가 끄트머리 의자에 앉아 카이사의 땅을 가만히 바라본다거나 책을 읽었다.

아직 그녀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적인 행사에 참여할 수 없으니, 다소 심심한 시간들이었다. 물론 ‘심심하다’고 표현한 것은 타이사였지, 리자는 아니었다.

그녀는 굳이 무언가를 하지 않고 흐르는 시간 속에 머무는 것도 좋아했다. 아고를 만나기 전 셰이와 있었을 때 그러했으니까. 셰이를 졸졸 따라다녔고 대화를 나누기도 했지만, 그 외 고요한 침묵이 찾아오면 그저 셰이의 옆에서 머물 뿐이었다.

정적, 그 속에서 자유롭게 흐르는 생각들. 무수한 가지로 뻗어가는 질문들과 그에 대한 깊은 답변들.

타이사는 ‘침묵하는 자’보다 더 침묵을 풍성하게 누리는 리자를 그저 신기하게 여겼다.

“사람들이 활기차네요.”

카이사의 땅을 가만히 바라보던 리자가 문득 입을 열었다.

“응? 그게 보여?”

손톱보다 작은 건물들, 그 사이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날벌레의 다리만큼이나 미세하게 보였다. 투시 능력을 가진 타이사도 그들의 표정을 제대로 볼 수 없었는데, 리자는 태평하게 말하고 있었다.

“그런 능력도 있었어?”

맞다고 하면 주인에게 당장 가서 알려줘야지. 엉거주춤 일어나는 타이사에게로 시선을 돌리며 리자가 웃었다.

“아니요.”

그저 왕가에서 내려다보는 카이사 땅이 형형색색으로 뒤덮이는 게 보였기 때문이다. 날이 바뀔 때마다 색채는 화려해져서 마치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보였다.

타이사는 리자가 한동안 보았던 땅으로 시선을 넘겼다.

“아하.”

그녀는 아직 돌거인 아래로 내려가 본 적도 없고, 타이사가 추측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파란 하늘 아래 밝은색으로 물드는 것만 봐도 사람들의 은은한 기쁨을 느낄 수 있지 않나.

과연 타이사가 보더라도, 카이사는 아침을 맞이하여 개화하는 것처럼 화려한 광경을 연출하고 있었다.

“주인이 심혈을 기울였으니까. 다른 나라에서 사절단이 올 테니, 축제 장소가 아니어도 화려하게 꾸미기로.”

꿰뚫는 것에만 익숙하던 적안이 반짝였다. 리자는 웃음기 띤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축제일이 다가올수록 타이사는 묘하게 들뜨기 시작했다. 정작 타이사 본인은 투시 능력 탓에 사람이 많은 곳을 좋아하지 않으면서 말이다. 그건 그와 이어진 아고의 감정일 가능성이 컸다.

아고가 설렘을 느낀다는 것은 리자에게 큰 기쁨이었다.

그녀는 그가 좋은 감정들만 느끼기를 바랐다. 아고는 너무나 오랫동안 부정적인 감정들에 짓눌려 왔으니까.

축제 때 그가 얼마나 즐거워할까? 표정에서 드러날 지 모르겠지만 말이다. 아고는 리자에게 축제를 선물로 주고 싶어했지만, 사실 아고가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오늘은 제 1 탑에 들리자.”

“방해가 되진 않을까요? 좀 한가해졌다면 가도 좋고요.”

“행정적인 절차는 완전히 마무리됐으니까 괜찮아. 제 1 탑은 이제 다른 사람들 일하는 거 구경하면서 이거 고쳐라, 저거 맘에 안 든다 말만 하면 되거든.”

쉽게 말하면 감독 역할을 맡은 셈이다. 리자는 의자에서 일어나 타이사를 따라 걸음을 옮겼다.

“음…그래도 아침에 보니까 그렇게 여유롭진 않은 것 같던데요?”

“시옹 가는 대대로 일중독이야. 없으면 일거리를 만들어서 해.”

“그렇군요.”

전혀 놀랍지 않은 사실이었다.

“리자, 주인한테 한 번 가볼까?”

“네?”

제 1 탑에는 왕의 집무실이 있었다. 타이사의 제안은 솔깃한 것이었다. 물론 보고야 싶었지만.

“방해하고 싶지 않아요.”

그는 여전히 바쁠 테니까. 제 1 탑은 임무를 다 수행했다고 해도 왕은 총괄자였다. 다른 탑까지 관여를 해야 하는 게 그의 영역이었으니 한가로울 수 없으리라.

굶으면서 일하면 안 될 텐데. 밥은 먹었을까? 잠을 잘 자는 것까진 욕심내지 않을 테니 끼니라도 제 때에 잘 챙겼으면 좋겠다. 축제가 얼추 마무리되면 로에시소 집사님에게 말을 한 번 해볼까? 여러 잔걱정들이 생겼다가 사라졌다.

그녀가 생각에 잠겨 습관적으로 발을 움직이는 동안, 그들은 제 1 탑에 도착했다.

문을 열기 위해 손을 뻗는 순간 문득 타이사의 얼굴에 장난기가 피어올랐다. 그는 꼬마처럼 짓궂게 눈을 빛내며 한 손으로는 문설주를 잡고 다른 손으로 문을 열었다. 그가 손을 댄 순간 지면에 거대하게 드리워진 탑의 그림자가 일렁였지만 실체는 흔들림이 없었기 때문에 리자는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어…잠깐만 어디 좀 다녀올게.”

평소의 말투와 다르게 어색한 어조였지만 리자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네.”

대답이 떨어지자마자 타이사의 신영이 그림자에 녹아내렸다.

홀로 남게 되자 리자는 잠시 멈추곤, 이전보다 더 느리게 발걸음을 옮겼다. 걷는 둥 마는 둥 움직이며 그녀는 걱정을 이어갔다.

탁.

시야가 어두워졌다.

“…?”

리자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들었다.

“아고?”

당황한 표정의 아고가 서 있었다.

“어떻게 여…”

“다치진 않았나?”

그답지 않게 급한 어조였다. 게다가 그녀의 말까지 끊다니. 기분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신기했다.

“…”

그녀가 대답 없이 눈만 깜박거리자 아고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타이사. 이번에도...”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아고는 화가 난 것 같았다. 방금 전까지 그녀와 같이 있던 타이사였는데, 대체 무슨 일을 벌였길래 아고가 이런 반응일까? 리자는 조금 놀라운 심정이 되어 아고를 쳐다보았다. 그가 정말로 화가 난 건 지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아무튼 짜증 비슷한 감정이라도 난 것임은 확실했다.

아고가 짜증이라니, 정말 타이사는 대단한 그림자였다.

“무슨 일 있어요?”

리자가 부드럽게 묻자 아고는 다시 그녀에게 초점을 맞추었다.

“탑이 흔들리길래. 다친 덴 없나.”

“네. 전혀요.”

아무리 그녀가 깊은 생각에 잠겼다고 해도 땅이 흔들렸다면 단번에 알아차렸을 것이다.

리자에게 별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아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한참 후에 상황의 전말을 파악할 수 있었다. 타이사에게 또 당했다.

어쨌거나 둘 모두에게 기회라면 기회였다. 요근래 같이 있기는커녕 얼굴 보는 것조차 힘들었으니 말이다.

“아고는 좀 놀랐겠지만, 저는 고맙네요.”

“…?”

“타이사 덕분에 아고를 볼 수 있으니까.”

말갛게 마주쳐오는 눈동자에 그의 얼굴이 빨개졌다. 막상 말을 한 리자도 슬그머니 얼굴을 붉혔다.

그녀는 시선을 내리려다가 다소 거뭇해진 아고의 눈 밑을 발견하고 멈칫했다. 그간 업무의 압박감이 얼마나 심했으면... 착각일 수도 있었지만 턱선이 조금 더 날카로워진 것 같기도 했다. 바쁘니 잠은 잘 수 없다 치더라도, 밥은 잘 먹어야 할 텐데.

걱정스러운 시선이 아고의 얼굴 위를 배회하는 동안 아고는 잠자코 서 있었다.

“식사는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어떤 자세로 있어야 할지 알 수 없어서 혼란 속에 있던 아고가 늦게 답했다. 그는 리자의 시선을 쫓아 눈을 내렸다.

“…바빠서…못했겠죠?”

그는 눈을 깜박이다가 고개를 좌우로 저었다.

“꼬박…꼬박…했다.”

“정말요?”

“...응.”

“바빴을 텐데.”

“그래도…잠 잘 자고 밥 잘 챙겨 먹으라고…했으니까.”

말해놓고 보니 칭찬을 바라는 어린아이 같은 모양새다. 쑥스러움에 아고는 얼굴을 푹 숙였다.

“…”

그는 그저… 무시할 수가 없었다. 당신이 소중하기에 부탁한다는 이의 말을 어떻게 가벼이 여길 수 있나.

물론 그 말 그대로 온전히 지키지는 못했다. 일은 몰아쳤고 시간은 한정되어 있었으므로, 잠을 자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래도 식사만큼은 지키고 싶어서 로에시소에게 귀띔을 하자 집사는 피로에 눌린 중에서도 환하게 웃었다. 손수 챙긴 집사의 노고 덕에 아고는 리자가 한 부탁의 일부라도 지킬 수 있었다.

“고마워요.”

아고의 마음을 충분히 전달받은 리자가 기쁘게 웃으며 말했다.

마주친 눈을 통해 넘어오는 온기, 아직도 채 익숙해지지 못한 종류였다. 아고는 무어라 답하려다가 결국 어색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창조된 이래 근래만큼 열심히 일한 적이 없었다. 단순히 잠을 자지 않고 쉬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 모든 것을 한 가지에 쏟아부으며 몰두하는 것은 꽤 많은 체력과 기력을 소모해야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므로 리자의 웃음이 이쯤 되니 과분한 것이다.

힘이 든 건 사실이지만, 리자에 대한 고마움과 무엇으로든 보답하고 싶다는 소망을 원동력으로 삼아 기꺼이, 기쁘게, 능히 해낼 수 있었으니까.

축제를 잘 해내고 그 후에 어떤 보상을 얻으리라는 생각은 꿈에도 꾸지 않았다. 그냥 자신이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 그 전에 시도라도 해볼 수 있다는 것이 실감이 안 났다. 그런데 그녀는, 과거의 제가 감히 바랄 수도 없던 기회를 주어놓고… 또 다른 것들을 주었다.

그러니까 아고는 어떻게 해야할지, 대체 무엇으로 그녀에게 갚아주어야 할지, 실은 갚을 수나 있을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리자. 제 눈앞에 있는 사람이 그저 귀해서, 그녀의 환한 빛이 제게 닿아 있다는 것이 신기해서 무언가 찬사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마음이 격동하며 입가가 움찔거렸다.

그러나... 침묵이 깨어지는 일은 없었다.

그냥 입을 다무는 게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어라고 말해도 보잘것없을 게 뻔했으니까, 어쭙잖은 변명을 덧붙이며 침묵하는 자는 아주 오래전부터 자신에게 주어졌던 이명대로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제 마음을 목구멍 너머, 아주 어둡고 깊은 심연까지 밀어뜨렸다.

자신의 어리숙한 말주변으로 그녀의 속성이 폄하되거나 왜곡되지 않기를 바랐다. 그러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아무런 표현도 하지 말고 숨을 죽이며 몸을 낮추는 게... 으레 해오던 일이었으니 별다를 것도 없었다. 익숙하지 않은가. 제 마음이나 제 목소리를 죽이는 일쯤은 말이다.

그러나 낯설게도 마냥 괜찮지는 못했다. 욱씬거리며 뭉툭한 망치 같은 것이 그의 가슴께를 지그시 눌렀다.

당황한 아고는 눈을 깜박거렸다. 대체 왜 이런 통증을 느끼는지 알 수 없었을뿐더러 자신이 알던 ‘원래’가 깨졌다는 게 몹시 생경했다. 커다란 손이 가슴 언저리를 짚었다. 꿈틀거리고 꾸물거리는 무언가는 애벌레에 빗댈 만큼 하찮은 정도였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타이사는 적절한 시기에 맞춰 돌아왔다. 힐끗 곁눈질로 주인의 심기를 살피는 얼굴이 얄밉기도 했지만, 아고는 간질거리는 손가락 끝과 울렁거리는 감각들 탓에 신경을 제대로 쓸 수 없었다.

타이사에게 리자를 맡기고 그는 다시 집무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아직 가라앉지 않은 심란함이 걸음을 디딜 때마다 철렁거리며 마음속을 어지러이 헤집어놓았다.

그러나 상황은 마냥 좋지만은 못해서, 시끄러운 속내보다 당장의 일에 신경을 써야만 했다.

“오늘도 제 6 탑주가 문서들을 전부 반송했습니다. 제 7 탑주는 협조문을 분쇄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아고는 가만히 수긍했다. 외교를 담당하는 제 6탑과 카이사의 치안을 유지하고 백성들을 보호하는 제 7탑. 두 탑의 탑주는 근래 가장 목소리가 높은 두 가문의 가주이기도 했다. 블란샤와 파온디쉬아.

일그러진 표정 속 탐욕에 젖은 눈동자들은 굳이 투시하지 않더라도 어떤 선택을 할지 뻔히 보였다. 그럼에도 잠자코 일을 맡긴 것은 일종의 기회였다.

“왕이시여, 그들을 압박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제 1탑이 대신 일하겠습니다.”

얼굴에 힘을 준 로에시소가 허리를 숙였다. 비장하게 빛나는 벽안, 그 뒤로 똑같은 색채를 가진 두 쌍의 눈이 번뜩였다.

“…아니.”

그러나 왕은 그럴 생각이 없었다. 이미 다른 방법을 생각해두었으니까.

“세미 아랑드, 그에게…일을 맡기는 게…좋을 것…같다.”

“과연 그 외에는 적임자가 없긴 합니다.”

일곱 가문 중 하나인 아랑드의 가주이자 제 4탑의 탑주, 세미 아랑드. 본 업무는 국내외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것이었으며, 흐름을 읽고 대처하는 능력이 유독 뛰어난 사람이었다. 외교 업무를 대체할 이가 필요하다면, 단연코 그가 1순위에 뽑힐 것이다.

시옹 가를 제외하고는 가주나 탑주에게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는 듯 보이던 왕이 그 사실을 알리라곤 생각하지 못했던 그들은 내심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럼 지금 바로 문서를 전달하겠습니다.”

“그래.”

왕이 허락하자 로에시소가 고개를 돌려 눈짓했다. 마엔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집무실 밖으로 나갔다.

남은 것은 치안 및 안전 문제였다. 오른발 광장에 모여들 어마어마한 인파를 대비하여 미리 치안대를 배치하고 질서를 정립해야 했다. 그러나 블란샤를 중심으로 한 제 7탑이 자신의 임무를 거부했으니 일이 곤란하게 되었다. 정기적인 훈련과 적당한 규모의 인력을 갖춘 탑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론.”

카이사의 군단장, 제 3 탑주 아론. 인력이 필요한 건에서 실상 유일한 대체자이기야 했다. 다만... 로에시소는 표정을 굳혔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라엔에게 눈짓했다.

“…”

시선을 받은 라엔은 자신도 모르게 썩은 표정을 지었다. 블란샤와 파온디쉬아보다는 덜하다고 한들, 입만 다물고 있을 뿐이지 왕을 훑는 눈빛은 오만하고 건방지기 짝이 없었다. 부글부글 끓는 마음을 누르고 라엔이 발을 내딛는 찰나, 왕이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내가…직접 가지.”

그저 담담한 어조였다.

카이사가 들떴군.

“뭐라고?”

...

멍을 때리느라 검의 말을 놓친 아론은 분하다는 듯이 발을 굴렀다. 쿵, 쿵, 지진이 난 것처럼 돌바닥이 잘게 진동을 일으켰다.

검에 이목구비가 달려 있지는 않았지만, 아론은 보기보다 섬세한 검이 삐진 표정을 지었으리라 추측했다. 천년의 얼음에 갇힌 검은 아론이 자신의 말을 무시하는 것을 견뎌내지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온 사지 육신이 냉기 속에 갇혀있는 데다가, 지금 세대에서 아론 외에 검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없었던 것이다. 물론 검의 주인인 왕은 논외고.

원래 같으면 검이 삐지든가 말든가 신경도 쓰지 않았겠지만, 얼마 전, 파란 하늘이 열린 그 날 그는 검의 말을 넘겼다가 다시는 볼 수 없을 장면을 놓쳐버렸다. 고작 잠을 자느라고 말이다. 그 이후로 아론은 천년의 얼음에 갇힌 검이 무슨 소리를 하든 주의 깊게 듣는 버릇이 생겼다.

아론은 검의 마음을 달랠 겸 주의를 끌 겸 근래 카이사를 들끓게 하는 화젯거리를 꺼냈다.

“축제가 열릴 거다.”

축제…?

“쉐이파디아님의 선택을 받았으니까, 그걸 기념한다는 둥 어쨌다는 둥.”

막상 말하다 보니 조금 귀찮아져서 대충 얼버무렸다. 검은 평소와 다르게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왜 아무 말이 없냐.”

...

두꺼운 주먹이 얼음을 퉁퉁 두드렸다. 검은 날이 바르르 떨렸다.

적당히.

묵직한 경고에 아론은 주먹을 내려놓았다. 얼음에 갇혀있으면서도 검은 굉장한 기운을 발산할 수 있었다.

그 옛날, 갇히기 전 온전히 자유로울 때의 검은 한 번의 휘두름만으로 거대한 산을 쪼갰다고 한다. 투지 본능이 식욕보다 배는 큰 아론은 검의 무력이 기대되었다. 팔 하나가 잘릴 것을 감수하더라도 제대로 붙어보고 싶었지만… 그건 아론이 늙어 죽을 때까지 일어날 수 없는 희망사항에 불과했다.

겁쟁이 왕이 검을 봉인했으니까. 이유는 자세히 모르지만, 검이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이라던가. 약한 팔로 휘두르다 제 목을 찌를까 두려웠던 탓이리라.

비린내 나는 생선의 눈깔처럼 생동감이라곤 전혀 없는 회색의 눈동자가 떠올랐다. 최초의 왕이면 뭘 어쩔 텐가. 바꿀 의지도 바뀔 노력도 하지 않으니, 장식용 보검이 되려 더 쓸모 있을 것이다.

그 심약한 왕이 변할 리는 없으므로, 아론은 진작 제 꿈을 포기했더랬다.

“…후우...”

아론의 핏줄은 힘에 의한 서열을 중요시했다. 그러므로 단지 왕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제 머리를 숙여야 한다는 사실은 참을 수 없이 모욕적이었다. 그래, 들끓는 투지만큼 깊은 적개심은 거기에서 파생한 것이다.

아론은 목을 제껴 파란 하늘을 쳐다보았다. 찜찜하게도 눈부실 만큼 청명한 맑음이었다.

“원래 파란 하늘이었나?”

뭐?

“카이사는 원래 파란 하늘이었냐고.”

그래. 원래는 그러했지.

“원래는...”

무슨 일인지 왕은 빨간 돼지블란샤와 허여멀건한 작대기파온디쉬아의 반대를 꺾고 여러 일들을 감행하고 있었다. 개중 하나가 축제였고.

그뿐이랴. 왕의 그림자인 타이온이 빨간 돼지를 여러 번 꿇어 앉혔다 들었다. 그는 환멸 나는 회의에 참여하질 않으니 직접 보지는 못했다.

“아, 몰라.”

어차피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는 상황과 별개로 제 마음만큼은 편한 걸 추구했다.

…그분이 오셨다.

“뭐?”

‘그분’? 이번엔 검의 말을 정확하게 들은 아론은 검의 말을 되짚었다. 그분이라고? 왕의 그림자인 검이 존칭을 붙일 존재는 유일하지 않은가...

그러나 이렇게 갑자기? 아론이 당황한 사이에 문이 급하게 열렸다. 아론은 얼음에 비스듬히 기댔던 상체를 일으켰다.

“그림자의 발톱을 날카롭게! 2단 1열, 바르게이!”

“어둠과 침묵. 무슨 일이냐.”

“군단장님, 휴식 시간을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왕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역시나 검의 말은 정확했다. 그는 얼음에 비스듬히 기대고 있던 몸을 일으켰다. 무언가 덜컥 내려앉은 것 같은데, 그게 무엇인지는 둔감한 그로선 알 수 없었다.

“어디에 있지?”

“1층 응접실로 모셨습니다.”

“알겠다. 곧 가지.”

부하가 나가자 그는 머리를 긁적이며 중얼거렸다.

“...귀찮게...”

본인의 무례함은 전혀 인식하지 않는 태도였다. 검이 항의하듯 몸체를 부르르 떨었지만, 그래봤자 손바닥 아래 느껴지는 미미한 진동이었다. 아론은 피식 웃으며 얼음을 퉁 쳤다.

응접실 문을 열자 가장 먼저 보인 것은 한껏 인상을 찌푸린 시옹 가문의 두 부자였다. 특히나 잡아먹을 것처럼 눈빛이 형형한 라엔은 할 말이 아주 많아 보였다.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왕 앞에서 복장은 그게 뭐냐, 왕께서 오셨는데 대접하는 수준이 이따위냐, 응접실은 왜 이 모양이냐 등등. 침묵만으로도 충분히 전달되는 내용이었다.

물론 그 기세가 아론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하면 절대 아니었다. 무력(武力)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아론에게 종이를 상대하는 게 고작인 놈들은 우습기만 했다.

별 같잖지도 않은 게.

피식 비웃자 벽안이 빨개지는 것처럼 타올랐다. 아론은 느긋하게 시선을 돌렸다.

여유로운 곡선의 끝에서, 눈이 마주쳤다. 느긋하게 우위를 점했던 이는 움찔, 자신도 모르게 눈을 깜박였다. 쥐고 있던 주먹 위로 핏줄이 불거졌다.

고요한 왕. 인정하고 싶지 않은… 유약한 주인.

왕을 독대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애초에 시선이 마주치는 것 자체가 드문 일이었다. 마주치더라도 생명이 없는 은색 구슬을 보는 게 전부였고 말이다. 텅 빈 눈과 마주할 때마다 그는 궁금했다. 제 존재를 왕이 ‘인식’은 하고 있을까. 한때의 아론이 생각하기에 왕에게 있어 자신의 존재는 나무 한 그루였다. 환경을 이루는 구성 요소. 그냥 그 정도의.

그렇기에 아론은 내심 놀라고 있었다. 왕의 눈은 여전히 잔잔했지만, 호수의 물결처럼 미미하게나마 생동감이 흐르고 있었다. 그건 붉음과 푸름이 색채부터 다르듯 성질 자체가 다른 것이었다.

왕은 아론을 분명하게 ‘보고’ 있었다.

“…음, 흠흠.”

로에시소가 안경을 추켜올리며 헛기침을 했다. 아론은 그제야 자신이 인사는커녕 어떤 예도 차리지 않았다는 것을 떠올렸다. 약한 것을 멸시하는 그라고 하더라도 위계질서에 머리 까딱일 줄은 알았다.

정신을 차린 아론은 절도 있게 경례했다.

“그림자의 발톱을 날카롭게! 제3탑주, 군단장 아론! 부르셨습니까?”

“…용건이 있다.”

짧은 시간 동안 아론의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왕이 자신을 부른 이유가 무엇일까?

이 시기에 불렀다는 것은 축제와 관련이 있을 게 분명했지만... 딱히 짐작이 가는 바는 없었다. 제 3탑은 이번 축제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다. 축제에서 ‘군사’를 담당하는 제 3탑이 나설 만한 부분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물론 다른 나라에서 사절단이 온다면야 경호나 국가 안보 차 동원되긴 하겠지만, 그 외에 훈련된 인력이 필요한 일경비, 질서 유지, 치안 관리 등은 전부 제 7탑이 맡을 것이다.

탐욕스러운 블란샤 가주가 떠오르자 얼굴이 저절로 일그러졌다.

예부터 블란샤 가주가 수장으로 있는 제 7탑은 제 밥그릇 처먹는 것도 모자라서, 제 3탑의 몫까지 호시탐탐 넘보곤 했다. 그들은 ‘치안’을 담당하는 것에서 확장하여 제 3탑이 가진 ‘군권’을 빼앗아오길 원했다. 허울 좋게 교환하고 싶다고 하지만… 웃기는 말이지. 확신하건대 블란샤가 군권을 쥐는 날은 유약한 왕이 끌어 내려지고 카이사의 돌거인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왕에게 딱히 충성심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카이사는 그에게 귀한 이름이었으므로 지킬 의무가 있었다. 아론은 그 나름의 방법으로 제 7탑의 공격들을 쳐내고 제3탑의 세력을 잘 키우고 있었다.

왕만 중심을 잘 잡아줬더라면… 규칙을 세우고 그 흐름대로 흘러가도록 힘을 사용했더라면, 자신이 우스운 알력 다툼에 에너지나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말이다.

“…”

속내가 어떠하든 굳이 드러낼 필요는 없다. 비죽 솟을 뻔한 발톱을 누르고 아론은 비스듬히 시선을 내렸다.

“당장 오늘…차출할 수 있는…인력은…얼마나 되지?”

“…예?”

“축제에서...제 3탑이…해야 할 일이 있다.”

귀를 의심하며 아론이 얼굴을 들었다. 갑자기 제 3탑에게 일을 맡기겠다고? 잔뜩 찌푸려진 얼굴이 그의 대답을 대변하고 있었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론의 눈이 왕을 직시했다. 도저히 왕을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도전적이었다.

“블란샤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아론이 이죽거리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블란샤를 운운하며 빙 돌려 말하는 태도는 명백한 도발이었다.

근래 왕이 무언가 질서를 세우려 한다는 건 알지만, 이미 때가 늦었다. 가주들과 탑주들은 진흙 묻은 미꾸라지처럼 더러운 발악만 남기고 손아귀에서 빠져나갈 게 뻔했다.

무례한 빛의 눈동자가 왕을 훑자, 라엔이 몸을 움찔 떨었다. 다만 아고는 무감하게 그 시선을 넘겼다.

“그는…자기 손으로 기회를 버렸다.”

“…예?”

“…이번 축제를 위해 아무것도…하지 않겠다더군.”

기가 찬 아론은 헛웃음을 터트렸다. 블란샤가 탐욕에 눈이 멀었다는 건 진작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애새끼도 아니고 제 뜻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드러눕는 꼴이라니. 뭐가 중요한지 정말 모르는 건가.

“...”

아론은 왕에게로 초점을 돌렸다. 정말 변하려는 건가? 제 3탑은 제 7탑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왕이 그를 직접 찾아와 명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무엇보다 왕은 그에게 ‘부탁’을 하지 않았다. 오늘 당장 얼만큼의 인력을 뽑을 수 있는지 묻고, 축제에서 할 일이 있다고 일방적으로 말했을 뿐. 그건 아론의 머릿속 유약한 왕은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이었다.

아론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왕을 가만히 쳐다보았다.

“꼭 저여야만 합니까?”

아고는 여전히 무감한 눈빛이었지만, 아론은 그 방향이 조금도 꺾이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그건 조금 의외였다. 그의 생각 속에서 유약한 왕은 금세 시선을 돌려버리거나 아예 쳐다보지 않으리라 추측했으니까.

그래서 그는 팽팽하게 시선이 부딪히고 있다고, 혼자서만 생각했다.

과연 왕은 어떻게 나올까. 무례를 벌할까? 아니면 이전처럼 무시하고, 그에게 부탁을 할까. 혹은 명령을 할까.

“아니.”

“…예?”

“…거절한다면…받아들이겠다.”

“...받아들이시겠다고요?”

“기회를…준 것뿐.”

“…허.”

아론은 말을 잠시 잃었다. 파란 하늘을 바라보며 느꼈던 찜찜한 감정이 다시금 올라왔다.

그러나 더불어 자신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는 왕의 모습이 눈엣가시처럼 거슬렸다. 우스운 일이다. 왕이 한낱 탑주의 결정을 기다리다니...

역시 당신은 약해.

아론은 비웃음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다.

“제 3탑, 명을 받들겠습니다.”

시일은 빠르게 흘렀다.

왕의 ‘독재’에 반발한 파온디쉬아 가문과 블란샤 가문은 모든 업무에서 손을 놓으며 항의를 표했다. 언제부터 탑에게 왕의 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었는가. 다른 나라였다면 반역의 조짐으로 간주하여 목이 날아갔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곳은 카이사. ‘침묵하는 자’가 다스리는, 고요한 땅. 왕은 자신의 이명을 따라 여느 때처럼 입을 다물었다.

그렇다고 그가 이전처럼 맥없이 있던 것은 아니었다. (그 사실이 그림자들과 시옹 가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하리라.)

왕은 제 6탑과 제 7탑의 빈자리를 다른 탑으로 메꾸었다. 이미 예상하고 대안을 짜놓은 듯 신속하고 군더더기 없는 일처리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것은 훌륭한 방편이었다. 태만과 방종으로 얼룩진 이들이 꼼꼼하게 그린 밑그림을 망치지 못했으니 말이다. 되레 대체자들은 카이사의 첫 축제를 보다 완벽하게 만들었다.

꽤 놀라운 일이었다. 블란샤 가문과 파온디쉬아 가문은 왕의 절대적인 오른팔, 시옹 가문을 제외한 나머지 가문의 수장 격이었다. 그런 두 가문이 부재했음에도 원만하게 흘러갔다? 제 6탑과 제 7탑이 과연 존재해야만 하는 것인가, 자연스러운 의문으로 귀결되는 상황인 것이다. 그들의 영향력과 실체는 촛불에 비친 거대한 그림자일 뿐이었으며 텅 빈 채 썩은 고목이었음을 깨달을 수밖에.

결국 두 탑주들은 길길이 날뛰며 집무실을 부수고, 우스꽝스럽게 소리를 질렀다. 묻어둘 수도 없는 거한 망신이었다. 축제가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후회까지 얹어 두고두고 오만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었다.

상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가주들과 탑주들은 각 인물을 적재적소에 배치한 왕이 어느 정도의 안목을 갖추었는가 새로이 깨달았다. 즉, 지금껏 유약한 인형 내지는 무감한 조각상이라 생각했던 왕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쯤 되자 투시의 능력을 가진 왕의 그림자는 길길이 날뛰었다. 왕이 감히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이 우습고 구역질이 났기 때문이리라. 타이사는 추악한 면면들을 폭로하고 그들을 진창으로 끌어내리고 싶었으나… 정작 은색 눈동자는 잔잔했다. 그 역시 모든 것을 볼 수 있음에도 말이다.

왕은 그저 얼굴을 일그러뜨리는 타이사의 입을 닫게 하고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잔잔해 보이는 수면 아래 복잡한 이해관계들이 얼기설기 뒤엉키는 것을, 주인은 그저 고요하게 지켜볼 뿐이었다. 그는 나지막하게 한 마디만 남겼다.

모든 것엔…때가 있다.

타이사는 그 즉시 투덜거림을 멈추었다. 그리고 자신이 가만히 있길 원하는 왕의 뜻에 복종하기로 했다. 그때만큼은 타이사의 붉은 눈이 진중했으므로, 옆에 있던 나오미나 타이온조차 놀람을 감추지 못했다.

모든 게 변해가고 있었다. 왕은 물론, 그림자조차도.

왕가가 여러모로 소란스러운 반면에, 돌거인 아오그란시스가 발을 디딘 땅에서는 생동감과 활기가 가득 꽃피우며 때아닌 봄을 맞이하는 듯했다.

색색으로 뒤덮이는 땅에서는 귀 기울이지 않아도 북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건 꽤 낯선 풍경이었다. 다스리는 왕의 이명 때문인지, 음울한 회색빛에서 갓 잠에 깨어난 듯 적막만을 유지하던 카이사였으니 말이다.

그러므로 커다란 집무실에서 홀로 적막 속에 파묻힌 왕은 생각할 수 있었다. 결과가 어떻든 지금 이 순간들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으리라고. 그래서 그는 피곤한 눈매를 문지르다가도 곧 펜을 쥐고는 했다.

시간의 톱니바퀴는 왕의 자취를 따라 쉼 없이 움직여, 축제를 앞둔 마지막 밤까지 이르렀다.

“...후우.”

무거운 숨이 기이하게 부는 바람에 흩날렸다. 정리하지 않은 기다란 머리카락이 휘날리며 시야를 제멋대로 가로막았다.

그것이 꽤 성가실 텐데도 남자는 나부끼는 머리카락을 가만히 두었다. 어떤 개입도 하지 않은 채 막으면 막는 대로, 거슬리면 거슬리는 대로.

그래, 그것이 그의 평소 대응방식이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흘러가는 대로 가만히 두는 것. 그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숨죽여 그림자 속에 녹아있는 것.

그러나 ‘지금’도 그가 그러하냐고 묻는다면?

“...”

채도 낮은 눈동자는 가만히 하늘을 쳐다보았다. 남자가 앉아있는 곳은 카이사에서 가장 높은 곳이었다. 돌거인 아오그란시스의 손이 들어 올린 왕가의 땅에서도 가장 높은 곳, 본궁의 꼭대기 위였다. 하늘을 가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므로, 호수처럼 고요한 눈동자에는 남색 하늘이 가득 담길 수 있었다.

미약한 달빛마저 꺼멓게 먹어버리던 우중충한 하늘은 어디 가고,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서 달은 제 자태를 당당히 드러내고 있었다.

지금의 현실이 얼떨떨했다. 공중에 떠 있는 듯 기괴한 부유감이 가슴 언저리를 눌렀다. 혹은 누군가의 농간에 걸려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가 의심이 들기도 했다.

어두워진 눈으로 그는 하늘 너머를 투시했다. 당연한 일이었지만 쉐이파디아의 자취 한 자락도 찾을 수가 없었다.

먹빛 구름이 있을 땐 하늘을 잘 보지 않았다. 이유는 여럿이었지만, 굳이 하나로 축약해 말하자면…하늘 전체가 쉐이파디아가 그에게 짓는 ‘표정’인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숨이 막혔다. 단절과 끝없이 드리워진…침묵.

우스운 일이었지만, 정작 그의 다른 이름은 ‘침묵하는 자’였음에도 그는 침묵을 좋아하지 않았다.

“파더...”

쉐이파디아가 침묵함으로 그를 버렸으므로.

그는 덧없는 말을 삼켰다.

다시금 까맣게 절망하는 눈에는 구름 걷힌 하늘이 담겼다. 빛나는 구체에서 흐르는 빛이 분명 그의 눈에도 닿았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늘이 불편했다. 그에게 온통 쏟아질 것처럼 무한히 펼쳐졌으면서도 정작 손에 닿는 것 없는 허공뿐이므로. 쥐어지는 온기라곤 전혀 없으니 무(無)나 마찬가지 아닌가.

“앗!”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자 큰 몸이 움찔거렸다. 그의 귀에는 마냥 다급한 비명으로 들렸기 때문에, 그는 상체를 바짝 세우고는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과연 적막을 깬 주인공은 허우적거리는 모양새였다.

해가 지자, 리자는 잠이 오기는커녕 눈이 더 말똥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건 아마 카이사의 어린아이들 대다수에게도 해당하는 이야기일 것이다. 그녀는 결국 잠자는 것을 포기하기로 하고 잠깐 밖을 걷기로 했다.

그녀가 방을 나오자 나오미가 스르륵 그림자에서 나왔다. 리자는 무감한 표정의 그림자에게 소곤거렸다.

“잠깐 산책 좀 할게요.”

산책을 하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었지만, ‘내일’이라는 시간이 유달리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나오미도 마찬가지였다. 푸른 피부의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조용히 리자의 그림자에 녹아들었다.

리자는 조용히 달빛 아래로 걸어 나왔다.

본궁은 조용하고 검었다. 마치 아고의 그림자들이 가진 머리카락의 색만큼이나. 건물은 해가 진 하늘보다 더 검어서, 딱히 비추는 빛이 없어도 그 자체가 그림자처럼 보였다. 그래서 더 아고가 떠올랐다.

그녀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고, 하늘을 보았다. ‘축제’라는 무대를 가린 남색 커튼이 카이사 위를 덮고 있다. 머지않아 태양이 파란 등을 켜며 떠오르면, 카이사의 첫 축제가 적막했던 땅에 열릴 것이다.

아마 카이사에서 이 밤만큼 자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날은 없으리라. 굳이 타이사가 말해주지 않아도, 혹은 셰이가 언뜻 보여주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어떤 이들은 하늘을 향해 기도를 올리며 감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린 꼬마들은 리자처럼 잠에 들지 못했을 것이고, 그런 아이들의 눈을 감긴 어른들은 방 안을 빠져나오며 슬그머니 웃겠지. 부푼 가슴으로 내일 입을 옷과 악세사리를 힐끗거리는 이들도 있을 거고, 밤늦게까지 내일의 장사를 준비하는 사람, 축제 시설을 확인하거나 혹은 끝까지 서류를 검토하며 만전을 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 모든 사람이 그녀와 같은 시간에 머무르고 있다. 카이사라는 같은 공간에서 말이다.

카이사.

아고... ‘침묵하는 자’. 쉐이파디아가 직접 손으로 빚은, 위대한 최초의 왕이며 위카이사의 절대적인 왕.

리자는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지 상상해보았다. 설렘을 느끼고 있을까? 혹은 떨려서 그녀처럼 잠에 들지 못하고 있을까?

하늘을 보며 리자는 작게 바랐다.

무엇이 되었든 좋은 생각을 하고, 작더라도 분명한 기쁨에 젖어 있기를. 부정적인 감정에 침식되지 않았기를.

하얗고 둥근 달이 본궁의 꼭대기에 걸려 있었다. 리자는 가만히 완만한 곡선을 더듬으며 셰이를 생각하다가, 뭉툭하게 튀어나온 실루엣을 발견했다.

“앗!”

무슨 생각을 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반응했다. 아마 아고가 아닐까? 팔이 저절로 움직였다. 아고!

입을 벌려 부르기도 전에, 갑자기 앉아있던 사람이 사라졌다.

“어?”

정말 감쪽같이 사라졌다. 리자는 헛것을 보았나 싶어 잠시 얼떨떨하게 서 있었다.

졸려서 그런 걸까?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가서 잠을 자야겠다. 내일 축제를 제대로 즐겨야 하니까.

그녀가 딱 뒤돌자, 분명 혼자 걸어온 길에 사람이 서 있었다.

“?”

나오미와 타이사가 그림자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그런지 어느 정도 면역이 된 것 같다. 누군지는 몰라도 리자는 별달리 놀라지 않고 고개를 갸웃했다.

그는 그녀가 놀라는 기색이 없자 천천히 걸어왔다. 달빛에 얼굴이 드러나자, 리자는 달맞이꽃이 피는 것처럼 자연스레 웃음을 피워냈다.

“아고.”

달빛이 적보랏빛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렸다. 머리카락 사이에 빛나는 별처럼, 차분하지만 선명한 눈동자가 그녀를 응시했다. 그는 마치 달빛이 조명인 것처럼 완벽한 무대의 주인공으로 서 있었다. 다소 우스꽝스러운 묘사였지만 리자는 그렇게밖에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내일이 되면 그는 묘사가 아닌, 실제적인 주인공으로 서게 될 것이다. 그 사실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 기쁨으로 다가왔다. 그가 반짝반짝 빛나길 바랐다. 모두가 그의 진실한 본성을 알게 되고, 더는 상처를 주지 않기를. 그 자신조차도 더는 스스로에게 상처 입히지 않기를.

“…왜 지금…시간에...여기에 있지?”

리자는 잠시 답하는 것도 잊은 채 그 목소리에 취했다. 낮은 목소리는 달이 드리워진 밤에 너무 잘 어울렸다.

“…?”

아고가 답을 기다리며 가만히 있자 그녀는 곧 정신을 차리고 입을 열었다.

“아, 그게...잠이 잘 안 와서, 산책 좀 하고 있었어요.”

그러냐고 아고가 눈으로 응답했다. 그리고는 자연스레 리자의 옆에 섰다.

같이 산책을 하겠다는 뜻이겠지? 리자는 괜스레 얼굴을 붉히며 걸음을 떼었다.

본궁의 정원은 제법 잘 꾸며 있었다. 딱히 불을 밝히는 등은 없었지만 달빛이 밝았기 때문에 길들이 잘 보였다.

“아고는 뭐하고 있었어요?”

“…?”

“지금까지 안 자고 말이에요.”

힐끗 곁눈질하자 아고는 가만히 눈을 굴렸다. 무어라 답해야 할지 고민하는 기색이었다.

“...잠이…안 와서...”

부디 불안함 때문은 아니기를. 속으로 읊조린 리자는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아까 조금 놀랐어요. 본궁 위에 누가 있어서... 아마 아고일 거라고 예상은 했어요. 대체 꼭대기까지는 어떻게 간 거예요?”

“…”

그가 불쑥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덜컥 손을 잡았다.

막상 내민 것은 자신이었음에도, 아고는 온기가 닿자 몸을 움찔거렸다. 놀랐다기보다는 아마 습관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 그간의 아고를 관찰했기에 충분히 신빙성 있는 가설이었다.

깍지를 꼈다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아고의 손바닥 일부를 리자가 잡은 모양새였다. 아고는 어색한지 아니면 곤란한 건지 어쩔 줄 몰라하다가 결국 손가락을 움츠렸다. 즉, 그녀의 손을 덮어 제대로 잡았다는 것이다.

이거, 어째 아고의 의도가 손을 잡으란 뜻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리자는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로 했다.

“아고, 손 잡으라는 뜻 맞았어요?”

달빛 아래라 제대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얼굴에 부끄럼이 비치는 것 같다. 아고가 묵묵히 고개를 끄덕거렸다. 적어도 부정은 아니니 리자는 안심했다.

“아니, 너무 당황하는 것 같아서 제가 잘못 알아들은 줄 알았어요.”

“...몰라서...”

“네?”

“그렇게…꽉 잡을 줄…몰라서...”

예상 밖의 답이라 리자는 눈을 깜박거렸다. 그녀가 멍하니 있는 사이 아고는 그림자를 통과하여 금세 본궁 위로 올라왔다.

“어, 어, 잠깐…만요? 꺅!”

꼭대기는 원래 발을 디디기 위해 만든 구조가 아니라 경사가 몹시 가팔랐다. 리자가 휘청이자 아고는 본능적으로 잡은 손을 당겨 그녀를 품에 끌어안았다.

“후아…”

놀라서 헐떡이는 숨이 가까이에 있었다. 되레 놀란 아고를 눈치채지 못하고 리자는 자유로운 손으로 아고의 팔뚝 소매를 쥐었다. 다른 곳을 잡을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마땅히 그럴 만한 부분이 없었다.

엉겁결에 리자를 안은 아고는 허리를 곧추 세웠다. 귀 끝에 불이 붙은 사내는 그녀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했다. 넝쿨처럼 절박하게 붙잡힌 소매에 부끄러운 시선이 닿았다가 다시 아래로 떨어졌다.

“아고, 저 놓으면 안 돼요.”

리자가 가슴팍에서 웅얼거렸다. 말의 내용과는 다르게 불안함이라곤 전혀 없는 목소리였다. 실제로 그녀는 자신이 떨어지리라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애초에 카이사에 올 때 타이온을 타고 하늘을 날지 않았던가. 지붕이 가파르다고 하더라도 수직 절벽인 정도는 아니었으니까 어찌저찌 버틸 만했고, 그녀를 단단히 붙잡은 아고는 언제나 그러했듯 안정감을 주었다.

“…그래.”

그러나 설마 설마 설마 하는 상황까지 모조리 끄집어내서 고민하곤 하는 남자는 얼굴을 굳히며 진중하게 대답했다.

그는 경황없이 리자를 높은 곳에 데리고 온 스스로를 자책했다. 젖은 솜처럼 무거워지는 마음을 견디며,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자주 앉곤 하는 곳이 어디쯤이었는지 찾아야 했다. 사실 그림자로 이동해도 되는 일이었지만, 당황한 아고는 쉬이 떠올리지 못하고 허둥지둥거렸다.

“...움직인…다.”

“네.”

조심스럽게 몸이 움직였다. 사실 아고의 능력을 따지자면 전혀 걱정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지만, 그는 혹시나 하는, 만에 하나의 경우를 대비해야 했으므로 잔뜩 긴장했다. 그림자들이 대기하고 있으면 이만큼 걱정하지 않았겠지만, 무슨 일인지 그림자 전부가 응답이 전혀 없었다.

“…읏.”

움츠러든 발이 아주 잠깐 헛디뎠다. 작게 흔들린 것뿐이었는데, 눈이 휘둥그레진 아고는 신음을 흘렸다.

“아고?”

지레 놀란 리자가 힐끗 위를 보았다. 어지간히 긴장했는지 아고의 이마에 식은땀까지 맺혀있었다.

“…후우.”

그가 느리게 한숨을 내쉬었다.

최초의 왕인 그가, 여차하면 그림자가 그를 받아줄 텐데도 한없이 긴장해 있었다. 아마 리자 그녀가 다칠까 우려한 탓이리라. 그의 맹목적인 걱정에 마음 한구석이 간질거렸다. 동시에 검은 눈에 장난기가 어리기 시작했다.

아고에겐 정말 미안했지만... 그녀는 정말이지, 참을 수가 없었다. 결국 소매를 쥔 손이 꾸물꾸물 위로 올라갔다. 어느덧 어깨까지 올라갔지만 오직 리자의 안전에만 집중한 아고는 인지하지 못하는 듯했다.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자 리자는 슬쩍 웃었다.

그에겐 정말 미안했다. (음, 사실 진심으로 미안했다면 장난을 치지도 않았을 테지만.) 마지막 단계를 목전에 앞두고, 너무 놀라지는 않길 바라며 예의상 경고해주었다.

“아고, 잘 버텨요!”

“…?”

그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아고가 의문 어린 얼굴로 눈을 깜박였다. 마주친 눈으로 해맑은 웃음을 선사한 그녀는 폴짝, 뛰어올랐다. 그리고 그대로,

“!”

덥썩 그의 목을 끌어안았다.

“리자!”

몸이 크게 휘청거렸다. 시야가 반전되며 같이 떨어지는 듯했으나, 과연 그는 순간적으로 그림자를 통과하여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다.

리자의 허리를 안은 팔이 든든했다. 리자는 무릎을 꺾어 뒤로 다리를 들어 올리며 마치 어린아이처럼 웃음을 흘렸다. 온전히 아고에게 매달린 꼴이었다. 안전할 것을 알았으므로, 그의 능력을 믿었으므로.

그의 심장이 내려앉은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다. 안 미안한 건 아니지만, 즐거운 걸 어떻게 해.

아고는 그녀의 웃음 사이로 한숨을 흘려보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녀의 허리를 고쳐 안았다. 그래, 굉장히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다. 아마 자신도 모르게 나온 것일 터다. 기쁘게 웃으며 리자는 넓은 어깨에 턱을 댔다.

“...”

온전하게 한 사람의 온기가 쏟아진다. 피부로 느껴지는 친밀감이 몹시 낯설어 남자는 가만히 있었다. 그가 얼음처럼 굳어있자, 리자는 웃음기를 자제하며 입을 열었다.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미안해요.”

별다르게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사과였다. 아고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느리게 답했다.

“…위험…했다... 리자.”

머뭇거리긴 했지만, 마지막으로 이름을 부를 때엔 혼내는 기색이 담겨 있었다. 아고가 그런 말투를 쓸 줄이야. 내심 놀라면서도 리자는 배시시 웃으며 대꾸했다.

“거짓말. 아고가 있는데 뭐가 위험해요.”

예상 못한 답변의 내용에 은색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고, 거짓말쟁이.”

그는 살면서 누군가가 자신에게 어리광 또는 애교라고 부를 만한 것들을 부리는 걸 처음 경험했다. 물론 그가 순간적으로 리자를 귀엽게 느끼고 그것을 어리광 내지는 애교라 함부로 판단한 것일 수 있다.

뭐가 어떻든 간에… 무어라고 답해야 할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아고는 쩔쩔매다가 그냥 입을 다물었다.

그는 그저 그림자를 타고 꼭대기로 올라가자 생각했다. 리자가 궁금해 했으니까. 다만 방금 겪었던 아찔한 상황을 반복하고 싶진 않아서 신중하게 위치를 선정하여 이동했다.

“와아…”

여전히 아고의 어깨에 턱을 댄 상태로 리자는 탄성을 내뱉었다. 하늘이 터지는 것처럼 시야가 트였다.

리자가 편안하게 감상을 즐기는 것과 다르게 아고는 그녀를 내려줘야 할지 이대로 서 있어야 할지 치열하게 고민했다. 내려주자니 집중한 리자를 방해할까 걱정되었고, 이대로 서 있자니 제 목을 안은 리자의 팔이 아플까 염려되었다.

음...

맹렬하게 고민하던 아고는 결국 리자가 아플지도 모르니 그녀를 내려주자 마음먹었다. 놀랠 수도 있으니까, 일단 말은 해주고.

“리자.”

영민한 그녀는 이름 하나 불렀음에도 숨겨진 뜻을 읽었다.

“계속 이러고 싶은데... 안 돼요?”

아마 밤의 여운과 내일 있을 축제, 그냥 좋을 뿐인 아고 때문에 들뜬 것이리라. 리자가 셰이에게도 잘 부리지 않았던 어리광을 한껏 부리자, 아고는...

“아고?”

“...돼.”

홀린 것처럼 승낙하며 그녀의 몸을 그림자 덩어리로 받쳐주었다. 리자는 다시금 웃으며 카이사를 포근하게 덮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찬란하게 구석구석을 비추는 달, 적당히 무게감과 고요함을 갖춘 밤.

짙은 색채를 눈으로 더듬으며 그녀는 기이한 점을 발견했다.

“아고?”

“…?”

“카이사에는 별이 없네요.”

이토록 맑은 하늘인데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지 않을까 리자는 생각에 잠겼다. 먹구름이 가리고 있지 않다면, 별이란 무릇 어디에서든 볼 수 있는 것이었으니까.

“그러고 보니…그렇군.”

“네?”

“원래는...밤에도 구름이…꼈으니까…별이 없는 줄도...몰랐다.”

아고도 잘 모르는구나. 별이 꼭 있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위로 삼아 말하려다 그냥 입을 닫았다.

시간이 좀 지나자 아이처럼 안긴 제 처지가 슬슬 민망해졌다. 리자는 꾸물거리며 아고의 목을 놓아주었다. 그녀가 손을 풀자 아고는 조심스럽게 리자를 내려놓았다.

내일 축제가 열리기 때문인지, 아래는 밤인데도 밝았다. 소리까지 들을 수는 없었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활기와 설렘이 차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고, 축제가 시작되면 어디에 있을 거예요? 음. 왕이니까 왕가에 계속 있어야…겠죠? 아마...”

“…꼭 그래야 하는 건…아닌데.”

“정말요?”

“응.”

“그럼 같이 축제 구경할래요?”

리자는 조심스레 물어보며 고개를 돌렸다. 피부에 맞닿는 호흡은 느렸다. 동시에 기이할 정도로 불규칙했다.

“…”

“…”

그리고 거리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가까웠다.

꽉 맞물린 시선 그대로 그들은 제 앞의 존재에게, 상대방에게 오롯이 빠져들었다. 그건 마치 중력이 끌어당겨 한없이 아래로 추락하는 것처럼, 온 존재가 함락되는 듯한 경험이었다.

위로부터 달빛이 쏟아졌다. 속눈썹 아래 눈동자에 빛이 다다르자, 반짝반짝 빛이 나기 시작했다.

아, 별이 여기 있었구나.

그들은 경이로움에 사로잡혔다. 아름답다. 지극히 아름다웠다. 어떤 미사여구도 필요치 않고, 느끼는 감정 자체가 찬사 그 자체가 되었다.

사위는 침묵에 흠뻑 젖어 있었다. 잔잔하게 흘러내리는 빛. 그들은 카이사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다. 바람조차 불지 않는 하늘 속에서, 마치 세상 위 온전히 둘만 존재하는 것처럼.

몰입은 깊고, 시선은 태고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이어져 있었다. 그 무엇도 갈라낼 수 없으리란 기묘한 확신이 차올랐다. 구체적인 의미와 형태 없이 그저 온기만이 오고 가는데도, 그것만으로도 완전하고 충분했다.

그들은 잔잔히 생각했다.

…지금만큼 고요함이 기꺼운 적이 있던가?

혹은,

지금만큼 창조주 셰이에게 경애의 마음을 품은 적이 있던가?

“...응...”

그는 아주 뒤늦게 대답했다.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침묵이 깨지자, 숨조차 일치된 듯 하나였던 순간이 흐트러졌다. 아쉬웠지만 조급할 것은 전혀 없었다.

잠잠히 그들을 비춘 달빛이 반사되어 여러 곳으로 번지기 시작했다. 아직은 희미한 정도였지만, 그것은 내일의 환희를 예고하는 빛. 카이사의 구석구석 어디든지 비추고, 숨어있는 어둠을 모조리 몰아낼 빛이었다.

보라. 흉터조차 난도질당하던 왕에게 새살이 차오르며, 신의 선물은 자신의 이름을 완성하리라.

이미, 그러나 머지않아.

하얀색 지붕은 낡은 탓에 회색빛이 감돌았지만, 적어도 두 꼬마를 품어주는 데에 모자람이 없었다. 새근새근 숨소리가 퍼진다. 서늘한 밤공기를 막기 위해 두꺼운 커튼을 친 방. 애정이 담긴 꼼꼼한 손길이 군데군데 보였다. 냉기가 올라오는 바닥 위에 깔린 두툼한 러그, 벽틈과 창틈 사이마다 천이 덧대 있었다. 덕분에 포근한 온기가 가득한 곳에서 아이들은 몸을 동그랗게 만 채 깊은 잠에 빠져있었다.

끼익, 문이 조심스레 열렸다. 자는 모습은 천사들이야. 굵은 목소리가 자취를 남기며, 문은 열린 때만큼 조용하게 닫혔다.

곤히 잠들었던 아이들이 잠에서 깬 것은, 부엌에서 달궈진 주전자가 삐이익 울음소리를 낼 때였다.

“우으음...”

눈을 비비적거리며 커튼 너머를 바라보자, 여전히 칙칙했다. 아직 밤이구나. 금세 수마에 취하여, 눈 녹아내리듯 눈꺼풀이 닫혔다.

그러나 어젯밤 잠을 쉬이 들지 못하게 한 별똥별은 기막힌 타이밍에 가슴 속으로 떨어졌다. 섬광 같은 자취를 허투루 넘기지 않은 아이가 반짝 눈을 떴다.

“!”

어린아이라고 하더라도, 아니 오히려 어리기 때문에 온몸에 불과 같은 생기가 금세 차올랐다. 잠은 무슨, 구석구석 돋아나는 생기를 참지 못하고 작은 몸이 벌떡 일어났다. 폴짝 침대에서 뛰어내린 짧은 다리가 돌진했다.

“형?”

잠에 취해있던 다른 꼬마 역시 엉거주춤 몸을 일으켰다.

“어디 가?”

“빨리 와, 룬.”

“어디 가는데?”

“바보야, 오늘 축제잖아!”

축제! 그것은 마법과 같은 단어였다. 우당탕탕 침대에서 뛰어내려 돌진하는 발이 하나 더 늘었으니까.

창문에 매달린 두꺼운 커튼이 꾸물거렸다. 출렁이는 커튼 자락 밑에서부터 새싹처럼 쏙 쏙 동그란 고개 둘이 나왔다. 유리 너머로 전해지는 냉기가 제법 거셌다. 그러나 아이들의 얼굴에 빨갛게 홍조가 도는 것은 단순히 춥기 때문이 아니었다.

반짝거리는 눈동자에 남색 커튼이 가린 카이사의 하늘이 담겼다.

며칠 전 아빠가 신문에서 축제가 열릴 것이라고 읽어주었을 때부터, 둘은 손가락을 접어가며 축제 날이 다가오기만을 기다렸다. 엊저녁부터 이미 감정이 고양된 상태였던 터라 두 형제는 무얼 하지 않았음에도 벌써 신이 났다.

“형.”

“어.”

“지금이 축제야?”

“응. 근데 해가 떠야 해.”

어린 관중들의 기대에 따라 막이 걷혔다. 지우개처럼 쓱쓱, 하늘의 남색 색채가 지워지고 파아아 빛이 뿜어져 나왔다. 맑은 눈들이 태양의 모양처럼 동그래지기 시작했다.

“형, 태양이 폭발하나 봐.”

그렇지 않고서는 빛이 이렇게 ‘터질’ 수가 없을 테니까.

“어…축제라서 그런 건가?”

“그럼 진짜 폭발할 수도 있겠다...”

룬은 폭발 소리를 예상하며 작은 손으로 귀를 틀어막았다. 단은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하다가 결국 동생을 따라 귀를 막았다. 아이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터지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아이들은 실망하거나 당황하지 않았다. 이미 눈을 통해 들어오는 시각적 자극이 아이들의 감각을 흔들고 있었으므로.

태양이 세상과 세상이 맞물린 끝을 잡아 찢고 위로 날아오르고 있었다. 마치 빛의 갑옷을 입은 용사들이 진격하는 것 같아서, 작은 주먹에 힘이 들어갔다. 하얀 창에 내몰린 어둠은 너무나 허무하게 물러갔고, 눈을 깜박일 때마다 시시각각으로 하늘의 색이 밝아졌다.

아이들은 입을 벌린 채 가만히 있었다. 태양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찬란한 빛을 흩뿌렸다. 멍하니 태양의 뒤꽁무니를 쫓아가자 눈앞은 금세 새까매졌다. 어어, 왜 이러지? 작은 손이 검게 얼룩진 시야를 덮고 한동안 허우적거렸다.

“와, 폭발한 게 맞았나.”

“폭발한 걸 봐서 눈이 까매진 걸까?”

“몰라. 하마터면 눈이 멀뻔했다.”

“응, 정말로 그랬어.”

두 꼬마는 지금껏 빛이 이만큼이나 강력한지 알지 못했다. 둘은 진지한 얼굴로 얘기를 나누다가,

“룬, 단, 일어나서 밥 먹어!”

“네!”

아빠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몸을 일으켰다. 선명하게 찾아온, 축제의 아침이었다.

날이 밝자 사람들은 속속히 오른발 광장에 모였다. 대체 ‘조용하고 단조로운’ 카이사의 수식어는 언제부터 사라진 걸까. 몰려든 사람들은 화려한 천과 장신구로 한껏 뽐내며 화사한 봄을 연상시키고 있었다. 아이를 안고, 혹은 연인의 손을 잡고, 친구들과 한데 섞여 가지각색의 다양한 사람들이 축제의 아침을 장식했다.

작은 웃음들이 쉽게 터져 나왔다. 발갛게 상기된 얼굴들, 표정에는 티가 나지 않더라도 생동감 있는 눈빛들이 가득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음을 내딛는 노인들에게도 잔잔하나마 분명한 설렘들이 있었다.

축제는 과연 어떻게 시작될까? 옛 삶의 기억이나 상인의 입소문으로만 전해 들은 축제였으니 대부분이 알지 못하는 게 당연했다.

아침의 은은한 기운은 물러가고 하늘의 푸른빛이 곧 선명해지자 때에 맞춰 광장 기둥 아래 짙게 진 그림자가 출렁거렸다. 평평한 지면에서 사람이 불쑥 튀어나오자 주변에 자리를 잡고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소동을 일으켰다.

그러나 소란은 금세 진정됐다. 칠흑처럼 검은 머리카락과 적안은 카이사에서 오직 왕의 그림자만이 가질 수 있는 색이었으며, 그림자와 직결되어 떠오르는 ‘왕’의 존재는 카이사의 백성들에게 대개 뭉클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곤 했으니까.

“왕님의 그림자?”

왕의 그림자를 처음 보는 어린아이들은 눈을 초롱초롱 빛내며 다가왔다.

“뭐야.”

타이사는 심드렁하니 대꾸하면서도 고개를 꺾어 그를 올려보는 아이들과 일일이 시선을 맞춰주었다. ‘투시’의 타이사. 무엇이든 꿰뚫는 눈동자는 탑주들과 가주들 조차 꺼리는 것이었으나, 무지인지 순수인지 아이들은 말갛게 웃었다.

얼룩 하나 없는 감정. 왕의 그림자는 에 만족감을 느끼며 왕의 그림자는 하늘로 두 손을 뻗었다.

“뭐하는 거예요?”

타이사는 피식 웃으면서도 무시하지 않고 입을 열었다.

“축제를 시작할 거야.”

그의 손짓에 따라 사람들의 머리 위로 거대한 그늘이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광장의 사람들과 방금 광장에 도착한 사람들, 심지어는 멀리서 걸어오는 사람들조차 고개를 꺾어 하늘을 쳐다볼 만큼 압도적인 넓이였다.

“우와.”

곧이어 광장을 덮은 그림자는 거대한 유리가 되었다. 그것은 저 위, 돌거인의 손이 받든 왕가의 어딘가를 비추었다. 임무를 마친 타이사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그림자 속으로 스며들었다.

돌거인이 받든 왕가에는 카이사가 세워진 이래 공식적인 첫 연회가 열리고 있었다. 단정하게 깎인 풀밭 위로 조심스러운 발들이 옮겨졌다. 구색 갖추길 좋아하는 귀족들은 저들끼리 연회를 가졌으면서도 생경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이름만 정원일 뿐이지, 왕도 잘 거닐지 않아 최소한의 관리만 이뤄지던 한적한 공터는 놀라울 만큼 바뀌어 있었다. 마치 요정이 마술을 부린 것처럼 말이다. 그 비유대로 왕의 직명을 받들어 솜씨를 발휘한 것은 아랑드 가문이었다. ‘사라진’ 요정의 핏줄들.

요정으로 수식어를 대니 더욱 신비로움이 가중되는 느낌이다. 귀족들은 체면치레는 잠시 내려놓고 마음 편히 연회를 즐기기로 했고, 어린 핏줄들은 발을 디뎠을 때부터 감탄을 숨기지 못했다.

근사한 야외 연회장이었다. 나뭇잎마다 요정날개의 가루를 발라놓아, 파란 하늘 아래 잎 사이로 햇볕이 내리쬐면 은하수에 있는 것처럼 빛이 났다. 그늘에는 발광체를 넣은 투명한 구슬을 배치하여 마치 달 속을 거니는 듯 아스라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연회장 가운데에는 하얀 기둥을 일렬로 세우고 그 위로 하얀 천을 여러 겹 덧대어 마치 신전을 연상시키도록 연출했다. 축제가 쉐이파디아의 선택을 기리고 있음을 암시하는, 현명한 요정의 선택이었다.

열린 하늘 아래 은은하게 빛나는 흰 천, 그 아래길 사이로 걸어온다면 그들이 평소에 왕을 어떻게 생각했든 마땅히 고귀한 지배자라 찬탄할 수 있으리라.

“상당하네요.”

“그러게요. 첫 축제이니만큼 아무래도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겠죠.”

“과연 요정, 아랑드 가문의 안목이네요.”

“근데 참 신기한 일이죠? 시옹 가문에 맡겨질 줄 알았더니...”

“시옹 가문은 아무래도 행정 처리에 유능하니까, 축제 준비에 집중하게 하신 것 아니겠어요? 결과적으로는 왕께서 탁월한 선택을 하신 거죠.”

잔잔하게 대화들이 흘러갔다. 평소 저들끼리 있을 때의 분위기와는 다르게 왕에 대한 찬사가 여기저기 나왔다. 블란샤와 파온디쉬아의 가주들은 썩 좋은 표정이 아니었으나, 적어도 난동을 부리거나 대놓고 왕을 경시하는 소리를 뱉지는 못했다. 몸을 낮추어야 할 때임을, 어리석은 머리로도 잘 아는 탓이었다.

“흠...”

곧 안식을 바라볼 만큼 나이가 많은 마즈리 가문의 선대 가주는 흐려진 눈으로 아침 해가 뜬 하늘을 더듬었다. 그녀는 꿈을 꾸는 것처럼 감상을 읊었다.

“카이사의 하늘이 열리다니.”

혼잣말이라고 하더라도 노인의 명망은 제법 두터웠으므로 많은 이들이 귀를 기울였다.

“아직도 믿기지 않아. 카이사가 쉐이파디아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기실 선대의 선대의 선대로 거슬러 올라가 카이사의 시초부터 따진다 해도, 그들은 쉐이파디아의 선택을 받은 이례가 없었다. 번번이 빈손으로 돌아온 왕. 먹구름이 낀 회색빛 하늘과 태어나면서부터 자연히 배우게 되는 체념. 일곱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한들 그들의 나라는 버림받고 사라진 것들의 나라였다.

그러므로 새삼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곱씹을 수밖에 없다. 그들의 생애에 카이사 역사상 유례없던 선택이 일어났으니 말이다. 그들이, 카이사가, 왕이 그토록 염원했던 쉐이파디아의 선택.

“쉐이파디아님의 선물께서 곧 오시겠군.”

노인의 말을 시작으로 소리 없이 기대감이 번지기 시작했다. 알음알음 퍼져나간 입소문에 의하면 왕의 그림자들처럼 검은 머리카락을 가진 여인이라고 했다.

쉐이파디아께서 직접 허락하신 선물이라면, 왕이나 혹은 그림자들처럼 특별한 피조물일까?

기실 시옹 가문의 후계자, 라엔 시옹은 ‘파란 하늘’이 그분의 능력이라고 자랑스레 얘기했다. 과연 먹구름이 텁텁하게 내려앉았던 하늘이 파랗게 변한 것은 쉐이파디아의 영역임에 분명했다. 그 누가 구름을 제거할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구름이 빛덩어리로 부서져 눈처럼 내렸다. 누구도 그녀가 쉐이파디아의 선물임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그녀는 단지 파란 하늘을 카이사에 주고, 또 다른 능력은 발휘할 수 없는 것인가? 즉, 그녀의 영향력은 카이사가 선택을 받았다는 의의로 끝나는 것인가?

위험한 생각이 들끓는 중에 시의적절하게 검은 그림자가 하얀 기둥 사이로 뚜렷하게 지기 시작했다.

그림자는 그들의 왕을 상징하는 존재이자 분신, 동시에 일부이며 본질로서는 능력.

늑대 타이온이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냈다. 칠흑처럼 검은 털을 가진 거대한 늑대는 왕의 첫 번째 그림자로, 그림자 속에 거닐며 무형의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곤 했다. 과연 벌어진 입 사이 보이는 이빨들이 꽤 살벌해 보였다.

여러 번 당한 적 있는 블란샤 가주가 몸을 움칠거리는 사이, 낮게 가라앉아 흔들리는 꼬리 뒤로 나오미가 걸어 나왔다. 표정 없는 얼굴은 마치 인형처럼 보이는 데다가 파란 피부는 생경했다. 과연 왕의 그림자로 범접할 수 없는 분위기가 흘렀다.

두 번째 그림자까지 모습을 드러내자, 귀족들은 고고한 행렬이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왕을 기다렸다. 그러나 예상과 다르게 그림자 속에서 한 명이 더 모습을 드러냈다. 마치 사냥을 목전에 앞둔 짐승처럼 잔뜩 날 선 분위기를 풍기는 남자.

“타이사.”

선대부터 전해지는 입소문에 의하면, 그의 직설적인 혀를 왕이 꺼렸으므로 어지간하면 내놓지 않는다 했다. 그 말대로 세 번째 그림자는 회의를 제외한 때에는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가주와 탑주를 제외한 이 자리의 대다수가 타이사를 처음 볼 수밖에.

속을 낱낱이 파헤치는 새빨간 적안이 힐끗 움직였다. 타이온과 나오미 역시 붉은 눈동자를 가졌으나, 꿰뚫는 눈동자는 섬뜩한 느낌을 주었다.

“세 번째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은…”

그림자는 총 다섯. 타이온과 나오미, 타이사. 그리고 노아와 이름 모를 마지막 그림자. 네 번째는 수천 년 전 학살을 일으켜 봉인되었고, 다섯 번째는 저주에 가까운 힘을 가졌으므로 카이사가 세워지기 이전부터 격리되었다.

지금까지는 그러했다. 그러나 이미 절대 일어날 수 없을 것 같던 쉐이파디아의 선택이 일어났다. 이제 많은 것이 격변할 것이다.

우웅 우우웅 작은 진동이 땅을 울렸다.

가운데 기둥 위를 연결한 흰 천들이 아래로 떨어져 내리기 시작했다. 바람이 불었다.

눈을 부드럽게 스치는 손길에 사람들이 눈을 깜박거렸을 때, 왕은 그 길 위에 서 있었다. 쉐이파디아의 선택을 비로소 받게 된, 그들의 왕이 말이다.

숨죽인 침묵의 길 사이 고요하게 서 있는 왕. 지금 이 순간만큼은 누구도 그의 권위에 도전할 수 없으리라. 소문과 조롱 속에서 제멋대로 왕을 유추했던 이들도, 평소의 습관을 따라 표정을 굳히려던 이들도, 심지어는 왕을 대놓고 이죽거리던 이들도 전부 말을 잃었다.

왕은, 마치 쉐이파디아가 새로운 피조물을 지어 카이사의 왕이라고 내려보낸 것처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그들은 찬탄해야 마땅했다. 과연 쉐이파디아께서 직접 빚으셨노라. 전능한 창조주가 직접 손을 댄 존재에게는 가히 신성에 가까운 성질이 머물렀노라고.

너저분하게 얼굴을 가리던 와인색 머리카락을 하나로 묶고 그 위에 승리자의 관을 쓴 왕은 은색 자수가 수놓아진 검은색 복식을 입고 있었다. 회색과 은색의 중간 색채일 눈동자는 견고한 벽처럼 흔들림 없으며, 그런데도 생기가 흘렀다. 그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긴 상의의 끝자락이 나풀거리며 바닥의 그림자와 함께 자욱을 남겼다.

일부는 얼굴을 붉히며 탄성이 나오는 입을 가렸고, 몇몇은 당황하며 숨을 삼켰으며 나머지는 전부 말을 잃었다. 우습지만 시각적인 것만큼 사람을 쉬이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왕. 최초의 왕임에도 그 이름의 무게를 인정받지 못하던 왕이여.

그러나 분명한 지배자, 우리의 왕.

그 순간 타이사가 손을 까딱거렸다. 돌거인의 발아래, 오른발 광장에 집결해있던 카이사 백성들의 소리가 연결되었다. 기쁨과 환희가 얼룩진 환호성이 파도처럼 연회장을 덮쳐들었다.

카이사라는 이름 아래 하나의 목소리가 되어서, 범접할 수 없이 고귀한 왕을 향하여.

표정 없이 걸음을 옮기던 왕의 얼굴에 온기가 스며들었다. 찬사가 흡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카이사의 목소리가 하늘을 뚫을 것처럼 터진 것이 처음이었으므로.

카이사 아래 하나로 묶인 이들의 마음에 어떤 고양감이 차올랐다.

길의 끝에 다다른 왕은 묵묵하게 몸을 돌렸다.

그는 이전처럼 침묵하지도, 무감하지도 않았다. 새벽의 별처럼 은은하지만 무언가를 예고하는 빛이 단단해진 눈동자에 자리 잡고 있었다.

소리가 잦아들자 그는 의연하게 입을 열었다.

“카이사는…선택을 받았다.”

낮은 목소리는 선명하게 들렸다.

왕은, 분위기를 완전히 압도한 왕은 손을 내밀었다. 그것이 무얼 의미하는지 예상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설렘이 번져나갔다.

쉐이파디아의 선물. 쉐이파디아가 카이사를 선택했노라, 버리지 않았노라 증명해주는 상징. 이제는 카이사의 영광이 된 존재.

그림자도 없던 허공에서 불쑥 작은 손이 나왔다. 그것은 비틀어짐 없이 곧게 왕의 손을 맞잡았다.

자신도 모르게 입꼬리를 올린 왕이 미약하지만 확실하게 손을 당기자, ‘여인’이 나왔다.

그림자에 물든 것처럼 긴 머리카락이 검었다. 밤하늘처럼, 그러나 왕의 그림자가 가진 색채보다는 연하게. 참 기이하고 생경한 느낌의 여인이었다. 분명 어두운색인데도 그녀의 둥근 눈동자는 하늘을 연상시켰다. 검기만 한 눈이 먹구름 한 점 없는, 활짝 열린 카이사의 파란 하늘과 같았다.

“우와아아아아!”

“쉐이파디아께 영광을!”

누군가 한 명의 함성을 기점으로 왕에게 바쳤던 것과 동일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명백히 돌거인 아래, 광장에 모인 백성들의 것.

타이사가 만든 하늘의 창을 통해 카이사의 모두가 쉐이파디아의 선물을 눈으로 확인했다.

정작 연회장의 귀족들은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 서로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지극히 평범하지 않은가. 누군가가 중얼거린 소리는 엉겅퀴처럼 금세 불어나 분위기를 야금야금 삼켰다.

그래. 뛰어난 미색은 아니었다. 평범하고 별다른 것이 없어 보이는 외양이었다. 작은 체구와 온화한 분위기는 뱀 앞의 먹잇감처럼 물어뜯기기 참 쉬웠다.

타이사가 읽어내자, 하나로 이어진 타이온과 나오미의 눈이 뾰족해졌다.

왕은 그런 수군거림 속에서도 온전히 그녀에게만 집중했다. 아예 들리지 않는 것처럼, 혹은 그녀의 존재감이 너무 커서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못하는 것처럼.

“리자.”

그리고 하늘이 열린 것처럼, 왕이 웃었다.

먹구름이 갈라지고 푸른 빛이 내리쬔 것은 그의 웃음 앞에서는 비유이자 상징에 불과했다. 왕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애정만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아고.”

또한 리자, 쉐이파디아의 선물. 온전히 쏟아지는 햇빛처럼 오직 아고를 향해 웃는 그녀는 카이사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했다.